

성육신적 교회가 되기 위한 함께 노래 부르기

: 에픽(EPIC) 세대를 위한 창조적 예술교육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민경찬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0년 5월

Copyright © 2020 Kyoungchan Min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Singing Together to Become Incarnational Church

: Creative Arts Education for EPIC Generation

Kyoungchan Min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abandoning the premise of the old Christendom, entering into the culture of new era and restoring the truth of “Incarnational Church.” I proposed 'Singing Together' as a practical solution for change and restoration, I further discussed its validity in light of biblical, theological,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practical spectrums.

First, I took Michael Frost's "Incarnational Ecclesiology" and insisted that today's church should be ‘Incarnational’ like Jesus who came to the world and became a man. Following this, by accepting Leonard Sweet's EPIC theory, which explained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is era with four keywords; “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 Connection,” I used as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practice of “Singing Together.” Also, to encourage the work of contemporary Christian artists outside of the church as “Culture Makers,” I implemented the Christian Art Theory of Nicholas Walterstorff and Hans R. Rookmaker.

As the overall method of the study, by accepting Zoh, Byungho's “Tong methodology,” I cited scholars and artists working in general fields in addition to Christian scholars, and I would present “Singing Together” as an practice to become an ‘Incarnational Church’ with corporating “Theory and Practice”, “Intellect and Spirituality

and Emotion.” Furthermore, I demonstrated how the church can go into the world and serve through the concrete example of practicing “Sing Together” in the public domain of the local community such as public schools, regional child centers, government offices, and cultural foundations.

This study began with a small encounter with children who suffered without knowing the reason in a fragmented, excarnational, overly competitive and impersonal cultural flow. This meeting, started through “Sing Together,” led to new encounters with painful parents, teachers, and people who groan in various parts of society, and I could share the life and grace in the gospel through Singing Together and helped them recover. On the basis of these specific examples, I tried to prove that Singing Together could be a channel to become “Incarnational Church” in which help peopl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restore the values of “personality” and “human dignity” and “mutual respect” and “being together”

Through this paper, I hope the church turn their focus on the church itself to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in this era, visit and serve them in a more artistic and creative way, and reveal the truth of the “Incarnational Church.” I also anticipate this study would provide creative insight and encouragement to all the churches and saints who want to enter the world and live in the light and salt in spite of the difficult circumstances, especially Christian artists working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국문초록

성육신적 교회가 되기 위한 함께 노래 부르기

: 에픽(EPIC) 세대를 위한 창조적 예술교육

민경찬

서울, 한국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낡은 크리스텐덤의 전제를 버리고 이 시대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성육신적 교회의 진실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함께 노래 부르기’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철학적, 실천적으로 논증하고자 했다.

먼저, 마이클 프로스트의 “선교적 교회론”을 통해 오늘날의 교회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처럼 “성육신적”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서, 이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 관계(Connection)”의 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한 레너드 스윗의 에픽(EPIC)이론을 받아들여, 이를 ‘함께 노래 부르기’의 실천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또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문화 창조자”로서의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서, 니콜라스 윌터스토프와 한스 로크마커의 기독교적 예술론을 가져와서 사용했다.

전체적인 연구방식은 조병호의 “통(通) 방법론”을 받아들여 기독교학자 외에도 일반 영역에서 활동하는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함께 인용했고, ‘이론과 실천’, ‘부분과 전체’,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통합하여 성육신적 교회가 되기 위한 실천으로서의 ‘함께 노래 부르기’를 제시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학교, 지역아동센터, 관공서, 문화재단 등 지역사회 공적 영역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를 실천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 찾아가

섬길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본 연구는 파편화되고, 탈육신적이며,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비인격적인 문화적 흐름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고통받는 아이들과의 작은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 시작된 이 만남은 아파하는 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남모르게 신음하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졌고,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과 은혜를 나누며 그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함께 노래 부르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 안에 있는 ‘인격성’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상호존중’과 ‘함께함’의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도록 돕는 성육신적 교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논문을 통해 교회가 교회 자체에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돌려 고통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더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섬기며 ‘성육신적 교회’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특히 문화예술과 예술교육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에게 창조적 통찰력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감사의 글	xi
그림 목차	ix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7
연구의 방법과 범위	9
II. 성육신적 교회와 함께 노래 부르기	12
성육신적교회	15
탈육신 시대의 교회	18
인간폐지	22
접속의 시대와 성육신적 교회	33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교회, 경계에 핀 꽃	40
이중청취와 이중언어	46
문화예술과 인간회복	55
함께 노래 부르기	84
성경의 노래들	91
왜 ‘함께 노래 부르기’ 인가?	118
III. 에픽(EPIC)문화와 함께 노래 부르기	128
경험(Experience): 변화시키는 경험	130
참여(Participation): 수평사회와 참여의 시대	140
이미지(Image): 하나님의 형상과 상상력	148

관계(Connection): 인격성의 회복과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	163
IV. 성육신적 교회가 되기 위한 함께 노래 부르기	188
매체가 곧 메시지다	188
노래 다시 부르기	191
동요 부르기를 통한 에픽(EPIC)의 실천	207
세상 언어로 복음을 담아낸 노래	224
씨앗의 꿈.....	235
V. 에픽(EPIC)적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한 성육신적 교회의 실천	245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247
예술교육현장으로 찾아간 교회	261
공공 영역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312
문화예술로 담아내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336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342
VI. 결론	346
요약	346
교회를 위한 제언	351
부록	355
참고문헌	459

그림 목차

<그림1> 무지개합창단’ 해설, 동요음반 ‘씨앗의 꿈’ 가사집 중에서	174
<그림2> 세월호 기억문화제에서 다같이 ‘걱정말아요 그대’ 를 부르는 장면 ...	195
<그림3> 고향의 봄을 부르는 도봉시스터즈	211
<그림4> 합창발표회 시간에 ‘새싹들이다’ 를 부르고 있는 도봉초 학생들	213
<그림5> ‘봄비’ 가사와 해설, 동요음반 ‘씨앗의 꿈’ 가사집 중에서	227
<그림6> ‘거저래’ 가사와 해설, 동요음반 ‘씨앗의 꿈’ 가사집 중에서	231
<그림7> 일산은행초등학교 무지개합창단 연습시간	268
<그림8> 일산은행초등학교 고양시 합창제 참가	272
<그림9> 마을축제에서 노래하는 소.나.무합창단	273
<그림10> 소.나.무합창단의 신나는 점프	275
<그림11> 소.나.무합창단 화음 캠프	276
<그림12> 소.나.무합창단 정기연주회	278
<그림13> 강북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문화제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279
<그림14> 일산호수초등학교 방문 수업	282
<그림15> 학생들이 그려준 본 연구자의 수업 모습	285
<그림16> 서울삼각산초등학교 합창발표회 연합합창	287
<그림17> 서울삼각산초등학교 합창발표회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289
<그림18> 서울삼각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내 준 편지들	291
<그림19> 중현초등학교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	294
<그림20>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함께 노래 부르기 시간	297

<그림21> 도봉시스터즈 모임 및 공연	302
<그림22> 브라보 마이 라이프 모임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304
<그림23> 강북문화제에서 공연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306
<그림24> 섬마을 인생학교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310
<그림25>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 공연 소개	316
<그림26>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 공연 모습	318
<그림27> 세월호 5주기 기억문화제 프로젝트합창단 연습장면	320
<그림28> 기억문화제 <그곳에서 울지마오> 공연	322
<그림29> 역사문화콘서트 <씨알의 소리> 공연 1	325
<그림30> 역사문화콘서트 <씨알의 소리> 공연 2	327
<그림31> 강북문화제 <손에 손잡고> 연합합창	328
<그림32> 예그리나 오케스트라의 찾아가는 공연	330
<그림33> 예그리나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역 합창단들과 연합공연	332
<그림34> ‘씨알의 꿈’ 음반 발매 공연	333
<그림35> ‘숨은 그린 찾기’ 크리스마스 공연	334
<그림36>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행사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335

감사의 글

돌아보니 감사한 것뿐이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농촌에서 산과 들로 다니며 신나게 놀게 하신 것, 신발이 닳도록 이 동네 저 동네로 찾아다니며 마을 전체를 교회로 만들어 세계선교의 모관이 되자고 외치시던 농촌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신 것,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돕는 것을 평생의 기쁨으로 여기셨던 어머니를 통해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신 것, 음악을 좋아하여 학창 시절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노래하게 하신 것, 대학 시절 조병호 목사님을 만나 성경을 깊이 배우게 하시고 함께 시골 마을로 들어가 기타 들고 뛰어나다니며 함께 노래하게 하신 것, 음악을 전공하고 합창단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함께 노래 부르기의 즐거움을 알게 하신 것, 농촌교회, 군인교회, 대형교회, 중형교회, 작은 교회, 가정교회 등을 두루 경험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신 것, 세필교회를 만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과 인문학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 교회의 문턱을 넘어 세상 속에 들어가 노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함께 부를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노래를 좋아하는 자녀를 주셔서 함께 노래하며 ‘씨앗의 꿈’ 음반을 만들게 하신 것,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 교사들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시대의 아픔을 깊이 보게 하신 것,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예비해 주시고 과분한 섬김을 받게 하신 것, 좋은 음악친구들을 보내 주셔서 함께 곳곳을 다니며 즐겁게 연주할 수 있게 하신 것, 소나무합창단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역의 여러 곳을 다니며 함께 노래하게 하신 것, 문화재단과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노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세상 한 복판에서 성육신적 교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다른 길로 갔을 저를 붙잡아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긍휼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을 신뢰해 주시며 함께 노래해 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 계셔서 이 논문이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안의 가능성을 보시고 복음과 함께 ‘경계’ 로 나아가는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용기 내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병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이 시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 과 ‘받음 직한 섬김’ 이 무엇인지 온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삶의 걸음과 마음이 담긴 저의 동요음반 ‘씨앗의 꿈’ 을 가치 있게 봐주시고, ‘함께 노래 부르기’ 라는 주제로 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어려운 순간 마다 붙잡아 주시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신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논문을 끝까지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키보드 소리로 새벽잠을 깨우시며 잠자던 상상력을 깨워 주시고,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성경과 시대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교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창조적 상상력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사역과 삶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어머니, 어찌면 이 논문을 가장 기뻐하셨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빠의 노래의 내용이 되어 줄 뿐 아니라 함께 그 노래를 부르며 아빠의 걸음에 동행해 주는 사랑하는 가은, 지후, 서현, 관홍 네 남매, 그리고 어려운 시절 한결같이 곁을 지키며 깊은 신뢰로 함께 해 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0년 3월

민 경 찬

제 I 장

서 론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자는 한 지역문화재단의 콘서트에 음악감독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의 연주자들과 함께 프로젝트 밴드를 결성한 일이 있다. 그때 밴드 메인 구성원들은 이러했다. 아버지와 형이 목사이고 오랫동안 기독교 공동체의 헌신된 일원으로 함께 했으나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목사의 아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치르기 전에 멈추어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전직 신학생, 그리고 군목이 되기 위해 일찍 목사가 되었으나 교회에서 상처 받고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전직 목사, 그리고 현직 목사인 본 연구자. 네 사람 모두 교회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본 연구자를 제외한 세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세 사람 모두 여전히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관심이 많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교회나 오늘날의 주류 기독교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사실 그리스도인 예술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부모교육이나 평생교육, 혹은 사회의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여러 모임에 나가 인문학 강의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 그때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소위 ‘가나안성도’가 찾아와 자신이 이전에 교회에

다녔다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지금 한국 땅의 수많은 젊은 크리스천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의미 있는 뭔가를 찾아 ‘교회 밖’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여러 콘서트에서 총감독이나 연주자로서 참여할 때, 무대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 연구자가 목사인 것을 알고 자신이 이전에 교회를 다녔음을 나누어 주는 예술가들을 만난다. 또한 현재 교회에서 음악 사역을 하고 있지만, 찬양팀이나 연주팀에서의 사역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사역을 그만둘 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역자들도 만난다. 그들 중에는 결국 사역을 멈추거나 다른 교회로 옮긴 사람들도 있다. 교회를 옮긴 뒤, 조용히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예술가들도 많다.

이전 시대, 교회는 수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모판 같은 곳이었다. 실제로 현재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배출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특히 젊은 예술가들일수록 떠나는 비율이 높아진다. 교회에서 음악사역을 하면서 교회 중심부로 들어갔다가 깊이 상처를 받고 떠나는 예술가도 많다. 그래도 신앙을 버릴 수 없어서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출석하는 것이다. 그들이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 예술가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거나, 그리스도인 예술가로서의 세상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 주고, 그 삶과 사역에 대해 지지와 응원을 받는 일은 드물다. 다만 교회 안에서의 음악 사역에 더 깊이 헌신할 것을 요구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그들이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은 교회 전체의 분위기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여전히 교회의 관심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는’¹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람들을 ‘전도’ 하여 교회 건물을 채우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만이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아직도 많다. 이러한 교회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영혼구원’ 과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다. 그러나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다.”²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구속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교회는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 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러한 삶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 특히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에게 그들의 예술가로서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 알려 주고, 그들이 교회 ‘밖’ 즉,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술가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술가로 사는 삶과 그 소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 주며 격려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어진 개혁신학은 모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자신의 직업 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담겨 있음을 말해왔지만,

¹ 마이클 프로스트, 엘런 허쉬, *새로운 교회가 온다*, 지성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33.

² 폴 마샬,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김재영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0), 26.

실제 교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회로 ‘끌어모으는’ 사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는 이러한 ‘끌어모으기’ 식 선교는 중세와 근대에 주류를 이루었던 기독교제국, 즉 ‘크리스텐덤(Christendom)’의 ‘실패한 시스템’³이라 말한다. 그러면서 ‘낡은 크리스텐덤의 전제’를 버리고 초대교회부터 이어오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담아낸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다.⁴ 하나님의 선교는 메시아가 하신 일을 통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역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 두 저자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과 그 방향을 담아낸 선교적 교회를 ‘성육신적 교회’라 부르는데, 이러한 ‘성육신적 교회’야말로 세상과 단절되어 가는 현대의 교회가 나타내야 할 교회의 참모습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끌어모으는데’ 힘을 쏟느라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를 잊어버렸다.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고, 세상과 단절된 채로 너무 오랜 세월을 보냈다. 다시 세상에 손을 내밀어 보지만, 세상은 너무나 다른 문화 속에서 전혀 다른 언어를 쓰면서 지내고 있다. 파편화되고 다원화된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계문명과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여 더욱더 ‘탈육신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보편적 진리’를 거부하고, 인격성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³ 프로스트, *새로운 교회가 온다*, 33.

⁴ Ibid., 45.

땅을 기경하라’ 고 선포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 복음을 담은 케리그마를 온전히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삶의 자리 깊숙이 찾아 들어가

‘문화’ 라고 부르는 마음 받을 기경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어떻게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 받을 기경할 것인가? 이를 위해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 그중에서도 ‘함께 노래 부르기’ 이다.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문화예술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참모습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많은 요소를 담고 있다. 물론 우리는 문화예술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도록 도울 수 있으며,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파편화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서 회복된 관계는 사람의 ‘인격성의 회복’ 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인격성을 회복하는 과정은 좋은 씨앗을 위해 좋은 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함께 노래 부르기’ 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 는 단지 ‘전도를 위한 도구’ 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도구’ 이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으로

‘존재’ 하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에 존재하며 힘써 그 구속받은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피조물 전체를 구속하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 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구속받은 교회의

성도들, 특히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긴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한 한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철학적, 실천적 관점에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이를 위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나눌 것이다. 본 논고에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위치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그들이 바로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는 더욱 강력하고 치밀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항하는 하나님 편에 선 예술가들의 세상 속 활동을 응원하는 일은 미미하다. 교회는 구속받은 예술가들이 세상 속에서 ‘문화 창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진 창조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할지 알려 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와 중보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문화예술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도 ‘함께 노래 부르기’를 선택한 이유는 이 안에 레너드 스윗 박사가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부른 에픽(EPIC) 즉,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 관계(Connection)’의 네 가지 요소가 다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는 사람이 받기 힘든 형태라면 외면받기 쉽다. 그런 의미에서 에픽(EPIC)의 요소를 고루 담고 있는 ‘함께 노래 부르기’는 이 시대의 사람들 속으로 찾아가 생명을 흘러가게 하기 원하는 성육신적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다. 본 연구자는 이 논고를 이론이나 개념만이 아니라, 실제 공공의 영역에서 있었던 실천의 현장을 통해 논증하고자 했고, 그리스도인 예술가들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복음의 핵심은 모든 문화와 시대에 유효하지만, 그 복음이 소통되고

이해되기 위해서는 특정형태의 옷을 입어야 한다.⁵ 복음의 본질을 더욱 견고히 지키되 교회가 입고 있었던 이전 시대의 옷은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 21세기에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다닐 수는 없다. 혹시 전통적인 옷을 입더라도, 지금 시대에 맞게 개량한 것이어야 한다. 이전 시대에 입었던 옷을 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어떻게 하면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성장시킬까’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이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전 시대의 교회, 즉 사람들을 특정 장소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크리스텐덤 방식의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이 논문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며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성육신적 삶을 살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 특히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에게는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백성인 성도들이 제국의 논리,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천국소망을 가진 백성의 진실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⁵ 프로스트, *새로운 교회가 온다*, 157.

답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⁶에 대해 묻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과 천국 복음에 대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도 교회가 계속해 나아가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목적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성육신적 교회’로 준비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 밭에 비유하자면 딱딱하게 굳어 버린 땅과 같다. 씨를 뿌리려면 먼저 굳은 땅부터 갈아엎어야 한다. 박힌 돌도 꺼내고, 물도 주며 거름도 줘야 한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기경되어 있지 않으면 씨는 말라 죽거나 새에게 먹힐 것이다. 본 연구자가 이 논문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다. 그 씨앗이 떨어질 사람들의 마음 밭을 기경하도록 돕는 것이다. 특히 문화를 만들어가는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을 돕고자 한다. 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담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가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생명의 진실’을 창조적으로 나타내며, 문화예술로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예술이라는 선물 통해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한 영혼을 ‘찾아가서’ 겸손히 섬기고자할 때, 주님의 교회는 복음의 씨를 뿌릴 만한 좋은 밭을 얻게 될 것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그 섬김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 안에 담긴 에픽(EPIC)의 요소(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⁶ 베드로전서 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들에 도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음악이라는 예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인 예로서 ‘성육신적 교회’를 강조한 마이클 프로스트의 기독교론과 교회론의 도움으로 시작되었다. 이 신학의 실천을 위해 먼저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연결하여 살펴본 후, 레너드 스윗 박사의 ‘에픽(EPIC)이론’의 도움을 받아 포스트모던과 인공지능 시대의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하나로 ‘함께 노래 부르기’를 제시할 것이다. ‘인격성’의 회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르틴 부버, 에리히 프롬, 폴 트루니에 같은 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세상에 들어가 ‘성육신적 교회’를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니콜라스 월터스코프와 한스 로크마커의 기독교적 예술론을 가져와서 ‘함께 노래 부르기’와 ‘문화예술사역’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전체적인 연구의 방식은 조병호의 ‘통(通) 방법론’을 받아들여 기독교 학자들 외에 일반 영역에서 활동하는 학자들과 예술가들의 말도 함께 인용했고, ‘이론과 실천’, ‘부분과 전체’,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통합하여 성육신적 교회의 실천으로서의 ‘함께 노래 부르기’의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교회와 세상, 과거와 현재, 세대와 세대, 신자와 비신자, 자연과 은총, 일반학문과 예술 등 이분법적으로 따로 나누어 연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개혁신학을 기초로 하여 전체를 통(通)으로 바라보고 연구하고자 했다.

그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동시에

시와 노래, 이야기와 같은 예술 작품들을 예로 들면서 ‘감성에 이성을 접목시키는 방식’⁷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 전반을 지지하며 다른 모든 예술분야를 함께 접목시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음악’, 특히 ‘함께 노래 부르기’를 중심으로 기술해 갈 것이다.

‘합창’이라는 말 대신에 ‘함께 노래 부르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합창’이라는 단어 속에 ‘전문적인 음악’이라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사람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회 안에는 ‘회중찬송’의 전통이 있어서 함께 노래 부르는 교회에 이미 익숙한 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하신 소중한 전통이다. 이러한 교회 안의 음악을 위한 여러 방면의 연구와 노력이 있지만, 이 논문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회중찬송이라는 좋은 전통을 교회 밖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연구하며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과편화된 이 사회를 어떻게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음악과 여러 가지 예술로 교회를 섬기고 일은 여전히 귀하고 소중하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한 중요하다. 본 논문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성도인 예술가들이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할지, 그 신학적인 배경과 더불어 찾아가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할

⁷ “이성과 감정은 체험을 구성하는 동등한 두 요소다. 경험이 긍정적인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그 경험을 다룰 것이다. 신앙체험이란 지각 및 오감을 활용하여 수용한 내용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체험을 할 수 없다. 이성과 경험의 두 전통을 통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류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76.

것이다. 끝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일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기에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진행 중인 사역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지역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선교사역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제안할 것이다. 이 논문은 본 연구자가 교회 안의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술가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 주신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고자 분투해왔던 걸음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임을 밝혀둔다.

제 II 장

성육신적 교회와 함께 노래 부르기

하나님의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면서’ 시작된다. 말씀으로 사람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때가 차고 기약이 되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그 시대의 시간과 공간에 거하시며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겸손 가운데 인간의 모든 조건, 심지어 그 한계와 갈등과 의심까지 취하셨다.’⁸(빌2:6-8; 히5:7-8) 하나님과 본체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어 사람들과 당신을 같게 여기시며 ‘동일시(identification)’⁹하셨고, 그들이 사는 ‘공간’에 거하시며 함께 사셨다.-지역성(locality)- 더 나아가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한 모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으며, ‘함께 거하시는 초월자(the Beyond-in-the-midst)’¹⁰로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류와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만남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제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중 하나가 되셨다.’¹¹ 예수님의 성육신의 절정은 ‘인간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the Human image of God,

⁸ 프로스트, *새로운 교회가 온다*, 77.

⁹ “성육신은 전체 인류와의 심오한 동일시의 행동을 포함한다. 매체가 곧 메시지다.” Ibid., 76.

¹⁰ Ibid., 77.

¹¹ Ibid.

골1:15)¹² 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된 교회는 필연적으로 ‘성육신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적’ 삶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는 그들의 공동저서 <새로운 교회가 온다>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육신적 교회’의 극명한 차이를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준다. 이들은 그 차이의 기원을

‘크리스텐덤(기독교제국)’에서 찾는다. ‘크리스텐덤(Christendom)’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AD 313년 이후 있었던 이전 교회의 형태를 말하는데, 이 ‘크리스텐덤’은 중세시대에서 끝나지 않고, ‘20세기 말까지 적어도 11세기 동안 유럽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적 문화를 일컫는 말’¹³이기도 하다.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서구교회가 취해 왔던 이 ‘크리스텐덤’ 방식은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려 했던 ‘로마 제국’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던 시대의 로마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초대황제로서 로마의 평화, 즉 ‘팍스로마나’의 제국을 만들었지만, 그가 만든 평화는 힘으로 눌러서 만든 가짜 평화였다. 참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평화이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으로 대표되는 그 평화는 예수님이 취하신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늘의 평화다. 하지만 기독교제국(크리스텐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취하셨던 ‘십자가’ 대신에 ‘예수님이 금하신

¹²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Ibid., 78.

¹³ Ibid., 26.

칼'¹⁴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려 했다. 이 방식은 자신을 낮추고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방식일 수 없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믿는다면, 진리이신 그분이 취한 방식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방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군’ 이 아니라, ‘십자가’ 이다. <무례한 기독교>를 통해 ‘제국주의적 제자도’¹⁵와 ‘기독교 승리주의’가 가진 한계와 위험을 경고한 리처드 마우의 말대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은 십자가의 약함과 취약성 안에서 드러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구 유럽의 제국주의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의 결과를 보장하셨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¹⁶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따르는 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취해야 할 방식 또한 진리의 방식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신앙, 다른 신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살롬-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방식이며, ‘성육신적 교회’로 나아가자 하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 그러하셨듯이

¹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26:52).

¹⁵ 리처드 무어, *무례한 기독교*,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4), 196.

¹⁶ Ibid., 201.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함께하기 위한 작은 방편이다. 우리가 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는 한 방식이다. 우리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윈주의 문화와 기계문명으로 인하여 인격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 안에는 극단적인 상대주의와 세계화된 소비주의, 4차 산업혁명과 기계문명으로 인한 비인격화가 팽배한 현대 세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형편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다름과 한계까지 끌어안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방법이 담겨 있다. 또한 분열과 혐오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부딪치는 파편화된 현대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실천 방안이 담겨 있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신학 실천을 위한 작은 방편이다.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화음을 이루며 기쁨 가운데서 하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기꺼이 섬기고자 할 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성육신적 교회

예수님은 영혼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오셨다. 마음만 오신 것도 아니고, 개념이나 의미로 오신 것도 아니다. 사람의 흉내를 내신 것도 아니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 것도 아니다.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 또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으시고, ‘인자’, 즉 ‘사람의 아들’ 로 오셨다. 누군가의 ‘아들’ 로 오셔서 부모님과 ‘관계’ 하셨고, 그 관계를 통하여 ‘사람다운 사람’ 으로 자라나셨다. 이를 두고 프로스트와 허쉬는 이렇게 표현한다.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 예수님은 그런 관계적 만남을 가지셔야 했고, 인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그런 관계들을 계속 지켜가셔야 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인성이란 가짜이며 공상의 이야기다. 더불어 예수님 안에 육체로 거한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의 마음속에만 비밀스럽게 간혀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생명은 예수님의 중심이 되고 그의 동료들에게 연결되어 확장되는 인격적 존재의 복합체가 되었다.¹⁷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관계하셨고,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과 관계하셨으며,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와 관계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셔서 같은 공간을 거니시며 동시대의 문화 속에서 ‘사람’ 으로 함께 사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참 사람’ 이 어떤 존재인지 그 말씀과 온 삶으로 친히 보여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관계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프로스트와 허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따르는 ‘성육신적 교회’ 에 대해 이렇게 정리한다.¹⁸

첫째, 성육신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의미와 역사 감각을 제공하는 고유한 문화적 틀을 해치지 않고 복음이 진짜로 그들의 것이 될 수 있게 하는 선교적 수단을 제공해 준다. 데이비드 보쉬의 말처럼 “기독교 신앙은 원래 성육신적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자신이 처한 상황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¹⁷ 프로스트, *새로운 교회가 온다*, 77.

¹⁸ Ibid., 79-85.

둘째, 성육신적 선교는 어떤 그룹에 다가가고자 할 때 복음의 진리 자체를 타협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그들과 동일시(identify)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육신적으로 사람들과 동화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적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들의 관점, 그들의 슬픔과 그 이유, 그들의 현실의 삶을 이해하고자 애써야 하며,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동일시하신 행위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선교의 사명을 성육신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때 가장 큰 위험은 ‘문화적 제국주의’다. 이런 형태의 제국주의는 그 자체로 죄악인데 많은 나라에서 서구 선교사들이 선불리 그들의 문화로 표현된 복음을 심고 이를 강요하는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성육신적 선교는 한 그룹의 사람들 가운데서 현실적이고 영속적으로 성육신적 동참을 실천하는 것이다. 거기에 살지 않고 그 문화적 다름, 그들의 삶, 그 지역성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공동체의 유기적인 삶의 일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웃 속으로 들어가셔서 외부인이 아닌 내부자로서 그들의 삶과 리듬과 그 사람들을 경험하셨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나누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전적으로 그들과 동일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상황과 관련한 선교적 자세의 측면에서 성육신적 선교는 데려오기보다 보내는 추진력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선교사이시다. 그분은 아들을 우리의 삶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보내셨다. 그러나 서구의 대다수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가 새천년 시대의 진실한 증인들이 되려면 이런 상황이 반드시 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육신적 선교란 복음을 성육신적인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의미체계)와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 복잡하고 세분된 서구 상황에서, 현존하는 수천 가지 하부 문화 속에 복음을 구체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들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과 하부 문화가 자신의 문화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할 때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말한 ‘성육신적 선교’의 다섯 가지 요소들을 종합하면,

‘그들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로서 그들의 삶의 리듬 가운데 거하며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교회의 선교의 어려움이 시작된다.

탈육신 시대의 교회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 시공간 안으로 들어와 사람이 되셨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체가 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일1:1-2)

하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준다. 이 성육신 사건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모든 부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함’ 을 보여준다. 김명실은 “현대 성례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는 ‘몸’ 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¹⁹고 말하면서 “인간은 몸이라는 것, 즉 눈에서 인지할 수 있는 체계들을 통해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이 몸이라는 가시적 형태를 띠고 우리를 만나신다”²⁰고 했다. 이어서 “가장 영적인 것은 언제나 가장 육체적인 것에서 일어난다”²¹고 주장한 성례신학자 루이스-마리 쇼베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은 우리의 몸, 즉 삶의 현장임’ 을 강조한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 으로 나타나심으로 ‘몸’ 과 ‘삶’ 의 중요성을 친히 보여 주신 사건이다.

¹⁹ 김명실, “기독교 성찬성례의 사회 윤리적 책임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91집, 2014), 275.

²⁰ Ibid., 275.

²¹ Ibid.

그러나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와 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었고, 우리의 육체를 악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영지주의의 망령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에 다시 등장했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독교 내의 풍토에 대해 프로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의 극단적 이원론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한다. 곧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혹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우리의 영혼은 성스러운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세속적이거나 기껏해야 영적으로 중립적인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범주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수의 그리스도인은 실질적으로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이다. 많은 설교자가 이러한 세계관을 강조한다. 그들은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훨씬 중요하게 간주하고,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며, 교인들에게 육체적 경험을 충실하게 참아내는 법을 가르치는 것에 주로 관심을 두면서 교회의 선교를 조장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소위 육체의 삶보다 영혼의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²²

이렇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의 바탕에서 ‘탈육신적’ 사고방식이 전개된다.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까지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이고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반영된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바뀌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영혼(정신)을 빼내서 다른 육체에 집어넣기도 한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모든 분위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탈육신적 시대’임을 증언한다. 이러한 탈육신적 현상은 ‘인터넷 세상’을 통해 급속하게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만나는 것보다 인터넷 세상을 통해

²² 마이클 프로스트, *성육신적 교회*, 최형근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59.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의 실제 모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느끼는 느낌이나 경험보다 스크린과 인터넷 세상에서 느끼는 경험을 더 소중히 여긴다. 이들에게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그가 전해 준 이 땅에 임하시는 천국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프로스트도 그의 책 <성육신적 교회>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현재 한국에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고 있는데...(중략)...그들은 온라인에 집착하는 삶을 살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온라인에서 활동합니다. 출퇴근길에도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관심이 거의 없고 말이죠.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선교적 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²³

프로스트가 다시 말한다. “우리는 뿌리 없고 단절된 감정을 서로에게 남기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기보다는 점점 더 스크린을 통해 연결된 피상적인 세계에서 유랑하고 있다”²⁴고. 몸을 움직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기보다는 인터넷과 스크린을 통해 한 것을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한 것과 동일시하는 이러한 탈육신적 분위기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현실 세계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을 스크린 안에서 펼쳐지는 가상 세계 속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현실 속 불완전한 배우자를 보며 좌절하고, 드라마 속 완벽한 주인공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 매너 있고 잘생긴 주인공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찾으며, 짜증나는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실제적인 관계에서 찾아야

²³ Ibid., 16.

²⁴ Ibid., 27.

할 거의 모든 종류의 기쁨을 가상 현실인 인터넷 세상 속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실 세계의 단절과 고통, 또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인터넷 세상 속에서 자유로움을 찾고자 한다. 프로스트가 말한다.

탈육신이 된 세상에는 어떤 하나의 세계관에 대한 헌신이나 충성이 확연히 결여되어 있다...(중략)... 우리는 여행객들처럼 어느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어떠한 애착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실물보다 더 실물처럼 보이는 초현실 요리를 기꺼이 맛보려고 한다...(중략)... 당신의 몸은 공항라운지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소셜 미디어를 검색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혹은 공항 라운지 TV에서 방송되는 뉴스를 시청하거나 또는 다른 곳을 생각하며 그곳에 가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당신은 당신의 근본 신분이 단절된 존재, 곧 자유롭게 배회하고 자유롭게 머물고 어디에라도 있는 아주 자유로운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²⁵

탈육신 시대의 사람들은 타인에게로 직접 다가가서 그들과 자신을 동일화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대신 그들을 ‘객관화’ 시키고 ‘대상화’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화’는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을 ‘물건’ 처럼 여기게 한다. 자신의 인격과 감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민감하지만, 이미 대상화되어 버린 다른 인격에 대한 감각은 지나치게 둔감하다. 당연히 그들의 마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약해진다. 그 폐해를 프로스트는 이렇게 지적한다. “대상화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 우리와 그들의 생각을 분리한다. 이러한 대상화는 사람들을 비인격화하여 항상 무시하고 경시하고, 희생시키고 괴롭히는 것으로 귀결된다.”²⁶ 타인을 대상화하는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은밀한 성적 성향과 연결될 때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게임이나 인터넷 사용과 같은

²⁵ Ibid., 30-31.

²⁶ Ibid., 37.

스크린 타임의 증가와 가상현실의 영향이 서서히 확산되는 모습은 실제로 온라인 포르노에 의해 가열된 성 중독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효과와 같다.”²⁷ 프로스트는 심리학자 필립 짐바도르가 그의 책 <남자들의 종말>에서 한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비디오 게임과 온라인 포르노 중독이 겁 많은 세대, 곧 서툰 사회성, 메마른 감정, 모험을 극도로 싫어하는 젊은이를 양산해냈다. 이 젊은이들은 가상 세계의 관계가 아닌 실생활의 관계와 학교 및 회사 생활에 내재된 복잡성과 위험을 처리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성적흥분도착증”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성적흥분도착증은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동기 부여를 상실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감정과 로맨틱한 가정을 얻는 수용 능력을 조절하는 일에 부정적인 압박을 가한다.²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탈육신화된 세상의 단면이다. 탈육신 문화에 길든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관계에 익숙하지 못하다.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마음과 절망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잘 모른다. 그 상실감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 더더욱 깊이 가상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어쩌다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까?

인간폐지

복음은 인격성을 전제로 한다. 그 이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Good News)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인격을 가진 존재여야 하기

²⁷ Ibid., 42.

²⁸ Ibid.

때문이다. 유진 피더슨은 그의 책 <길을 걸으라>에서 ‘인격적 ‘인격성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복음’²⁹에 대해 말하면서, 복음에 담겨진 인격성을 강조한다.

‘인격성’ 이 없으면 복음이 복음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당신의 형상을 담아 주심으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 인격적인 관계야말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우리 믿음의 근거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었다고 선언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바’ 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롬4:3)

그러면 그 ‘믿음’ 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바울이 다시 말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10:17)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된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를 의미한다. 이것은 오직 인격 대 인격의 관계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즉 ‘믿음에 관한 이야기’ 는 성경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 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J.R 루카스가 <자유와 은총>에서 이렇게 말한다.

유신론자는 우주의 근본 성격이 인격적이라고 믿기에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어떤 속성을 갖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인격이라고. 따라서 우리 사고의 가장 중요한 범주는 본질이 아니라, 행위다. 철학자들은 이 진리를 너무도 오랫동안 간과해 왔다.³⁰

²⁹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의 문제는 인격을 배제한 간단한 공식으로 축소시킬 수 없다.” 유진 피더슨, *그 길을 걸으라*, 양혜원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07), 14.

³⁰ 니콜라스 윌터스코프, *행동하는 예술*, 신국원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10), 7.

우리의 행위가 더 가치 있는 것은 그 행위가 ‘인격’에서 나온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행위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인 믿음과 연결될 때 비로소 참된 가치를 가지게 된다. 파커 파머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 “진리는 인격적이며, 모든 진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알려진다”³¹고 말했다. 더 나아가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가지고 우리와 세계를 본래의 사랑의 형상으로 재형성시켜 주는 관계들을 추구하는 것”³²이라고 주장했다. 인격의학의 창시자 폴 트루니에도 그의 책 <치유>에서 시백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했다. “인간이 하나의 인격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즉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³³ 이들의 주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리는 단지 규칙이나 원리 같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사실이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곧 진리’³⁴라고 말씀하심으로 진리가 ‘인격’임을 친히 증언하셨다. 실제로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부르심)을 들을 때 우리의 인격성이 회복되며,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인해 구원을 받고 삶이 새로워진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하다. 이러한 성경 전체의 핵심을 진리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³¹ 파커 파머,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이종태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0), 122.

³² Ibid., 131.

³³ 폴 트루니에, *폴 트루니에의 치유*, 정동섭 외 1인 역 (서울: CUP, 2007), 32.

³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막12:29-31)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야말로 ‘인격’ 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또한 인격성을 전제로 한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 또한 인격에 관한 말씀들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5:22-23) 그러므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 즉 모든 선교에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인격성이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 복음을 듣고 세상 깊숙이 들어가는 ‘선교적 교회’ 또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격성을 전제로 하는 복음’ 을 ‘인격을 가진 사람’ 에게 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교육과 삶의 환경이 인격성을 체계적으로 거세해 버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주의 문화, 기계문명, 핸드폰과 SNS, 사람마저 대상화시키고 부품화시켜버리는 현대성은 지역과 민족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삼키고 있고, 이 현대성은 현대인을 급격히 비인격화시키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전인’ 적인 성장이 아니라,

‘전문가’ 의 양성이 되어버렸으며,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배우기보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스펙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 버렸다. 많은 교사들의 관심은 아이들의 인격적 성장이 아니라 더 효과적인 통제와 지식전달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 즉 ‘사람’ 에게 노래를 배우지 않는다. 기계에게 배운다. 교실마다 있는 컴퓨터가 커다란 화면에 연결되어 있다. 교사가 노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화면에는 악보와 함께 녹음된 노래가 나오고, 아이들은 노래의 소절별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노래를 배운다. 부분을

노래할 수도 있고, 곡 전체를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화음도 배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작동하는 일, 즉 손가락만 몇 번 움직여 주면 된다.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 악기를 연습할 필요도 없고, 노래를 연습할 필요도 없다. 다만 프로그램을 잘 익혀서 작동시켜 주기만 하면 된다. 학생들은 ‘인격을 가진 선생님(사람)’ 보다 인격 없는 영상의 화면을 통해 배울 때 더 빠르게 집중한다. 그러면서도 인격보다 기계에 더 쉽게 집중하는 자신들의 반응방식에 의문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미 선생님들 자신도 이런 식으로 음악을 배웠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 노래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 교사들은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 방법으로 노래를 가르치는 이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다. 인격적이고 감성적인 면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야 할 예술 수업 시간이지만, 그런 것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기계적 ‘편리’가 인격적 ‘진리’를 삼켜 버린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의 인격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피더슨의 말처럼 “인격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하기 위해서 비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 법”³⁵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노래를 배우는 아이들은 더 이상 입을 열어 노래하지 않는다.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담아 함께 부르는 노래를 배우지 못한다면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인격성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인격을 전제로 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 들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된다. 문화신학자 데이비드 웰스는 현대성에 물든 새로운 문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 세계 안에서 개인이 지니는 중요성은 그들의 됴됨이나 그들이 견지하고 있는 가치들과 신념, 신앙이 아니라 각 개인이 행하는 일에서 비롯된다. 이 공적인 세계에서, 개인적인 관계는 사실상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 세계 성공은 그 사람이

³⁵ 피더슨, *이 길을 걸으라*, 14.

얼마나 비인격적이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³⁶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더 인격적’ 이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비인격적’ 이어야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세상은 어찌다가 이렇게 비인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는가? 그가 계속 말한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공적인 생활의 대부분을 익명성이 지배한다. 이 익명성은 새로운 가치의 전달을 재촉한다. 일과 인격이 분리되면서 이런 새로운 가치들이 등장하고 있다. 집을 수리해 주고, 구두를 수선한 사람과 잘 알고 지내는 시절은 지나갔다. 오늘날의 세상을 지배하는 익명성은 인격적인 상호 책임감을 모호한 추상적 덕목으로 만들고 있다. 일하는 사람과 소비자 사이에 갑자기 생겨난 거리 때문에, 서로 인격적으로 알고 대했던 친밀함과 책임 의식이 무너져 버렸다...(중략)...상품생산과 서비스의 전 과정 동안 각 파트에 나뉘어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그 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의식도, 마침내 그 생산품을 구입하게 될 소비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책임의식도 없다.³⁷

데이비드 웰스가 말한 이 비인격적인 현상은 현대 사회의 수많은 비인격적인 현상에 대한 극히 일부분의 묘사에 불과하다. 사람이 인격성을 잃어가는 이 현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하다. 데카르트의 코기토 선언 이후, 인류는 사람의 정신을 육체와 분리시켜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을 얻게 되었다. 그 이후, 사람의 몸을 인격과 분리해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발전된 근대의 계몽 정신은 ‘관찰’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과 의술을 발전시켰고, 다음 세기에는 몸을 대상화했던 의술을 넘어 사람의 정신까지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정신분석학이 발전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과학기술과 의술의 발달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데만 쓰이지 않았다는 데

³⁶ 데이비드 웰스, *신학실중*, 김재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130.

³⁷ *Ibid.*, 131.

있다. 사람에게서 인격을 분리시키고 객관화시켜 볼 수 있게 된 인류는 ‘인격이 있는 사람’을 대량으로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관총은 1차 세계 대전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으로 만들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과학기술과 이성에 대한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서구사회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인간이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던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을 통해 사람을 객관화하여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반성을 담은 진지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세계는 사람이 취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따라서 사람에게 이중적이다.”³⁸라고 말하면서 그 두 세계를 ‘나-너’라는 근원어로 말할 수 있는 세계와 ‘나-그것’이라는 근원어로 말할 수 있는 세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 두 세계의 차이는 이렇게 구분된다. “근원어 <나-너>는 온 존재를 기울여서만 말할 수 있다. 근원어 <나-그것>은 결코 온 존재를 기울여 말할 수 없다.”³⁹

그는 각주를 통해 “근원어 <나-너>를 말하는 것이 타자를 객체화하는 것이 아닌 ‘관계’를 세우고, 근원어 <나-그것>을 말하는 것이 타자를 객체화하는 경험이나 이용을 야기시킴을 말한다.”⁴⁰고 부연 설명을 하면서 데카르트의 코키토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이 모든 것과 이러한 따위의 일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⁴¹ 인간은 분명 생각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사람의 삶과 그 존재는 ‘생각’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

³⁸ 마르틴 부버, *나와 너*, 김천배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77), 5.

³⁹ Ibid., 6.

⁴⁰ Ibid.

⁴¹ Ibid., 7.

생각이 있기 전에 먼저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인식, 즉 그 ‘생각’이 조성되었다. 그러므로 그가 한 ‘생각’은 그와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얽혀 있는 ‘삶’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이어지는 마르틴 부버의 설명은 ‘나’가 어떻게 존재하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지 알도록 도와준다.

근원어 <나-너>는 오직 온 존재를 기울여서만 말해질 수 있다. 온 존재로
모아지고 녹아지는 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나>는 <너>로 인하여 <나>가 된다. <나>가
되면서 <나>는 <너>라고 말한다.⁴²

부버는 <나-그것>의 관계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중요한 것은 분석이나
성찰의 산물이 아니라, 참된 근원적 통일이며, 살아 있는 관계”⁴³임을 역설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에게 접함으로써 ‘나’가 되기 때문’⁴⁴이다. 부버는
어린아이의 인식방식을 예로 들며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다. “어린아이는 결코
먼저 어떤 대상을 지각한 후에 그것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있는 것은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며 마주 서 있는 존재가 그 안에 곱혀 들어오는 저 아치
모양을 한 손이다...(중략)... 처음에 관계가 있다.”⁴⁵ 부버의 이 이야기는 거의
1세기가 지나서 스탠리 그리스핀의 ‘인간 의식 발달의 여섯 단계’에서 다시 한번
언급된다. 이 이야기를 제레미 리프킨이 그의 저서 <공감의 시대>에서 이렇게
정리하여 설명한다.

⁴² Ibid., 17.

⁴³ Ibid., 26.

⁴⁴ Ibid., 40.

⁴⁵ Ibid., 39.

이런 초기 단계에서 아기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며 ‘나’ 라는 존재에 대한 느낌도 없다...(중략)...아기는 아직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없지만, 서서히 주변에서 인간관계라는 살아 있는 세계와 무생물의 세계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간다. 아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시작한다.⁴⁶

앞에서 부버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 관계가 있다.’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인격과의 인격적인 관계이며 그 관계를 통해서 한 인격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이것은 현대과학과 심리학도 증언하고 있는 바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서구인들은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도 사람을 대상화하는 근대적인 방식을 버리지 않았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비극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고도 사람을 객체화시키고 대상화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그 무서운 습관은 21세기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마프로스트가 이렇게 정리하여 말한다.

모더니즘은 세상에서 이탈하고 세상을 대상화하며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이탈과 대상화에 대한 이런 오만한 욕망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었다. 이런 이탈에 대해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형태는 자연의 대상화나, 흔히 말하는 과학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상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원할 때,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구체적이고 전혀 관련이 없는 대상으로 그들을 대상화한다. 당신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 3인칭으로 말하거나 상투적인 말을 사용해 묘사하면서 사람들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행동을 통해 이런 대상화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대상화는 사람들을 비인격화하여 항상 무시하고 경시하며, 희생시키고, 괴롭히는 것으로 귀결된다.⁴⁷

⁴⁶ 제레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서울: 민음사, 2010), 132-33.

⁴⁷ 프로스트, *성육신적 교회*, 36-37.

우리가 사는 현대는 데카르트나 부버가 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이다. 만약 데카르트나 부버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심지어 생각까지 기계가 하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바라본다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모든 진리의 척도로 삼고, ‘나’ 아닌 다른 모든 것을 ‘그것’으로 여기며, 상대방의 인격성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2차 세계대전의 한 복판이었던 1943년에 영국 더럼 대학에서 했던 강의를 모아 <인간 폐지>라는 책을 냈던 C.S.루이스의 말이 섬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사람이 아닙니다. ‘도’ 바깥으로 나갈 때 그들은 허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꼭 불행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품일 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최종정복은 결국 인간의 폐지(Abolition of Man)입니다.⁴⁸

이 책에서 루이스는 인간의 이성을 극도로 우상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슴 없는 인간’이 되어가는지, 또한 오랜세월 동안 인류가 지켜온 도덕률(자연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가는지 생생하게 그려냈다. 그리고 그가 예견했던 그 ‘인간 폐지’의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인간 폐지의 세상을 경고했던 C.S 루이스보다 훨씬 더 기계화된 20세기 후반을 함께 살았던 에리히 프롬은 ‘진짜 인격과 진짜 삶’에 대해 다룬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라는 책을 통해 ‘수단을 목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대의 흐름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생산하고, 점점 더 기계처럼

⁴⁸ C.S 루이스, *인간폐지*, 이종태 역 (서울: 홍성사, 2006), 77.

행동하는 인간을 제작한다.”⁴⁹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그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폴 트루니에는 그의 책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과학의 힘으로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기계의 수가 증가하며, 인간미가 없는 모든 인공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⁵⁰ 이 시대를 향해 ‘실제 인간이 사라진 세상’⁵¹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계화 현상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며 문명에서 인간의 냄새를 지워내고 있는 실정’⁵²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간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다수가 집단사회에 함몰되어 이런저런 집단을 이루고 정신없는 속도로 움직이지만, 극복하기 힘든 정신적 외로움에 시달린다. 그들은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지 모른 채 답답하게 짓누르는 비밀을 혼자 간직한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기계화된 사회의 피상적인 모습에 사로잡혀 살아간다.”⁵³ 폴 트루니에가 묘사한 ‘실제 인간이 사라진 세상’은 인격적인 만남이 점점 더 사라지고, 기계를 사이에 둔 가상의 만남이 실제 만남을 대신하게 된 이 탈육신 시대의 흐름을 따라 더욱더 본격화되고 있다. ‘극복하기 힘든 정신적 외로움’에 시달리면서도 누군가를 찾아가 마음을 열고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인격성’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인격성을 전제로 하는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보다 ‘기계’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며, 인격적인 ‘너’ 대신에 대상화된 ‘그것’의 세계를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더

⁴⁹ 에리히 프롬,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장혜경 역 (서울: 나무생각, 2016), 26.

⁵⁰ 폴 트루니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강주현 역, (서울: 포이에마, 2014), 63.

⁵¹ Ibid., 43.

⁵² Ibid., 64.

⁵³ Ibid., 65.

수월한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신비와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접속의 시대와 성육신적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탈육신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접속’이다. 인터넷 세상으로 접속하는 순간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교육을 받고, 물건도 사고판다.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거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접속’은 많아졌지만, 사람들과의 ‘접촉’은 갈수록 줄어들어 가는 시대가 되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고자 했다면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이다. 주님은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우리의 전 존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단지 영으로 우리와 ‘접속’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접촉’하셨다. 그 ‘접촉’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거룩하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세상과 ‘접촉’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세상과 접촉하고 있는가? 레너드 스윗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이버 문화에 보내고 있는 교회의 메시지는 ‘단절’”⁵⁴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교회는 손을 내밀어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을 만질 수 있는가?”⁵⁵, “교회는 이

⁵⁴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36.

⁵⁵ Ibid., 50.

문화를 만질 수 있는가? 이 문화에 키스할 수 있는가?”⁵⁶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마땅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접촉’ 해야 한다. 손 내밀어 그들을 만지고, 아픈 곳을 싸매고 치유해야 한다. 생명이 흘러가고 살아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문화와 접촉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세상은 만만치 않으며 온갖 종류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mammon을 중심으로 한 소비주의와 탐욕으로 가득한 권력이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말하는 교회를 억압하고 위협한다.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를 유혹해서 자신들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세상의 유혹이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과 접촉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의해 감염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 위험으로 인해 가만히 있는 것은 성경의 방식이 아니다. 제사장은 감염의 위험이 있어도 피부병환자들을 직접 만나 그 환부를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했다. 우리 또한 세상에 보내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는 그 위험한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로 인해 세상도 함께 거룩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타락한 세상으로 인해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우리와 접촉한 세상이 우리로 인해 거룩해질 것이라 약속한다.⁵⁷ 여기 모세를 통해 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출30:29)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가?

⁵⁶ Ibid., 52.

⁵⁷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출30:29).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다.⁵⁸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거룩함을 세상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접촉할 때, 주님을 만졌던 그 부정한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성육신적 모습이다.

교회가 이러한 ‘성육신적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육신적 교회’로 존재해야 한다. 탈육신적 문화는 ‘몸’과 ‘마음(혹은 영혼)’을 분리하여 생각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생각은 교회가 ‘영혼 구원’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삶이 ‘성육신적 삶’이 되지 않는 것에는 관심하지 않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고, 성도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끌어내어 ‘교회’라고 부르는 특정한 공간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결국 열심 있는 성도들은 교회 이외의 공간에서 비그리스도인을 만날 일이 거의 없게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 프로스트와 허쉬는 ‘만일 교회 예배 시간만이 우리가 불신자들과 의미 있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면 문제가 있다’⁵⁹고 지적하면서, 예배 시간 외에 불신자와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나아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스며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교회론의 측면에서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attractional) 하지 않고

⁵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투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막5:27-29).

⁵⁹ 프로스트, *새로운 교회가 온다*, 57.

성육신적(incarnational)이고자 한다. 성육신적이라 함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만나려면 반드시 와야 하는 거룩한 장소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히려 선교적 교회는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사회의 틈과 갈라진 곳에 스며든다.⁶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가 ‘교회’ 라고 규정지어 놓은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이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해야 할 것은 ‘영혼 구원’ 이 아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교회’ 만이 아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이에 대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를 제시했던 알버트 월터스가 말한다.

다른 전통들은 그 나라를 제도적 교회와 동일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권의 범위를 제한한다. 이러한 동일시는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전통으로 간주되지만 개신교에도 추종자들이 많이 있다. 이 견해는 오직 목사와 선교사만이 전임으로 왕국사역에 종사하고 있고, 평신도들은 그들이 교회 일에 종사하는 만큼만 왕국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제한은 모든 인간사가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음을 암시하는, ‘교회와 세상’ 이라는 잘못된 관용구를 만들어냈다.⁶¹

하나님은 ‘교회’ 에서만 일하시지 않으신다. ‘세상’ 어디에나 계시며, 그곳에서도 일하신다. 성경은 ‘기독교인’ 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신 ‘책(The Bible)’ 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을 위한 복음이다. 야로슬라브 펠리칸은 <성서,

⁶⁰ Ibid., 33.

⁶¹ 알버트 월터스,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2), 88.

역사와 만나다>라는 책을 통해 성경이 ‘민족의 경전에서 인류의 고전으로’⁶² 자리 잡은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다. 오늘날 인류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출발지는 성경이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의 진리로 인한 유익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성경은 모두를 위한 책이며, 복음 또한 그러하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이교적인 습관을 버리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반쪽짜리에 만족하시지 않고 창조계 삶 전체를 주장하신다.”⁶³고 말하는 알버트 월터스의 말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우리끼리 모여, 우리끼리 통하는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노래를 부르며, 우리끼리 즐기기 위함이 아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구속사역을 이어가야 한다. 주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문화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삶을 드려야 한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뒤에는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도 해야 한다.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다양한 피조세계를 연결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법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대로, “창조세계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는 나에게 속해 있다!’ 하고

⁶² 야로슬라프 펠리칸, *성서, 역사와 만나다-민족의 경전에서 인류의 고전으로*, 김경민 양세규 역 (서울: 타임교육, 2017), 1.

⁶³ Ibid., 89.

외치시지 않은 영역은 한 치도 없다.”⁶⁴ 마가가 대위임령을 통해 “모든 피조계(All Creation)에 복음을 전파하라”⁶⁵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바꾸면 안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 부르는 특정한 장소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삶의 자리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빛이 세상을 밝히고, 소금이 녹아 맛을 내듯이 우리가 들어가 모든 피조세계를 비추고 맛나게 해야 한다. 교회가 이 기능을 잃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밝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바라보던 방식을 버리고 하나의 ‘통(通)’⁶⁶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양편 모두를 하나로 보시며 그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전체를 바라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교회와 세상을 하나로 엮어서 ‘통으로 바라보는 방식’⁶⁷은 프란시스 웨퍼가 누누이 강조한 ‘삶의 전 영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재권’과 맥락을 같이 한다.

⁶⁴ 무어, *무례한 기독교*, 195.

⁶⁵ Ibid., 93.

⁶⁶ 조병호가 ‘통신학’을 통해 제창한 ‘통’신학의 방법론은 육신과 정신을 분리하고, 성과 속을 분리하며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현 시대에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 “통이란 서로 다른 영역이나 방식, 관점이나 입장을 우선 그 각각으로 이해하고, 이어서 그러한 다름의 사이에서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 마침내 총체적 인식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을 발생키는 사고방식이다. (중략) 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의 속성을 더욱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하나의 경로나 하나의 방법으로 대상을 파악하기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려 섭렵함으로써 보다 총체적인 대상 인식이 가능한 것이다.”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67.

⁶⁷ ‘통으로 보다’라는 단어는 통의 방식으로 대상을 본다는 뜻으로 여기서 ‘보다’는 말은 ‘생각하다’, ‘인식하다’등의 말과 통용될 수 있다...(중략)... ‘통으로 보다’라는 것은 둘 이상의 경로와 관점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보다 총체적이고 온전한 인식을 위한 방법을 표현한 말이다. 종합하면 ‘통으로 보다’는 ‘어떠한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갖은 요소를 다양한 경로와 관점을 통해 이해한다’는 것이다. Ibid., 68-69.

삶의 전 영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란 의미는, 기독교는 이상적인 영역이 따로 존재할 수 없으며 육체와 영혼에 대한 위계나 이분법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혼 뿐 아니라 육체도 창조하셨고 그분의 구속 사역은 전인(the whole man)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복음주의자들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간다는 데 지나치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인간의 전인성에 대해서 소홀이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⁶⁸

주님께서 당신의 몸 된 교회에게 주신 기도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마6:10, 새번역)이다. 우리의 기도제목과 소명은 영혼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이곳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전파하라 하신 ‘천국 복음’ 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 됨의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그리고 삶 전체를 포함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이기도 한다. 만약 교회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방향과 내용을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위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이다. 프로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약 교회가 성육신적 공동체로서 함께 서 있다면 사회 안에서 탈육신적 충동의 대안과 해독제가 될 수 있’⁶⁹다. 마이클 프로스트가 말한다. “우리는 불안정함과 가벼운 행위들, 해체와 대상화, 그리고 스크린 문화와 가상 현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앙과 삶을 구현해 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맛을 잃고

⁶⁸ 프란시스 웨퍼, *예술과 기독교*, 김진선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10.

⁶⁹ 프로스트, *성육신적 교회*, 45.

어두워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⁷⁰

마르틴 부버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⁷¹이라고 했다. 그러나 탈육신 시대는 구체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접촉’을 가상 세계 안에서의 ‘접속’으로 대신해 버렸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기쁨’ 얻기를 포기한 채 ‘가상세계 속에서의 기쁨’을 찾기 위해 인터넷 세상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며, 모든 교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 중심부를 벗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변방과 경계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교회, 경계에 핀 꽃

크리스텐덤 교회는 ‘중심’을 향해 있다. 그 모든 움직임의 방향이 중앙이고 높은 곳이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와 성육신적 교회의 방향은 ‘경계’이며 ‘낮은 곳’이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마구간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보여 준다.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으셨다. ‘변방’에 있던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자라나셨고, 이방인들의 땅인 두로와 시돈을 찾아가셨으며, 유대인으로부터 외면받는 땅 사마리아로 일부러 지나가셨다. 이방인, 그것도 미친 사람 한 명을 구하기 위해 그 무서운 폭풍우를 뚫고 이방인의 땅 거라사로 찾아가셨다. 끊임없이 경계로 나아가셨던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 직전에 ‘가서’

⁷⁰ Ibid., 48.

⁷¹ 부버, *나와 너*, 17.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예루살렘, 즉 그 중심에 모여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흘으신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온 유대와 땅 끝까지’ (행1:8) 이르러야 한다. 즉 경계로 나아가야 한다. 경계로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굴복시키기 위해 싸우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다. 그 경계에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함민복 시인은 ‘집 안과 밖의 경계인 담장’⁷²에 심겨진 꽃을 보며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⁷³고 노래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서
담장을 보았다
집 안과 밖의 경계인 담장에
화분이 있고
꽃의 전생과 내생 사이에 국화가 피었다

- 함민복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중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집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인 ‘담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놓여 있는 곳이다. 그러나 누군가 그 담장 위에 꽃을 심어 놓았고, 그 꽃을 본 시인은 경계에 핀 꽃을 노래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상의 경계엔 전쟁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는 그 경계에 문화의 꽃을 피워 왔다. 경계에 담을 쌓고 유리조각을 들지, 화분을 두고 꽃을 피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피어난 꽃이다. 빛과 어둠,

⁷² 함민복,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서울: 창비, 1996), 110.

⁷³ Ibid.

생명과 사명의 경계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꽃으로 인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고, 사망 가운데 생명이 깃든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이라고 부르는 모든 영역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회’ 라고 부르는 특정한 영역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 이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를 통해 선포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만을 노래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사망에 속한 세상이 우리로 인해 구원받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이 주님의 몸 된 교회이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원함이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3:9)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 로 서는 것이다. 먼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다음으로는 주님께서 연결해 주신 몸 된 교회의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 이며 동시에 ‘성육신적 교회’ 여야 한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나타나기에, 교회는 ‘성육신적’ 일 수밖에 없다.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표현되는 방식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성육신적이지 않은 교회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렸거나 적어도 잃어가고 있는 교회이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교회됨’ 이다. 어떤 방식으로는 교회와의 연결 가운데서 ‘함께’ 들어가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 세상이 접촉하는 것이 ‘개인’ 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의해 그들이 ‘변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의해 ‘변질’ 될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자서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교회를 떠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하면서 혼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교회’로 부르신다. ‘거룩한 무리’인 성도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 연결될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된다. 자신의 재능이나 순수함을 믿고 혼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세상의 빛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분의 몸 된 교회로 설 때에만 세상의 빛으로 발견될 수 있다. 우리는 교회와의 연결 가운데, 즉 주님의 몸으로써 세상에 들어가고 경계로 나아가야 한다. 아무리 강한 개인도 세상의 거대한 권세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개인은 약할지라도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⁷⁴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자 있게 하고, 교회로 함께 서지 못하게 한다. 먼저 머리 되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교회와 함께 서야 한다.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세상에 들어갈 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며 주변의 모든 곳을 소성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이

⁷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겔47:9-10)

죽은 땅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선 그 땅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 경계로 나아가야 한다. 단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생명의 강수가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7:37-39)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고, 우리끼리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로 그 물을 마신 뒤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먼저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다. 그리고 난 뒤에는 세상 한복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풍습과 문화를 따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세상 문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세상과 접촉할 때, 세상에 오염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주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그게 정상이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과 그 몸 된 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세상과 나눈 그 ‘접촉’ 으로 인하여 세상이 거룩해지고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에 두신 이유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안전하게 은혜를 누리며 잘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모든 나라(All Nations)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다. ‘제사장 나라의 비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수렴되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⁷⁵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소위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향한 것임을 보여 주셨다. 여기 예수님의 선교명령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9-20)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셨을 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꿈이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12:3) 이 말씀을 두고 조병호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독일 비텐베르크 대회 강연에서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표현한다.

‘모든 민족’이란, 아브라함을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땅의 ‘모든 민족’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개인’, ‘한 가정’, 그리고 동시에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을

⁷⁵조병호, *통바이블* (서울: 통독원, 2017), 59-62. 요약정리.

위한 시작 이야기입니다.⁷⁶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모든 민족’을 위해 미리 준비하여 거룩하게 하신 ‘제사장 나라’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열방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의 공동체이다. 이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찾아가 만나는 것이다.⁷⁷

이중청취와 이중언어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위해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선교하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다. 그리고 그 언어 훈련의 첫 번째 연습이 ‘듣는 훈련’이다.

이중청취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가 무참히 파괴된 이후 세계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테러는 또 다른 아픔과 슬픔, 분노와 증오를 일으켰고 문명간의 충돌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02년 1월, 그 사건으로 인해

⁷⁶ Ibid., 59.

⁷⁷ 조병호는 이 책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섯 가지 특징 중의 하나로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고 제시한다.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236.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은 도시에 연대감을 표시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뉴욕으로 자리를 옮긴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하러 세계 곳곳에서 모인 종교지도자들이 모였다. 캔터베리 대주교, 이슬람교의 이맘, 인도에서 온 힌두교 그루가 함께 했고 유대로 랍비도 전통적인 추도문인 카디시를 읊었다.’⁷⁸ 그 자리에 참석해 있던 유대인 랍비이자 신학박사인 조너선 섹스가 그 때의 느낌을 이렇게 기록했다.

인류가 지닌 무시무시한 파괴력에 직면하여 인류의 연대감을 표시하는 드문 순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비행기 납치범들의 종교적 열정과 그곳에 모인 종교지도자들의 그에 못지않게 뜨거운 평화에 대한 갈구 사이에서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선과 악, 화합과 반목, 세계 평화와 성전의 병치는 이제 우리가 막 들어선 세기를 나타내는 적절한 은유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날 인류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앞 세대들이 상상도 못할 만한 규모로 치유하거나 망칠 수 있으며 또한 고치거나 파괴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으며, 이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자신의 몫이다.⁷⁹

조너선 섹스의 말처럼 현재의 인류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엄청난 힘을 서로를 치유하고 화합하는데 사용하면 좋으려면, 서로를 증오하고 파괴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위험에 처한 인류 공동체를 향해 그는 자신의 책 <차이의 존중; 문명의 충돌을 넘어서>에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대화하자고 제안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자기 집단에게만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중략)... 오늘날 우리는 우리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만을 상대하고 다른 목소리는 걸러낸다. 자기 의견을 널리 알리고 싶은 사람들은 대개 폭력과

⁷⁸ 조너선 섹스, *차이의 존중-문명의 충돌을 넘어서*, 임재서 역 (서울: 말글빛냄, 2007), 14.

⁷⁹ Ibid., 15.

향의의 형태로,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미지로 포착되는 사건을 통해 언론의 눈길을 끌려 한다.⁸⁰

오늘날의 교회는 다른 집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집단에게만 말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게토’화 되어가고 있다.⁸¹ 물론 다른 집단을 향해서도 말한다. 그러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 자신과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다른 의견들은 무시하거나 공격한다. 그렇게 만들어낸 편가르기와 혐오, 배제는 이 사회를 더욱 큰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을 섬기고 빛과 소금으로 발견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존 스토틀라가 말한다. “기독교인들은 두 귀를 열어 놓고 사는 사람이다. 한쪽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른 한쪽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 열어놓는다.”⁸² 레너드 스윗은 존 스토틀라 목사가 말한 이 ‘이중청취(Double listening)’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접촉해야 할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중청취’는 동시에 두 목소리를 듣는 청취능력, 즉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목소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말한다. 이 목소리들은 종종 서로 배치된다. 그러나 두 목소리를 모두 듣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중 청취는

⁸⁰ Ibid., 16.

⁸¹ 이 책의 추천사를 쓴 강영안이 이런 말을 남긴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종의 ‘게토’화된 언어다. 우리끼리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바깥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이 언어를 서서히 배워가면서 교회 특유의 언어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낸시 피어시, *완전한진리*,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6), 19.

⁸² 김요한, *예술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서울: Korea.com, 2011), 74.

크리스천의 제자화와 기독교 선교에 없어서는 안 될 방법이다.⁸³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귀를 닫고, 오직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만이 거룩하고, 세상은 타락했고 거룩하지 않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 믿는 이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⁸⁴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듣고자 한다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듣는 중에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하시는 말씀 또한 들을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듣고자 할 때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진리의 과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⁸⁵라고 표현했고,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진리의 과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호튼은 ‘이 세상에는 참되거나 선하거나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땅에 속한 일을 과소평가 하는 것’⁸⁶의 위험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헛된 철학’과 관련해 두 가지 위험을 주의해야 하는데, 두 가지 중 하나는 사람의

⁸³ John R.W.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Downers Grove, Ill. : InterVarsity Press, 1992), 24-29.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피라 교회*, (좋은씨앗, 2002), 17에서 재인용.

⁸⁴ “그 때에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민22:28, 새번역).

⁸⁵ 마이클 호튼,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80.

⁸⁶ Ibid., 98.

지혜에 담겨 있는 약속과 위험을 묵살하는 태도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지혜, 정의, 시민적 의(義)를 주셨고,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신다. 이런 선물이 비록 구원의 은혜가 아닌 일반 은혜의 표지에 불과하더라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⁸⁷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죄 가운데로 떨어졌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에 담아낼 수 있는 진리의 이야기들이 세상의 이야기 속에도 가득하다. 동시에 이런 전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와 하늘에 속한 복음을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통과하여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 전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말에도 주의를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대로 듣고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듣고 진리를 분별하여, 다시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다.

솔로몬 왕이 어려서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상3:9)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이런 대답을 주신다고 열왕기서는 기록한다. “(네가)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왕상3:11-12)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듣는 마음이 지혜다. 우리가 겸손히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섬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신다. 이 듣는 마음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함께 노래 부르기’에 대해 나눌 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⁸⁷ Ibid., 98-99.

이중언어

겸손히 듣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만 알고, 우리만 아는 언어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의 언어를 익히고, 그들의 문화를 익혀서, 그들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것은 모든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지역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 그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다.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를 익혀,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 낸시 피어시는 그의 책 <완전한 진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우리 주변의 언어로 활발하게 번역하는 선교사와 같이 살도록 부름 받았다’ 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이렇게 고발한다. “(그 교수는) 어떻게 해서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자유로이 참여하도록 애쓰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려 하지 않았다. 왜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적 관점을 공적 영역에 적합한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⁸⁸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교회의 언어를 사용해 말하는 것은 잘하지만,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면 말할 기회가 주어져도 거의 말을 하지 못한다. 할 말이 있어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해 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스윗도 말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기독교

⁸⁸ 피어시, *완전한 진리*, 134.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공식 언어 한 가지밖에 구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⁸⁹ 사도 바울도 이중 언어를 사용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 언어’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두 언어를 사용한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가 아테네에 갔을 때, 그는 그리스-로마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언어를 사용하여 말했다. 그는 아레오바고에서 이교도 작가의 시를 빌어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교부들이 일반 철학자들에게서 유용한 지혜를 발견했으며 종교개혁가와 청교도들이 성경과 관련한 문헌뿐 아니라 이교도의 작품에서 얻은 광범위한 지식의 진가를 인정’⁹⁰하고 사용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한다. 동시에 그들에게 대답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와 문화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아닐 것이다.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비단 ‘언어’만이 아니다. 오늘날의 비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천국 소망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고 탐욕스러울 수 있느냐며 비난하고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이 한탄 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이전 시대의

⁸⁹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94-95.

⁹⁰ 호튼,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85.

기독교인 리더들이 보여 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이상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비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 나빠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많은 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음에도 교회에 더는 있을 수 없어서 떠나간다. 교회 안에 있는 ‘근대적’ 처리방식과 끊임없는 비리, 탐욕과 위선 등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간다. 그렇게 그들은 소위 ‘가나안’ 성도가 되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연구했던 최윤식은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⁹¹고 어두운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핍박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현상의 이유에 대해 과학의 발달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상황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능력이 제한되는 복음이라면 온전한 복음일 수 없다. 오히려 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을 뛰어 넘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복음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대적 아픔과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왔음을 역사가 증언한다. 오늘날 지역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그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데 있다.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며 겸손과 청렴, 정의와 평화를 대변하고 보여주어야 할 교회는 오히려 오만과 탐욕, 불의와 분쟁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⁹¹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39.

선교명령에 응답할 수 있을까?

이 ‘현상’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동시에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인 맥락, 그리고 ‘현재의 문화적 상황’⁹²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 내에서 스스로 자성하며 낸 목소리를 들어볼 뿐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있는지 겸손히 살펴야 할 것이다.

‘어거스틴이 플라톤의 저작을 꼼꼼히 소화하여 기독교의 지혜를 보여주었듯이’⁹³, 이 시대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연구과 그 결과물들 또한 꼼꼼히 소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취해야 할 지혜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칼뱅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든 귀를 막지 말아야”⁹⁴ 한다. 발람의 당나귀 입을 빌려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시대를 지나며 인격성을 상실해 가고 비인간화되어 가는 세대를 향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파편화되어 가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어떻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살피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히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⁹²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상황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갖추기에, 문화적 상황은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 그 정의상, 선교적 교회는 항상 외부 지향적으로 보이며 항상 변화하며(문화가 끊임없이 변화듯)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 많은 경우 이런 교회는 매우 급진적이어서 우리가 평소에 아는 교회와는 달라 보인다.” 프로스트, *새로운 교회가 온다*, 25.

⁹³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저서를 꼼꼼히 소화했습니다. 진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철학자가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진리를 발견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제임스 K.A 스미스, *누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박삼중 역 (서울: 살림, 2009), 17-18.

⁹⁴ Ibid., 19.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며, 그분의 몸 된 교회인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방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가치를 말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으니, 바로 ‘문화예술’이라는 언어이다.

문화예술과 인간회복

거듭난 언어: 예술

직관과 감성이 중요한 포스트모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언어가 필요하다. 바로 ‘예술’이라는 언어이다. 마이클 카드는 그의 책 <땅에 쓰신 글씨>의 서문에서 “거듭난 언어”라는 표현을 썼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언어를 가지고 창조적인 일을 하도록 이끄는데, 이 언어는 수없이 나누어진 언어조차도 통합 시켜 의사소통 자체를 구속한다.”⁹⁵ 예술은 거듭난 언어로서 국경과 언어 자체를 초월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예술의 많은 영역 중에 특히 음악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다. 음악을 통해 베네수엘라라는 가난한 나라를 새롭게 만든 ‘엘 시스테마’의 창시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가 ‘엘 시스테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음악은 표현한다. 그래서 더욱 다양한 창작이 가능한 것이다. 다른 예술로는 표현하기 힘든 신비하고 고유한 표현력을 지닌 음악은 무한한 가능성과 풍부한

⁹⁵ 마이클 카드, *땅에 쓰신 글씨*, 황병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3), 9.

감수성의 예술이다.” 그가 한 이 말은 단지 이론이 아니다. 그를 통해 시작된 ‘엘 시스템’ 라는 구체적인 현장을 통해 증명된 말이다.

엘 시스템은 ‘지난 35년간 30만 명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악기를 나눠주고 음악을 가르쳐 왔다. 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사회 경제적 빈곤 계층으로 가난과 폭력, 마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비로소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솔로보다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음악 교육은 거리를 떠돌던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질서, 책임과 의무, 배려 등의 가치를 익히게 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아이들이 겪은 획기적인 변화는 그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전해져 가난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던 베네수엘라를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⁹⁶

아브레우가 시작한 이 거대한 운동은 단지 ‘시스템’ 이 아니다. 아브레우를 비롯한 그의 동지들이 함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엄청난 노력의 결실이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음악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자신의 모든 인격을 담았다. 그렇게 담아낸 인격은 그들이 한 음악에 담겨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마음만 쏟은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모든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들의 이 걸음은 적어도 겉으로는 교회와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이론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 무엇을 계획하고 이를 수 있는지, 또한 그 가능성은 얼마나 큰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본 연구자도 모른다. 아니 중요하지 않다. ‘기독교’ 라는 이름을 달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Missio

⁹⁶ 체피 보르사치니, *엘 시스템, 꿈을 연주하다*, 김희경 역 (서울: 푸른숲, 2010). 1.

Dei)’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난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하면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막4:27, 새번역)고 기록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은 계몽주의 시대의 망상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 주신 대로 우리가 가진 생명의 진실을 힘써 나타내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진실을 힘써 나타낼 때, 그들의 걸음을 통해 상상도 못 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한다. ‘엘 시스템아’를 통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는 베이스를 연주했던 리차드 블랑코 우리베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엘 시스템아는 내가 사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구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일했던 5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건설적인 시기였죠. 엘 시스템아는 수천 명의 베네수엘라 청소년을 올바른 길 위에 올려놓았고, 그들에게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또한 다소 독특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계 문화사에 전례 없는 위상을 얻었고요. 무엇보다 엘시스템아는 우리 마음속에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각을 심어놓았습니다. 엘 시스템아 덕분에, 음악 덕분에 나는 완성된 인간이 되었습니다.⁹⁷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일하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복된 창조의 원리 속으로 들어와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에게 약속된 복이

⁹⁷ Ibid., 44.

흘러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에게만 상상력과 창조성, 그리고 공감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도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서 나름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 주신다.” (마5:45, 새번역)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다.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알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듯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 ‘살롬’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자체를 죄악시하며,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아니다.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며,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세상엔 죄악이 관영하고, 온갖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케 하는 일이 가득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더욱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그 세상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그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경은 ‘교회 안’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며, 동시에 세상 모든 민족이다. 본회퍼의 말처럼 “교회는 타자를 위해 현존할 때 교회가 된다.”⁹⁸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없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모든 지경이 다 주님의 것이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기다린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다스림의 방법은 ‘섬김’이다.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는 ‘예술의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 쉼퍼는 ‘삶의 전 영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재권’과 ‘인간의 전인성’을 강조하면서 ‘예술 역시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에 있어야 함’을 역설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속을 입고 성경적 규범을 따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술에 대한 관심에도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술들을 단순한 삶의 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보고 이러한 예술들을 사용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한다. 예술 작품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다.”⁹⁹ 쉼퍼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재권을 가지고 다스리기 원하신다. 그러나 ‘위대한 부흥의 시기’라고 불리는 19세기 경건주의를 거치면서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한크 로크마커가 <예술과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기독교의 주류는, 모세 오경과 성경 전체를 통해 선포된 언약 사상을 무시하는, 일종의 경건주의에 빠졌다. 구약성경은 종종 무시되었으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의미는 단지 경건 생활로 국한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경건주의적 활동에만 주력함에 따라 철학, 과학, 예술, 경제, 정치 등 인간 삶의 대부분의 영역들은

⁹⁸ 고길재, 본회퍼의 교회 ‘타자를 위한 교회’, 그의 예수 ‘타자를 위한 인간,’ *기독일보*, 2014년 4월 30일.

⁹⁹ 쉼퍼, *예술과 기독교*, 13.

너무나도 쉽게 세상으로 넘어가고 말았다...(중략)... 그러나 그들은 종종 복음을 전파하고 자선 사업으로 봉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낙관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하나님이 삶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성경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하나님의 피조계인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등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빈번히 간과하고 있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세계는 마치 기독교적 영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듯한 완전히 세속적인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¹⁰⁰

로크마커는 현대세계가 ‘기독교적 영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듯한 완전히 세속적인 세계’로 바뀌게 된 것을 두고 ‘교회가 현대 문화로부터 후퇴해서 얻은 첫 번째 결과’¹⁰¹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창조계 대해 진정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¹⁰²이라고 진단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과 창조계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친히 성육신을 하셨는데, 정작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없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는 종교개혁시대의 예술가들이 ‘주님께서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을 다른 세대에 알리는 표지를 세웠음’¹⁰³을 예로 들면서, 우리 시대의 예술가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역설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거나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려 함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참 인간이(이 말이 지니는 충만한 의미에서) 되도록 하심에 있음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함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충만하고 자유롭고 인간다운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함은 그가 인간성을 지니게 되었음을, 즉 하나님의 창조계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¹⁰⁰ 한스 로크마커, *예술과 그리스도인*, 김진선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26.

¹⁰¹ Ibid., 27.

¹⁰² Ibid.

¹⁰³ Ibid., 29.

나누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예술적 재능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¹⁰⁴

그리스도인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롭게 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과 그 생명의 진실을 부여받았고, 이제 그에게 있는 모든 재능은 주님에 의해 구속받은, ‘거듭난’ 재능이다. 이제 그 재능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곁에 두신 이웃 모두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골1:13) 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 (골1:14)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믿어야 한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도 믿어야 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1:13-20)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역은 우리의 영혼에만

¹⁰⁴ Ibid.

제한된 사건이 아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되었고, 예수님은 새롭게 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예술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낼 때,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며 참된 화평, 즉 ‘샬롬’을 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던 예술도 새롭게 되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예술’이라는 ‘거듭난 언어’를 새롭게 받았다. 이 거듭난 예술 안에는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다. 그 사랑이 담긴 거듭난 예술에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세상을 통치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있다. 거듭나기 전, 예술 안에 있는 놀라운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고 사용할 때에도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세상도 이걸 알고 사용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는 사람들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과 능력의 원천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예술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한다. 그 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예술가들을 통해 세상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섬세한 예술 그 자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우리는 그 섬김의 도구로 예술, 그 중에서도 노래를 사용하고자 한다. 왜 예술이며, 왜 노래인가? 그것은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이 시대의 문화적인 특징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과 관계가 있다.

문화 창조자

서양에서는 받을 기경하는 것을 ‘문화(culture)’라 불렀다.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문화보다 먼저 주신 선물이었다. 자연이다. 이 “자연의 선물은 인간의 의도나 의식적인 노력 없이 받아지고 전해질 수 있는 것”¹⁰⁵이지만 “문화의 선물은 그 받는 사람 편에서 애쓰는 것이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리처드 니버는 이렇게 설명한다.

문화는 인간의 성취다.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력해서 이루었다는 사실을 들어 이것을 자연과 구별하는 것이다. 강은 자연이다. 그러나 운하는 문화다. 석영은 자연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든 활촉은 문화다. 고함지르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요, 언어는 문화적인 것이다. 문화는 인간의 마음과 손으로 만든 것이다.¹⁰⁶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누군가 마음을 담아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문화명령’을 받은 우리가 만들고 가꾸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문화를 만들어간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인간 소외, 경쟁,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가치가 담겨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담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¹⁰⁵ 리처드 니버, *그리스도와 문화*, 홍병룡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8), 48.

¹⁰⁶ *Ibid.*, 48.

리처드 니버의 말처럼 “문화라는 것은 가치의 세계다.”¹⁰⁷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문화가 만들어진다. 문화는 사람이 만들지만, 일단 만들어진 뒤에는 문화가 사람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구속 받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문화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나타내야 할 삶의 내용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인간이 만든 문화 속에 스며들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까지 흘러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문화를 창조해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앤디 크라우치는 “문화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도 하지만, 이전에 가능했던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¹⁰⁸고 말했다. 누군가 만들어낸 문화로 인하여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고, 이전엔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아주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일단 나쁜 문화가 만들어지고 조성되면 이전에 있던 아름다운 문화는 다시 누리기 힘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모던과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한 새로운 문화적 도전이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다음 세대는 이전 시대의 어린이나 청소년들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다. 이전 보다 더 비인격적이고, 더 탈육신적인적인 문화는 우리가 누리던 이전 시대의 문화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진보와 그로 인한 편리를

¹⁰⁷ Ibid., 49.

¹⁰⁸ 앤디 크라우치, *컬처 메이킹*, 박지은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45.

말하지만, 과학기술의 진보가 곧 인간의 진보를 뜻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편리를 얻은 대신 사람다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주어진 뒤에 사람들은 더 이상 옆 사람에게 관심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에 빠져 지낸다. 심지어 오랫동안 친구를 만나서도 같이 대화를 나누기 보다,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너무나 힘들게 되었다. 어린 아이들도 밖으로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기 보다 쭈그리고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일단 스마트폰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다른 것에 재미를 붙이는 것이 힘들어진다. 기계와 보내는 시간이 더 편안하고 즐겁기 때문이다. 다른 인격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도 필요 없다. 기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쓸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자신이 스마트폰에 완전히 종속되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간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에 종속당한 그는 이제 스마트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기술문명이 가져온 문화의 변화는 인간의 생활방식뿐 아니라, 생각의 방식까지 변화시켜 가고 있다. 니콜라스 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¹⁰⁹고 경고하면서 심지어 “뇌를 잃어버렸다”¹¹⁰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컴퓨터에 오랜 시간 노출된 사람들은 집중력을 잃어가고, 깊이 생각하는 힘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¹⁰⁹ 니콜라스 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최지향 역 (서울: 청림출판, 2011), 1.

¹¹⁰ Ibid., 27.

수많은 영역을 인공지능 기계에게 내어 주었고, 심지어 인격적인 성장을 돕는 교육의 영역까지도 기계에게 내어 주고 있으며¹¹¹,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함께 성장하는 전인적인 성장이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다. 이지성은 인공지능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에이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인공지능 교사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작은 배신감을 느꼈다.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교사는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직업이라는 소리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들은 바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이들은 인공지능 교사를 인간 교사보다 더 편안하게 여기고 있었고, 더 좋아하고 있었고, 더 신뢰하고 있었다.¹¹²

우리는 인간보다 기계를 더 편안해하고 신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편리를 위해 만든 기계들과 인공지능은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 (행19:26)을 우상처럼 섬기고 의존하며 스스로 구속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리히 프롬은 “우리는 사물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결과물을 숭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¹¹³고 표현했다. 프롬의 표현대로 우리가 ‘사물 숭배’라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점점 더 인격성을 상실해 가고 있고, 교회 공동체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 비인격적인 우상숭배가 하나의 현상을 넘어 ‘문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문화가 되어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¹¹¹ 이지성은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들다고 여겨졌던 ‘변호사, 교사’같은 직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지성, *에이트*, (서울: 차이정원, 2019), 108.

¹¹² Ibid., 108-9.

¹¹³ 프롬,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27.

만드느냐에 따라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의 질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물질적이며 비인격적인 문화를 지금 새롭게 바꾸어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나쁜 문화’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심각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문화 속에서 타인을 엄청난 고통에 빠트리면서도 그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괴물 같은 세대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사람의 인격을 소외시키는 것을 넘어서 놀이 대상으로 여기면서도 그 최악의 심각성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일종의 문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에리히 프롬은 <건전한 사회>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현상을 ‘정상성의 병리성(pathology of normality)’ 이란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그는 ‘너무도 병든 사회에서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정상’ 으로 사는 사람은 과연 정상인가, 비정상인가?’¹¹⁴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성에 대해 경고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야 말로, 그 ‘정상성의 병리성’ 이 극대화 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을 가진 타인을 물건처럼 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 인격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미성년자를 성노예로 착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그 사건에 가담하여 한국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n번방 사건’ 도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을 키워내는 배경에는 돈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대상화하는 비인격적인 문화가 있다. 타인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며, 인격 살인을 하고서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괜찮지 않다고 분명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동시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되고 실현되는

¹¹⁴ 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서울: 해냄출판사, 2020), 17에서 재인용.

‘문화’가 되어야 한다. 독일이라는 한 나라 전체가 차별과 혐오에 가득차서 그 나라에 함께 살던 이웃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고통스럽게 죽이면서도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같은 인간인 우리가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더욱 경계하며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중차대한 일을 당신의 몸 된 교회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끼리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 거듭난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어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회복된 인격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말로 비인격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상의 문화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교회가 이 시대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은 외면한 채,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 눈앞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자신들의 자녀가 이 비인격적인 문화와 사회적 구조 속에서 심각하게 고통을 주고받고 있는데도 별 느낌이 없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현상을 안타까워하며 걱정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뉘를 놓고 보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복음’이다. 복음의 양면이 다 전해져야 한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다 된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복음과 진리 안에 담긴 인격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인격성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상상력과 창조성’, 그리고 ‘다스림의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했던 ‘공홀’의 마음, 즉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가는 지금, 마치 ‘기계처럼’ 일해오던 방식을 버리고, 창조성과 공감능력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 망가져 가는 이 시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인가? 사람이 되어서 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친히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새롭게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께서 섬기라 하신 이 세상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가장 어려워 보이는 지금이야 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맨 처음 주셨던 그 명령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실행해야 할 때이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문화의 옷을 입고 천국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문화의 옷을 입어야 한다. 문화를 창조하고 다스리며 정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와 동떨어진 삶은 불가능하며, 그 누구도 문화를 피할 수 없기’¹¹⁵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문화를 창조해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만든 문화가 우리를 바꾸어 갈 것이다.

예술의 자리

“문화는 인간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¹¹⁶ 이 말을 한 앤디 크라우치는 “문화는 인간의 창조성, 즉 항상 이미 존재하는 것보다 뛰어난 것을

¹¹⁵ Ibid., 37.

¹¹⁶ 크라우치, *컬처메이킹*, 28.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욕구의 흔적을 담고 있다”¹¹⁷고 덧붙였는데, 이는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이다(빌2:13).¹¹⁸

사람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다시 사람을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제는 우리 자신 뿐 아니라, 우리가 만든 문화 속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로서 ‘문화 창조자’¹¹⁹의 사명과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이 때, 우리는 예술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문화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이다. 김요한의 말처럼 “예술에는 그 시대의 가치관과 흐름을 형성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힘이 ‘문화’를 낳는다.”¹²⁰ ‘왜 예술은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을까?’를 질문하며 ‘인문학’을 통해 예술을 가르치는 오종우도 자신의 책 <예술 수업>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문화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예술은 원시시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척이나 다양하게 전개되면서도 하나의 동일한 일을 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처한 삶과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곧 예술이라는 점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예술의 성질입니다.¹²¹

¹¹⁷ Ibid.

¹¹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2:13).

¹¹⁹ 크라우치, *컬처메이킹*, 11.

¹²⁰ 김요한, *예술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19.

¹²¹ 오종우, *예술수업*, (서울: 어크로스, 2015), 14.

‘사람에게는 육체의 배부름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꿈과 이상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를 채워 주는 것이 예술’¹²²이다. 예술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힘을 체험하고 있다. 예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이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알랭 드 보통은 ‘인생학교(The School of Life)’를 만들어 예술적인 접근을 통해 인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가 존 암스트롱과 함께 쓴 저서 ‘영혼의 미술관’에서 남긴 말을 들어보자.

예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의외로 중요한 기능들 중 하나는, 고통을 보다 잘 견디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데 있다. (중략)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예술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 뿐 아니다. 인간 집단, 더 나아가 사회 전체도 우리의 삶을 균형있게 잡아 주기 위해 예술에 의존할 수 있다. 예술은 인성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보다 도덕적으로 만들어 준다.¹²³

두 저자는 예술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통을 이기도록 도와주며, 인성의 균형을 잡아 줄 뿐 아니라, 우리를 보다 도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까지 말한다. 이 두 사람의 예술찬가는 계속 이어진다. 두 저자는 ‘예술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단락을 통해 “예술은 ‘나쁜 기억을 교정’ 하며, ‘희망의 조달자’ 역할을 하며, ‘슬픔을 존엄화 하는 원천’이 되고, 인생의 ‘균형추’ 역할을 하며, ‘자기 이해로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경험을 확장시키는 길잡이’요, ‘감각을 깨우는 도구’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한다”고 정의한다. 이들에 의하면 예술이 사람의 인생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하다.

¹²² 레오 니오니, *프레드릭*, 최순희 역 (서울: 시공사, 1999), 작품해설.

¹²³ 알랭 드 보통, 존 암스트롱, *영혼의 미술관*, 감한영 역 (서울: 문학동네, 2013), 26-36.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오종우나 알랭 드 보통이나 기독교 영역이 아닌 일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예술 자체가 가진 힘과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술을 즐기고 향유하는 것을 넘어 예술 자체를 숭상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한스 로크마커는 이를 두고 예술의 ‘유사 종교적 기능’ 이라고 말한다.

소문자로 표기되던 예술(art)이 대문자 A로 시작되는 예술(Art)로 바뀌었다. 이제 예술은 일종의 고급 예술(a high art)로서 한층 숭고한 의미가 부여되었고, 단순한 인간 노고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인문학자에 가까운 그 무엇이 된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유사 종교적 기능을 떠맡게 되면서 예술은 실생활과는 무관한 거의 피상적인 무엇, 즉 세련되고 고상하긴 하나 실로 무익한 호사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¹²⁴

예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라면 그 예술을 즐길 수 있고, 예술로 인한 유익을 누릴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음악이 신과 소통하는 방법’¹²⁵이었고, 동양의 공자도 “시에서 감흥을 일으키고, 예를 통해 자립하고, 음악에서 완성을 이룬다.”¹²⁶말하면서 ‘삶의 최고의 경지를 음악에 비유하곤 했다.’¹²⁷ 사람은 누구나 예술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예술로 인해 위로 받고 새 힘을 얻었으며,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기쁨을 얻으며 살아간다. 사람의 인생에서 예술과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크다.

¹²⁴ 한스 로크마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김유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3), 285.

¹²⁵ 손석춘,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쓸까*, (도서출판 낮은 산, 2015), 112.

¹²⁶ 공자, *논어*, 김형찬 역 (서울: 홍익출판사, 1999), 25.

¹²⁷ *Ibid.*, 25.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 비중이 너무 커져서 예술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른다.

예술은 분명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소중한 도구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술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켈빈 지어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예술은 땅을 경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한가지 방식이다...예술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¹²⁸ 이러한 예술의 존재의 의의를 로크마커는 이렇게 설명한다. “예술은 고유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결혼이나 인간 자신, 또는 어떤 특정한 새나 꽃, 산, 바다, 별의 존재 등과 같이 그 의의에 별도의 해명이 필요치 않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의미를 가진다. 그것들의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예술의 존재 의의는, 인간에게 예술과 미의식을 부여하는 것을 좋게 여기신 하나님의 의도에 기원한다.”¹²⁹

예술이 존재의 가치를 지닌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도록 돕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 그러하듯, 예술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모든 인간 활동처럼 예술 역시 훼손되었음’¹³⁰을 기억하고 예술을 하나님의 피조물 이상의 다른 위치에 두어선 안 된다. 힐러리 브랜드와 아드리엔느 채플린은 ‘예술을 감상하면서 느끼는 평온함과 환희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과 잘 지내고

¹²⁸ 브랜드, *예술과 영혼*, 73.

¹²⁹ Ibid., 285.

¹³⁰ 힐러리 브랜드, 아드리엔느 채플린, *예술과 영혼*, 오윤성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04), 129.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¹³¹고 경고하면서, 예술에 심취했지만 무시무시한 악행을 저질렀던 나치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적당히 좋은 것이 진정한 선을 가로막는 경우가 매우 많다. 수동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들으면서 영혼이 고양되는 것을 느낀 나치 제국의 관료들이 분명 있었다. 그들에게 예술은 잔인한 일과로부터의 자유로운 도피처였다.”¹³²

예술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술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예술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수 없으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인류 역사 가운데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나치가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다른 민족을 몰살시킬 수 있다. 예술이 인격 형성과 전인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술을 즐기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온전한 인간을 향한 보장이 될 수 없다. 두 저자의 말처럼, “예술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일으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삶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¹³³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예술가의 소명

우리는 예술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 예술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아낸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동시에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예술 활동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¹³¹ Ibid., 130.

¹³² Ibid.

¹³³ Ibid.

올려 드릴 수 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렇게 삶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의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한 부분이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은 창조적인 방식, 즉 예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별히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더더욱 그리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택하여 세우신 예술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신다. 성경에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된 최초의 사람’¹³⁴은 다른 아닌 예술가 브살렐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출31:1-5)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 예술가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여’ 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 신을 받은 브살렐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 하여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여기서 ‘연구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샤브’는 목적어가 수반될 경우 ‘생각해 내다, 고안하다, 발명하다, 구성하다, 작곡하다’¹³⁵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

¹³⁴ Ibid., 45.

¹³⁵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 (서울: 로고스, 2001), 213.

모든 단어들의 특징들이 바로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숙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브살렐이 받은 것은 단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손재주만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현실 속에서 그대로 구현해 내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성령께서 창조적인 상상력과 예술적인 감각을 더 해 주셨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예술가에게도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과 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된다. 예술가들이 주님의 이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여 실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재능과 자원, 또한 함께 할 재능 있는 또 다른 예술가들과 그들을 가르쳐 세울 예술가들까지 채워 주신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 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출35:29-30, 새번역)

또한 주님께서서는 그와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로 수를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출35:34-35, 새번역)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뿐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는데, 그가 준비했던 것은 성전건축에 필요한 자원만이 아니었다. 그는

성전에 거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를 찬양대도 미리 준비했다.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거문고와 심벌즈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역대상25:1, 새번역)

모세를 통해 만든 성막, 다윗을 통해 준비하신 성전, 이 성막과 성전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의 모형으로 비유된다. 실제로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성도들을 두고 이렇게 설명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2:20-22)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하는 성막과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에게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예술가들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안에 상상력과 창조성을 담아 주셨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상상하고 ‘고안’하여 주님의 거하실 처소를 ‘아름답게’ 만들게 하셨다. 그리고 그곳을 ‘아름답고 공교한’ 음악으로 채우게 하셨다. 바울이 교회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유와 은유들도 ‘문학적인’, 즉 예술적인 표현들이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늘에 속한 예술가들을 사용하신다. 그들은 미술이든 음악이든 문학이든,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그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꼭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과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공감능력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창조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이면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예술가이다. 예술가들은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창조적으로 뚫어내는 사람들이다. 도무지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워 보이는 이 시대를 향하여 문화예술을 들고 들어가 환대가 넘치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내고, 부드러워진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는 사람들이다. 복음의 문이 다 닫혀 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예술가들은 더더욱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할 수 있다. 켈빈 지어벨트는 이 시대의 예술가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한다.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상상력이 부족하고 어딘가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직업적인 상상가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예술가라는 직업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깃든 풍성한 의미와 그 미묘한 색조들을 느끼는 일에 덜 계발된 이웃들에게 음성과 눈과 기와 촉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¹³⁶

로크마커도 “특별한 재능을 선사받은 예술가에게는 그에 준하는 구체적인 과업,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운 소명이 주어졌음을 알아야 한다”¹³⁷고 말하면서 그 소명의 내용을 이렇게 정의한다. “예술가의 소명은 음율이나 형태나 이야기나 장식 등에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여 인류에게 진정 의미 있고 사랑스러우며 기쁨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동시에, 인생을 보다 살 만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있다.”¹³⁸ 그는 예술가의 소명에 대해 말한 뒤에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어떻게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할지 다시 설명하는데,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이 세상이라는 구조 내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인 만큼, 그 구조와 거리낌 없고 적극적인 유대 관계 속에서 작업해야”¹³⁹ 한다.

¹³⁶ 카드, *땅에 쓰신 글씨*, 158.

¹³⁷ 로크마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303.

¹³⁸ *Ibid.*, 303.

¹³⁹ *Ibid.*

많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하나님께서 두신 ‘이 세상이라는 구조 안’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과의 유대를 끊어버린 채로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예술’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두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을 ‘세상의 구조’ 속에 두신 진짜 이유와 그 소명을 오해한 것이다. 예술가들이 교회 안에서 예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교회 밖의 예술 활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다. 사실 ‘교회 안’과 ‘교회 밖’이라는 구별을 둔 것 자체가 이전 시대의 전제이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교회 안과 밖을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이 두신 세상의 구조 안에서 예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존재이다.

로크마커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동료 인간을 사랑하는 한 방편으로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합당하게 처리하며 이웃끼리 서로 돕고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인간다운 삶에 보다 적합한 질(質)로 만드는 동시에,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사랑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다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¹⁴⁰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예술가의 모든 활동의 기초는 분명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하는 목적은 단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함이 아니다. 예술 활동의 현장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핵심을 놓치고 예술을 ‘복음 전도의 틀에 맞추려고 한다면, 자주 타협을 해야, 즉 예술을 팔아야’¹⁴¹ 할 것이다. 로크마커가 예술사에서 가져온 이야기를 들어보자.

¹⁴⁰ Ibid.

¹⁴¹ Ibid., 42.

헨델의 “메시아”, 바하의 “마태 수난곡”, 렘브란트의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시토 수도회의 건물들은 복음 전파의 수단도 아니며 복음 전파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작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예술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들은 종교적 선전, 혹은 거룩한 광고를 위한 수단을 제작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의 작품은 심오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 작품들은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그 자체로서 목적이었으며 의미가 있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¹⁴²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의 목적이 복음 전파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들에게 주신 예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한 섬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미술과 건축, 음악과 문학으로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섬길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역할들은 그리스도인 예술가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을 ‘교회 안’에 제한하는 것은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한 것이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진짜 소명은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이 더 사랑 넘치고 아름다우며 조화롭게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로크마커가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예술은, 주어진 삶의 위대성에 대한 경탄과 함께 성령의 적극적인 심성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실로 깊은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어느 때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통해 주신 자유함으로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예술로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과 예술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의 존재의 목적과도 관련된

¹⁴² Ibid.

문제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로크마커는 “타락 이후 사랑과 자유는 성취하기도, 창조하기도, 실현하기도 어려워졌다”¹⁴³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시키고, 사랑과 자유와 미(아름다움)와 그밖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시금 우리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음”¹⁴⁴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이므로 이제 그는,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인식하고 그 인식의 결과로써 예술을 통해 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있다”¹⁴⁵고 역설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육신 하신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기도하며 예술작품을 만들고, 기도하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이다. 로크마커가 말한다.

우리가 작업할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실제적인 모든 가능성을 찾아내는 일, 동료 인간을 위한 최선의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일, 나아가 우리 안에 잠재된 최선의 가능성을 발휘해 창작에 임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모든 일이 그렇듯, 우리의 예술은 그분을 출처로 하여 그분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고 그분에게 바쳐져야 한다.¹⁴⁶

불과 수 십 년 전만 해도 교회는 문화의 선도자 역할을 했었다.

지역교회에서 행해졌던 ‘문학의 밤’ 행사는 그 지역 학생들의 행사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행해지던 성탄절 행사는 동네 잔치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교회

¹⁴³ Ibid., 304.

¹⁴⁴ Ibid.

¹⁴⁵ Ibid., 305.

¹⁴⁶ Ibid.

성가대에서 자라난 음악가들은 문화예술계 곳곳에서 들어가 전문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문화에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겼다. 음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 느낌과 감정에 치우쳐서 지성과 의지의 부분은 날로 약해져가고 있다. 사람의 인격성이 왜곡되고 오해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고, 자신이 기준이 된 느낌을 온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인격의 존중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인격은 무시되어도 전혀 느낌이 없는 무서운 세대이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만 보이는 이러한 모든 환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 주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긴 창조성을 비롯한 모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확인할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받은 사람이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됨의 권세를 회복했으며,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과 대위임령을 수행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실을 힘써 나타낼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그 교회의 진실을 나타내며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

날로 인격성을 잃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인격성을 전제로 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역사상 어떤 세대보다도 기계에 익숙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들이 인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밭이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 말씀하셨고,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고 했다. 마을 하나를 교회로 만들어가는 비전을 품었던 민정웅은 그의 농촌목회론과 그 실천을 다룬 <농촌목회란 공허한 마을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책에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마을로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기록을 남긴다. “지역 사회 주민의 심성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게 하려면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봉사사업을 통해서 길가 밭 갈고, 돌 밭 갈고, 가시떨기 밭 같은 그들의 마음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¹⁴⁷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먼저 사람들의 마음 밭을 갈아엎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뿌리고자 하는 씨앗이 귀한 씨앗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성으로 인해 마음 밭이 더 척박해진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이 ‘마음 밭을 갈아엎는 과정’을 생략한 채로 무턱대고 복음의 씨앗만 뿌리려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어도, 이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씨앗이 좋은 씨앗이라면, 이를 위해 밭을 기경하는 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딱딱하게 굳어버린 현대인의 마음 밭을 부드럽게 갈아엎고 생명이 담긴 복음의 씨를 심을 수 있을까? 예술은 오랫동안 굳어 버린 그 마음 밭을 갈아엎기 위한 소중한 쟁기가 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예술의 많은 영역 중에서도 ‘음악’, 그중에서도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할지 고찰할 것이다.

¹⁴⁷ 민정웅, *농촌목회란 공허한 마을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1995), 219.

함께 노래 부르기

창조와 음악

음악 용어 중에 ‘칸타빌레(Cantabile)’ 라는 말이 있다. “악보에서, ‘노래하듯이’ 라는 뜻으로 표정을 담아 선율을 아름답게 흐르는 듯이 연주하라”¹⁴⁸는 말이다. 악기 연주를 하는데 ‘노래하듯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노래’ 야말로 인간이 음악으로 할 수 있는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표현방식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소리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 소리에는 음조가 있고, 음조가 있는 소리를 우리는 ‘음악’ 이라 부른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음악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음악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음악이 시간과 소리의 예술이라는 것이다. 음악은 시작과 끝이 있고 그 틀 안에서 소리라는 질료를 사용해 이루어지기’¹⁴⁹ 때문이다. 이 시간에 관해서는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많은 지면을 들여 언급하는데, 이것을 어거스틴 연구가 선한용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설명한다. “무로부터의 창조는 ‘언제 세계가 창조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제공한다. 왜냐하면 무로부터의 창조는 시간과 세계의 절대시작(태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계를 시간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창조하셨다.”¹⁵⁰

어거스틴의 이러한 시간관은 기독교의 직선적 시간관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동시에 시간 예술인 음악의 근원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음악 안에는 반복적

¹⁴⁸ 표준국어대사전.

¹⁴⁹ 민경찬, “현대교회에 나타난 새로운 예배 음악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1), 15.

¹⁵⁰ 선한용, *시간과 영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44.

요소가 들어 있으나 결국에는 종결(Coda)로 가게 되어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지 끝을 맺게 되어 있다.’¹⁵¹ 이 음악의 특징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기독교 시간관(혹은 역사관)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한다.¹⁵² 이에 관해 최혁이 잘 정리하여 말해 준다.

“음악은 태초로부터 시작된 이 직선적 시간관 위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모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음악이 만들어지고 연주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역사의 운행과 너무도 닮았다. “먼저는 작곡가에 의해 음악이 구상되고 만들어진다. 만들어진 음악은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 위에 첫 음이 울림으로 시작되고 그 음은 계속 다음의 음들과 유기적인 연결을 가지며 절정(climax)으로 발전해 간다. 그 과정 중에 긴장도 있고 해결도 있다. 쉽도 있고 몰아치는 순간도 있다. 그렇게 절정에 이르지만 음악의 방향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여 종결구로 향하게 된다.”¹⁵³ 그렇게 연주가 끝날 때까지 음악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음악이든 반드시 끝이 있다. 이러한 음악의 특징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뿐 아니라, 사람의 인생과도 너무나도 닮았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해결과 쉽도 있고, 슬픔과 어려움도 있지만 즐거움과 환희도 있다. 반복이 있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시간도 있으며, 아예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때도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마치게 된다. 때로 그 죽음은 또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주어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인생의 이야기는 음악과 너무도 닮아 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나 인생 이야기뿐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¹⁵¹ Ibid., 5.

¹⁵² 최혁, *나의 찬송을 부르라* (서울: 규장문화사, 1994), 34.

¹⁵³ Ibid., 35.

사건도 음악의 존재방식과 너무도 닮아 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곳에 하나님의 연주와 함께 빛이 있었던 것처럼,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인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였다. 그 새 창조의 과정에 ‘노래’가 빠질 수 없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엘리사벳의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Magnificat)’로 이어지고, 예수님을 축복하는 ‘사가라의 노래(Benedictus)’를 통해 고조된 그 분위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노래’에서 절정을 이룬다. 성경은 그 노래를 기록하고 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2:14)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탄생하시는 그 사건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 낼 수 있는가? 20세기 후반의 최고의 철학자로 알려진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나누고, “말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¹⁵⁴고 충고 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알고도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음악에 담아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상상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언어란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 자체를 표현하기에는 도대체가 맞지 않는 수단이다. 항상 불충분하여, 결국 이 기적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데에 쓸모가 없다. 말로써 “숭고한 성육신”을 기리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혼란에 빠지고

¹⁵⁴ 로버트 C. 캐슬린, M. 하긴스, *세상의 모든 철학*, 박창호 역 (서울: 이론과실천, 2007), 485.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버린다. “내게 모든 문법은 융통성이 없는 것이며, 모든 이야기는 지루하고 냉랭할 뿐이다.” 우리가 언어 문제로 제한을 받고 답답할 때 음악의 영역으로, 기독교 음악으로, 음악적인 기독교 세계로 빠져 나갈 수 있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¹⁵⁵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음악이 우리의 언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해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과정은 온통 노래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잠깐 불려진 노래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노래였다. 오래 전 모세와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고, 그 수많은 노래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 절정을 이루었으며, 다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거대한 서사시가 노래로 다시 들려진다.

노래하시는 하나님

마가는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감람산에서의 마지막 기도 이후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야 하는 다급하고 어려운 순간이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가니라.”

(막14:26) 마태도 같은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 짧은 이야기를 포함시킨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불렀던 노래들은 시편의 노래임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이 노래를 부르신 후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로 가셨고, 고난 당하신 이후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외치신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¹⁵⁵ 로버트 H. 미첼, 목회와 교회음악, 지형범 역, (서울: 도서출판 가이드포스트, 1995), 97에서 재인용.

아니었다. 다름 아닌 다윗의 시편, 즉 노래의 한 소절을 부르신 것이었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22:1)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시편의 노래를 부르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에 노래를 부르신 것이다. 왜 그 순간에 노래를 부르셨을까? 역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수많은 노래를 지어 불렀던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69:30-31)

황소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될까? 황소 한 마리 있으면 자식 대학 공부를 시킨다는데, 그 귀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한다. 도대체 노래가 뭐길래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당신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하셨을까? ‘노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 또한 당신의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담아 주시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 노래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 같은 원리로, 노래에는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인격이 담긴다. 노래를 드린다는 것은 노래 부르는 사람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음악가이기도 했다. ‘그에게 있어서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표현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을 표현하는 행위였고 인격 전체를 고백하는 것’¹⁵⁶이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긴다. 그 말에 감정을 싣고, 오장 육부를 포함한 온몸을 다 담아서 하는 것이 노래다. 그래서 노래에는 그 사람의 ‘인격

¹⁵⁶ 문성모, *민족음악과 예배* (서울: 한들, 1995), 402.

전체’가 담길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진심으로 노래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노래를 잘 부르지 않는다. 왜인가? 노래 부를 마음이 없어서다. 마음이 없으면 노래가 안 나온다. 그러나 일단 마음을 담아 온 힘을 다해 노래한다면 그 노래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긴다. 왜냐하면 그 노래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가? 그리고 왜 노래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네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슥3:17)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노래하시는 분이시다. 그 노래의 시작은 ‘사랑’이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심으로 즐거이 노래하고 계신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 또 가장 슬프고 아픈 순간에 노래를 지어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노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노래를 담아 주셨다. 하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감각을 주셨고, 노래를 지어 부르며 노래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자녀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담아 주신 그 노래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노래할 수 없다. 오직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 아버지가 노래하시니 우리도 노래한다. 그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이 담긴 소리이다. 그 노래에는 마음을 담을 수 있고, 인생을 담을 수 있다. 부버가 <나와 너>에서 사용한 표현대로 우리가 ‘온

존재를 기울여서’ 드리는 노래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고 오늘 시편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노래하시기에 그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도 노래한다.

노래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전체가 노래하게 하셨다. ‘욥은 별들이 노래한다고 했다. 아마도 그는 천문학자들이 최근에서야 대형 접시 안테나의 도움으로 들을 수 있게 된 주파수를 느꼈었나 보다.’¹⁵⁷ 천문학자들 중에 별들이 움직이며 내는 소리를 녹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소리에 실제로 음정이 있고 박자가 있다. 온 우주는 지금도 노래하고 있다.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기독교 음악을 했다는 이유로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에게 12년간의 강제 노동을 선고받았던 니콜라이 몰도비아누는 그의 동료 예술가들을 향한 편지에서 욥이 들은 별들의 노래를 가져와서 이렇게 썼다.

음악을 통해 주님이 계시되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실현됩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찬양과 예배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장차 올 영원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을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음악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음악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온 우주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중략)...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욥38:4-7)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함께 노래했던 별들이 지금도 노래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삼라만상,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노래가 있다. 바로 인격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인격과 전 존재를 담아 부르는 노래이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¹⁵⁷ 카드, 땅에 쓰신 글씨, 68.

하나같이 노래를 불렀다.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다. 악기로, 음악으로 주님을 찬양했다. 이 노래들이 성경에 가득하다.

성경의 노래들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고,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으며, 펴면 바로 나오는 책이 있다. 시편이다. 시편은 노래책이다. 노래 가사집이다. 가사만 있지 않고, 선율의 이름도 담겨 있다. 마할렛, 알다스헛, 알다못, 아엘렛샤할, 못랍벤... 다 시편에 나오는 곡조 이름이다. 셀라! 이건 연주하라는 표시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로 주님을 찬양했다. 혼자 노래했으며,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했고, 인도자, 즉 지휘자를 따라 반주에 맞추어 합창으로 노래했다. 이들은 음악에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담아 가사를 실어 노래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하나님이 먼저 노래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 방식대로 노래로 응답한 것이다. 음율 안에 마음을 담고 감정을 실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즐길 수 있는 유일하고 놀라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들이 노래로 당신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신다.

시편에만 노래가 있는 게 아니다. 신구약 곳곳에 노래들이 숨어 있다. 첫 사람 아담도 노래했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지었던 에녹 성의 라멕도 노래했다. 야곱과 라반도 노래했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노래했고, 사사들도 노래했고, 왕들도 노래했고, 선지자들도 노래했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노래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들도 노래했다.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했고, 아프고 슬플 때 노래했다. 승리의 순간에 노래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노래했으며, 괴로운 순간에 노래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노래했고, 바울도 노래했고, 당연히 예수님도 노래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은 시편의 가사로 노래하셨다. 고난과 핍박 중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노래했고, 유배 중에 있던 사도요한도 천국을 보고, 천국에서 들리는 천상의 노래를 들었다.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노래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호모 칸투스; 노래하는 인간

가나안 땅을 목적에 둔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죽기 전에 수행할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신 것이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신31:18-21)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사람을 자신의 욕망이 극대화된 우상의 땅이었다. 그곳에선 사람을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겼다. 그곳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람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하여 음란하고 부도덕하게 착취하게 하는 잔인한 신들을 섬기는 땅이었다. 이러한 악한 문화가 만연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법도와 가치를 따라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들과 ‘소통’ 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를 따라갈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따르지도 받아들이지도 말라 하신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버티기만 할 것인가? 아니다. 그들의 문화에 대항할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문화가 필요했다. 이러한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 어려움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은 다름 아닌 ‘노래’였다. 노래에 말씀을 담아 그들의 자손들에게 부르게 한 것이다.

이 노래는 단지 즐기기 위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로 인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를 위해 미리 주신 소중한 말씀을 담은 생명의 노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신31:21)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한다.

그 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신31:22, 새번역)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신31:30, 새번역)

모세가 들려준 이 노래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만든 노래였다.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노래였다. 모두가 함께 부르기 위한 노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친히 주신 선물이다. 노래로 주신 것은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며,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함이다. 그 노래에 담긴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돕기 위함이다. 노래는 우리 영혼에 담긴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진실이다. 그래서 사람은 노래한다. 새도 노래하지만, 이렇게 의미를 담고, 인격을 담아 노래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신 것은 이미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담아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사람 안에 ‘노래하는 진실’ 을 담아 주셨다. 그리고 그 진실을 나타내라 명령하신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시68:4).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시81:1).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시100:2).

노래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나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명령 하나하나마다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노래’ 를 선물로 주셨고, 이 선물을 누리며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아 주신 ‘사람의 진실’ 인 ‘하나님의 형상’ 을 나타내는 중요한 한 방안이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노래하는 존재’ 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인간’ , 즉 ‘호모 칸투스’ 이다.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그가 사람이라면 그의 유전자 속에는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새겨져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진실(眞實)은 진리의 열매이다. 어떤 존재가 가진 진실은 그 존재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 사과를 사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과가 그 존재의 열매, 즉 진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43:21)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찬송’, 즉 ‘노래’ 로 당신을 높이길 원하셨다. 왜 인가? 노래에는 그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즉 전 인격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선 마음과 정신과 감정뿐 아니라, 온몸을 움직여야 한다. 겉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까지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103:1)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의 영혼,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온몸,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우리의 온 말과 모든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이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는 온전히 찬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릴 향해 부르시는 그 사랑 노래를 듣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의 형상이 있기에 그분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깊이 관계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담아 노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자신의 ‘온 존재를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노래를 들으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22:3) 이 놀라운 진실을 깨달은 그가 다시 노래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시95:1-2)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담아 이렇게 노래하며 응답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104:33)

새 노래

다윗은 자신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시40:2)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다. 그가 하나님을 높이하고자 할 때,
그저 말로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노래했다. 이전에 했던 노래가 아니라,
이전엔 한 번도 들려진 적이 없었던 ‘새 노래’ 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40:3) 다윗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었다. 시편을 기록한 다른 많은 시편의 기자들도 이렇게 노래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시33:3)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시96:1)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시98:1)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시149:1)

다윗은 이 ‘새 노래’ 들을 자기 입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
그 모든 노래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우심과 광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노래’ 로 ‘반응’ 할 수 있게 하신 분임도 알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기쁨에 대해 마이클 카드는 이런 고백을 남겼다.

내가 작곡가로서 단언하는 바 가장 큰 격려의 순간은, 곧 잊혀질 순위 차트에 내 노래가 오를 때나 상을 받을 때가 아니고, 갓 만들어진 새 노래를 부를 때다. 이제껏 누구도 불러 보지 않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 아직 아무도 들어보지 않은 악보를 연주한다는 것, 그러면서 듣는 이에게, 그 대상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느낌을 주게 될까 기대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를 나눈다는 것의 의미이며 이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이다.¹⁵⁸

본 연구자 또한 작곡가로서 이러한 경험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를 만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던 그 경험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다. 사실 그 기쁨과 감격은 다른 사람에게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렇게 전에 없던 새로운 노래로 들려진 노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부버에 의하면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로 온전히 만나는 때는 양편이 다 서로를 향해 ‘온 존재를 기울여’ 대할 때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온 존재를 기울여 우리를 대해 주시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온 존재를 기울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 중의 하나가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 어린 노래를 기뻐하시는 이유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온 존재를 기울여 서로를 향해 노래로 화답할 때, 이 노래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된다. 또한 그렇게 자신에게 기쁨이

¹⁵⁸ Ibid., 50.

된 그 ‘새 노래’는 누군가에게 들려져 또 다른 영감을 주고, 그는 또 다른 ‘새 노래’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사42:10)

시편, 위대한 개인의 노래

시편은 노래 가사집이다. 그 노래 가사 중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것처럼 보이는 가사도 많이 있다. ‘나의 감정, 회노애락’을 선율에 담아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의 표현을 죄악시 하지 않으셨다. 거짓으로 꾸며서 만들어내는 노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시편은 단지 하나님을 선전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 시편에는 기독교를 좋은 종교로 포장하려고 했다면 도저히 신기 어려운 거칠고 부적절해 보이는 감정적 표현들이 많이 있다.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고백이다.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자신의 원수를 향해 ‘빌어먹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성경에 있다니!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에 찬 외침도 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보이는 이 노래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시 부르셨던 그 노래이기도 하다. 혼란스러운 감정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결말로 가득한 노래도 많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시38:6)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시38:8) 시편 기자들이 쏟아 놓는 격한 표현들까지 그대로 담아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감정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고 계심을 보여 준다. 또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솔직한 이 노래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표시기이기도 하다.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자기 마음 속의 은밀하고 깊은 고백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그 감정이 정화되고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때로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끝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 주시고, 그 자체로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 웨퍼는 ‘단 하나의 청중’¹⁵⁹이신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며 노래했던 다윗의 예를 들며 ‘예술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어떻게 예술이 충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만 제시된다면 충분한 통합점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예술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질 수 있다. 다윗은 “누가 내 주께 말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다. 곧 “내가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고 이 시편을 지은 것을 누가 그분께 말해주겠는가?” 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대답한다. “주께서, 나의 주께서 친히 들으시는데다.”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고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봐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를 짓고 음악을 작곡하며 악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작품을 살펴보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¹⁶⁰

웨퍼는 예술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예술은 물론 성전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¹⁵⁹ “내게는 단 하나의 청중밖에 없다. 네 앞에서는 내가 입증해야 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오스 기니스, 소명,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0), 126.

¹⁶⁰ 웨퍼, *예술과 기독교*, 28-29.

찬양하는 것이 되기 위해 예술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할 필요는 없다.”¹⁶¹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드러진 그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취하시고, 성경이 되게 하셨고, 그가 속한 공동체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가 함께 부르며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누린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셨다. 여기에서 노래 안에 담겨진 ‘인격성’이 등장한다. 노래에는 ‘개인’의 감정과 의지, 마음과 뜻을 담을 수 있다. 시편에서 ‘나’로 표현되는 ‘개인’의 등장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 시편의 개인적인 노래가 그토록 위대한 것은 서구 역사가 ‘개인’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이다.

신학 뿐 아니라, 일반 인문학에서도 어거스틴을 그토록 추앙하는 이유는 그가 쓴 <고백록> 때문이다. 그 안에 담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가 사용한 형식이 개인적인 독백이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통해 시작된 ‘개인’에 대한 인식과 성찰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거쳐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본격화되는데, 특히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신 앞의 개인)’에 대한 개념을 말하면서 부터 본격화된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의 근본정신에 관해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한다.

때는 거짓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유는, 때와 아무런 관계를 맺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바로 때에 의해 박해 받은 것입니다. 예수는 정치집단을 만들기 원하지도 않았고 투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대신에 그는 그 자신인 존재, 즉 진실이 되고자 했습니다. 진실은 한 개인에게 자신을 관계시킵니다....진실이 전해질 때는 오직 개인에게만 전해집니다. 개인만이 진실입니다.¹⁶²

¹⁶¹ Ibid., 29.

¹⁶² 박성현, *개인이란 불리는 기적*, (서울: 심볼리쿠스, 2011), 89.

박성현은 그의 저서 <개인이라는 기적>에서 ‘개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¹⁶³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책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쓰지 않았음에도 “유럽의 개인은 기독교의 자식”이라고 단정지어 말한다. 그의 말대로 현대 문화의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개인’은 서구 유럽의 기독교에서 출발한 것임에 틀림없다. 조던 피터슨이 말한다. “기독교 교리는 서구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의 영혼을 강조했고, 노예와 주인, 평민과 귀족을 형이상학적으로 같은 선상에 올려놓았다. 기독교 교리로 모두 평등해진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며, 왕조차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가르쳤다.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중략)... 이런 교리는... 긴 시간 동안 온갖 험난한 과정을 거쳐,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동등하다는 생각이 서구 사회의 기본 전제로 자리를 잡아 갔다.”¹⁶⁴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왕이나 귀족, 성직자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존엄하다는 이 사상은 기독교가 세상에 전파한 놀라운 복음이다. 그가 누가 됐든, 개인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며 나아갈 수 있다. 신 또한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한 영혼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다. 이러한 개인의 모든 이야기가 시편과 성경의 노래 속에 가득하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노래로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고, 하나님은 그 노래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셨다. 오늘날의 현대 세계가 누리고 있는 개인의 인권과 존엄함을 위한 모든 개념은 사실 성경에서 기인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과 성경의 노래들에 빛진

¹⁶³ Ibid.

¹⁶⁴ 조던 B.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강주현 역 (서울: 메이븐, 2018), 271.

사람들이다. ‘위대한 개인’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노래들을 통해 인류에게 주신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은 곳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담아 노래할 수 있다. 우리가 온 존재를 기울여 부르는 노래는 그 자체로 기적이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노래

이 위대한 개인의 노래는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의 노래가 된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공동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흐르는 정서가 노래를 만날 때,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놀라운 자산이 될 수 있다. ‘나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난다. 다윗 개인의 노래는 그들 무리의 노래가 되었고, 그 시대의 노래가 되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하며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노래가 되었다. 그래서 노래는 끊이지 않는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른 선율 다른 문화의 옷을 입지만, 노래가 그친 시대는 없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그 입을 틀어막아도 사람들은 노래한다. 노래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133:1)

그렇게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담아냈던 시편은 함께 한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집이 되었다.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이 될 때, 그 노래는 더욱 큰 힘을 갖게 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그 마음이 담긴 노래들을 함께 부르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기적을 경험한다. 고통받고 아픈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의 한 일원임을 확인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의 노래는 시편만이 아니다. 초대교회의 고백들 역시 공동체가 함께 부른 노래들이었다. 이 노래들 또한 개인의 고백인 동시에 공동체의 고백이었고, 공동체의 고백이 개인의 고백이 된 노래들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노래는 하나님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첩자들의 귀에도 들려졌다. 마이클 카드가 플리니 2세의 기록을 빌려서 이렇게 썼다. “그들은 아침 일찍 모여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리스도를 향해 찬송을 불렀다.”¹⁶⁵ 마이클 카드는 라틴어로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이라는 뜻을 가진 이 고대 찬송 중의 하나를 노래의 형태로 만들어 다시 소개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합창-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2:6-11).

이 찬송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그 내용을 노래한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¹⁶⁵ 카드, *땅에 쓰신 글씨*, 70.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고,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했다. 이 성육신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사건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른 ‘이 노래는 성육신의 본질에 비추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 준’¹⁶⁶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며 그 의미를 마음과 몸과 삶에 새기며 그리스도를 예배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를 높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이 아름다운 노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수많은 개인과 공동체들에게 또 다른 영감을 불어 넣어 주고, 새로운 선율에 담아 불려지고 있다. 본 연구자가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서 공동체에서 함께 불렀던 찬송하나를 소개한다.

<예수님 저는> - 작사작곡 민경찬¹⁶⁷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신 주
사람이 되신 만물의 창조주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나의 주

들어오소서 나의 맘 가득히
주의 겸손으로 나를 채우소서
들어오소서 나의 삶 가득히
주의 생명으로 나를 이끄소서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본체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오직 주 예수만 경배합니다

¹⁶⁶ Ibid., 72.

¹⁶⁷ 부록에 악보 첨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밤에 부른 노래

성경에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부른 노래들도 많다. 그 노래들은 그들이 처한 두려운 상황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마음을 담아 토로하며 노래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해 내기도 한다. 이러한 특별한 깨달음 같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노래를 통해 위로받기도 하고, 아픔을 노래로 승화시키면서 인간에게만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게 그들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깊은 ‘밤’ 같은 시간을 지나며 부른 노래들은 그와 비슷한 시기를 보내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새 힘을 주는 노래가 되었고, 고통을 통과한 그 ‘개인의 노래’를 공동체가 함께 부르며, 공동체가 처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새로운 힘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자는 그러한 노래를 한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려 ‘밤에 부른 노래’라 부르겠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휠히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시77:6-9).

이 노래를 부른 시인은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심지어 의지했던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의 고뇌와 혼란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말해준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인격적’인 종교이다. 이렇게 ‘밤에 부른 노래’는 인격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을 가진 자녀로서의 사람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만남의 장소’이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시를 선율에 담아 다시 부르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누군가로 향하게 되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셀라) 시간을 통해 또 다른 인격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게 노래하며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마음과 삶의 새로운 빛이 되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돕는다.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땅에 삼켜져 죽었던 고라의 자손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며, 낙심 중에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중에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된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중략)...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42:3,9-11)

노래는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자신을 떠나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와 대화’가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종교적인 노래에만 해당하지 않고, 모든 노래에 해당한다. 노래는 자기 자신, 혹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시대를 떠나서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이나 시대를 바라보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힘이 있다.

‘밤의 부른 노래’ 를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있다. ‘예레미야 애가’ 다. ‘슬프다 이 성이여(애1:1)’ 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바벨론의 의해 남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른 노래이다.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나라 전체가 망해 버린 거대한 슬픔과 절망 앞에서 그는 한치 앞도 볼 수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캄캄한 밤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의지하던 하나님께 대한 소망마저 끊어진 상태에서 한참을 탄식과 절망의 노래를 부르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온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리리라 하도다. (애3:18-24)

예레미야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 이 노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르는 중에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한다. 그는 노래 하는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그 깊은 만남을 통해 얻은 새로운 소망은 이 노래를 통해 이제 유다 공동체 전체에게로 전해지게 된다. 시편을 비롯한 성경 속의 노래 가운데 이러한 예는 무궁무진하다. 그 많은 예 중에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다. 악인이 득세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불렀던 노래이다. 그가 처해 있던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이었다. 그가 노래한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합3:16)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 순간 그의 노래가 이렇게 바뀐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합3:17-19).

그가 부른 이 놀라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수금에 맞추어 부른 노래다. 또 다른 인격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의 노래가 이제는 공동체의 노래가 되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그가 깊은 밤을 통과 하며 부른 노래는 이제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고, 수세기를 지난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또 다른 개인, 또 다른 공동체가 부르며 ‘밤’의 시간을 빛과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한 질병이 있다.’¹⁶⁸ 시대마다 그 시대만의 고유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우리 시대의 아픔과, 우리 다음 세대의 아픔이 다르다. 어려움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스러운 어둔 밤 같은 시간을 지나기 마련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노래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 안에

¹⁶⁸ 한병철,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학지성사, 2012), 11.

있는 하나님도 함께 노래하신다. ‘노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최악의 순간에, 그리고 가장 기쁜 순간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순간에 노래를 부른다. 그의 존재의 심연에서 올라오는 그 노래는 그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그의 생각과 마음에 변화를 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주고, 나아가 그의 실제 삶에 변화를 준다.

노래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담아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을 깨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 상황은 똑같은데, 노래 부르기 전과 노래 부른 후의 마음이 다르다. 존재의 심연에서 부르는 그 노래에는 실제로 치유와 회복의 힘이 있다. 이 노래를 통해 우리는 ‘밤의 시간’ 을 지나는 현대인들을 만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절망으로 인해 어찌할 줄 모르는 고통 받는 개인을 찾아가 만날 수 있으며, 그런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찾아가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밤에 부른 노래’ 가 가진 힘이다. 우리가 만나는 어두운 밤의 시간은 밤을 통과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노래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성경에 담긴 이 놀라운 만남의 신비를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 노래로 들려줄 때, 당장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그의 인격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두셨던 선하고 고귀한 것들을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이를 위한 놀라운 도구이다.

노래 중의 노래

로크마커는 “예술에서도 가장 큰 규범은 바로 사랑”¹⁶⁹이라고 했다. 그의 말이 옳은 이유는 예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¹⁶⁹ 로크마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303.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사랑으로 기인한 일이다. 그 사랑은 ‘인격’을 전제로 하며, 인격적인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게 했으며, 그분의 사랑 노래를 듣고, 또한 사랑 담은 노래로 응답하게 하셨다. 이것은 단지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이 놀라운 신비가 삼위일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도 사랑이 있어야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의 문제는 모든 인류의 문제이며, 개인의 문제이며, 동시에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님이라는 호칭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노래한 노래집이 있다. ‘노래 중의 노래(Song of Songs, GNT)’라고 불리는 ‘아가서’이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1:1, 새번역)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노래집은 시작부터 뜨겁다.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아가1:2, 새번역) 임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시작한 이 노래는 그 사랑을 응원하는 친구들의 노래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사랑 노래에 다시 사랑 노래로 응답하는 남자의 노래가 이어진다. 남자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온갖 은유와 비유를 사용해 노래하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다. 모든 사랑 이야기가 그러하듯, 그들의 사랑에도 갈등이 있고, 그로 인한 아픔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 강력하다. 심지어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¹⁷⁰ 결국 그들의 사랑 노래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으며 끝이 난다.

¹⁷⁰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 8:6).

놀라운 것은 이 긴 사랑 노래를 부르는 중에 소위 ‘종교적인 언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집어넣지 않아도 사랑이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그분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을 담아 누군가를 향해 노래한다면, 그 사랑 노래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아가서 외에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책이 있다.

‘에스더서’이다. 그 책은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작은 공간, 혹은 ‘유다’라는 작은 지역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온 세계를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 준다.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이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야기와 그 사랑이 담긴 노래를 만들어 세상에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만 통하는 종교적인 언어와 이야기가 아닌, 세상의 언어 세상의 이야기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불러 주고,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에스더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승리를 한 유대민족의 ‘부림절 잔치’ 이야기가 나온다. 그 잔치에 다른 수많은 민족들도 함께 했는데, 우리는 그때 함께 부를 노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봉우리에 ‘할렐루야’라고 크게 써 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에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노래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것이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절망과 어둠을 통과하는 소망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일이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면 온 산과 들에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¹⁷¹

그 노래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이제 우리도 나아가 그 사랑 노래를 세상을 향해 부를 수 있다. 세상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선율로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노래를 통해 말씀을 마음과 삶에 새기는 전통은 초대교회에도 이어졌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노래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었고, 주님을 향한 예배였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맨 처음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사람은 예술가 브살렐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작업을 잘 수행했다. 신약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노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엡5:18-19, 새번역)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난날의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가슴으로 주님께

¹⁷¹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사야 55:12).

노래' 하는 것이었다. 성령님은 우리로 노래하게 하신다. 그 노래는 '선율' 만 있지 않고 '시' 가 있다. 이 시는 단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예술적인 응답이었다. 그 노래 가운데는 '시편' 의 노래들도 있었고, 복음의 내용을 담은 찬송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노래들로 서로 '화답' 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노래는 먼저는 하나님의 노래에 인격적으로 '응답' 하는 노래였다. 이것은 다름 아닌 '말씀' 을 향한 응답이기도 했다. 사도바울은 골로새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골로새서3:16, 새번역)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풍성하게 살아 있는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그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동시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이 풍성히 살아 있을 때 그들이 나타내야 할 첫 번째 순종 역시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후1:3-4)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긴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고, 그 노래를 온 몸과 맘과 힘과 뜻을 다해 부를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롬11:33-36)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이 성도들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먼저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마음을 다해 찬양했고, 다음에는 ‘서로 화답하며’ 찬양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해’ ‘가슴으로’ 불렀던 이 노래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서로의 인격을 향한 존중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로 화답하는 이 노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놀이였고 잔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재현 되는데, 그 첫 번째 삶의 응답이 바로 ‘노래’였다. 노래 중에서도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격과 삶의 전부를 담아 하나님께 노래했고, 서로 화답하는 노래들을 통해 받은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내면화시키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 나타나게 했다. 노래는 하나님과 사람을 인격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사람과 사람을 인격적으로 연결하여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 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이룬 기적이 아니라, 교통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지상에서 부르는 천상의 노래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이 밧모섬으로 유배되어 들어간 AD 90년대 중반인 로마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때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² 이 책의 그리스어 원제목인 “아포칼립시스(ἀποκάλυψις)”는 ‘드러냄, 계시, 벗김’ 등의 뜻을 가진 명사로 ‘드러내다, 나타내다, 폭로하다’는 뜻의 동사 ‘아포칼립토(ἀποκαλύπτω)’에서 유래했는데, 저자가 ‘드러냄’, 즉 ‘계시’를 위해 사용한 방법은 비유나 상징, 은유와 직유, 암시 등의 문학적 요소들이었다. 동시에 저자가 많이 사용한 것이 바로 ‘노래’였다. 저자는 환상 중에 보고 들은 천상의 노래들의 가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노래들을 통해 강력한 로마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고자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상 인식과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 새번역)

요한의 계시는 ‘지금’에서 시작되지만 그의 앞에 놓인 현재는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선언한다.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제국과 그 제국의 문화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우주 만물의 실재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천상의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를 통해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얻는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¹⁷² 크로스웨이 ESV 스테지 바이블 편찬팀, *ESV 스테지 바이블*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2525.

(요한계시록 4:11)

요한이 기록한 ‘새 노래’ 들은 주고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서로 화답하며’ 찬송했던 초대교회의 노래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자’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진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 를 부르기 시작한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5:9-10)

그러자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화답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5:12)

그러자 이번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 화답하며 노래한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 5:13)

이들이 불렀던 노래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함께 노래하는 것’ 이었다. 그들은 하나의 선율과 가사를 한 목소리로 모아 노래했다. 이 노래 속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들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 있다. 그들이 함께 불렀던 이 노래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이 불렀던 그 많은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의 가사를

이렇게 소개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계 15:3-4)

로마 황제가 만국을 다스리는 때에 만국이 주께 와서 경배한다고 선포하는 이 노래는 단지 상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실재였다. 이 땅에서 부른 천상의 노래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였다. 요한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부르는 노래를 듣는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계19:6-8)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도 아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들려주신 이 노래들 또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개인들을 위한 노래들이다. 음조가 있는 ‘노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노래’와 함께 이 땅에 임하셨고, 이제 그 마지막을 ‘노래’로 마무리하신다. 하나님의 노래에 우리가 노래로 응답할 때, 그 노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의 실제 삶의 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함께 노래 부르기’ 인가?

함께 노래하는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다. 먼저 그분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심의 비밀은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 담겨 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관계’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 사랑의 비밀은 ‘인격성’의 비밀과도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인격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노래는 그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노래하신다.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노래는 그래서 ‘함께 노래 부르기’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노래하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했고, 천상에서도 함께 노래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노래한다. 노래는 노래를 들은 자만이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노래는 처음부터 인격적인 응답의 요소가 담겨 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할 때, 그 사랑이 시작되고 자라난다. 더욱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다. 올리버 섹스의 말처럼 “우리는 함께 노래하고 노래에 담긴 특정한 감정과 관계를 서로 나눔으로써 유대를 다진다.”¹⁷³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래 할 때 하나 됨의 신비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기에 완전한 하나 됨은 이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됨의 신비를 힐끔이라도 보고 경험할 수 있다.

¹⁷³ 올리버 섹스, *뮤지코필리아*, 장호연 역 (서울: 알마, 2008), 521.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경쟁도 비교도 없다. 다르지만 그 다름으로 인해 분쟁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보완하며 더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중심에 ‘경쟁’이 있다.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가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엄한 존재인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나누고 돈으로 구분하며 차등을 두는 것이다. 이 경쟁의 시스템 속에서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다. 모두를 고통으로 몰고 가는 ‘적자생존’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경쟁 세상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독일의 교육철학자 아도르노의 말처럼 ‘경쟁은 야만이다.’¹⁷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든 세상이 ‘동물의 왕국’과 같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경을 주셨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아름다운 나라가 가능함을 알려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이며, 지금도 성령께서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이다. 누군가를 이겨야만 살 수 있고,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거짓 신화다. 우리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이미 거짓 신화에 속은 채로 오랫동안 살아오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담아 주신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차등과 경쟁이 없다. 물론 ‘다름’도 있고 ‘차이’도 있다. 그러나 그 다름과 차이는 섬김을 위한 것이지, 경쟁을 위한 것이

¹⁷⁴ 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서울: 해냄출판사, 2020), 119.

아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또한 내가 받은 재능과 은사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함이다. 그렇게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며, 낮은 것을 북돋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¹⁷⁵이며,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독자 앞에 홀로 선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서로 연결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로 ‘함께’ 서게 하신다.

‘함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담아낸 단어이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 온전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동양에서도 사람을 두고 ‘인간(人間)’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죄로 인해 참된 ‘인격적 관계’를 상실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노래’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왜 노래인가?

노래에는 감성과 지성과 의지, 즉 전 인격이 담긴다. 오직 인격이 있는 사람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온 존재를 기울여’, 즉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노래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다(사43:21).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노래하셨기

¹⁷⁵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 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 25:23).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노래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 존재를 기울여 부르시는 사랑 노래를 들은 사람은 그 인격이 회복된다. 상하고 찢겨진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래서 ‘음악치료’ 라는 영역이 열렸다. 18세기 독일의 시인이자 기독교철학자 노블리스는 “모든 질병은 음악적 문제이고, 모든 치료법은 음악적인 해결책이다”¹⁷⁶라고까지 말했다. 오늘날 음악을 통한 치료는 단지 기분이나 정서함양 정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학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¹⁷⁷ 음악에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으로 부르는 그 노래’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노래는 우리 안에 담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일깨우는 신비이다. 그래서 ‘기독교회 초기부터 음악은 늘 신앙의 중요한 요소였다.’¹⁷⁸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교부들도 음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으며’¹⁷⁹, 이것은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켈빈은 “음악에는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은밀하고도 엄청난 힘이 있다.”¹⁸⁰고 생각했으며, 루터는 ‘음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¹⁸¹이라고 했다.

¹⁷⁶ *The Geography of Illness*, www.thegeographyofillness.com (2020년 3월 20일 접속).

¹⁷⁷ 음악치료는 단지 기분이나 정서 함양 정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학문이다. 그래서 ‘의학적 음악치료’의 영역이 따로 있으며, ‘뇌’와도 관련이 많아서 ‘생의학적 음악치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현주 외 공저,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2006), 17-19.

¹⁷⁸ 우병훈, *처음 만나는 루터*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7), 42.

¹⁷⁹ Ibid.

¹⁸⁰ 브랜드, *예술과 영혼*, 58.

¹⁸¹ Ibid.

함께 부르는 노래는 서로 다른 둘을 하나로 만든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아나게 하며,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연결한다.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노래는 얼어붙어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다. 그 노래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함께 노래할 때, 서로의 노래가 서로의 마음을 만지며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함께 부르는 노래는 성령 충만의 표현이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며 노래한다. 성령은 우리로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다음으로는 서로 화목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서로 화답하며’ 노래한다. 그래서 노래는 놀이다. 우리가 소리를 주고받으며 놀 때, 성령님도 함께 노신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놀이하며 노래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다. 그래서 노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기적이다.

또한 노래는 생명의 갈망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¹⁸² 노래는 호흡 있는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갈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노래하고 싶어 한다. 또한 우리는 ‘함께’ 노래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노래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함께 노래하기 원하는 갈망을 하나님께서 담아 주셨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노래할 때, 우리 안 깊은 곳을 흐르던 생명의 갈망이 서로에게 연결된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할 때 그 갈망은 기쁨으로 채워진다.

노래는 안식이다. 노래에는 쉼표가 있다. 쉼표 없는 노래는 없다. 노래는 우리 인생의 쉼표이며, 여백이다. 쉼과 여백이 없는 인생은 답답하다. 쉼과 여백은 안식이다. 안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쉴 수 있다.

¹⁸²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2:13).

그 안에만 온전한 ‘안식’ 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만 참된 쉼을 누리며,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 노래 안에 그 ‘안식’ 이 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 안에 안식하며 노래하라!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노래했고, 아들 또한 아버지를 향해 노래했다.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한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

노래에는 리듬이 있다. 노래는 시간의 예술이다. “시간의 본성은 리듬을 가지는 것이다.”¹⁸³ 그 리듬은 우리 생명의 맥박이다. 심장의 고동 소리가 우릴 살아나게 하듯 리듬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육체를 깨우고, 삶을 깨운다. 색스는 “리듬은 우리에게 몸으로 뭔가를 실현한다는 감각을 회복시켜주고 가장 원초적인 동작의 감각과 생명력을 되찾게 해준다”¹⁸⁴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검증했다. 리듬이 우리 몸을 깨어나게 하고, 삶을 활기차게 한다. ‘자연, 인간의 삶, 그리고 음악에서 리듬이란 곧 규칙이며 질서이다.’¹⁸⁵ 그 질서가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 주며 더욱 성장하도록 돕는다.

노래에는 선율이 있다. 선율은 소리로 그리는 이미지다. 인생의 굴곡이 그 선율과 리듬을 통해 표현된다. 우리는 선율을 따라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평탄한 평원을 거닌다. 때로는 천천히 걷고 때로는 뛰기도 한다. 그 노래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다. 노래에는 화음도 있다. 화음은 서로 다른 소리가 서로 어우러져 하나가 된 것이다. 마치 삼위일체의 신비처럼,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이 화음 안에 담겨있다. 서로 달라서 서로 싸우고, 다른 소리를 동시에 내서 시끄러운 것이

¹⁸³ 유진 피더슨, *현실, 하나님의 세계*, 이종태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6), 129.

¹⁸⁴ 색스, *뮤지코필리아*, 522.

¹⁸⁵ 유은숙, “누리과정과 연계한 리듬중심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가능성 탐색 - 만5세 유아를 중심으로,” (아동학박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 2016), 1.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답고 풍성한 소리를 낸다. 그 안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조화와 질서가 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은 그 소리의 지휘자가 있는 것이다. 지휘자는 우리로 교통케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소리 안에 서로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성질을 두셨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기준이 되는 소리가 필요하다. 그 기준이 되는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지금도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다. 그 말씀이 노래를 통해 이어졌고, 우리에게 다시 들려졌다. 기준 되신 주님께 나의 소리를 조율하고, 함께 연주하는 다른 소리에 나를 맞출 때, 여럿이 하나로 노래할 수 있다. 더 아름다운 소리, 즉 화음으로 노래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함께 노래 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오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노래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서 노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계22:13) 이신 예수님을 닮았다. 그 노래 속에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어 우리가 살아갈 ‘오늘(현재)’ 이 있다.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처음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함께 노래 부를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함께 부르신다. 우리가 노래를 끝낼 때에도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 “노래는 과거와 현재를, 추억과 현실을 하나로 통일시켜 준다. 음악과 삶이 하나인 것이다.”¹⁸⁶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의 노래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신비이다.

노래는 온 몸을 움직이게 한다. 노래할 때 얼굴이 움직인다. 눈썹이

¹⁸⁶ 헤럴드 베스트, *신앙의 눈으로 본 음악*, 하재은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5), 17.

움직이며 광대뼈와 입술도 움직이며 혀도 움직인다. 목젖과 성대도 움직이며
 횡경막과 폐도 움직인다. 횡경막이 움직이니 오장육부 일동 백체가 다 움직인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찬양하라!’¹⁸⁷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몸과 연결된 마음도 함께 움직인다. 마음과 연결된 영도 움직인다.
 그래서 노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적이다.

노래는 진동이다. 우리의 호흡이 성대를 떨리게 하여 생겨난 작은 음파는
 입안에서의 공명과 증폭을 거쳐 더욱 큰 음파를 만들어 입 밖으로 나간다. 그
 음파는 주변의 모든 것을 떨리게 한다. 그래서 내가 부르는 노래는 옆에 있는
 지체에게 영향을 준다. 처진 마음에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운다. 그렇게 함께
 노래하기 시작하면, 그 진동이 더욱 증폭한다. 그래서 함께 부르는 노래에는 더욱
 큰 힘이 있다. 노래 부르는 사람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흔든다.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리쳐 노래하며 외칠 때,
 원수의 진이 흔들린다.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를 가두고 있던
 옥문이 열린다.¹⁸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노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노래는 소리로 그리는 이미지(그림)이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 마음에
 그림이 그려진다. 절망의 마음에 소망이 피어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 우리가
 노래 안에 말씀을 담아내 세상의 언어로 풀어낼 때, 세상도 꿈을 꾸며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된다. 리듬과 선율과 화성이 잘 조화를 이룬 음악에 생명의 말씀을

¹⁸⁷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 103:1).

¹⁸⁸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차꼬가 풀렸다.” (행 16:25-26, 새번역).

아름답게 담아낸 노래에는 사람의 영혼을 흔드는 힘이 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할 때, 우리는 같은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하고, 나쁜 이미지와 꿈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노래와 음악을 통해 사람을 이용하고 통제하여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노래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담아낸 노래들을 함께 부르며, 좋은 이미지와 꿈을 우리 안에 담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격성’이 거세되어 가고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계에 익숙해지고, 전인적인 성장이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다. 우리는 그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불한당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¹⁸⁹ 한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라 해서, 그의 인간성마저 무효화되고 대신 악마가 되는 것은 아니다.’¹⁹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도 여전히 사람이며, 그 역시 자기 아닌 또 다른 인격과의 진실한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인격으로 대해 줄 또 다른 인격을 필요로 하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를 향해 누군가 인격적인 존중과 사랑을 담은 노래를 ‘온 존재를 기울여’ 불러 줄 때, 그 사람 안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사람의 진실’이 다시 깨어나고 잃어버렸던 인격성이 회복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를 의지하여 그를 위해 노래한다면,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 노래가 종교적인 노래가 아닐지라도, 그는 마음을

¹⁸⁹ 브랜트, *예술과 영혼*, 85.

¹⁹⁰ 로크마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284.

열고 다가 올 수 있다. 일단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다면, 이제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진리의 주님께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이다. 로크마커의 말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또 인간성이라는 것이 진정 어떠한 것인가를 몸소 드러내야 할 소임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존재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¹⁹¹한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이를 위한 훌륭한 도구이다.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생명의 진실이 더욱 풍성히 흘러가고 표현된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노래를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현실 세계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소리가 우리의 온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함께 서서 그 노래를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이다.

¹⁹¹ Ibid., 285.

제 III 장

에픽(EPIC)문화와 함께 노래 부르기

노래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모든 인류라 함은 이전 시대 뿐 아니라, 포스트모던 세계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포함한다. 그가 ‘사람’ 이라면 그의 안에는 ‘노래하는 존재’ 라는 생명의 진실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호모 칸투스’ , 즉 ‘노래하는 인간’ 이다. 현대의 사람들이 이전 시대와 아무리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도 ‘노래’ 할 수 있으며, 노래하는 존재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 노래가 당장 어떤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 노래들을 통해 위로받고 즐길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훌륭한 일이다.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훌륭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적 특징을 잘 살펴,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다가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포스트모던 시대’ 의 영성과 감성을 잘 이해하고 담아낸 레너드 스윗의 ‘에픽(EPIC)이론’ 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는 <영성과 감성이 하나 되는 미래교회>라는 책을 통해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의 특징을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 관계(Connection)’ 의 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는데, 그 첫 이니셜을 따서 만든 단어가 바로

‘에픽(EPIC)’이다.

그는 이 책에서 ‘교회의 문화가 EPIC의 방향, 즉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골동품을 보관하는 박물관이 되거나 지나간 문화의 잔재로 전락해버릴 위험에 직면할 것’¹⁹²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근대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근대 대학과 마찬가지로 현대 교회도 경험이 아닌 이성의 지식을 시금석으로 하는 계몽주의의 지적 부산물”¹⁹³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사용 기한을 다한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려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데(뿔박이 아니라), 교회는 그것을 세상의 잘못이라 단정 지으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 생각하며 세상과의 단절을 합리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교만한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한다. 예수님은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세상에 찾아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문화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

레너드 스윗이 말한 것처럼, EPIC은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이며 삶의 방식이다. 이 문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이다. 스윗은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라는 책에서 ‘스타벅스’를 통해 에픽이론이 어떻게 선교와 목회 현장에서

¹⁹²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좋은씨앗, 2002), 64.

¹⁹³ Ibid., 79.

구체화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모델은 교회가 세상문화와 상호작용하며 여전히 살아 있는 복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전통과 개혁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데, 이 단원에서는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한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인 방안을 레너드 스윗 박사가 제시한 에픽이론과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경험(Experience): 변화시키는 경험

에픽이론을 제시하는 레너드 스윗의 접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이 시대의 문화와 사람들의 갈망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 시대의 문화는 모든 사물을 진지하고도 강렬하게 느끼고 이해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런 체험들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 있음을 느낀다. 머리로 사는 삶은 더 이상 깊이 있는 삶이 아니라 알팍한 삶이다.”¹⁹⁴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의 진단이 이렇게 이어진다. “사람들은 짜고 치는 체험, 억지로 강요하는 체험, 상업적인 체험은 사절한다. 정서적인 힘, 자발성과 동시성을 포함하는 진정한 체험을 제공하라.”¹⁹⁵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경험과 체험의 시대이다. 자기 자신이 경험의 주체가 되어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보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더욱 중시하는 시대이다. 이런 이유로 경험을 중시하는 복음주의권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데이비드 웰스와 같은 학자는 ‘개인적인 종교 체험’을 선호하는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을 향해서 ‘우리 삶에 대한 변하지 않는 진리, 즉 하나님과 세계와

¹⁹⁴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57.

¹⁹⁵ *Ibid.*, 64.

인간 본성에 대한 위대한 보편적 진리보다는 문화와 개인의 상황 가운데서 변하는 것에 소진'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가 말한다. “우리는 지금 절대적인 것 대신에 상대적인 것, 하나 대신에 많은 것, 통일성 대신에 다양성, 신적인 것 대신에 인간적인 것, 공적이며 보편적인 진리 대신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을 선호하고 있지 않은가?”¹⁹⁶

웰스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변하는 세상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과 체험 너머에 계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개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있는 실재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그 강력한 증거이다. 주님은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느끼며 함께 할 수 있는 육체가 되셨다.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함께 거니는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진리는 분명 우리의 경험과 체험 안에 갇혀 있지 않지만, 동시에 진리이신 주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렇게 진리이신 주님과 만남과 구체적인 체험이 사울을 바울 되게 했고, 시몬을 베드로 되게 했다. 베드로의 체험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뿐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여전히 함께 계시는 진리에 대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벧전1:23)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것이 바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¹⁹⁶ 웰스, *신학실증*, 30.

있으리라.”(마28:20)고 하신 약속의 내용이다. 프란시스 웨퍼가 말했던 ‘거기 계신 하나님’¹⁹⁷은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질척한 삶의 자리로 내려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더욱 구체적으로 완성되어갈 것이다. 이것은 ‘성육신적 교회’의 내용이기도 하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는 만신전(판테온)을 섬기던 로마제국 시대였다. 로마 황제에게 순복하기만 한다면 어떤 신을 믿든 상관하지 않았다. 다양성의 시대였고, 상대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시대와 비슷하다. 리오타르는 ‘포스트모더니티는 모든 거대 서사에 대한 불신이라고 정의’¹⁹⁸했다. 절대 진리를 대표하는 거대 서사에 대한 불신은 “단 하나의 진리와 단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상호 간에 번역 불가능한 다수의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믿음”¹⁹⁹으로 이어졌고, 이것을 우리는 ‘다원주의’라 부른다. 이 사상은 지구촌 시대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을 따라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고, 이것은 서구 유럽 전체로 자신들의 다원주의 사상을 전파했던 로마제국 시대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갔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우리의 삶에 의미와 방향을 제공하는

¹⁹⁷ 프란시스 웨퍼, *프란시스 웨퍼전집1, 기독교 철학 및 문화관*, 문석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9.

¹⁹⁸ 브라이언 왈쉬, 실피바 키이즈마트, *제국과 천국,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1), 34.

¹⁹⁹ Ibid., 48.

포괄적인 이야기 혹은 거대 서사' 를 거부하는 시대이다. 얼핏 보면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던(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초대교회는 오히려 그런 상황 중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은 세계로 뻗어갔다. 다시 말하면, 다양성이 강조되고 상대주의가 팽배한, 그리고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던적 흐름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우리가 계몽주의적 사상으로 가득한 근대정신에 기초한 기독교를 고집한다면, 포스트모던 사회는 복음의 걸림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시대의 기독교는 '제국주의적 기독교' 를 탄생시킨 불완전한 기독교였다. 오히려 우리는 근대성을 비판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복음의 협력자를 찾을 수 있다. 제임스 K.A 스미스가 말한다.

기독교인도 포스트모더니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인도 포스트모더니티(탈근대성)를 비판해야 하긴 하지만 말이지요. 근대성이 고수하는 가정은 기독교 신앙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근대성이 정말 기독교의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개신교 기독교는 근대성의 가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자율성과 개인주의-개인을 고립된 방으로 몰아넣는 컴퓨터 게임이나 통신 기술로 더욱 심각해지는-를 강조하는 근대성은 복음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근대성 비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략)...근대성을 비판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협력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 자신이 인간 번영에 대한 성서적 시각과 어긋나는 근대성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²⁰⁰

관념화된 이성주의에 깊이 연결된 근대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독교 제국주의의 방향으로 다시 갈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고,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들고 있는 진리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며, 내가

²⁰⁰ 스미스,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17.

들고 있는 진리를 거부할 때는 힘으로라도 복종시키는 크리스텐덤 방식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아니,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 포스트모던의 세계관을 그대로 포용하라는 말이 아니다. 포스트모던의 세계관 안에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철학과 문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스트모던 문화를 외면하고, 이전 시대의 방식으로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다. 스윗이 말한다.

포스트모던 문화는 ‘위기의 문화’가 아니다. 문화와 위기는 A&W, A&P, 에버크롬 앤 피치 등 합병된 회사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로 공존한다. 위기가 한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안다. 위험과 기회. 이보다 더 좋은 예로 위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mash-ber’가 있다. 이 단어는 출산용 의자, 곧 고대에 산모가 출산시에 앉았던 의자를 가리킨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의 순간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²⁰¹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던 문화는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 즉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실제의 삶에서 진리를 경험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말이다. 그가 다시 말한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경험’이다. ‘진짜 경험’이야말로 개인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산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²⁰² 근대 세계에서 모더니즘이 신봉했던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도 중요하다. 이 또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를 전체로 여겨서는 안

²⁰¹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20.

²⁰²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68.

된다. 이성만 강조하는 근대식 접근으로는 감성이 중요한 포스트모던 세계의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스윗이 말한대로 “질서정연한 논리로 상대방을 목사발로 만들어 항복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²⁰³

여기서 그가 말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로 스며들게 하는 첫 번째 걸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얻을 것인가? 김요한은 그의 책 <예술이 마음을 움직입니다>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感動)’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예술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말한다. 그의 말을 더 들어보자.

평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꽃? 석양? 구름 한 점? 감동적인 영화 한 편? 친구의 정성 어린 편지? 그 외에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떠오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동(感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 ‘감(感)’은 느낀다는 말이고, ‘동(動)’은 움직인다는 말이다. 사람은 느낄 때 움직이는 존재다. 예술처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을 주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 예술은 어찌면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²⁰⁴

왜 예술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을 주어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사람은 예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피카소가 말했다.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예술가로 남아 있을 수 있느냐는

²⁰³ Ibid., 71.

²⁰⁴ 김요한, *예술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14.

것이다.”²⁰⁵ 피카소의 말의 요지는 모든 사람은 ‘예술가’로 태어나고,

‘예술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예술가로 태어나는가? 왜 유인원에게는 없는 예술적 감성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로 인해 마음이 움직여지는가? 그것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예술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예술에 반응하며, 자신이 직접 예술적 활동에 참여할 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존감이 형성된다.

예술은 우리 안의 창조성을 일깨운다. 예술은 개념이나 상상에 속한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예술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사람 안에 새로운 움직임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술은 예술을 접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부딪힘을 주며,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 그 움직임을 우리는 ‘감동’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그 ‘감동의 경험’을 통해 자기 삶의 자리와 그 내용을 바꾸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만약 그러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그러한 ‘경험’을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술의 형태 중에서도 ‘음악’을 통한 경험이다.

사람은 음악에 반응하며, 음악을 듣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뇌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섹스의 말처럼 “특히 음악은 다른 무엇과도 달리 감정과 상상력, 유머 감각, 창조력 그리고 정체성을 자극한다.”²⁰⁶ 이러한 음악에 의미를 담은 가사를 붙이고, 아름다운 상징과 이미지가 가득한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열리게 된다.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서를 흔드는 힘이

²⁰⁵ 오종우, *예술수업*, 14.

²⁰⁶ 섹스, *뮤지코필리아*, 517.

있다. 누군가는 이 음악의 힘을 사용하여 사람의 힘을 북돋우고, 누군가는 이 음악의 힘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힘을 빼고 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음악이 동원되곤 했다. 총알과 대포가 쏟아지는 한가운데서도 대오를 유지하며 전진해 나가는 보병들 뒤에는 어김없이 군악대가 있었다.’²⁰⁷ 반대로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음악을 사용하기도 한다. ‘음악을 이용한 심리전은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중요한 전략이기도 했다.’²⁰⁸ 초한지에서 항우를 무너뜨렸던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이야기는 음악을 통해 누군가를 무너뜨렸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의 명장 항우도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를 이길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음악에 관한 많은 것을 말해 준다. 음악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가는 정말 중요하다. 음악은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기 때문이다. 이 음악의 힘을 알았던 철학자나 교부들, 그리고 일부 종교개혁자들은 음악의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고자 했다. 음악을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맞다. 어떤 면에서 분명 음악은 위험하다. 그러나 그래서 못하게 막을 것이 아니라, 적절히 잘 사용해야 한다. 불이 위험하지만, 여전히 불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잘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음악에 반응하는 존재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누군가는 음악을 만들고, 누군가는 보이지도 않는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반응한다. ‘모든 인간은 음악을 인식할 수 있다.’²⁰⁹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그 음악에 반응하는

²⁰⁷ 손석춘,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쓸까*, (서울: 도서출판 낮은산, 2015), 94.

²⁰⁸ Ibid., 95.

²⁰⁹ 색스, *뮤지코필리아*, 11.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현대의 신경과학은 우리가 그저 음악을 듣기만 해도 뇌파가 변하는 것을 밝혀냈다. 섹스는 음악이 사람의 뇌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생생한 실제 이야기를 통해 담아낸 <뮤지코필리아>란 책에서 “음악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내 주목을 끌었고, 뇌 기능의 거의 모든 측면과 삶 그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 주었다”고 썼다. 음악을 듣기만 해도 뇌파가 변하는데, 온 맘과 뜻과 힘을 다해 함께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 변화는 몸의 떨림과 변화를 거쳐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에 그가 부르는 노래가 좋은 가사와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노래라면 그 감동은 배가 된다. 게다가 그 노래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면, 그 깊은 울림이 주는 감동은 우리를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의 내면을 실제로 변화되게 하고, 그 작은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작은 느낌에서 시작하여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험은 에픽(EPIC)적 현대인에게 무척 중요하다. 스윗은 ‘사이버 문화로 인해 점점 더 가상 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를 실생활로 끄집어내 줄 극단적인 현실 경험이 필요하게 마련’²¹⁰이라고 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서 탈육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생활로 끄집어내 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은 그분의 몸이 되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성육신적 삶을 살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들어가 섬긴다면, 그들 또한 참된 삶의 경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²¹⁰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37.

실제로 현대 세계의 사람들은 탈육신적 삶에 익숙해져 있으며, 인격성을 잃어버리고 ‘나-그것’의 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로 찾아 들어가 학생들을 만나는 경험은 참으로 두려운 경험이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가르치러 온 강사들을 무시하기 일쑤이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 일부러 약을 올리기도 한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상태로 들어가고 심지어 수업 시간에 몸을 던져 반 친구를 마구 때기도 한다. 강사가 눈앞에 있는데도 말이다. 중·고등학교의 수업은 더 고통스럽다. 무력감에 빠져 아무런 의욕 없이 앉아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현실 속에서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어, 밤마다 가상세계인 게임 속을 헤매고 있다. 학교에서 매일 이런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들 역시 반복되는 상황으로 인해 같이 지쳐가고 있다. 게다가 이전처럼 교사가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어서, 부모가 무서워 학생들을 함부로 야단치기도 힘든 상황에 있다. 부모들 또한 ‘나-너’의 인격적인 관계 보다, 자기만 인격이고 상대는 ‘그것’인 ‘나-그것’의 관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이들이 현실의 삶에서 자존감을 찾고, 인간의 존엄과 그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이 세상을 섬기고자는 소명을 받은 사역자가 아니고서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에게겐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다. 4차산업혁명이 오고 인공지능 시대가 열려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을 닮은 진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말이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구체적으로 섬길 때, 그들은 사이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함과 아름다움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것이 파편화되어 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술’이다. 예술 활동을 통한 ‘감동’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비인격적 문화 속에서 인격성을 상실해가며 고통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노래를 불러 줄 수 있다.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려는 대신에 함께 노래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함께 노래하면서 그들 안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는 그들의 삶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함께 노래 부르기’는 가상세계가 현실보다 더 편안해져 버린 현대인들과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이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존엄함을 깨닫고, 인간됨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을 돕기에 너무나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찾아가 함께 노래 부르며 사람다운 사람의 진실을 회복하며, 그 변화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나눌 것이다.

참여(Participation): 수평 사회와 참여의 시대

“사람들은 참여를 원한다.”²¹¹ 왜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신과 인간이 함께하는 참여적인 구조를 집어 넣으셨기 때문’²¹²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에쎬(esse)’를 “신의 ‘에쎬(esse)’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스윗은 이 말을 ‘인간 존재의 핵심은 신적 존재의

²¹¹ Ibid., 114.

²¹² Ibid., 112.

정수에 참여하는 것'²¹³이라고 다시 말하면서, 교부들의 말을 이렇게 정리해 나누어 준다. ‘어거스틴이나 안셀름은 물론, 아퀴나스 같은 전근대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성 *logos*을 정신 작용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신성과 우주에 철저히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 (*Imago Dei*)로 지음받고 살아가는 것은 신성 및 신성의 창조성에 참여하는 것이다.’²¹⁴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에 참여하길 원한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성에 참여하길 원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구경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일에 직접 참여하여 함께 하길 원한다. 참여함으로 자신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고 표현하길 원한다. 특히 근대적 놀림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참여하여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스윗이 통찰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하는 사람은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만 하는 사람과는 다르다. 그들은 가라오케 마이크를 쥔-또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산악자전거를 타는, 윈드서핑을 하는-사람이 된다. 이때 매체가 전달하는 진짜 내용은 정보가 아니라 상호 작용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미디어의 '가치'다. 멀티미디어가 전달하는 진짜 내용은 상호 작용이다. 컴퓨터 게임의 핵심은 모두가 상호 작용하며 참여하는 데 있다. 이 상호 작용은 1장에서 언급했던 경험을 창조하도록 도와준다.²¹⁵

에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양방향

²¹³ Ibid.

²¹⁴ Ibid., 113.

²¹⁵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95.

소통'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뭔가에 참여하며, 선택하길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위대한 걸음에 참여하도록 도울 것인가?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우리가 '교회' 라고 규정지어 놓은 게토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이 유대의 지경을 넘어 거라사 지역의 광인을 찾아가 그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 둔 교회의 지경을 넘어, 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참여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모든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다.

사명적(Missional)이란 말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우리 삶과 공동체의 경험 속에 구체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좋은(G.O.O.D) 교회, 즉 문밖으로 나가는 교회(Get Out Of Door)가 되어야 한다.”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 문밖을 나서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²¹⁶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 담긴 아름다움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세상의 참여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할 때, 세상은 우리의 걸음을 보고 함께 참여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참여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이고, 그 때 비로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삶의 걸음을 옮겨가게 될 것이다. 스윗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혁명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²¹⁶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12.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배우라고 모두를 청하셨다.²¹⁷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들은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길 원한다. 이것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악인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음악에 반응하고, 그 음악 안으로 들어오길 기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을 보면, 그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길 원한다. 현대인에게 좋은 음악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음악을 듣고 알게 되면, 그 음악을 즐기며 더 나아가 자신도 같이 부르며 그 아름다운 과정에 참여하길 기뻐한다. 게다가 그 노래 안에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가사가 있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는 가사가 있다면 더더욱 같이 노래 부르며 그 노래 부르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노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일이기도 한다. 어떤 다른 동물도 사람이 노래하는 방식으로 노래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그런 방식으로 노래한다. 참여하기 위해선 쉬워야 한다. 참여도 쉽고, 배우기도 쉬워야 한다. 부담이 없어야 한다. 어려우면 쉽게 포기한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만해 보여야 한다. 쉽고 자연스러운 참여를 위해 ‘함께 노래 부르기’ 를 제안한다.

회중찬송과 함께 노래 부르기

‘합창’ 이 아니라 ‘함께 노래 부르기’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합창’ 이라는 단어 안에 어렵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합창’ 이라는 단어 속에는 노래하는 전문가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이미지가 있다.

²¹⁷ Ibid., 124.

어렵다고 생각하면 참여가 어려워진다. 또한 노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함께 노래 부르기’는 노래를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쉬운 선율에 좋은 의미를 담은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일반 회중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합창’을 포함하지만, 합창보다 범위가 넓다. 노래를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도 있으며 화음과 서로 주고받는 모든 합창적인 요소가 들어 있지만 누구나 쉽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노래를 듣고 감상하고 그 노래 부르기에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둔 노래 부르기다. 그러나 함께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 사실 이 ‘함께 노래 부르기’는 교회의 ‘회중찬송’의 전통을 일반 사회에 적용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함께 노래 부르기’ 안에 담은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회중찬송’의 전통을 살펴보자. 문성모는 그의 <민족음악과 예배>라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마틴 루터의 예배음악에 대한 신학적 이유’에 관한 글을 쓰는데, 그곳에서 회중찬송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회중찬송은 예배에 모인 일반 평신도들이 부르는 찬송을 의미하는데, 이 회중찬송은 초대 교회로부터 고대 교회로 내려오던 전통이었다. (앞에서 나누었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권고(엡5:19)는 회중찬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회중찬송은 고대의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시대에 꽃을 피우는데 이때부터 유절찬송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던 것이 중세에 와서 성직에 대한 권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평신도를 위한 회중찬송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고, 결국 노래하는 일은 성직자나 성가의 전유물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²¹⁸

이러했던 회중찬송이 다시 일어났던 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였다.

²¹⁸ 문성모, *민족음악과 예배*, 400.

마틴 루터가 회중찬송을 다시 일으킬 때의 상황을 문성모는 이렇게 쓴다.

한편 성직자나 성가대의 전유물이 된 예배 음악은 발전하지 못하고 부패하기 시작했다. 신앙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기교 위주의 음악이 성행하였고 성가대나 오르가니스트들은 태만과 방종을 일삼았다...(중략)... 종교개혁자들이 오르간을 극심하게 반대하거나 또는 음악 자체를 예배시간에 금지시킨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루터가 회중찬송을 만들었던 근본원인은 당시의 카톨릭 교회만큼이나 부패했던 예배 분위기를 회중찬송을 통하여 갱신하고자 함이었고, 또 평신도가 빼앗겼던 예배 중의 노래하는 즐거움을 다시 되돌려 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루터는 당시 민간에 퍼져 있던 민요적인 가락과 독일어 가사를 예배의 회중 찬송 속에 과감하게 채택함으로써 명실공히 회중을 위한 찬송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었던 회중 찬송의 역사를 부활시키려 했던 것이다.²¹⁹

‘함께 노래 부르기’는 루터가 시도했던 이 회중찬송의 전통과 정신을 따르고 있다. 성가대나 가수처럼 음악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노래하며,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훈련되고 준비된 음악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들고, 편곡하고,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자연스럽게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마틴 루터가 만든 회중찬송들은 ‘단순하고 쉬운 것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교회 선법이 아니라, 민간에서 불리던 ‘민요’의 가락을 사용하여 찬송을 만들어서 회중들이 자신이 부르는 노래에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담는데 편안하도록 했고, 일반 회중들도 마음을 담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앞서서도 잠깐 말했듯이 ‘그에게 있어서 음악은 단순한

²¹⁹ Ibid.

소리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을 표현하는 행위였고, 인격전체를 고백하는 것' 이었다. 마틴 루터의 인간 존중의 마음과 음악에 대한 이해가 회중찬송을 다시 회복하게 했고, 이 회중찬송의 전통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 이어져 모든 성도가 함께 노래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와 ‘함께 노래 부르기’의 관련성에 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에 관한 이야기이다. 일하면서 노래하는 전통은 나라와 민족을 가리지 않는다. 사람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일이 있는 곳, 특히 몸을 써서 함께 일하는 곳에는 늘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는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연결하고, 즐겁게 일에 참여하도록 도우며, 일의 효율을 높인다. 어떤 사람은 ‘노래’로서 일에 참여하기도 한다. 우리 민족에게도 함께 노래 부르는 좋은 전통이 있다. 우리 노래에는 ‘메기고 받는’ 형식의 노래가 많은데, 그 때 ‘앞에서 먼저 앞소리를 메기면서 노래 현장을 주도하는 사람’을 ‘선소리꾼’²²⁰이라 부른다. 그는 노래로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한국대백과사전은 선소리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선소리꾼은 목소리가 좋아 소리를 잘하면서도 아는 노랫말이 많아 계속 앞소리를 메길 수 있어야 하며, 또 소리가 진행되는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앞소리꾼’이라고도 한다. 선소리꾼은 선후창 형식의 민요 가창 현장에서 앞소리를 메기면서 소리판을 주도해가는 역할을 한다. 오랜 시간 일이나 놀이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긴 노랫말을 기억하는 능력과 더불어, 초성이 좋고 뒷소리 끝을 이어받으면서 앞소리를 질러내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 보통 선소리꾼은 작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이다. 또한 선소리꾼은 뒷소리꾼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거나

²²⁰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칭찬과 격려로 일꾼들의 사기를 북돋우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흥을 돋우는 역할도 한다.²²¹

‘선소리꾼’은 사람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그는 노래하는 사람이지만, 그 일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일을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거나, 한다고 해도 적게 일을 하면서도 일당을 다른 사람보다 더 받는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전체의 일의 내용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사람들로 노래하게 하는 ‘선소리꾼’이 필요하다. 신명나게 노래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함께 할 맘, 노래할 맘, 일할 맘, 다시 일어나 새로운 걸음을 내딛을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앞에 선 선소리꾼을 따라 함께 노래하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고 즐겁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처럼 노래는 사람들을 어떤 일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참여와 함께 노래 부르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노래 안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노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노래해야 한다. 잘 준비되어 사람들의 좋은 노래를 돕는 선소리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다.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서로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는 노래,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할 좋은 노래들을 듣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노래로서 사랑으로 세상을 겸손히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할 예술가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²²¹ 한국민속문화사전(민요편).

이미지(Image): 하나님의 형상과 상상력

이미지(Image)와 상상력(Imagination)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한낱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이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스릴 것인가? 도대체 사람 안에 무엇을 담아 주셨길래, 하나님은 이 엄청난 명령을 사람에게 내린 것인가?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Image)’에 있다. 레너드 스윗은 그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남겼다. “하나님의 형상(Image)은 우리에게로 와서 상상력(Imagination)이 되었다.”

상상력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이 상상력으로 인하여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으며,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사상가이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낸 사람 중 한 명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내 상상력을 마음껏 끌어올릴 수 있는 예술가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상상력은 세상을 포괄한다.”²²² 그는 다른 곳에서 “상상할 수 없다면 해낼 수 없다”²²³고 말하기도 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상상력은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작가이자 화가인 폴 호건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묘사하고

²²² 프로스트, *새로운 교회가 온다*, 330.

²²³ *Ibid.*, 334.

있는 세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²²⁴ 실제로 인류의 문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레너드 스윗도 이런 말을 남겼다. “문명사는 인간의 상상력의 역사다.”²²⁵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두신 엄청난 능력이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도 상상력은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상상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와 상징, 은유 등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영성적 삶을 구체화 시켜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했다”²²⁶고 김영래도 말했다. 이어서 그는 ‘신앙의 전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상상과 통찰을 통한 사고는 생각, 느낌, 의지, 가치의 통합체로서의 전체적 인간을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상상이 의지와 감정의 통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인간의 전인성을 회복하게 함’²²⁷을 의미한다. 또한 ‘상상력은 이성 또는 합리적 사고와 대치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최근 신경 생리학의 연구결과 상상의 작용이 이성과 감성의 뇌 전부위에 걸쳐 일어난다는 사실’²²⁸이 밝혀졌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는 상상력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 상상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면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된다.²²⁹ 인간에게도 비슷한 능력이 있다. 비록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있는

²²⁴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 *생각의 탄생*, 박종성 역, (서울: 예코의서재, 2007), 45.

²²⁵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20.

²²⁶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서울: 다산글방, 2002), 최성진, “기독교 유아교사를 위한 영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43.

²²⁷ Ibid., 3.

²²⁸ 박은혜, “이미지 사용에 대한 기독교교육 방법에 적용 논의,” *기독교교육정보*, 111-130.

²²⁹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롬4:17).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이전에 없던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창조주’ 를 닮은 ‘창조성’ 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창조성의 핵심부에 상상력이 있다. 사람 안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그린 것을 실제로 만들어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사람은 어떤 것을 마음으로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을 실제로 존재하게 만든다. 이것이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도구’ 들이다. 이 ‘도구’ 중에는 우리가 ‘악기’ 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다. 이 ‘악기’ 라고 부르는 도구들은 또 다른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 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이 창조한 새로운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 창조적 행위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명령하셨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세상에 없던 ‘새 노래’ 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상상력(Imagination)’ 으로 인해 ‘없는 것’ 을 ‘있는 것’ 이 되게 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 창조성을 부여 받은 인간은 누구나 예술가다. 랄프 에머슨의 말대로 “예술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각기 다른 모양의 예술가다.”²³⁰ 그 ‘예술가의 진실’ 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상력이다. 예술가들은 예술적 상상력과 그 구체적인 표현인 예술을 통해 각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예술세계를 발견하도록 돕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다.

²³⁰ 김요한, *예술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73.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은 창조적인 능력, 아름다움에 반응하고, 질서 있게 가꾸는 능력! 다스림의 능력을 가진 놀라운 존재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그 연결이 끊어진 채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죄이다. 잠시 괜찮아 보여도, 결국은 죄의 열매인 사망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다. 동시에 그 상상력도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람은 그 창조성과 다스림의 능력을 엉뚱한데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고, 사랑해야 할 이웃을 서로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형상(Image)’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세렘(tselem)]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세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이 사용되었을 때 ‘우상’, ‘허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²³¹

- 예1) 여호야다가 그 제단들과 우상[세렘]들을 철저히 깨뜨리고(왕하11:18).
 예2) 그 우상[세렘]의 머리는 순금ियो(단2:32).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사용한 ‘형상’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참으로 크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Image)’에서 ‘하나님’을 떼어 낸 것이다. 이 우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출애굽기는 우상에 대해 말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기록한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자 ‘스스로’ 자기를 위하기

²³¹ 구약원어대조성경,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2001), 241.

시작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 성을 쌓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그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두려움, 질투, 보복, 살인, 범죄와 같은 사망의 일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허망한 것들을 두려워하다가 일어난 일들이었다.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리 완벽한 성(시스템)을 만들어도 불안하고 만족이 없다. 아무리 근사한 일을 이루어도 헛되고 헛되다. 왜인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이미지’는 ‘우상’이 되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 존 캘빈의 말처럼 타락 이후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생산해 내는 공장”²³²이 되어 버렸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만드는 ‘거푸집’ (출32:4, 새번역)처럼, 무엇이든 녹여 넣으면 우상이 되어 나오는 틀이 인간의 마음에 생겨 버렸다. 그 ‘우상 만드는 공장’을 치우기 전에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 우상 만드는 공장이 모두를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꿈을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기 위해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 놀라운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며,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역사는 죄와 사망의 역사다. 전쟁과 보복의 역사다. 가만 두면 서로 죽인다. 그냥 죽이지 않고 잔인하게 죽인다. 명분이 없으면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싸우고 서로 죽인다. 참혹하다. 창조와 섬김을 위한 능력은 전쟁과 파괴를 위한 능력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²³²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50.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인간은 이미 그 능력을 잃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맡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은혜의 복음 이야기이다. 로크마커는 “우리를 진정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시키고, 사랑과 자유와 미와 그밖에 모든 것들이 다시금 우리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분(그리스도)은 죽으셨다”²³³고 말했다. 그가 말한 ‘진정 인간다운 인간’ 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 이다. 제임스 패커의 말처럼 ‘복음은 우리가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는 길이다.’²³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놀라운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우리에게 오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거짓 이미지(Image)인 ‘허상’ 을 만들어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다시 허상인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다. 그리고 거기서 사망에 속한 온갖 악한 문화가 발생된다. 지금도 악한 세력은 거짓 ‘이미지’ 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훼방한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왈쉬와 실비아 키이즈 마트가 그들의 공동저서 <제국과 천국>에서 이렇게 말한다. “한 종교가 적극적으로 세계를 개종시키고 변화시키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자원이 바로 이미지다. 이미지는 상상력을 변화시키고, 상상력은 생활 방식을 낳기 때문이다.”²³⁵

이미지는 실체가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²³³ 로크마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304.

²³⁴ 제임스 K.A. 스미스, 박세혁 역, *습관이 영성이다*, (서울: 비아토르, 2018), 23 재인용.

²³⁵ 왈쉬, *제국과 천국*, 44.

‘상상력’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에 깊은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그의 생활 방식까지 바꾸는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볼 때는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지만, 보고 난 뒤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이미지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가 바로 이 ‘이미지’ 전략을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아는 팀 켈러도 “마음을 사로잡는 건 곧 상상력을 사로잡는 것이며, 상상력은 명제보다 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²³⁶고 말했다. 우리가 지나온 근대의 모더니즘은 ‘명제’가 중요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자신의 실제 모습 보다, 자신의 이미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자신의 몸이 실제로 날씬해지지 않아도, SNS에 올려진 이미지만 날씬해 보이면 된다. 중요한 건 실제가 아니라,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변화는 뒤로 한 채,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온통 신경을 쓴다. 그렇게 이미지는 현대인들의 상상력을 변화시키고, 상상력의 변화는 생각의 습관과 생활방식의 변화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이미지가 실재보다 더 중요해 버린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 브랜드와 채플린은 그들의 공동저서 <예술과 영혼>에서 심도 있게 다룬다. 그들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실재와 이미지의 전도’²³⁷, 즉 이미지가 실재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 시대의 중요한 상품 중 하나가 ‘이미지’라고 말하면서 ‘상품이나 아이디어만 쇼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도 쇼핑할 수 있다.’²³⁸고 말한다. 실제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²³⁶ 팀 켈러, *설교, 채경락 역* (서울: 두란노, 2016), 228.

²³⁷ 브랜드, *예술과 영혼*, 32.

²³⁸ Ibid., 32.

만들어낸 이미지에 갇혀서, 그 이미지를 유지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을 잘 포장할수록 더욱 더 불안하고 불행해진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두 저자가 말한다.

우리 사회만큼 남의 눈을 의식하고 이미지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의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오늘은 어떤 이미지로 포장할까?’ 를 더 신경 쓰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고 받아 주는 가족과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자연스런 자의식을 가지고 성숙해 가는 대신,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의 나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자유를 전혀 없이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동시에 짐이 된다. 그래서 스스로 정한 배역을 끝까지 연기해 내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 배역을 놓치지 않기 위해 걸맞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남은 속여도 스스로는 못 속인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는 정체성 생성 때문이 아니라 상실 때문에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²³⁹

이 시대는 아바타 시대이다. 사람들은 ‘진짜 나’ 를 가꾸고 성장시키기보다, 자신이 ‘보이고 싶은 나’ 를 아바타 이미지로 만들어, 그 아바타를 포장하는데 여념이 없다. 김기석의 말대로 “시뮬라크르(simulacre)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실체가 아닌 이미지에 집착한다.”²⁴⁰ 그 거짓 이미지를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인 SNS 속 세상에 ‘포장된 나’ 를 진열하고, 그 이미지를 통해 만족감을 찾으려 한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지

²³⁹ Ibid.

²⁴⁰ 시뮬라크르 : 플라톤 철학이 제시한 최초의 의미로서의 시뮬라크르는 가짜 복사물을 일컫는 말로서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로서의 이데아와 대조되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후에 근대의 철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들뢰즈이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시뮬라크르 속에 내면화된 발산하는 두 계열들 중, 그 어느 것도 원본이 될 수 없으며 그 어느 것도 복사본이 될 수 없다는 이론을 전개한다. 또 하나의 시뮬라크르 이론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에 의해 전개된다. 보드리야르에 와서 시뮬라크르 개념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원본의 상실'이다. 보드리야르는 현대 사회의 많은 시뮬라크르들이 그 원본이 없이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본과 복사본(simulation)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결국 복제물들이 점차 원본을 대체하게 되는 사회가 바로 현대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뮬라크르 [Simulacrum]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김기석, *삶이 메시지다*, (서울: 포이에마, 2010), 294.

만들기' 를 부추기는 상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그 상품들을 사는데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쏟아붓고 있다. 한번 자신을 이미지로 포장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멈추기가 힘들어진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그럴수록 자존감은 더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진짜 나' 의 '별 볼일 없는 모습' 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져간다. 실재를 거짓 이미지로 포장하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결국 자신의 진짜 삶을 잃어버리고, 더욱 불행하고 허무한 삶을 살게 된다.

거짓 이미지의 폐해는 '개인' 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동체나 사회, 더 나아가 '정치판이나 세계적 사건에 이미지가 실재를 대신하는 경우는 그 위험이 더욱 심각해진다.'²⁴¹ 스크린이나 뉴스를 통해 거짓된 이미지가 심어지면, 사람들은 그 실재 이야기와 상관없이 전해진 '이미지' 만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사람들은 그 사건의 실재가 아니라, '실재보다 더 리얼한' 그 이미지를 더 믿게 되는데, 장 보드리아르는 이를 '하이퍼리얼(hyperreal)'²⁴²이라 부르며, 이미지에 속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짜 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며, 거짓 이미지인 허상에 속아 허망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인 이미지라는 우상에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쏟아 부어왔던 인류의 이상숭배의 역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사람은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는 다시 사람을 지배한다. 그 사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마저 지배한다. 카일 라슨이 말한다. “꿈이란 것은 원래 독특하고 풍부한 상상력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꿈을 꾸고

²⁴¹ 브랜드, *예술과영혼*, 33.

²⁴² Ibid.

있다.”²⁴³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 똑같은 이미지를 날마다 주입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미지의 상상수가 거짓이라는데 있다. 웹툰, 게임, SNS, 드라마 등을 통해 거짓 이미지를 끊임없이 살포한다. 거짓 이미지는 사람 안에 망상과도 같은 헛된 꿈을 꾸게 하여 ‘현실’을 살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미래를 불행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지’를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이다. 이 시대가 만들어낸 거짓 이미지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 삼키고, 그들의 상상력과 생활 방식을 다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아름답고 선한 이미지로 맞서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안에 두셨던 ‘하나님의 형상(Image)’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회복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고, 그 나라에 속한 새로운 문화와 생활 방식을 창조해 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 엄청난 차이는 놀랍게도 작은 ‘이미지’에서 시작된다. ‘이미지가 바로 차이를 만들어 낸다.’²⁴⁴ 이 모든 일은 사람이 ‘없는 것’을 ‘있는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노래 부르기

현대인들에게 ‘이미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 버렸다. 사람들은 실재보다 먼저 ‘이미지’에 관심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사람의 마음에

²⁴³ 알쉬, *제국과 천국*, 296.

²⁴⁴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36.

담아 두는 것 또한 중요하다. 거짚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사람의 진실’을 담아낸 이미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셨던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 이미지’를 창조하여 나누는 것이다. 가능한 어린 시절에 선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사람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다.

노래는 이를 위한 좋은 도구이다. 상징과 은유, 비유와 이미지들을 담아서 전하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는 선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 주는데 더없이 좋다. 동요의 가사들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듯한 묘사와 그 아름다운 이미지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노래로 그린 이미지가 눈에 보이는 그림이나 영상보다 좋은 이유는 보이지 않기에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래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새로운 이미지는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생활 방식이 자리 잡도록 도울 수 있다. 어른들 또한 동요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노래들을 함께 부르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어린 시절의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노래를 즐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약 그 가사 안에 좋은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의미가 선율과 잘 어울리는 곡일 경우에는 더더욱 좋다. 노래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이미지를 담아서 불러왔던 동요 한 곡을 소개한다.

<씨앗의 꿈> - 작사 작곡 민경찬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신비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²⁴⁵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 갈 때
모두가 보게 될거야²⁴⁶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 마음으로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 그림을 그린다. 또한 그 열매가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림을 마음으로 그리며, 즉 상상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마음으로 그린 그림을 선율에 담아 입으로 노래를 부를 때, 마음속 상상이 우리 몸 전체를 움직여 표현하게 된다. 머리 속 이미지로만 있던 상상이 우리의 오장육부와 횡경막, 성대와 입 안, 얼굴 전체를 사용해서 노래로 부를 때, 그 상상은 우리 삶에서 실재가 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실제로 아이들은 이 노래를 배운 뒤에 학교에서뿐 아니라 집에 가서도 불렀고, 그 노래를 들은 부모들이 다시 학교로 찾아와 노래의 출처를 묻기도 했다. 학기 말의 공연 때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이 동요를 부르며, 우리 안에 담긴 꿈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상상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은 새로운 상상은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동력이다.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많은 거짓 이미지로 인해 아름답고 풍성한 새로운 상상을 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월터 그루브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²⁴⁵ 김수경,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59.

²⁴⁶ 민경찬 첫번째 노래모음, “씨앗의 꿈” 음반 4번째 트랙.

상상력을 감퇴시킴으로써 우리를 둔감하고 타성에 젖게 만들어 상상력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것”²⁴⁷이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짓 이미지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상상력을 꿈 꿀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이다. 노래는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이미지’를 우리 ‘몸’으로 가져오는 놀라운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그 이미지는 우리의 상상력과 연결되고, 우리는 상상한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실현해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노래에 담아 가르치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해도 상관없다. 원래 열매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Image)을 회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Image)를 담아낸 좋은 노래들을 많이 작곡 또는 찾아내어 함께 부르는 것이다. 그럴 때, 그 이미지가 우리의 상상력과 꿈을 구성하게 되고, 그 꿈을 통해 사람은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 심리학자 제임스 힐만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이미지 창조자이자, 이미지로 구성된 심리적 실체다. 인간 존재는 상상력의 존재, 상상력 속의 존재다. 우리는 ‘꿈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로 되어 있다.”²⁴⁸ 인간은 이미지를 통해 상상하고, 상상한 것을 실제로 만들어 내는 존재이다. 스윗의 말처럼 “말에는 힘이 있지만 이미지에 더 큰 힘이 있다.”²⁴⁹ 이렇게 이미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미지 전쟁은 미래의 투쟁이다. 그리고 친숙하고 일관된 이미지를 통해 그 체험을 접근

²⁴⁷ 알쉬, *제국과 천국*, 139.

²⁴⁸ Ibid., 136.

²⁴⁹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12.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전쟁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인간은 말이 아닌 이미지로 사고한다.’²⁵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생각’에서 시작되는데, 그 생각이 바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에픽(EPIC)문화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경험과 참여, 이미지와 관계가 중요한 에픽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경험하고, 이를 위해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된 좋은 이미지와 상상력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은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노래 부르는 이 과정을 통해 그 생생한 실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본 연구자가 작사 작곡한 동요 한 곡을 더 소개한다.

<봄바람> - 작사 작곡 민경찬

뽕뽕 얼어붙은 겨울 들판에
술술 봄바람이 불어 오며는
꼭꼭 숨어 있던 봄의 생명이
살며시 살아나지요

톡톡 봄비 내려 땅을 적시면
연두빛깔 새싹들이 고개 디밀고
예쁜 꽃봉오리 활짝 미소 지며 피어나듯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어붙은 마음 있다면
마음 가득 봄바람이 불어와 다시 살아나기를

봄바람아 불어 오너라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게
은 세상의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나도록²⁵¹

겨울들판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이다.

²⁵⁰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40.

²⁵¹ 민경찬 첫 번째 노래 모음, “씨앗의 꿈” 2번 트랙.

‘은유는 상상력 속에 진리를 담는다.’²⁵² 그래서 스윗은 ‘은유를 만드는 일은 세상을 창조하고 변형시키는 일’²⁵³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겨울 들판의 이미지를 마음으로 그리고, 동시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봄의 이미지를 마음에 그린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들, 즉 미움, 증오, 시기, 질투 같은 마음들이 얼마나 겨울 들판과 비슷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런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야겠다는 마음을 어렴풋이라도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상상력 속에 진리를 담는 과정’이다. 은유를 통해 사람들의 상상 속에 진리를 심어줄 때, 그 동요를 부르기 전에는 사실 상상도 못 했던 일이 노래를 듣는 사람과 부르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다. 새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고, 새로운 상상을 시작하는 이 일은 작은 변화이지만, 놀라운 변화이다. 마치 뇌사상태에 있어서 꿈쩍도 못 하던 사람이 그 손가락 끝을 살짝 움직인 것과 같은 놀라운 순간이다. 이러한 순간을 이미지로 그려낸 단어가 바로 ‘새싹’이다. 땅에 심어져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것 같던 씨앗이 봄비와 봄바람을 통해 깨어나고 연둣빛 새싹을 틔우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의 이미지가 노래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그려지고, 그 사람의 생각 안에 마치 새싹이 피어나듯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난다. 게다가 그 노래를 맑은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들으면 더욱 깊은 울림과 함께 마음이 정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그 노래를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도록 돕는다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 창출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기도 하다.

²⁵²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37.

²⁵³ *Ibid.*, 137.

관계(Connection): 인격성의 회복과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

‘오페라의 핵심이 음악이라면,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다.’²⁵⁴ 그리고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인격적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람에게 ‘인격’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일4:8)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방식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선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사랑으로 존재하실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C.S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한다.

사랑이란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에게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사랑이셨을 수가 없습니다...(중략)... 그리스도인은 생생하면서도 역동적인 사랑의 활동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 활동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²⁵⁵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인격으로 존재하셨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등장한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로 존재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1:26) 어떻게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존재할 수 있는가? 여기에 사랑의 신비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의 하나님이 사랑의 사귄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귄을 누리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하나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²⁵⁴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270.

²⁵⁵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장경철 외 1인 역 (서울: 홍성사, 2001), 269-70.

누리는 사권의 기쁨이며, 사도 요한이 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다. 그가 이렇게 기록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권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권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요일1:1-3)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 사이에 함께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이인 성령과의 사랑과 관계 안에서 천지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이 창조사건이야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이 창조이야기에 담겨진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C.S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심지어 한 인격체로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역동하며 약동하는 활동, 생명, 일종의 드라마에 가까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일종의 춤에 가까운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연합은 그 연합 자체를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해도 될 만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²⁵⁶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의 인격체라고 해도 될 만큼 온전한 하나를 이루셨다. 이 신비를 우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말로 하는 순간 오류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사랑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담대히 선언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셨음을 말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²⁵⁶ Ibid.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일4:9)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 행위에는 ‘우리’ 라는 대상이 있다.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다.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명제가 완성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밖에 하실 수 없으시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전제로 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있는 ‘인격성’ 에 대한 근거이기도 하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유진 피더슨은 이렇게 설명한다. “삼위일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단연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는 추상적 개념을 통해 하나님을 설명해 내거나 정의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분으로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다.”²⁵⁷ 피더슨은 삼위일체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인격성’ 과 ‘관계 맺는 방식’ 을 설명하며, 이것이 개념 안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생생한 실제임을 설명한다.

삼위일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형이상학자들의 사변들로부터 구출하여 사랑 가득한 공동체적 삶, 인격적인 삶으로 부름 받은 남녀노소들의 공동체 속으로 그분을 대담하게 모셔 들이도록 만들었다. 삼위일체의 이미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정의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분에게 사랑받고 또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이는 인격적 관계의 본질에 대한 계시를 낳는다...(중략)...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이미지(성부, 성자, 성령)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아시는 모든 일 모두의 주된 이미지가 되고 있다. 이는 사는 일이, ‘삶에 대해

²⁵⁷ 피더슨, *현실, 하나님의 세계*, 28.

사고하는 일’ 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은 관계 맺음이지, 역할 수행이 아니기 때문이다.²⁵⁸

탈육신적 경향이 가득한 포스트모던 시대와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법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어려서부터 스마트폰과 기계에 익숙한 채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 인격적인 관계가 살아 숨 쉬는 공동체의 경험을 거의 해 보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되어 간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인들은 ‘나-너’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인격을 대하는 것보다 ‘나-그것’의 관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더 익숙하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그것’의 관계 맺음으로 인해 그 인격이 고통받고 불행해진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찾고,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생명의 진실과 소명을 온전히 발견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며 행복해 질 수 있다. 한 번 더 부버의 말을 들어보자.

감정은 ‘소유’ 되지만 사랑은 생겨난다. 감정은 사람 안에 깃들지만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즉 사랑은 ‘나’에 집착하여 ‘너’를 단지 ‘내용’이라든가 대상으로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나’와 ‘너’ ‘사이’에 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 곧 그의 존재를 기울여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비록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향수하고, 표현하는 감정을 사랑에 돌린다 하여도 그는 사랑을 모른다. 사랑이란 하나의 우주적인 작용이다.(Love is a cosmic force.)²⁵⁹

현대인들은 ‘나’의 감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너무 어려서부터 기계와 상대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타인의

²⁵⁸ Ibid., 29.

²⁵⁹ 부버, *나와 너*, 21.

인격을 존중하며 타인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려하기 보다, 타인을 객체화시키고 대상화하는데 더 익숙하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잘 모른다. 자신의 감정을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사랑이 인격과 또 다른 인격 ‘사이’에 있는 것임을 모른다. 그 ‘관계’를 모르기에 여전히 사랑을 모르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격성을 거세당해왔고, 그로 인해 어떻게 관계하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이기에 그들 안에는 참된 관계, 즉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다. 다만 자신이 모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인격적 관계와 서로를 환대하고 받아 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다. 왜냐하면 주변 어디에서든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며, 복음의 능력이다.

문제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에 익숙하기 않기에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데 있다. 이때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래이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 인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의미라도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 함께 노래하는 것은 이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은 노래를 듣고 감동함으로 자신의 인격성과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 감동의 경험은 그 노래의 일부가 되어 함께 참여하고 싶은 갈망으로 이어진다. 만약 함께 노래 부르는데 성공했다면, 이제 그 노래 안에 담긴 이미지(은유와 상징) 안으로 이미 들어섰다는 뜻이 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적으로 다 알지 못해도, 노래를 듣고

자신 또한 노래로 응답했다는 자체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래 부르기’라는 인격적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이다. 그곳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이 흘러가는 관계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함께 노래 부르기’가 서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금 더 깊이 상고해보자.

듣는 훈련과 인격성의 회복

함께 노래 부르기 위해선 먼저 ‘들어야’ 한다. 듣지 못하면 노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듣는 훈련’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자기 말만 하고, 그 말이 받아지지 않으면 분노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못한다. 자신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얼마나 누군가를 힘들게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성인이 되어간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같다.

헤브라이즘으로 대표되는 성경의 문화는 ‘듣는 문화’이다. 이것은 ‘보는 문화’로 대표되는 ‘헬레니즘’과 대비되는 독특한 성경의 문화이기도 하다. 이 ‘듣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임재하셨으며,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했으며, 말씀이 죽은 우리를 다시 살어나게 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났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났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고후5:7, 새번역)라고 선언했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말씀을 들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분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며,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으라 이스라엘!’ 하고 말했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 (왕상3:9)이 ‘지혜’ 입을 깨닫고 ‘아들아 들으라’ 를
반복했다.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13:9) 말씀하셨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계2:11)고 하셨다.

듣는 것은 우리의 인격성의 시작이다. 이 ‘들음’ 은 그저 들리는 것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것’ 이며, 동시에 ‘받을 준비를 하고
듣는 것’ 이다. 그리고 듣는 것은 ‘들은 것을 행하는 것’ 이다. ‘듣다’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마’ 안에는 ‘경청하다’, ‘순종하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²⁶⁰ 실제로 ‘샤마(שמע)’ 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경청하다(창23:11), 귀를
기울이다(전9:16), 이해하다(창11:7), 순종하다(출24:7)’ 등의 말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듣는 것’ 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히브리 전통뿐 아니라, 동서양의
다른 문화에도 해당된다. ‘듣는다(listen)’ 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들은 것을 실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누군가 들은
것을 실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오늘날 도무지 듣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자신의 감정과 인격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인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세대이다.

²⁶⁰ 히브리어·헬리어 사전,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2001), 613.

자신만 ‘인격’ 이고 다른 사람은 ‘그것’ , 즉 물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온통 ‘자기’ 로 가득차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온전히 관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현대인들은 헬레니즘의 연장선에 있는 포스트모던 세계의 극단적인 ‘보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말하는 것에만 관심하다가 듣지 못한다. 어딜 가나 기계만 상대하다가 다른 인격체, 즉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존중함으로 듣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특히 보이는 ‘이미지’ 에 집중하고 있을 때, 들어도 듣지 못한다. 스마트폰의 영상을 보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듣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런 우리에게 ‘노래’ 는 자연스럽게 ‘듣는 훈련’ 을 시켜 준다. 누군가 먼저 노래를 불러서 들려주고, 그 노래를 듣고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이 시대의 다른 곳에서는 하기 힘든 ‘듣는 훈련’ 을 하게 된다. 이 훈련은 ‘인격성’ 을 갖추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훈련이다. 사람들은 ‘듣기’ 를 반복해서 ‘훈련’ 하면서 점차 하나님께서 원래 담아 주신 인격성을 회복해 간다.

노래할 때 하는 듣는 훈련은 그냥 듣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들은 것을 ‘따라하기’ 위함이다. 들은 것을 ‘즉시’ 따라하는 것은 ‘실천’ 을 위한 최고의 훈련이다. 또한 잘 따라하기 위해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주의 깊게 듣는 것은 ‘자기’ 아닌 다른 인격에게 관심하는 것이다. 잘 듣고 들은 것을 따라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응답하는 삶에 대해 익히게 된다. 그러는 동안 그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성장해간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기도 쉽지 않지만, 누군가의 노래를 듣고,

그의 표정과 리듬과 선율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그 노래 안에 담긴 감정과 뉘앙스, 또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한 발성 연습까지 함께 해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재미있어한다. 왜냐하면 함께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의 유전자 속에 있는 ‘사람의 진실’ 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무리 듣고 노래하는 일이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진실이라 하여도 이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 마치 사람에게 ‘직립보행’의 진실이 있지만, 실제로 걷게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듣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다시 노래를 가르쳐 주려면 먼저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노래야말로 사랑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각 사람에게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 실력도 필요하다. 사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듣는 것이 어려워진 이 시대의 사람들을 섬길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인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섬김을 위한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과 교사들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어울림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된 함께 노래 부르기는 서로의 소리를 조율하여 조화롭게 노래를 부를 때 더욱 빛이 난다. 함께 노래를 부르려면 서로의 소리를 듣고 ‘리듬’을 맞추어야 하며, ‘음정’도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 소리를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 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줄 때 더 즐거워지는 행복의 비밀을 알아간다. 함께 노래를 부르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과 어울리는 소리를 찾아간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진 생명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의 진실, 혹은 능력으로 인해 사람은 ‘조율’ 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이 ‘어울림에 대한 감각’ 은 전문적인 음악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있다. 이것은 줄이 조율되지 않은 기타를 쳐서 들려줘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조율이 안 된 기타 소리를 들었을 때는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다가, 조율된 된 기타 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얼굴이 환하게 피어난다. 이 어울림에 대한 감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신 신비하고도 놀라운 능력이다. 물론 이 능력 또한 계발하기에 따라 더 세밀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어울림에 대한 감각’ 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움과 조화에 대한 감각, 즉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화음’ 으로 노래하는 ‘화음 놀이’ 에 도전할 수 있다.

화음으로 노래하는 것 역시 오직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다. 사람들은 화음으로 노래하며, 때로는 대선율과 데스칸트로 노래하며 행복해한다. 분명히 다른 음을 내었고, 다른 선율과 다른 리듬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조화를 이루고 어울린다. 이때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낀다. 이제 노래는 신나는 놀이가 된다. 사실 자연은 그대로 두어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무지개는 서로 다른 색깔을 가졌지만, 그대로 두어도 조화롭고 아름답다. 이 색깔들은 어울리기 위해서 서로 노력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아름답다. 산과 들, 강과 바다, 나무와 산들바람,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이 모든 자연은 서로 어우러지기 위해 노력한 바가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도 이것들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아이들 일곱 명을 그냥 풀어

두면 아름답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세상엔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일이 가득하다. 사람은 저절로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함께 노래 부르기’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조금 더 전문적인 노래를 위해 ‘합창’ 연습을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서로 조율하고 소리를 맞추어 가는 과정이 없으면 그 소리는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을 들여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며 소리를 조율해 갈 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최고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화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이 화음의 신비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진실을 담아낸 노래 한 곡을 소개한다.

<무지개합창단> - 작사 작곡 민경찬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여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이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모여
멋진 세상 만들어갈 우리되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졌지만
마음 모아 목소리도 모아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해요

기뻐 뛰며 함께 노래해
서로를 향하여 맘 열고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하나의 노래를 부르자²⁶¹

사람들은 함께 노래 부르는 이 시간을 통해, 서로가 함께 할 때 아름답고 즐겁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이 즐거운 경험을

²⁶¹ 민경찬 첫 번째 노래 모음, “씨앗의 꿈” 8번 트랙.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도구이다. 사람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나’에게 ‘너’라는 인격이 필요함을 느끼고, 나 또한 ‘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배운다. 그렇게 ‘나와 너’가 모여 ‘우리’라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로 존재할 수 있음을 알아간다. 이 안에 삼위일체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음은 물론이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가 되는 이 경험은 참으로 신나는 경험이다. 이 즐거운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도 함께 알아간다. 이 내용을 앨범의 가사집에 정리해서 이렇게 올렸다.

<그림1> ‘무지개합창단’ 해설, 동요음반 씨앗의 꿈 가사집 중에서

씨
앗
의
꿈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아름답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만의 색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너무도 다른 일곱 색깔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룹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은 비교하고 경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데 어울어져 더 큰 아름다움을 빚어내기 위함입니다. 소프라노가 베이스와 어울어지기 위해 베이스처럼 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음성으로 베이스는 베이스의 음성으로 노래하면 됩니다. 하지만 함께 하려면 서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 소리를 조율하고, 화음을 맞추기 위해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지개는 그냥 두어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는 저절로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소리가 어울어지기 시작하면,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화음이 터져나옵니다. ‘나와 다른 너’를 나처럼 만들려 하지 말고, 반대로 ‘너와 다른 나’를 너에게만 맞추려고도 말고, 내게 주어진 나의 선율을 화음을 맞추어 불러봅시다. ‘너와 나’는 다르지만 ‘우리’가 되어 하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함께 노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노래는 화성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서 돌림노래로 불러도 화음이 맞는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파트만 불렀을 뿐인데, 서로의 노래가 화음을 이루며 어우러질 때, 더 신나게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리고 각 사람은 노래가 서로 어우러져 화음을 이루려면 자기가 맡은 부분을 틀리지 않게 잘 불러야 함을 알게

된다. 이제 이들은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을 넘어서 ‘상호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혼자서도 꿈을 꿀 수는 있다. 그러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꿈은 없다. 우리는 모두 그 꿈길을 함께 걸어갈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노래해야 하는 이유이다.

상호 책임

17세기 뉴턴과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과학혁명과 근대주의 세계관은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적 사고의 틀로 작용하게 되었다. 전체를 하나로 연결해서 보기보다 모든 것을 더 세분화하여 분리시켜 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더 ‘전문화’ 되고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었고 사회는 더욱 개별화되고 개인화되는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주의적 사고를 뒤흔든 것은 현대물리학의 발견’²⁶²이었다. 한명희가 말한다.

양자 이론은 원자가 개별적으로 분리된 실체로 존재하거나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실재’는 개별적인 사물의 복합체가 아니라 전체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정의될 수 있는 상호 연계된 관계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개인 이해에 대한 개인주의적 시각과 실증주의의 한계에서 등장한 초개인심리학은 인간 정체성의 최상이라고 생각해왔던 ‘자기실현’을 넘어서 ‘자기 초월’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정신적 영적 측면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개인을 초월하여 이웃과 공동체, 인류와 지구, 궁극적으로 우주와의 합일에 이르기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았고 이 궁극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이론화하는 것이 아닌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²⁶³

양자 이론을 필두로 한 현대물리학은 모든 것을 ‘분리’ 하고

²⁶² 최성진, “기독교 유아교사를 위한 영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18), 14.

²⁶³ 한명희, *영성과 교육; 21세기 대안교육을 위하여* (서울: 학지사, 2007), 14.

‘세분화’ 하던 근대주의 합리성 이론을 뒤 흔들었고,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 철학,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관계와 상호연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부버가 이렇게 말했다. “관계는 상호성이다. 내가 나의 ‘너’에게 영향을 주듯이 나의 ‘너’는 나에게 영향을 준다.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며 우리의 작품들이 우리를 세워준다.”²⁶⁴ 한편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의 상호성에 대해 파커 파머도 이렇게 말했다. “인격적 진리는 우리를 개인주의가 아니라 관계와 대화와 상호 변화의 공동체로 이끈다.”²⁶⁵

기독교적 진리는 ‘인격적 진리’이다. 그 ‘인격’은 상호 관계를 통해 성장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성장한 관계는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이끈다. 파머의 말처럼 ‘인격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인격일 수 있기’²⁶⁶ 때문이다. ‘인격과 상호 관계’에 대해서 로완 윌리엄스도 주목할 만한 주장을 펼친다. “우리는 관계 속 인간으로서, 우리의 환경이 다른 인격과 맺은 관계에 의해 창조되고, 그들을 위해 환경을 창조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그러한 교환 곧 상호성 속에서 ‘인격’의 의미를 발견합니다.”²⁶⁷

우리의 인격은 혼자 성장할 수 없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꽃 피우며 열매 맺기 때문이다. 그 인격의 열매 또한 다른 인격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더 깊은 의미가 부여된다. 파편화된 포스트모던 시대를 위한 통 방법론을 주창한 조병호도 말한다. “개인이 저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은 공동체에서 조명하게 될 경우,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진다. 개인 자신은 자기 존재

²⁶⁴ 부버, *나와 너*, 23.

²⁶⁵ 파머,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135.

²⁶⁶ Ibid., 135.

²⁶⁷ 로완 윌리엄스, *인간이 된다는 것*, 이철민 역, (서울: 도서출판 복있는사람들, 2019), 57.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개인에게만 별도로 부여되는 의미가 생기기 때문이다.”²⁶⁸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²⁶⁹ 아무도 혼자 살 수 없다.

윌리엄스의 말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살고 있다.”²⁷⁰ 우리의 인격, 즉 사람의 사람됨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자라난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도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 사람이 되셨음을 보여 주셨다.

이런 ‘인격’ 안에 담긴 상호관계성은 이 시대에 들어서 더욱 강조되었다. 에리히 프롬은 “우리 세기의 중심 문제는 인간의 상호관계다”²⁷¹라고까지 말했다. 이 중요한 ‘인간의 상호관계’가 그대로 녹아 있고, 적용된 것이 바로 ‘함께 노래 부르기’이다. 나의 노래는 곁에 선 타인의 노래에 영향을 주고, 타인의 노래는 나의 노래에 영향을 준다. 내가 노래할 기운이 없을 때라도 곁에 선 사람들이 힘 있게 노래를 부를 때, 나의 기분을 넘어 힘을 내어 노래할 수 있게 된다. 똑같이 누군가 기운이 없을 때, 나의 노래를 통해서 힘을 얻고, 더욱 힘을 내어 함께 노래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웃을 위해 져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배운다.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지켜내야 할 소리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들은 함께 노래하며 ‘상호 책임’의 소중함을 배운다. 니콜라스 윌터스토프가 말한 대로 ‘인간의 특수성이 책임질 수 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행동하는 예술>에서

²⁶⁸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2007), 90.

²⁶⁹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동시에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인간이 자기의 삶을 보존하고 또한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Ibid., 87. 223.

²⁷⁰ Ibid., 55.

²⁷¹ 에리히 프롬,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장혜경 역, (서울: 도서출판 나무생각, 2016), 69.

말한다.

인간은 특별히 창조에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구별되었다.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중략)...동물은 결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동물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다...(중략)...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대한 인정을 요청한다. 인간의 독특함은 그가 소유한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²⁷²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그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죄를 진 사람에게 다 지우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책임을 지셨다.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어 주신 책임지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사랑이란 한 사람 ‘너’ 에 대한 다른 한 사람 ‘나’ 의 책임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은 그것이 ‘규율’ 이거나 ‘규칙’ 이어서가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지는 인격에 대해 말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노래 부를 때,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 물론 저절로 그리 되지 않고, 함께 책임지며 함께 성장해 가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깨달음이다. 이 책임 있는 행동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다른 인격을 향한 내 인격의 발로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의무 이상의 ‘기쁨’ 을 얻게 된다.

우리가 ‘상호책임’ 의 소중함과 기쁨에 대해 인식하고, 자기가 내야 할 소리를 더 아름답고 적절하게 내고자 할 때, ‘함께 노래 부르기’ 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함창’ 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²⁷² 윌터스토프, *행동하는 예술*, 143.

우리의 ‘책임’의 범위가 ‘다른 인간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넘어 ‘우리가 속한 자연과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물리적 환경을 기뻐하는 상태’²⁷³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 즉 진정한 평화의 관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의 샬롬, 자연과의 샬롬을 통해 이 모든 것의 시작인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합창에 도전하기

함께 노래를 부르며 상호 책임을 알아가고 있다면, 이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좋은 방법이 바로 함께 ‘합창’에 도전하는 것이다. 사실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우리는 ‘합창’이라 부른다. 그런데 ‘합창’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노래 부르기’라고 한 것은 ‘합창’ 안에 담긴 ‘전문적인’ 이미지 때문이다. 만약 함께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하라고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그만 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에 관한 신뢰가 쌓이고, 노래로 자신을 표현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것에 익숙해지면, 이제 수준을 좀 높여 합창단처럼 불러 보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 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도는 계속 하지만 여전히 즐겁고 쉬운 형태의 노래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누구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노래들로 시작을 한다. 그러나 ‘합창’으로 들어가면 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오래 연습하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엔 조금만 연습해도 할 수 있는

²⁷³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홍병룡 역,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146.

쉬운 곡을 선택한다. 약간씩 수준을 높이며 ‘작은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돌림노래’는 합창 연습을 위한 아주 좋은 노래 방법이다. 간단한 선율이지만 시간의 차이를 두고 노래했을 때, 생각도 못했던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두 팀으로 나누었다가 익숙해지면 세 팀, 네 팀으로도 팀을 나누어 동시에 노래할 수 있다. 그렇게 화음을 이루며 자기 파트를 노래하는 법을 익힌 뒤에는 함께 춤과 율동을 곁들여서 노래를 불러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즐거운 ‘놀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합창의 인도자가 쉽고도 화음과 리듬이 잘 어울리는 곡을 선택한다면 화음으로 노래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면서도 함께 화음을 이루는 경험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특별하고 신나는 경험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상호 책임을 진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신나는 일임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즐거운 경험은 새롭게 시작한 관계가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합창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경험은 ‘함께함’의 유익이다. 파트를 나누어 노래를 연습하다 보면 자기 파트를 놓칠 때가 있다. 그럴 때에는 옆 사람에게 슬쩍 묻어서 가다가 다시 노래를 따라잡을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 연습의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 경험으로 알아가게 된다. 만약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파트 별로 한 명씩 4중창으로 불러보면 된다. 4중창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혼자서 자기 파트를 완전히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틀려도 금방 티가 난다. 그리고 한번 틀리면 다시 따라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나 합창은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갈 수 있다.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호흡이 짧으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숨을 쉴 수도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심지어 5분도 넘게 끊어지지 않고 소리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하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다.

아무리 쉽고 재미있게 연습을 꾸려간다고 해도, 어떤 곡을 완성하기 위해선
길고 지루한 시간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다. 사실 혼자라면 진작 그만뒀 버렸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자기 혼자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으며,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그들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상호 책임’이라는 끈이 얼마나 그를 자라나게
하며 성장하게 하는지 배워간다. 그 합창의 즐거움과 유익을 담은 노래 한 곡을
소개한다.

<함께 노래해요> - 작사 작곡 민경찬

함께 노래하는 이 시간 정말 즐거워요
모두 마음을 열고 즐겁게 노래 불러봐요
세상 모든 만물들도 함께 어우러져 노래하듯
우리들도 하나 되어 함께 노래해요

[후렴]모두 함께 랄라랄라 랄라랄라 손에 손을 잡고
랄라랄라 랄라랄라 함께 노래해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되죠 함께 있잖아요
나만 힘이든 게 아네요 서로 돌아봐요
때론 지쳐 힘이 들고 때론 실수하여 넘어지지만
서로 서로 잡아주며 함께 일어나요²⁷⁴

이 노래도 ‘씨앗의 꿈’ 음반에 수록된 곡이다. 그 음반의 가사집에 이렇게
곡 해석을 담아 놓았다.

²⁷⁴ 민경찬 첫 번째 노래모음 음반, “씨앗의 꿈” 7번 트랙.

귓가에 스치는 바람 소리, 줄줄줄 흐르는 시냇물 소리, 멀리서 들리는 빠꾸기 소리, 나뭇가지를 흔들며 뛰어다니는 청솔모 소리,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연주합니다. 그 많은 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들도 하나 되어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면 어우러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곁에 있는 친구들도, 늘 도와주시던 엄마 아빠도 선생님도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위로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함께 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로 손 내밀어 잡아주고 일으켜 주면 풀렸던 다리에다 다시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노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²⁷⁵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노래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겨운 상황 중에도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붙들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합창을 통해서 곁에 선 타인들이야말로 나를 붙들어주고 지탱해 주는 존재임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더 깊은 신뢰 가운데서 관계 맺는 법을 배워갈 수 있다. 서로 기대어 함께 서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합창을 통해 몸으로 익힐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배움은 지휘자를 보고 따라하는 것이다.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먼저 배우는 것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단원들은 자신이 아니라 지휘자가 기준이며, 음정이나 박자를 지휘자와 반주에 맞추어야 함을 배운다. 또한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달리 잘못된 소리를 낼 수 있으며, 자기가 틀리고도 틀린 것을 모를 수 있음도 알게 된다. 이때 지휘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지휘자가 틀렸거나 잘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듣고 바로 잡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휘자의 역할은 단지 틀린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만이 아니다. 지휘자는 단원들의 자세와 발성을 훈련시켜 각 개인이 낼

²⁷⁵ 민경찬 동요앨범, *씨앗의 꿈* (민경찬 첫번째 노래모음, 2018), 가사집.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여러 소리의 밸런스와 음색을 조율하여 소리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 나아가 가장 조화롭고 아름답게 노래를 표현해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다. 단원들은 지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자신의 개별적 특성인 소리의 색깔, 즉 소프라노, 앨토, 테너, 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멋진 화음으로 함께 노래하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 기준에 대한 권위가 상실된’²⁷⁶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현대인은 절대적 가치와 보편적 진리를 거부하는 상대주의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상대주의와 개인주의는 가치의 다양성이 허용되고 소수의 목소리가 수용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극단적 이기주의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²⁷⁷ 이러한 위험에 늘 노출된 현대인에게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며 그의 권위를 따르고, 그로 인한 결과로서 아름다운 어울림의 경험을 하는 이 과정은,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장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포스트모던 세계의 한계 중의 하나인 극단적 상대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휘자를 따라, 즉 세워진 권위를 따라 노래를 부르는 것은 중요한 성격적 가치이기도 하다. 시편의 많은 노래들의 부제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²⁷⁸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편 150편의 노래 중에 ‘지휘자를 따라 부른

²⁷⁶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2007), 132.

²⁷⁷ Ibid., 132.

²⁷⁸ 시편 150편 중에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은 모두 23편(13, 14, 19, 21, 31, 36, 39, 40, 41, 42, 44, 47, 49, 51, 52, 64, 65, 66, 68, 70, 85, 139, 140편)이며, ‘지휘자를

노래’ 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은 스물세 편, ‘지휘자를 따라 악기(여러 종류)에 맞추어 부른 노래’ 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도 스물 아홉 편이나 된다. 합쳐서 오십 이 편이나 되는 시편이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였다. 성경은 단지 ‘내용’ 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 형식과 순서를 포함한 모든 전달방식을 다 동원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렇게 볼 때, 이토록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메시지는 성경 전체를 볼 때도 흔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지휘자를 따라 함께 노래하는 것은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몸으로 배우고 삶으로 나타내야 할 삶의 한 방식임을 알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우리의 목자요 인도자이신 성령님을 따르는 삶과도 관련이 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성경이 따르라 한 ‘지휘자’ 는 ‘기계’ 가 아니라, ‘인격’ 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단지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메트로놈’ 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 된다. 그러나 성경은 인격인 지휘자를 따라 노래하라고 안내한다.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가 인격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어떤 원리나 규칙이 아니라, ‘인격’ 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종교를 떠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인격과 관계하며 인격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 ‘정확한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 이다. 그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맺일 때, 가장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성령의 열매’ 를 맺고, 다른 사람과 서로 교통하며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이렇게 개인으로서 혼자 힘으로 살다가 지친 현대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개인’이 아니라, ‘여러 개인이 모여서 하나가 된’ ‘합창단’으로 함께 서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합창단은 한 몸이다. 즉 ‘공동체’이다. 이제 그는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모든 사람은 만남을 원한다. 그 사람의 인격 안에 좋은 관계를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다. 그러나 두려움도 크다. 실패한 만남들의 경험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덜 아프기 위해 나름의 안전장치를 둔 만남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만남들이다. 그들은 불특정 다수와 만나고, 개인이라도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만나고, 아예 기계와 만나서 상처 없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만남을 위한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사람이 진정한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만날 것인가? 괴테의 말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자. “세상에서 해방되는 데 예술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또한 세상과 확실한 관계를 맺는 데에도 예술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다.”²⁷⁹

타락한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옅어맨다. 사람들은 해방을 원하지만 방법을 잘 모른다. 예술은 세상에서 해방 될 수 있는 좋은 방편이다. 우리 편에서는 세상과 관계하기 위해서 예술을 사용하고, 세상은 예술을 통해 일종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우리의

²⁷⁹ 오종우, *예술수업*, 280.

목적은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의 진실을 회복하고, 서로 어우러져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격적이고도 진실한 관계로 엮여진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파커 파머는 인격적인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일 인격으로서 성장하고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생겨나는 공동체에 의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²⁸⁰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인격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며 오직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인격이 되어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제시한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가 맺히는 현장 또한 공동체 안이다. 그래서 파머의 주장처럼, 진리는 ‘인격적’임과 동시에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파편화된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 혹은 공동체와 연결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작은 ‘느슨한 연결’이 필요하다. 부담없이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계속 부담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노래하는 시간은 이러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일단은 만나야 하는데, 만남의 장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사회의 공적 공간을 통해 만날 수 있는데, ‘함께 노래 부르기’는 서로 잘 모르는 지역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는 좋은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섬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교회로 데려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 관계 가운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²⁸¹가 맺히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²⁸⁰ Ibid.

²⁸¹ 갈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혹시 그 연결이 빨리 되지 않더라도 조금해 할 필요는 없다. 그 만남과 연결을 통해 이제부터 계속 생명이 공급되고 흘러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성령’ 이시다. 그 관계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그 공동체는 이제 새롭고 창조적인 공동체로 자라나게 된다.

제 IV 장

성육신적 교회가 되기 위한 함께 노래 부르기

매체가 곧 메시지다.

마셜 맥루언은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통해 “미디어는 메시지다²⁸²”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는 ‘모든 미디어는 인간의 심리적, 육체적 기능의 연장’ 이라고 말하면서, ‘바퀴는 발의 연장이고, 책은 눈의 연장이며, 의복은 피부의 연장이요, 전기는 중추 신경의 연장’ 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도구를 만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²⁸³ 라는 전제를 제시한다. 프로스트와 허쉬는 맥루언의 이 전제를 가져와서 도구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고자 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뇌를 PDA에 완전히 맡겨 버린다. 다이어리 같은 평범한 도구조차 우리 인식의 형태와 행동 유형을 바꿀 수 있다. “매체가 곧 메시지다” 라는 말의 숨은 의미는 본래 이것이다. **우리가 도구를 형성해 내고 그 다음에는 도구가 우리를 형성한다.** 맥루언이 강조하기 원했던 것은 도구나 기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상호적 영향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영향을 준다.²⁸⁴

프로스트와 허쉬는 맥루언의 이 이론을 크리스텐덤 시대의 교회가 선교에

²⁸² 마셜 맥루언, *미디어의 이해*, 김성기 역 (서울: 민음사, 2002), 표지.

²⁸³ Ibid., 8.

²⁸⁴ 프로스트, *새로운 교회가 온다*, 274.

사용했던 도구들에 적용하고자 했는데, 그가 제시한 도구들은 오늘날 전통적 교회에서 제시하는 전도의 도구와 거의 일치한다. 그것은 ‘설교, 건물, 신학교’ 같은 것들이다. 두 사람은 ‘우리는 도구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면 도구가 우리를 형성한다’는 말을 이렇게 적용했다. “우리는 설교라는 것을 만들었고(사실은 헬라와 로마의 철학자들에게 빌린 기술로) 다시 설교는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설교 의존적이 되어 버렸다.”²⁸⁵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그리고 나서 그 건물이 우리를 형성한다.”²⁸⁶ 두 사람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비판하면서, “우리가 쓰는 도구가 우리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도구를 설계해야 한다”²⁸⁷고 역설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매체가 곧 미디어다’라는 맥루언의 명제를 통해서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곧 메시지다”라는 말이었다.

그들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실존의 소통(existence-communication)”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그 의미를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진정한 인간으로서 당신의 실존이 말이나 심지어 생각보다 의사를 더 잘 전달한다”²⁸⁸ 이 말은 우리의 ‘말이나 생각’보다 우리의 ‘실존 자체’가 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매체이며 동시에 메시지’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며 메시지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크게 강조하면서 말해도 우리의 이중적인 삶을 보면서 도무지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삶이 따라가지 않는 설교자의 메시지가 공허한

²⁸⁵ Ibid., 277.

²⁸⁶ Ibid.

²⁸⁷ Ibid., 279.

²⁸⁸ Ibid., 281.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김기석은 ‘삶이 메시지다’²⁸⁹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낸 삶으로 말하고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교회인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친히 미디어가 되신 사건이다. 예수님 당신이 매체가 되어서 전해 주신 메시지는 강력하고 간결하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16:24)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 해야 할지 걱정하기보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삶을 담아내고 있는가’ 를 고민해야 한다. 사람들은 ‘듣고’ 배우기보다 ‘보고’ 배운다. 듣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은 ‘들은 것’ 이 아니라, ‘본 것’ 을 따라한다. 내가 말한 것을 실제로 보여주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 사람들은 개념이 아니라, 실재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예수님도 실재를 원하신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나는 과연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성육신적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경계로 나아가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셨듯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성육신적 삶의 내용이 없다면, 좋은 매체를 만들어 세상을 섬길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성육신적인 삶의 방향을 가지고 경계로 나아가며 약한 자를 섬기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용할 매체, 즉 그 도구 또한 고려해야 한다. 매체가 곧 메시지이기

²⁸⁹ 김기석, *삶이 메시지다*, 1.

때문이다. 매체에 담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매체 자체가 주는 메시지 또한 중요하다.

‘함께 노래 부르기’ 를 하나의 매체나 도구라고 볼 때, ‘함께 노래 부르기’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 탈육신적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파편화 되고 비인격화 되어가는 이 시대를 향해 꼭 필요한 메시지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함께 화음을 이루어 노래하는 이 자체가 이 시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우리’ 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다. 따라서 아무도 혼자 존재할 수 없다. 로완 윌리엄스의 말처럼 “나(사람)는 기계도 아니고, 자족적인 영혼도 아니다. 누군가가 내게 말하고 주목하기 때문에 나는 한 인격이고, 누군가가 내게 말하고 주목하고 나를 사랑함으로써 나는 현실의 존재가 된다.”²⁹⁰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여야 한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선 나 아닌 다른 ‘인격’ 이 필요하며, 인격과 인격이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할 때,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진실을 더욱 풍성히 나타낼 수 있다. 달라도 괜찮다.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마음껏 상상하며 아름다운 꿈을 꾸고, 마음을 열어 함께 노래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으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살롬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

노래 다시 부르기

매체 자체가 전하는 메시지를 확인했다면, 이제 그 매체 안에 담아낼 내용을 점검해 볼 차례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²⁹⁰ 로완 윌리엄스, *인간이 된다는 것*, 이철민 역 (서울: 도서출판 북 있는 사람, 2019), 69.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의 주된 관심은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데에 있다.”²⁹¹ 그는 ‘인간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우러나오는 것’²⁹²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서 말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는 다른 인격적인 존재와의 ‘관계’에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긴 채 아바타의 형태로라도 다른 인격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는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는 그 형태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함께 노래 부르기’가 주는 성육신적 메시지는 탈육신화 되고 과편화되고 비인격화되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이다. 함께 노래 부르는 사람은 SNS나 가상 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삶의 의미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모여 노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함께 부르는 그 노래 안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면, 함께 노래 부르는 의미가 더욱 풍성해지고 더 큰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부를 노래를 잘 골라야 한다. 노래만 좋아도 절반은 성공이다. 함께 부를 노래를 선곡할 때에는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쉽고 좋은 노래들을 선곡하는 것이 좋다. 처음 만났는데, 함께 알고 있는 노래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동질감을 느끼며 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터도 사람들이 잘 아는 민요조의

²⁹¹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시형 역 (서울: 청아출판사, 2005), 187.

²⁹² *Ibid.*, 168.

노래들을 선택하여 불렀다. 우리가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노래들을 선곡해서 부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노래는 일반 대중이 가장 많이 부르는 ‘대중가요’이다.

대중가요 다시 부르기

대중가요들 중에는 함께 부르기에 적당하지 않은 노래도 많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의미도 좋고 선율과 리듬도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다. 그런 노래들을 잘 찾아내어 다시 부르는 것도 ‘함께 노래 부르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노래만 불러도 마음이 연결되곤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노래든지 다시 부를 때는 그 노래에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다. 노래 자체가 주는 힘도 크지만, 노래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부여될 때 사람들은 더욱 마음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미 잘 알려진 대중가요들 중에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좋은 의미를 담은 몇 곡을 소개해 본다.

<걱정말아요 그대> - 작사 작곡 전인권

1.

그대여 아무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2.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를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2절에 ‘그대는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라는 가사가 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새로움을 잃어버린 기성세대를 보며 답답해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노래의 시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 그렇다. 그가 새로움을 잃어버린 이유는 힘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힘든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한 선택들이 그에게서 새로움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답답해 보이고 자신을 화나게 하는 누군가를 향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을 나누면서 이 노래를 다시 부른다면, 이 노래는 이전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쉽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난 모든 일들이 다 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나눌 수 있다. 기쁜 일뿐 아니라, 슬프고 아프고 속상한 일도 다 의미가 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그가 말했다. “아무리 절망스런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했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중략)... 어떤 의미에서 시련은 그것의 의미-희생의 의미 같은-를 알게 되는 순간 시련이기를 멈춘다고 할 수 있다.”²⁹³ 그는 자신의 시련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깨달았다. 이것은 빅터 프랭클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²⁹³ Ibid.

사람에게 주신 보편적인 능력이다. 다만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훈련이 안되었을 뿐이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면서 함께 부르는 이 노래는 이제 이전에 부르던 그냥 대중가요가 아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약함과 한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돕는 소중한 노래가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인간의 존귀함과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이 노래는 다음 장에서 소개할 ‘세월호 5주기 기억문화제’ <그곳에서 울지마오>에서 앵콜곡으로 함께 부른 바 있다. 이 콘서트는 큰 아픔당한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마련한 콘서트였는데, 참여한 모든 공연자들과 함께 한 모든 관객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그 깊은 의미를 새길 수 있었다.

<그림2> 세월호 기억문화제에서 다같이 ‘걱정말아요 그대’를 부르는 장면



같은 노래라도 부르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다른 의미를 전해줄 수도 있고, 더 깊은 의미를 담아 전달 할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노래 ‘행복을 주는 사람’도 그렇다. ‘해바라기’라는 남성 듀오가 부른 대중가요지만 어린이합창단이나 실버합창단이 부를 때 새로운 느낌과 의미를 담아볼 수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나눌 수 있고, 노인들에게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그 인생에 대해 성찰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다. 본 연구자가 지휘하던 은행초등학교 무지개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때, 이 노래를 어린이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이 연합으로 부르면서, 곡의 마지막 후렴구에서는 함께 한 모든 관객과도 함께 부른 일이 있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함’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공감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 바 있다.

<행복을 주는 사람> - 작사 작곡 이주호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 저리 둘러 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 인생길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은 엄청난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곁에 함께 있는 그 사람이다. 내가 병들고 몸이 아플 때, 실패하여 낙심할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모든 일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어려운 중에도 곁을 지켜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로 인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더라도 그의 곁에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 노래는 ‘내가 가는 길’로 시작해서 ‘우리 가는 길’로 이어진다. 이것이 우리네 삶의 이야기이고 ‘나와 너’를 우리로 엮으시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이리 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부분에서 서로 돌아보며 서로에게 노래해 주면 참 좋다. - 가요 다시 부르기의 여러 가지 예는 <부록>에 있는 콘서트 연출노트에 자세히 나와 있다.

민요 다시 부르기

민요는 그 민족의 오랜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노래이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연결시켜 주는 힘이 있다. 특히 아리랑 같은 노래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그 안에 담겨진 한과 슬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까지 담겨져 있다. 그러한 민요나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가 담긴 노래들을 함께 부르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람임을 깨닫게 도와주며 함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더 가깝게 연결해 준다. 전통적인 감성이 묻어 있는 노래들을 전통 방식 그대로 불러도 좋지만 음악의 스타일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살짝 바꾸어서 불러도 좋다. 그러면 부모세대와 자녀 세대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만약 그 노래에 담긴 시대적인 의미까지 같이 담아 낼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 한 예로 ‘아리랑’을 들어보자. 워낙 유명한 선율이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이 노래는 그만큼 여러 가지 사연도 많다. 그중에 한 사연을 소개한다.

<밝은 누리> 공동체는 북한산 자락 인수동에서 마을 이웃들과 소중한 삶의

가치를 나누는 기독교 공동체이다.²⁹⁴ 이 공동체는 매년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며 국내외로 기도순례 여행을 떠나는데 한 번은 중국의 연길 지역을
방문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일제 강점기 조국의 회복을 기원하며 명동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공동체를 일구며 살아갔던 규암 김약연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내 모든 행동이 곧 유언이다” 라는 유언으로도 유명한 김약연은 맹자에 정통한 한
학자였지만 대한제국 말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일제의 핍박을 피해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간도 땅에 와서 기독교 공동체를 일구며 함께 산다. 그가 세운
명동학교는 윤동주, 문익환, 송몽규 같은 시대의 리더들이 배출 된 곳이기도 하다.
밝은 누리 공동체는 그곳을 여행하다가 조선 식당에서 조선인들이 함께 불러 주는
‘아리랑’ 을 듣는다. 그런데 가사가 우리가 늘 부르던 가사와 조금 달랐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청청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꿈도 많다²⁹⁵

그들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라는 가사
대신에 ‘청청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꿈도 많다’ 라는 희망적인 가사로
바꾸어서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다. 사실 이것은 아리랑의 3절 가사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엔 희망도 많다’²⁹⁶가 변형된 형태의 가사였다. 아리랑에는
다른 가사가 많이 있다. 그런데 간도에 있는 조선족들은 그 많은 가사 중 이 ‘꿈과
희망’ 을 담은 가사를 선택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 초기,

²⁹⁴ 최철호, “더불어 사는 삶 마을 밝은 누리,” 제90호, 2018.8.9.

²⁹⁵ Ibid., 7.

²⁹⁶ 선소리산타령보존회, *한국고전음악선집* (선소리산타령보존회, 1981), 142.

빛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밤 같은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은 눈을 들어 그 밤하늘의 별을 보았다. 그 별을 보며 꿈을 꾸었고, 꿈을 꾸며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던 아리랑이라는 아름다운 선율에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담은 가사를 담아 ‘함께 노래 부르며’ 그 힘겨운 시간을 이겨냈다.

어두운 시대를 꿈꾸며 살아간 우리의 조상들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와 그들이 함께 부른 이 노래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도 큰 힘과 소망을 준다. 그리고 그들이 취했던 이 방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유익한 방식이다.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우리 민요들을 오늘의 언어와 감성으로 다시 담아서 부를 때 함께 노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리랑 말고도 우리 민족에게 남겨진 신나고 흥겨운 노래들, 삶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진 삶의 노래들이 많이 있다. 그 노래들을 현대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편곡하거나 개사를 하여 부를 수 있다. 우리 민요가 가진 즉흥성으로 인해 우리가 마음을 담아 고민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영역이다.

민요는 아니지만, 근현대사의 아픈 세월을 함께 해온 전통가요들도 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최초의 가요 ‘희망가’ 나, 해방이후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담아낸 많은 전통가요들도 잘 해석하여 의미를 담아내면 얼마든지 함께 부르기에 좋은 곡들이 될 수 있다. 음악의 스타일로 인해 젊은 세대가 함께 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음악의 스타일을 현대식으로 바꾸어 다시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잃어버린 30년’ 이라는 전통가요가 있다. 한국전쟁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생이별을 한 가족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인데, 전쟁 이후 30년 만에 한 방송사에서 진행했던 ‘이산가족찾기’ 가 있었던 해에 많이

불리며 사랑을 받았던 노래이다.

<잃어버린 30년> - 박건호 작사, 남국인 작곡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삼십 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 메이게 불러봅니다

내일일까 모레일까 기다린 것이
눈물 맺힌 삼십 년 세월
고향 잃은 이 신세를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 가요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한 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 메이게 불러 봅니다

가사도 좋고 선율도 좋지만, 노래의 스타일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함께 하기는 어려운 곡이다. 하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과 곡의 스타일을 바꾸면, 얼마든지 젊은 세대들도 공감할 수 있는 노래로 거듭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근현대사의 이야기를 담아낸 <푸르게 더 푸르게>라는 콘서트에서 CCM 가수가 첼로를 중심으로 클래식하게 편곡된 이 곡을 자료 영상과 함께 불렀을 때, 많은 젊은 세대가 함께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다.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노인 세대는 더 큰 감동으로 함께 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노래 한 곡으로 전세대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며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세월을 담아낸 노래는 힘이 세다.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아픔을 담아낸 좋은 전통가요들이 많이 있다. 그런 좋은 노래들을 잘 발굴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옷을 잘 입히면, 얼마든지 다음 세대와 함께 공감하며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다.

함께 놀며 노래 부르기

오늘날 아이들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은 놀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어른도 그렇다. 사람은 아이나 어른이나 좀 놀아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 놀이의 요소를 담아 두었다. 인간의 이러한 성향을 주의 깊게 살펴본 요한 하위징아는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 즉 ‘호모 루덴스’²⁹⁷라고 불렀다. 그러면 사람은 왜 노는 걸 좋아하는가? 사람은 왜 ‘놀이하는 인간’인가?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놀이하시는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놀이(play)’ 하는 걸 기뻐하셨다. 유진 피더슨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 추락해 버린 비인격화된 신학’에 항의하면서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놀이’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곳에서 놀이하고 계신다.’²⁹⁸ ‘창조 안에서 놀이하시며, 역사 속에서 놀이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놀이하신다.’²⁹⁹ 그의 이야기의 강조점은 ‘인격’과 ‘관계 맺음’에 있다. 하나님은 왜 사람과 놀이하시는가? 놀이를 통해 우리와 즐겁게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다. 놀이를 통해

²⁹⁷ 요한 하위징아, *호모 루덴스*, 이종인 역 (서울: 연암서가, 2010), 21.

²⁹⁸ 피더슨, *현실, 하나님의 세계*, 23.

²⁹⁹ *Ibid.*, 31-32.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함께 놀이하는 과정을 통해 인격이 성장한다. 인간이 놀이하는 존재라는 것은 굳이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이론을 가져오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놀면서 자라났듯, 아이들도 놀면서 자라나야 한다. 사람은 놀면서 배운다. 규칙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생각도 자란다. 당연히 상상력도 자라나고, 더욱 창조적인 존재가 되어 간다. 노는 과정에 건강도 좋아지며, 놀이를 통해 ‘인간’ 이 되어간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노는 것을 죄악시하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자신들도 놀고 싶으면서 아이들을 못 놀게 했다. 계속 못 놀게 하니 아이들이 미쳐간다. 놀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데, 놀지 못하니 점점 더 비인격적인 ‘자기만 아는 괴물’ 로 변해간다. 공부든 배움이든 놀면서 해야 한다. 그래야 잘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다. 사람은 놀이를 통해 자기가 모르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알아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배우며, 즐거움을 위해 자신이 따르고 지켜야 할 규칙과 책임이 있음을 배운다. 그렇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워간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노래 부르기’ 안에 다 들어 있다. 사실은 음악 자체가 놀이이다. 그래서 ‘연주하다’ 는 동사를 영어로는 ‘play’ , 즉 ‘놀다’ 라는 표현을 쓴다. 함께 노래하는 것은 함께 노는 것이다. 놀이를 통해 관계를 알아가고 역할과 책임, 규칙을 배운다. 음악 자체가 놀이지만, 더 재미있는 형태로 놀기 위한 노래들이 많이 있다. 특히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속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아이들은 노래하며 놀고, 놀면서 노래한다. (사실은 어른들도 그렇다) 좋은 놀이를 통해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중에는 놀 줄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 게임을 하는데, 규칙을 어긴다. ‘얼음 땡’ 이라는 놀이를 예로 들어보자. 술래는 ‘얼음’ 이라고 외치는 친구를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얼음을 외친 사람은 친구가

와서 ‘땡’ 이라고 해 주어야 움직일 수 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꼼짝도 못 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좋은 의미를 담은 이 놀이는 심지어 복음적이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술래에게 잡힐 위기에 처하자, 얼음을 외쳐 놓고는 술래가 지나가자 스스로 ‘땡’ 을 하고 친구의 도움 없이 혼자 움직여 버린다. 술래가 규칙을 어겼다고 지적을 해도, ‘내 맘이야’ 라고 말하며 우겨 버린다. 이쯤 되면 그 놀이는 더는 진행될 수 없다. 놀이를 근원부터 훼손하는 그 아이는 지금 사람 이길 포기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이런 일은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사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함께 하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 어른들이 너무나 많다. 자신에게 있는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놀 줄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놀이에 대한 감각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요한 하위징어는 ‘음악은 그 비구상성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놀이 영역을 벗어나는 법이 없다.’³⁰⁰고 했다. 그의 말처럼, 음악은 사실 그 자체로 놀이다. 이 ‘음악 놀이’ 는 아주 쉬운 리듬을 치는 것에서부터 어려운 곡을 함께 연주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운율과 리듬은 그 자체로 놀이다. 놀이의 요소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단계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자 한다.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을 한다.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처음엔 간단한 선율을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다. 그러나 이내 뭔가 심심해진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을 더해도 보고, 바꾸어도 본다. 리듬을 바꾸기도 하고, 화음을 더 하기도 하고, 화성 자체를 바꾸기도 한다. 연주 패턴을 바꿔도 보고, 조를 바꿔 보기도 한다. 그

³⁰⁰ 하위징어, *호모 루덴스*, 302.

노래에 맞추어 춤도 춰 보고, 춤에 맞추어 노래를 더 신나게 바꾸어도 본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경지에 이를 순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길고 지루한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인격적인 요소를 이렇게 몸에 익혀갈 수 있다.

혼자서도 놀 수 있지만, 결국엔 심심해진다. 놀이는 함께 해야 제맛이다. 혼자 놀 때 보다 함께 놀 때 훨씬 더 재미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다른 사람이 노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놀이의 한 부분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다. 재미있으면 추임새를 넣고 환호하고 박수를 치며 놀이에 끼어든다. 이것을 우리는 ‘공연’이라 부른다. 공연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 연습하는 것이 아니다. 더 재미있게 놀기 위해, 함께 즐기기 위해 연습하고 훈련한다. 계속 놀다 보면 더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공연이나 교육의 형태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놀이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즐기며 행복할 수 있다. 이 즐거움을 의무와 경쟁, 그리고 그로 인한 열등감과 상처로 바꾸어내는 어른들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이것은 우리와 놀이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끼리 놀다가 생겨난 죄의 열매이다. 놀이를 훼방하는 그 악한 일을 멈추어야 한다. 잘 놀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함께 노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남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괴물이 탄생할 수 있다. 아이들은 노는 과정을 통해 생각이 자라나고, 친구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도 자라나고, 그렇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난다. 아이나 어른이나 좀 놀아야 한다. 특히 음악과 함께 놀 때, 아이들의 감성은 더욱 풍성해진다.

놀이를 위한 동요들이 있다. 우리 민족에게 오는 전래 동요들도 좋다. 외국 민요나 동요들도 좋다. 함께 춤추며 부르는 노래도 좋고, 고무줄놀이를 하며 부르는

노래들도 좋다. 이 노래들은 아이들을 살아나게 한다. 보는 어른들도 살아나게 한다. 아이들에게 함께 노래하며 노는 이 즐거움을 돌려주어야 한다. 놀이를 위한 노래 몇 곡을 소개한다.

<우리 집에 왜 왔니?> - 전래동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OO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바위보!

이 노래 놀이는 놀이 속에 자신과 상대방이 꽃처럼 아름답고 귀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혼자 하지 않고, 팀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어야 해서 좋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해서 더 좋다. ‘가위 바위 보’ 놀이 속에 담겨 있는 유연성도 좋다. 힘이 약하고 어린 친구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의미를 다시 해석해서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재미있게 놀면서 자신이나 자신의 친구나 ‘꽃’ 같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도록 도와주면 된다.

<반달> - 작사 작곡 윤극영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샷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 나라로
 구름 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이는 건
 샷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반달은 아이들이 마주 앉아서 서로의 손을 치면서 부르는 ‘췌췌췌 놀이’ 를

할 때 많이 부르는 노래다. 들썩 짝을 지어서 여러 다른 손동작의 리듬을 정확히 맞출 때 오는 쾌감이 아이들을 더 즐겁게 한다. 이 놀이의 특징은 자신이 아무리 빨리할 수 있어도, 상대방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 속도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잘 못 하는 사람에게 맞추어 주어야 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고 하신 성경의 가치가 놀이 속에 녹아 있다. 이렇게 상대방의 수준과 속도에 자신의 속도를 맞추어가는 과정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는 놀이이다. 이렇게 어디서나 부르며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게 했던 민족의 노래이기도 하다. ‘셋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같은 가사를 담은 이 노래는 어둠으로 가득했던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담아 주었던 희망의 노래였다.

좋은 의미를 담았으면서도 재미있게 부를 수 있는 이런 놀이 동요들이 우리에게 많다. ‘동대문을 열어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강강술래’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같은 ‘전래동요들은 대부분 아이들의 놀이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³⁰¹ 엄성은의 말처럼 ‘이런 노래들은 특별한 날에만 부르거나 어떤 형식을 갖춰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생활 그 자체에 있었’³⁰²기에 우리 민족의 이전 시대와 오늘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놀이를 위한 노래는 아니었지만, 놀이를 위해 사용된 노래들도 많이 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7~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했던 ‘고무줄놀이’ 를 위한

³⁰¹ 엄성은, *애들아 전래 동요 부르자* (서울: 플라잉피그코리아, 2009), 12.

³⁰² Ibid.

노래들을 예로 들어보자. 아이들은 고무줄 위에서 뛰면서 ‘장난감 기차’ , ‘이슬비’ , ‘꼬마야 꼬마야’ , ‘금강산’ , ‘달맞이’ 같은 노래들을 불렀다. 노래에 따라 놀이의 형태도 달라졌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함께 노래를 불렀고, 규칙을 따르는 법을 배웠다. 모든 고무줄놀이는 노래가 반복될 때마다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건강이 더 좋아졌다.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합창단을 지휘하며 실제로 고무줄놀이를 다시 시도해 보았는데, 아이들은 그때에도 재미있게 잘 따라 했다. 이때, 엄마들 몇 분을 놀이 교사로 초청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면서 함께 노래하며 놀았던 적이 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 이미 있던 옛 놀이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이런 놀이 동요들은 놀면서 부를 수도 있고, 모든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형태로 편곡하여 다시 부를 수도 있다.

어른들의 놀이노래들은 주로 일터로 연결되어 있다. 함께 일을 하며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그 노래는 곧 놀이가 된다. 선소리꾼을 세워 노래를 주고받으며 하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제 놀이가 되었다. 놀이가 된 노래들은 다시 마을의 잔치 때 불리며 여러 가지 민요의 형태로 오늘까지 전해진다. 이런 노래들은 이전의 느낌 그대로 함께 놀면서 부르는 것도 좋지만, 오늘의 느낌으로 편곡하여 부르는 것도 좋다. 사실 노래를 편곡하는 것 자체가 놀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놀이(편곡)를 보면서 또 신선해 하면서 함께 그 놀이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인 ‘동요’에 대해 살펴볼 때가 되었다.

동요 부르기를 통한 에픽(EPIC)의 실천

‘매체가 곧 메시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매체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 자체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매체, 즉 그 도구를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 매체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요’는 ‘함께 노래 부르기’ 위해 매우 좋은 형태의 노래다. 동요는 남녀노소 할 것이 없이 누구나 함께 부르기 쉽기 때문이다. 동요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무장을 해제시키는 묘한 힘이 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무슨 이야기든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징과 은유, 비유와 직유, 상상 속의 동화를 포함한 자연 만물의 이야기까지, 무엇이든 담아서 노래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연이나 삶의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세상의 언어로 말해내고, 의미를 부여해서 함께 노래할 수 있다. 특별히 한국은 동요가 가진 의미가 더욱 큰 나라이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근현대사의 어둡고 힘겨운 시대를 동요를 부르며 이겨냈기 때문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불렀던 동요들은 부르기만 해도 옛 시절의 아련한 향수를 가져오며 부르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는 힘이 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동요는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에 불어오는 봄바람이다. 또한 메마르고 갈라진 대지를 살아나게 하는 봄비이기도 하다. 동요는 인생살이로 지친 어깨에 불어오는 산들바람이며, 탁해진 영혼에 스며드는 맑은 샘물이기도 하다. 동요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 창고이며, 자녀를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담은 꽃다발이다. 동요는 움츠러든 우리 마음에 비춘 햇살 한 줍이며, 어른들의 마음을 추억으로 데려가는 타임머신이다. 그리고 동요는 우리 마음의 벽을 허무는 굴착기이며,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무지개다리이다. 그래서 동요는 어린아이와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노래이다.

동요, 벽을 허무는 노래

동요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한다. 앞서서도 잠깐 말한 우리의 이전 시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동요들은 어른들을 곧바로 추억으로 데려간다. 모두를 동심으로 데려가는 그 노래에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금방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동요를 부르지 않는 데 있다. 너무 어려서부터 매스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은 동요 아닌 다른 매체들에 훨씬 더 익숙하다. 영상과 기계, 특히 핸드폰의 재미에 푹 빠진 아이들은 더는 노래에서 재미를 찾지 못한다. 노래를 부른다 하여도 현대 오락물을 통해 배우고 익힌 최신 가요를 많이 부른다. 너무 일찍 자극적인 가사와 선율의 노래를 배운 아이들은 동요를 시시하게 생각하며 동요를 잘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이지 원인은 아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이들에게 창조적으로 다가서서 노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시 노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 안에는 ‘노래하는 인간’의 DNA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찾아가 노래를 들려주는 것이다. 아이들이 아름다운 연주에 맞추어 부르는 좋은 노래를 듣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함께 부르는 노래에 ‘참여’ 할 마음이 생겨난다. 만약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하모니를 맞추어 노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세대와 세대’가 완전히 분리된 이 시대를 향한 엄청난 기적의 순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좋은 동요들을 다시 알려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른들이 어린 시절 불렀던 노래들 중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 곡을 소개한다. 먼저 소개할 곡은 이원수 작사, 홍난파 작곡의 ‘고향의 봄’이다.

고향의 봄은 1926년 일제강점기에 겨우 16세였던 이원수가 ‘어린이’지에 발표한 동시에 홍난파가 곡을 붙인 동요이다. 일제에게 고향을 빼앗겨 버린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어둡고 힘겨운 시기를 이겨냈고, 그 힘겨운 시기를 함께 보낸 이 노래는 고향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다. 한국전쟁 때 급하게 피난 길을 떠났던 사람들 또한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불렀고, 전후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키며 모두가 어렵던 시절,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의 노동자들, 해외 이민자들 또한 눈물로 불렀던 노래이다. 이 노래의 시를 쓴 이원수는 한국전쟁을 지내면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 3명과 생이별을 하게 되고, 그중에 두 자녀는 영영 만나지 못한다. 이후 그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나 소설 등을 발표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문학에 온 삶을 쏟아붓는다. 일제강점기뿐 아니라, 한국전쟁의 아픔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노래는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련한 추억으로 이끌고 가는 힘이 있다.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 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 동네 새 동네 차린 동네
 파란 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노래는 선율과 가사도 좋지만, 담겨진 이야기와 그 안에 담겨진 의미 또한 참 좋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 노래가 불렀던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 이야기나, 한국전쟁 때 동시를 지은 이원수에게 있던 이야기들을 함께 들려주며 노래를 부르면 노래는 더욱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다. 본 연구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포함한 한국 근현대사를 담아낸 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에서 중년과 노년을 지나고 있는 어머니들로 구성된

‘도봉시스터즈’에게 이 노래를 부르도록 했었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세대가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로 연결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자리에는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문화적 느낌이 다른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 서로에게 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픈 근현대사를 가진 우리에게는 힘겨운 시간을 함께 부르며 민족의 마음에 새겨진 좋은 동요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오빠생각’, ‘반달’, ‘기차길’, ‘기러기’, ‘겨울나무’, ‘방울새’ 같은 동요들은 윗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해 주는 선물과도 같은 노래들이다. 이 노래들도 ‘고향의 봄’ 처럼 노래에 얽힌 이야기나 그 시대의 이야기와 함께 들려주고 부르며 노래하는 사람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요 외에도 함께 부르기 좋은 가곡이나 외국곡들도 노래에 얽힌 사연이나 의미를 담아 다시 부를 때, 노래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노래가 된다.

<그림3> 고향의 봄을 부르는 도봉시스터즈



다음에 소개할 동요 ‘새싹들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많이 부르는 교과서 노래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를 부를 때 중요한 것은 ‘음악적’ 표현이다. 노래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자기만의 악기를 충분히 익혀 눈앞에서 직접 들려주며 노래하는 게 좋다. 기계 반주나 MR반주에 노래를 하는 게 익숙한 아이들에게 피아노나 기타 등의 실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할 때, 아이들은 더 신나게 ‘함께 노래 부르기’에 참여한다.

<새싹들이다> - 작사 작곡 좌승원

1.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높고 푸른 하늘
 가슴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푸른 꿈이 자란다 곱고 고운 꿈
 두리둥실 떠간다 구름이 되어
 너른 별판을 달려 나가자 씩씩하게 나가자
 어깨를 걸고 함께 나가자 발 맞춰 나가자

2.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높고 푸른 하늘
 가슴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해님되자 달님되자 별님이 되자
 너른 세상 불 밝힐 큰 빛이 되자
 무지개 빛깔 아름다운 꿈 우리 모두 차지다
 너와 나 함께 우리가 되어 힘차게 나가자

노래를 선곡할 때는 선율과 가사 잘 어울리는 노래가 좋다. 선율이나 리듬은 멋진데, 가사와 잘 어울리지 않는 노래가 생각보다 많다. 가사의 느낌을 선율이나 리듬으로 잘 표현한 좋은 노래는 누구나 좋아한다. 이 동요 역시 가사와 선율, 리듬이 잘 어울리는 참 좋은 노래다. 새싹이 가진 이미지도 좋고, 그 이미지를 밝고 힘차게 붙어낸 선율도 좋다. 굳은 땅이나 두꺼운 마른 나뭇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의 신비를 나눌 수도 있다. 혼자 꿈꾸고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가 ‘우리’가 되어 함께 나아가서 더 좋다. 노래

가사에 나온 표현처럼 가슴을 펼 때는 실제로 가슴을 짹 펴보고, 하늘을 보라고 할 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불러도 좋다. <사진>은 도봉초등학교 학생들이 합창발표회 시간에 다같이 ‘새싹들이다’ 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4> 합창발표회 시간에 ‘새싹들이다’ 를 부르는 도봉초 학생들



창작 동요 함께 부르기

옛날부터 함께 부르던 좋은 동요들도 좋지만, 새롭게 창작된 좋은 동요들도 많이 있다. 이런 좋은 노래들을 ‘찾아내서’ 함께 부르는 것도 함께 노래 부르기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처음 소개할 노래는 국악적인 선율을 가진 창작동요 <모두 다 꽃이야>이다. 이 동요를 작사작곡한 류형선은 교회 안 밖에서 좋은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이미 오랫동안 함께 노래 부르기를 실천해 온 그리스도인 예술가이다. 그가 만든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예쁘고 복음적이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우며 존귀하다는 메시지를 따뜻하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외모에 관심이 많고, 그에 따른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아파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런 친구들에 많은 종류의 꽃들을 소개하고, 그 꽃들을 사진으로라도 보여 주면서 꽃마다 있는 아름다움을 함께 발견하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 좋다. 선율이 쉽고 예뻐서 금방 따라 부를 수 있다.

<모두 다 꽃이야> - 작사 작곡 류형선

1.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후렴]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데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2.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노래가 익숙해 질 무렵, 나태주 시인의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같은 시를 소개하면서 노랫말의 의미를 다시 새겨도 좋다.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이야기해 주면서 다시 노래한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임 중에 불러도 참 좋다. 노래의 의미를 설명하고 다시 부를 때, 아이들의 얼굴이 실제로 꽃처럼 활짝 피어난다.

<해님사랑> - 안혜자 작사, 류정식 작곡

오늘은 해님 오려나 다가선 창문가에는
해님이 얼굴 내밀고 안녕 하며 인사하네요

콩닥콩닥 두근두근두근 누구부터 안아줄까
풀잎사귀 열매들 살포시 품어줍니다

온세상 큰 사랑으로 골고루 고루 사랑해주니
 앞마당 방글방글 웃음꽃 피어나요
 온세상 환한 빛으로 아름답게 오색칠하는
 해님 사랑이 가득해요

2006 KBS 창작동요대회 수상작인 이 곡은 가사 중에 종교적인 단어가 전혀 없지만, 기독교적인 가치를 잘 담아낸 수작이다. 온 세상을 골고루 비추어 주고, 각각의 생명 안에 담겨진 생명의 진실과 자기만의 색깔을 나타내도록 도와주는 해님은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골고루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연상케 한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인사’를 하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며’ 큰 사랑으로 골고루 ‘사랑해주는’ 이 일은 인격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섬김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런 노래는 어른들도 함께 불러도 좋은 동요이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은 노래가 동요 중에는 많이 있다. 동요이기에 더 자유롭게 상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노래는 똥똥해질까 봐 걱정하는 참새의 걱정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동요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참새는 통통할 때 귀엽고 예쁘다. 다시 말하면 이 참새는 똥똥해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참새 그대로 예쁘고 귀엽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인해 신경을 쓰며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곤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동시에 친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의미를 다시 부여해서 노래를 가르쳐 준다. 그러나 ‘의미부여’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노래가 가진 익살스러움과 재미를 놓치기 쉽다. 먼저는 노래를 재미있게 즐기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노래는 놀이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똥보새> - 신철휘 작사, 정재원 작곡

냥창냥창 나뭇가지 끝에
 앉아 있는 참새 한 마리
 똥똥보가 될 까봐 남들이 놀릴까봐
 걱정이 태산 같아요

먹는 것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몸이 붙었지
 혹시라도 저울이 고장 났을까봐

이가지 저가지 옮겨 다니며
 자꾸자꾸 몸무게를 재본답니다

맨 첫 번 단어 ‘냥창냥창’은 ‘가늘고 긴 막대기나 줄 따위가 자꾸 조금 탄력 있게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성어이다. 잘 쓰이지 않는 단어지만 아이들에게 소개하며 몸으로 표현하도록 하면 신이 나서 따라 한다. 뿐만 아니라, 똥똥해질까 봐 걱정하는 참새의 마음에 자신을 일치 시켜 목소리와 동작과 얼굴 표정으로 그대로 표현하도록 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마지막 ‘이 가지 저 가지-’ 부분은 폴짝폴짝 뛰면서 춤추며 노래하면 너무나 신나게 함께 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아이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노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아름다우며, 자신의 친구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성’을 배우게 된다.

이야기를 담은 노래

레너드 스윗은 그의 강의 중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화하라”고 주문했다. 우리가 이야기화해야 할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노래다. 특히 동요 중에는 가사 자체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가 많다. 또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동요들도 있다. 함께 노래 부를 때 이런 노래들을 포함시켜서 이야기와 함께 노래할

때, 사람들은 더욱 쉽게 마음을 열고 함께 노래 부르기에 동참한다. 동요들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길지 않고 짧게 끊어져 있다. 그 이야기들의 장점은 앞뒤로 이야기를 연결하여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여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고, 노래를 가르쳐 주는 교사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노래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할 수도 있다. 또한 동요와 그림책을 연결하여 그림책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그 이야기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담아 풀어내면 아이들의 인격성의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엔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노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버전이나 이야기의 종류만 바꾼다면 청소년이나 어른들을 위한 노래 이야기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 노래 이야기는 ‘보완교육기관’인 ‘SA 칠드런’에서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노래 부르기’ 시간에 몇 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이야기이다. 여기서는 아주 간략한 형태로만 소개한다.

<아기 다람쥐 또미 이야기>

깊은 산속에 귀여운 아기 다람쥐 또미가 살고 있었어요. 또미는 엄마랑 아빠, 그리고 동생 또순이와 함께 살았는데요, 또미는 숲속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노래하며 노는 것을 제일 좋아했답니다. 오늘부터 또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부터 한 번 불러볼까요?

<아기 다람쥐 또미> - 한예찬 작사, 조원경 작곡

쪼로로롱 산새가 노래하는 숲속에
예쁜 아기 다람쥐가 살고 있었어요
울창한 숲속 푸른나무 위에서
아기다람쥐 또미가 살고 있었어요
야호 랄라 노래 부르자 야호 숲속의 아침을
야호 트랄라 귀여운 아기 다람쥐 또미

오늘은 또미가 소풍 가는 날이에요. 또미는 소풍 가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엄마가 싸 주신 맛있는 도시락 먹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신이 난 또미는 팔딱팔딱 재주를 넘으면서 소풍을 갑니다.

<다람쥐> - 김영일 작사, 박재훈 작곡

산골짜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가지고 소풍을 간다
다람쥐야 다람쥐야 재주나 한번 넘으렴
팔딱팔딱 날도 참말 좋구나

신나게 재주를 넘으며 숲길을 걷고 있는데 멀리서 뺨꾸기 친구들이 노래를 하네요. 흥겨워진 또미는 뺨꾸기들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함께 노래합니다.

<뺨꾸기> - 외국곡

한적한 산길 따라서 나는 올라갔지
우진 숲길 속에서 뺨꾸기 노래 소리
뺨뺨꾸꾸 랄랄랄 랄랄라 랄랄라 뺨뺨꾸
랄랄랄 랄랄라 랄랄라 뺨뺨꾸(x2)

산새들과 함께 화음을 맞추며 한참을 노래하며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꽃향기가 밀려왔어요.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길을 멈추고 살폈더니, 해님이 머문 곳에 예쁜 방울 꽃들이 피어 있네요. 가까이 다가가서 꽃내음을 맡아 보았더니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도 한번 맡아 볼까요? 선생님이 신호하면 함께 눈을 감고 꽃향기를 맡아 보세요. “자, 흠- 아 좋다!”

<숲속을 걸어요> - 유슬중 작사, 정연택 작곡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숲속을 걸어요 꽃향기가 그윽한 길
햇님도 쉬었다 가는 길 다람쥐가 넘나드는 길
정다운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그렇게 신나게 노래하며 춤추면서 친구 토순이가 있는 옆 마을로 놀러 왔습니다. 토순이와 토순이의 부모님은 또미를 반겨 주었지요.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고, 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 장난감 중에는 토순이가 정말로 아끼던 장난감도 있었지요. 또미도 그 장난감을 좋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놀고 싶어 했답니다. 하지만, 토순이는 멀리서 온 친구 또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장난감을 또미에게 나누어 주고 같이 놀았답니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던 또미가 토순이에게 노래를 불러 줍니다.

<내 마음이 기쁘단다> - 작사 작곡 김진영³⁰³

친구야 나의 친구야 장난감을 내게 나눠 주어서
친구야 나의 친구야 내 마음이 기쁘단다

그러자 이번엔 토순이가 그 먼 길을 지나 놀러 와서 함께 놀아준 또미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노래합니다.

친구야 나의 친구야 너와 함께 재미있게 놀아서
친구야 나의 친구야 내 마음이 기쁘단다

즐겁게 놀던 두 친구는 저녁이 되어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미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음을 기억하면서 토순이와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도 ‘빠꾸기’ 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또미는 함께 노래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와 노래를 연결하면, 엮어낼 수 있는 동요와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깊은 산속 옹달샘’, ‘산토끼야’ ‘괜찮아요’ ‘손이 뽀뽀’
등 아이들이 많이 아는 동요들에서 ‘내 마음이 기쁘단다’ 나 앞에서 소개한 ‘모두
다 꽃이야’ 같은 좋은 의미를 담은 창작동요들까지 연결하여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마치 TV의 연작 프로그램처럼 만날 때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어서 좋다. 지난 시간에 불렀던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고, 매주 새로운
노래들을 배우기도 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면, 아이들의 호기심과 즐거움이 배가되고
상상력이 자라나며 아이들의 노래 실력도 자연스럽게 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와 함께 부르는 노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참여(Participation)’로 이끌 수 있다. 이야기 중에 가득한 ‘상상’과 그로
인한 ‘이미지(Image)’는 아이들을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공간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을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내러티브)’속으로

³⁰³ 김진영, *김진영동요집* (서울: 교문사, 2009), 26.

데리고 가서, 그 안에서 비슷한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특별한

‘경험(Experience)’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많은 문학 작품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담아 주는 방식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야기와 그로 인한 감정들을 공유한 친구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계(Connection)’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면,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메시지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전달하여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준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뒤에는 다시 그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함께 부르며 마음과 몸에 새긴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시 다음에 이어질 노래 이야기를 기다리게 되고, 그 이야기는 끝도 없이 펼쳐지게 된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매주 연작으로 이어지다가 성탄절까지 이어져 크리스마스 캐럴까지 연결하여 함께 부르기도 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상상력이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신 진실을 나타내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인격성이 회복되고 자라난다. 이런 식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의 집중도는 놀랍도록 높아진다. 이렇게 노래 수업을 진행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공연으로 연결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는 부모들을 초대하여 부모들까지 함께 노래 부르기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다.

지면 관계로 인하여 간략한 방식으로 소개를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방식은 청소년이나 어른들을 위한 콘서트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자는 이런 이야기와 노래들(동요, 가요, 팝송, 가곡, 창작곡 등)을 엮어서 콘서트를 구성했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장년과 노년을 아우르는 대규모 콘서트를 여러 차례 무대에 올렸다. 교회 안에서는 이미 ‘오라토리오’나 ‘칸타타’의 형식으로 오래전부터 해오던 노래극 방식이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텍스트로 사용하지만, 일반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나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들에 재미있는 상상을 더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성경적인 가치와 좋은 의미를 담아서 전하는 방식은 거짓 이미지로 가득한 세상에 다시 맑은 물을 흘러가게 하는 작은 방편이 될 수 있다. - 대표적인 예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같은 작품들을 들 수 있다. - 이렇게 다같이 함께 노래 할 수 있는 교회의 좋은 음악적 전통을 세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실제적인 예는 본 논문 V장 ‘함께 노래 부르기’와 성육신적 교회의 실천’ 과 <부록>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야기를 담아내는 또 하나의 방식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노래들을 다시 부르는 것이다. 이런 노래들은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영상이나 이야기와 함께 함께 부르기에 참 좋다. 이번엔 애니메이션 ‘강아지 똥’ OST로 사용되었던 이루마의 ‘꿈’ 이라는 곡만 살짝 소개해본다.

<꿈(DREAM)> - 작사 작곡 이루마³⁰⁴

걱정 마요 실망 마요 저 멀리서 별이 내려 올 때
 울지 말고 바라봐요 내 손에 담긴 작은 별들을
 쉽게 놓쳐 버릴까 봐 그만 놓쳐 버릴까 봐
 걱정 말고 믿어 봐요 나의 꿈을 잊지 마요 나의 꿈을

이 곡에 나오는 시각적 이미지들을 청각적 감성에 담아 노래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우면 더 멋들어지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부르는 동안 ‘강아지 똥’³⁰⁵에 담긴 기독교적 메시지가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시각과 이미지가 많이 강조된 시대이다.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시각적

³⁰⁴ 장기범, 초등학교 음악 5-6 (서울: 미래엔, 2015), 8.

³⁰⁵ 권정생, 강아지 똥 (서울: 길벗어린이, 1996).

효과나 영상물에 민감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함께 노래 부르기는 ‘듣기’를 강조하지만 시각적 효과를 아예 외면할 수는 없다. 이 시대가 가진 특징이요 이미 형성된 ‘문화’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각 자료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함께 노래하는 것도 필요하다. 영상이나 그림, 또는 그림책 같은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를 새기며 함께 노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야기를 담은 노래 중에 단연 최고의 노래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를 담은 크리스마스 캐럴이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기가 되신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는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에 목마른 온 세상을 위한 이야기이다. 톰 라이트가 말한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것이 내놓는 이야기가 온 세상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그것은 공공의 진리다.”³⁰⁶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진짜 사랑 이야기는 더 많이 반복되어 들려져야 한다. 이 이야기야말로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길’³⁰⁷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그 ‘거대한 이야기(meta narrative)’를 거부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만든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비인격적 거짓 신화’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 ‘강력한 이미지’의 형태로 제공된 그 거짓 신화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며 자신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진리’의 이야기를 거절하게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모른 채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이 성육신 이야기이다. 그렇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당신을 거부한 사람들을

³⁰⁶ 마이클 고힌,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세계관은 이야기다*, 윤종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11), 74.

³⁰⁷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마이클 고힌, *성경은 드라마다*, 김명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9), 24.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복음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복음에 담겨 있는 진짜 사랑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세력과 강력한 힘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가 취했던 방식이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은 ‘아기’가 되시는 것이었다. 누구도 해칠 수 없고,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신 것이다.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가진 힘이 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의 방식, 헤롯의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래선 안 된다. 오히려 더 연약한 모습이 될 필요가 있다. 세상을 돕기 위해서, 세상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들에게로 찾아가서 인격적으로 관계하며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 예수님도 그들의 도움을 받음으로 그들을 도우셨다. 우리가 기꺼이 도움을 받을 때, 오히려 그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강요하는 대신에, 먼저 그들의 삶의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다시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언어가 바로 거듭난 언어인 예술이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노래와 춤, 드라마와 영상 등에 담아 다시 들려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이야기를 만들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할 수 있다. 더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말이다. “예술은 진실은 일깨우는 거짓”³⁰⁸이라고 말한 피카소의 말은 여전히

³⁰⁸ 조경진, *예술은 어떻게 거짓이자 진실인가?* (서울: 사람의무늬 2016) 재인용, “우리 모두 예술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예술은 진실을 일깨우는 거짓이다(We all know that art is not truth.

유효하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 속에 진실을 담아 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이 판치고 있는 포스트모던 세계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예술가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세상 언어로 복음을 담아낸 노래

봄비와 이른 비

문화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복음도 끊임없이 다시 번역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노래들은 동요 안에 복음을 담아낸 창작곡들로 본 연구자가
 제작한 동요앨범 ‘씨앗의 꿈’에 수록된 곡들이다. 우리는 어린이의 언어로 복음을
 번역하여 다시 부를 수 있다. 특히 동요에는 상징과 비유, 은유와 상상이 얼마든지
 허용되기에 복음의 이야기를 담아 함께 부르기에 매우 좋다. 지금 소개하는 곡
 봄비는 ‘봄비’와 함께 온 세상이 깨어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서정적인
 곡인데, 가사나 선율 안 구석구석에 ‘생명의 갈망’을 담았다. 하늘에서 내리는
 봄비는 땅 아래서 위를 향한 간절한 생명의 갈망과 맞닿아 있다. 땅 아래 생명의
 ‘봄비 맞이’는 특별하다. 숨어 있던 연두 빛 생명들이 움트고 나와 위로부터
 내리는 봄비를 맞이하고, 온 세상이 봄비에 화답하며 아름답게 피어난다. 땅 아래
 잠자고 있던 봄의 생명을 ‘토닥토닥’ 깨우고 있는 봄비와 땅 아래 생명들이
 화답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봄비> - 작사 작곡 민경찬

소리 없이 봄비가 밤새 땅을 적셨네요
 산과들이 반가워 활짝 웃네요

추운 겨울 메마른 땅 긴긴 시간을
하늘 향해 팔 벌려 애타게 기다리던

나무들도 신이 나서 봄비를 맞이하니
봄의 생명 움트고 나와 연두빛 세상으로

하루 종일 토닥토닥 봄비가 땅을 적시네요
온 세상이 반가워 활짝 웃네요

이 곡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 이외에 또 하나의 의미가 담아서 만들었다. 그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생명을 향한 이 땅의 갈망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지만 철저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세상 언어로 담아낸 곡이다. 또한 우리 민요조의 곡으로 표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안에 담아 주신 정서를 담아내고자 했다. 앨범에 수록할 때, 곡에 담긴 의미를 풀어서 이렇게 기록했다.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대지 위에 봄비가 찾아옵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오랜 추위를 견뎌낸 생명들을 깨우고 다시 살게 합니다. 산과 들도 반가워 연두 빛 웃음꽃을 피워냅니다. 추운 겨울, 메마른 땅, 그 긴긴 시간을 하늘 향해 팔 벌려 봄비를 기다리던 산과 들의 나무들도 신이 나서 봄비를 맞이합니다. 깊은 곳을 숨어 흐르던 봄의 생명이 두꺼운 껍질을 뚫고 나오니, 온 세상도 함께 깨어납니다.³⁰⁹

위에 쓴 글은 겉으로 드러난 생명의 갈망을 담아냈지만, 이 곡은 원래 생명의 갈망을 담은 기도이다. 대지는 흙으로 지어진 우리네 몸이요, 삶이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의 비유를 하실 때 말씀하신 그 밭이다. 메마르고 얼어붙은 그 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의 단비이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소망

³⁰⁹ 민경찬, *씨앗의 꿈* (민경찬 첫 번째 노래모음, 2018), 가사집.

없어 보이는 그 땅은 성령을 기다린다. 성령의 단비를 갈망하며 기도한다. 하늘 향해 뻗은 나뭇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팔과 손’을 형상화 한 것이다. 성령의 단비가 그 땅을 촉촉이 적실 때, 그 땅이 다시 숨 쉬고, 다시 일어나 생명의 싹을 틔워낸다. 이 노래는 이 말씀들을 근거로 가사를 썼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2:23)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썸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시84:6-8)

모든 인생 가운데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다. 춥고 메마르고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야말로, 많은 썸을 만나는 시간이다. 중심에 있는 생명의 갈망이 터져 나오는 시간이다. 누군가 덧 씌워 놓은 거짓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생명의 진실을 담은 진짜 인생을 위한 시간이다. 그 진짜 갈망을 담은 눈물 썸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른 비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깊은 골짜기의 시간은 오히려 그 썸의 물을 마시고,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시간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의 인생 가운데 숨겨진 은혜의 신비이다. 이 이야기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나누어도 모두가 이해하며 공감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생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림5> ‘봄비’ 가사와 해설, 동요음반 ‘씨앗의 꿈’ 가사집 중에서

1 봄비 $\text{♩} = 126$

소리 없이 봄비가
밤새 땅을 적셨네요
산과들이 반가워
활짝 웃네요

추운 겨울 메마른 땅
긴긴 시간을
하늘 향해 팔벌려
애타게 기다리던

나무들도 신이 나서
봄비를 맞이하니
봄의 생명 움트고 나와
연두빛 세상으로

하루 종일 토닥토닥
봄비가 땅을 적시네요
온 세상이 반가워
활짝 웃네요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차가운 대지 위에 봄비가 찾아옵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오랜 추위를 견뎌낸 생명들을 깨우고 다시 살게 합니다. 깊은 곳을 숨어 흐르던 봄의 생명이 두꺼운 껍질을 뚫고 나오니. 온 세상도 함께 깨어납니다.

씨
앗
의
꿈



음반 안에 기독교적 용어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러한 진리의 메시지를 담고자 노력했다. 음반에 기록한 노래 가사 옆에는 음악의 속도를 나타내는 숫자를 기록했는데, 그 숫자는 실제 사용한 메트로놈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편의 장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다. 각 노래의 속도를 정할 때, 시편을 펴서 읽으며 의미가 연결되는 시편의 장을 메트로놈의 최종 속도로 정했다. 예를 들어 위에 언급한 봄비의 속도는 126인데, 이것은 시편 126장을 의미한다. 시편 126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126:5-6)”

씨가 움트고 자라나라면 반드시 습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땀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가 움트게 하는 데 꼭 필요한 습기를 제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주신 꿈은 우리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생명의 씨, 복음의 씨 또한 하나님의 눈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눈물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봄비’이다. 조병호는 그의 역작 <성경통독>에서 노아 홍수 때 내린 비를 두고 ‘하나님의 눈물’³¹⁰에 비유했다. 봄비도 그렇다. 이 동요에서 ‘봄비’는 메마르고 갈라진 땅 같은 우리를 향해 내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렇게 이 동요 안에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긍휼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마5:45)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5:8)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 할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일 때 사랑하셨다.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릴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³¹¹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함과 아무 관계없다. 다만

³¹⁰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04), 21.

³¹¹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롬5:10).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의 선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인 때, 불의한 자로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따사로운 햇살과 은혜의 단비로 내려 축축히 적셔지는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릴 살게 했고, 또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다 부어진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 앎을 인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지, 더 많은 것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든 재능이든 우리보다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지 아는 것이다. 그걸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이 은혜 위에 부어진 은혜다. 온 세상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때가 없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이다. 어떤 특별한 순간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 아닌 것이 없다. 아인슈타인도 말했다. “인생을 사는 데 꼭 두 가지 길이 있다. 기적 따윈 없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다.”³¹² 모든 것이 기적이다.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가까워져도 다 타죽고,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는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은혜가 다 거저라는 것이다.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노래에 담았다.

³¹² 브랜드, *예술과 영혼*, 70.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래> - 작사 임희옥, 작곡 민경찬

추운 겨울이 아직도
안 떠났는데
따뜻한 햇별은 거저래
그냥 주신대

목말라 시들어가는 잔디밭에
촉촉이 내리는 비도 거저래

너도 내게도 필요한
싱그러운 공기도
세상의 소중한 모든 것은
모두 거저래

이 곡은 본 연구자가 이사로 있는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³¹³에서 활동하는 임희옥교수가 쓴 가사에 본 연구자가 곡을 붙인 노래이다. 이 안에 담긴 기독교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이다. 긍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고, 은혜는 우리에게 표현된 사랑이다.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세계는 지금도 여전히 그 크신 은혜 안에 있다. 우리가 자기 삶에 몰두하며 그 은혜를 모를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계를 붙들어 주고 계시며 운행하고 계신다. 말씀이 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인해 존재한다. 이 곡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의 언어와 단순한 선율에 담은 곡이다. 또한, 온 산과 들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눈에 볼 수 있는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했다. 우리가 부르는 동요나 노래 속에 이러한 상징과 은유를

³¹³ 2001년도부터 시대의 변화 속에서 매년 유아교육현장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재조명하는 이론과 실제의 통합작업을 실행하고 있는 학회이다. ‘거저래’는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에서 주최한 2018년 제18차 추계학술대회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하는 유아세계시민교육’에서 발표하고, 자료집에 소개 되기도 했다. <https://www.kacece.org>.

담아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동요는 그런 마음을 담아내기에 더 수월하다. ‘시들어 가는 잔디 밭’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다.

<그림6> ‘거저래’ 가사와 해설, 동요음반 ‘씨앗의 꿈’ 가사집 중에서

3 거저래 J 214

추운 겨울이 아직도
안떠났는데
따뜻한 햇볕은 거저래
그냥 주신대

목말라
시들어가는
잔디밭에
촉촉히 내리는
비도 거저래

너도 내게도 필요한
싱그러운 공기도
세상의 소중한 모든 것은
모두 거저래

세상의 소중한 모든 것은 거저랍니다. 가치가 없어서 거저가 아니라, 값을 치를 수 없어서 거저랍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따스한 햇살, 촉촉한 봄비, 싱그러운 공기. 이 소중한 모든 것은 거저랍니다. 알든 모르든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은 빛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큰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도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귀한 것을 나누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씨
앗
의
꿈



동요 음반 ‘씨앗의 꿈’에 담긴 노래들 안에는 이러한 기독교적 상징과 은유가 가득하다. 그러나 그 상징과 은유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 감추어진 것이 많을수록 그 노래에 담긴 풍성한 의미와 상상력은 더욱더 넓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하나님 나라도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³¹⁴이다. 그 비밀은 말을 해 주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계시해 주시지 않고는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이와 같다. 만약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고 있다면,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자이다. 그의 삶은 복되다. 그가 그리스도인 예술가라면, 이제 그에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상상력을 사용하여 이웃과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은혜는 더욱 풍성해진다. 우리는 계시해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와 언어에 담아 노래로 만들어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술에 담아 세상도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풀어내는 것이다. 이 과정은 창조적 상상력과 즐거운 은유가 춤추는 놀이의 시간이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다.

봄바람과 생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담아낸 ‘봄비’와 ‘거저래’ 사이에 땅을 녹이는 ‘봄바람’이 있다. 이 노래도 기독교적 상징을 가득 담은 노래이다. 이 노래는 이미 Ⅲ장의 ‘이미지’ 파트에서 은유와 상징에 대해 나누면서 한번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그곳에 나누지 않은 또 다른 중의적 의미를 다루어 보겠다. ‘봄바람’의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다.

봄바람아 불어오너라

³¹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13:11).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게
 온 세상의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나도록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곡에서의 ‘뽕뽕 얼어붙은 땅’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인격성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 버린 사람의 마음 발을 상징한다. 그리고 봄바람은 그 마음을 녹이는 성령의 바람을 상징한다. 더 구체적으로 이 가사는 에스겔37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치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처럼 도무지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 에스겔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하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겔37:9-10)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대언을 한 이 말씀에서 ‘생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루아호]는 ‘호흡, 숨, (생명의)바람,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가 있다.³¹⁵ 이 의미를 그대로 살려 에스겔이 대언 한 부분을 바꾸어 보면 이렇게 된다. “숨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의 바람아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본 연구자는 이 문장을 거의 그대로 동요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이 가사를 만들었다.

³¹⁵ 구약원어대조성경, 261.

“봄바람아 불어오너라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게 온 세상에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나도록.”

‘봄바람’이라는 곡은 이 한 줄의 가사에서 시작된 노래였다. 그리고 이 가사는 단지 봄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노래한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기도문이었다. 눈 앞에 펼쳐진 이 시대의 어려움은 마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얼마든지 다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으며, 일어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인격성이 거세되어 그 굳어 버린 마음이 도무지 녹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상관없다. 우리에게 마른 뼈도 지극히 큰 군대로 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대의 어려움을 보고 절망하는 대신, 믿음으로 그분의 이 말씀을 대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노래에 담아 함께 부를 수 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시대를 향한 기도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이 노래는 실제로 여러 대규모 공연장에서 아이들의 합창으로 불렸다. 노래를 부른 아이들 대부분은 이 가사의 참 의미를 모른다. 물론 공연장에서 이 곡을 들으며 좋아했던 관객들도 이 노래의 참 뜻을 모른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다. 마른 뼈가 일어나 군대가 되는 것은 마른 뼈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대언’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으로 본 연구자는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곳곳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다니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덤도 누리고 있다.

본 연구자는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의 이야기를 담아 동요 앨범을 제작했고, 그 노래들을 지역의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부르고 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셨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일반 사람들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옮겨 놓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같은 마음을 담은 음반의 다른 곡들과 악보들은 <부록 3>에 수록되어 있다. 그 음반을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썼다.

1.

아무리 무서운 겨울도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센 겨울바람도 사랑사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겨울이 떠나갑니다. 온 세상을 녹이는 아름다운 봄바람이 우리네 마음에도 불어오면 좋겠습니다. 그 봄바람이 세상 곳곳에 숨어 있는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 불어와 그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

봄이 오면, 차가운 대지와 마른 나뭇가지 아래 숨어 있던 연두 빛 생명이 피어납니다. 농부들은 서둘러 겨우내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며, 다가올 여름을 준비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사과 속의 씨앗은 썬 수 있어도, 씨앗 속의 사과는 썬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담겨진 놀라운 생명의 진실과 그 가능성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눈이 열려 우리 아이들 안에 담긴 생명의 아름다움과 존엄함, 그리고 그 엄청난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이 소망의 노래들을 함께 부르며, 거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삶을 힘껏 응원하고 싶습니다.

씨앗의 꿈

봄을 그리는 마음

씨앗은 생명이다. 열매이고 참이며 실제이다. 그 열매의 중심에 씨앗이 있다. 그 생명이 가진 진실이 그 작은 씨앗 안에 다 담겨 있다. 씨앗 안에 전체가

다 들어 있다.³¹⁶ 그 생명의 특징, 개성, 자랄 때의 나무의 모습뿐 아니라, 꽃의 생김새와 그 향기까지 다 들어 있다. 현대 과학도 다 풀 수 없는 신비이다.

씨앗의 목적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전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열매가 바로 씨앗이다.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 씨앗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다. 그 씨앗이 품은 꿈은 자기 아닌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원래의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 주신 생명의 진실, 그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다. 그 꿈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며, 그 안에 담긴 진실을 풍성히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씨앗의 꿈이다. 그 씨를 우리에게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꿈이며, ‘그 씨’³¹⁷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사람의 진실과 그 생명 안에 담긴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능력을 친히 보여 주신 예수님의 꿈이다. 진실 그 자체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12:24)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씨’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³¹⁸가 되셨다.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생명의

³¹⁶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1976), 146

³¹⁷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헬리어 ‘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롬4:13)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헬리어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3:16).

³¹⁸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15:20).

길을 보여 주셨다.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을 보는 데서 그 꿈이 다시 시작된다. 이를 본 함석헌이 말한다.

봄이란 말의 뜻은 본다는 뜻일 것입니다. 죽은 가운데서 깨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눈을 뜨는 일입니다. 눈을 뜨고 볼 때 거기 새 하늘과 땅이 있고 그것을 보는 내가 있습니다...(중략) ... 겨우내 속에 생명을 지켜 봄을 기다리고 있는 움을 눈이라고 합니다. 눈이 튼다고 한다. 봄은 터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할 일은 장차 올 봄을 속에서 미리 보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속에서 미리 보는 것을 그린다고 합니다. 미리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미리 그리기 때문에 그림다고 합니다. 봄을 그리는 마음은 봄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림기 때문에 그려보는 것이고 그렸기 때문에 그리운 것이라고 합니다.³¹⁹

하늘로부터 온 씨를 품은 밭인 우리는 봄을 그리는 존재이다. 안에 생명을 품었기에, 아직 오지 않은 봄을 미리 바라보며, 그 생명의 시간을 그리워하며 그려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미리 보고, 직접 가서 그려보는 사람들이다.³²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봄을 미리 보고 그려서 보여 주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상상력이며 창조성이다. 미리 본 것을 그림으로 노래로 다시 보여주고 들려주는 사람들이다. 혼자 보고, 혼자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고, 함께 그려보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 본 것으로 인하여 함께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미리 보고 그리워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다. 그 믿음으로 밭을 갈아엎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 ‘봄을 그리는 마음’을 담은 노래가 ‘씨앗의 꿈’이다.

³¹⁹ 함석헌,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1976), 137-38.

³²⁰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라.”(수18:4).

우리가 불리야 할 노래

<씨앗의 꿈> - 작사 작곡 민경찬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신비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 갈 때
모두가 보게 될거야³²¹

이 노래 또한 중의적 의미를 담은 노래이다. 앞에서는 ‘이미지’와 ‘상상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소개한다. 이 노래는 먼저 자연의 섭리와 그 안에 담겨진 신비를 인간의 삶과 꿈을 연결해 만든 노래다. 앨범에선 이 노래가 만들어지 과정이 담긴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소개를 했다.

새로 이사를 온 집 뒤뜰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려고 보니 땅이 딱딱하게 굳어있네요. 아이들과 함께 먼저 오래 묵어 굳어 있는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진짜 힘든 일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 아닙니다.

³²¹ 민경찬, *씨앗의 꿈* (민경찬 첫 번째 노래 모음), 4번 트랙, 2018.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한참을 갈아엎다 보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갈아엎어 부드러워진 땅에 거름도 뿌려주며 땅을 고르고 정성스레 씨를 뿌립니다. 살짝 흙을 덮어 주고 나면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싹이 올라왔나 텃밭으로 나가봅니다. 물론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기다리다 지쳐 기다리는 일을 포기할 즈음, 마당에서 탄성이 나옵니다. 우와! 새싹이다! 아주 작은 연둑빛 새싹들이 줄을 지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닌데, 그저 아주 작고 연약한 싹일 뿐인데, 우리를 경탄하게 하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씨앗은 위로 자라나 싹을 틔우고 싶습니다.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기다림 없이 돋아나는 새싹은 없습니다. 기다림 없이 자라나는 나무도, 기다림 없이 얻을 수 있는 열매도 없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씨앗 속에 담긴 꿈의 열매를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기다림이 이어지던 어느 날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작고 까만 씨앗 속에 숨어있던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³²²

모든 생명은 기다림을 전제로 한다. 기다림 없이 생명의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한 사람의 인간이 세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누군가 오랜 시간 기다리며 가꾸어 가지 않으면 열매 맺는 성숙한 사람도 나올 수 없다. 또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사람만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다”³²³는 메시지도 그 생명의 진실에 관한 메시지이다. 사과 씨앗이 비록 작지만, 그 씨앗 안에 담긴 사과의 진실과 그 생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 작은 씨앗에서 얼마나 많은 사과가 열릴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 씨앗이 땅에 심어져 움이 트고 자라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할 일이 남아 있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 땅 아래에서 보내는 죽음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자체로도 생명의 진실에 관한 메시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이 노래에

³²² 민경찬, *씨앗의 꿈* (민경찬 첫 번째 노래 모음), 2018 <부록> 참조.

³²³ 김수경,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서울: 두란노, 1992), 59.

담긴 진짜 메시지는 진리의 말씀과 만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씨)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3:16)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벧전1:23-25)

이 노래에서 말하는 ‘씨앗’ 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 이며, 동시에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씨앗의 꿈’ 은 ‘말씀의 꿈’ 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꿈’ 이다. 동시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꿈’ 이며,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꿈’ 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즉 그 말씀 안에서 그 나라를 상상하고, 그 나라의 이미지를 바라보고 그리며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 실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와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두렵고 떨리기를 반복하며, 극복하지 못한 죄로 인한 실패와 절망으로 쉽게 좌절하는 연약한 인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이 필요하며 삶의 현장에서 그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게 할 노래가 필요하다. 이 노래에 담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지금은 비록 다 볼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실 그 나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 동시에 그 말씀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장육부 일동 백 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장기를 움직여, 그것도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할 때, 상상 속의 그림으로만 있던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재가 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

실재는 다름 아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우리 자신이다.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그 신비’는 ‘비밀’이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듯이 말이다.³²⁴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나라는 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걸음을 통해 날마다 완성되고 있다. 이 거대한 꿈을 시작하신 분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 거대한 그림 속엔 그분을 사랑하는 인격인 그리스도인들의 순종과 동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그 땅을 가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있다. 씨만 보고도 그 씨가 자라나 사과를 맺을 것을 그림으로 보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과 모종을 심을 때, 다닥다닥 붙여 놓고 심지 않고 푹 떨어트려 놓고 심는다. 그 나무가 자라날 것을 미리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까맣고 작은 씨 안에서, 연둣빛 작은 새싹에서, 메말라 보이는 긴 막대기(묘목)에서,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에서 빨간 사과 열매를 본다. 이 열매를 보지 못하면 사과나무를 심을 수 없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상상력이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³²⁵ 어떻게 보는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 보는 것이다. 내가 직접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고, 신뢰함으로 심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 열매를 보기에

³²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막4:26-27).

³²⁵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11:1-3).

길고 지루한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한다. 주님께서 두신 생명의 진실을 보고자 하는 이 기다림과 인내의 다른 이름이 믿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께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애3:25-26)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10:32-36)

생명 있는 씨가 심긴 곳은 땅 위가 아니라 땅속이다. 생명 없는 씨나 죽은 것을 땅속에 묻는 것을 ‘매장’ 이라 부른다. 그러나 생명 있는 씨를 심으면 ‘파종’ 이라 한다. 파종된 씨가 어둡고 칙칙한 흙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다. 생명이 깨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속에 심으신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태양 빛을 받으면 말라 죽기 때문이다. 햇빛은 식물이 잘 자라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충분히 뿌리 내리지 않은 채 그 빛을 받으면 씨앗을 죽이는 무서운 빛이 된다. 씨가 맨 처음 자라나는 방향은 위가 아니라, 아래쪽이다. 처음엔 아래로 깊이 뿌리 내린 뒤에는 옆으로 넓게 뿌리 내린다. 그다음에 잔뿌리들이 자라나서 땅속의 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을 묻고 있는 그 흙을 밀고 올라온다. 우리는 그것을 새싹이라 부른다.

새싹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사람’ 안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다. 그 씨앗이 어둠 속에서 썩어지고 죽어서 발아하고, 움이 트고 싹이 되어 올라왔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 생명은 이제 태양 빛과 물을 먹고 자라나야 한다. 아직은 자기가 맺을 열매가 뭘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냥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빛을 받고 아래로부터 빨아올린 물을 먹으며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지루한 일상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자라나고,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생명의 진실,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우리네 인생이며 삶의 내용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우리가 결국 맺어야 할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크고 대단한 어떤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으시는 바로 그 열매들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5:22-23)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얻고자 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맺히는 인격적인 열매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를 앎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벧후1:3-4, 새번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위대한 약속은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예산과 힘을 과시하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친히 보여 주시고, 그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친히 보여 주신 것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 ‘미디어’가 되셨고, ‘메시지’가 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육신의 신비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그 한복판에 심어진다. 죽음으로 가득한 그곳으로 들어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기쁨과 행복을 친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함께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이 놀라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벧후1:10-11)

아버지께서 성육신하신 아들과 함께 노래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몸 된 우리도 함께 노래한다. 우리에게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 하나님의 꿈이 담긴 그 노래이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인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종이 불렀고, 왕과 선지자들이 불렀으며, 친히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불렀고, 그 제자들과 몸 된 교회의 성도들의 불렀던 그 노래를 불러야 한다.

제 V 장

에픽(EPIC)적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한 성육신적 교회의 실천

니콜라스 윌터스토프는 파편화된 포스트모던 사회를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예술’을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예술은 단지 미술관에 걸려 있는 박제된 예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행동하는 예술’이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흩어지고 나누어진 많은 것들을 ‘예술’을 통해 모으고 연결하고 통합해 낼 수 있다. 윌터스토프가 말한다. “근대사회에선 도구적 합리성 탓에 익숙한 모든 것들이 쪼개져 파편화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가 파편화가 아닌 통합을, 도구적 합리성이 아닌 상상력과 내재적 합리성을 성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술을 통해서다.”³²⁶ 그는 예술이 ‘하나의 사회적 관습, 즉 전통으로 전승되고 거기에 내재적 탁월함의 기준이 담겨 있는 바, 특정한 사회적 실천으로써 어떤 일이 이뤄지는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관점이 본 연구자가 이 논문을 통해 풀어내고자 하는 관점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내용들은 ‘개인의 실천’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며, 그 실천의 도구로서 ‘함께 노래 부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것은 굳어진 특정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열린 구조로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악기연주로, 어떤 사람은

³²⁶ 윌터스토프, *행동하는 예술*, 14.

춤이나 퍼포먼스로, 어떤 사람은 영상이나 전시로, 어떤 사람은 무대 디자인이나 의상으로, 어떤 사람은 연극이나 드라마로, 어떤 사람은 작곡이나 작사, 혹은 시나리오로, 어떤 사람은 무대 스태프나 음향지원으로 각 사람이 들고 있는 퍼즐 조각을 들고 ‘함께 노래 부르기’ 라는 커다란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노래 부르는 모두가 함께하는 잔치다.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르기 안에는 여러 방면의 실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또한 월터스토프가 제시한 세 가지 실천과 맥락을 같이 한다.

모든 예술 행위에는 세 가지 실천이 서로 엮여 있다. 창작 또는 구성이라는 실천과 공연 또는 보여주기라는 실천, 그리고 공적 개입이라는 실천이다. 작곡가는 작곡이라는 사회적 실천에 이끌리면서 작곡하는 법을 배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음악을 듣고 노래하는 사회적 실천에 이끌린 가운데 음악을 듣고 노래하는 법을 배운다.³²⁷

지금까지는 월터스토프가 말한 ‘창작 또는 구성이라는 실천’에 대해 나누었다.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장에서는 ‘공연 또는 보여주기라는 실천’과 ‘공적 개입이라는 실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가정이나 작은 공동체, 학원이나 학교 같은 곳뿐 아니라, 사회 곳곳의 공공 영역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도구이다. 처음부터 이야기해 오던 ‘성육신적 교회’의 방향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개인과 가정, 민족과 나라, 사기업과 공공 기관, 나이와 학벌을 넘어선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이 나아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이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³²⁷ Ibid., 13.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통곡하라, 기도하라, 사고하라, 그리고 일하라

파편화되고 비인격화되고 탈육신화 된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정 인간다운 인간’³²⁸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일이 너무 어려워서 세상도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는 중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우리 곁에 있는 학교에만 가 보아도 안다. 학생들도, 교사들도, 부모도, 심지어 나라도 어찌할 방도를 몰라 끙끙대며 고심하고 있다. 어설픈 방법으로는 굳어질 대로 굳어진 구조를 뚫고 들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가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로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그 섬김이 가능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성육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두신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내고, 그 형상 안에 담긴 생명의 진실, 즉 그 열매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세상이 비록 타락하였을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져 있다는데 한줄기 소망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 주셨다. 그리고 오늘에는 당신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신다.

타락한 세상이 만든 구조는 결코 허술하지 않다. 짧은 고민과 몇 가지 잔기술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인간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³²⁸ “사랑과 자유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의 정상적인 인간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타락이후로 사랑과 자유는 성취하기도, 창조하기도, 실현하기도 어려워졌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를 진정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시키시고, 사랑과 자유와 미와 그밖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시금 우리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은 죽으셨다.” 로크마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304.

착각은 버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준비하고 들어갔다가 참담한 실패만 거두고 돌아왔다.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는다. 현장에 나아가면 오히려 의심 가득한 눈초리만 있을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그 이익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예술가들을 무시해 버리기 일쑤이다. 실제로 이것은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예술 활동으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꿈이 쉽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거두어야 한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더 불친절하다.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머뭇거리는 동안 비인격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는 영문도 모른 채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로크마커가 말한다. “통곡하라, 기도하라, 사고하라, 그리고 일하라.”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을 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아를 기억하는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 말고, 망가지고 무너진 이 세계를 보고 통곡을 했던 것이 언제인가? 우리는 인간성이 허물어지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통곡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곡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로크마커도 말한다. “통곡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약점, 부족을 바로 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랑, 관심, 노력이 부족했던 곳을 직시하는 것이다. 진정한 통곡은 우리가 기도하게 한다.”³²⁹

그리스도인 예술가의 세상을 향한 진짜 섬김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기도 없이 세상에 들어가서 생명을 전할 수 없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했다면, 이제 깊이 사고해야 한다. 이 깊은 사고를 위한

³²⁹ 로크마커, *예술과 그리스도인*, 34.

시작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서 시작한다.

성경을 통해 훈련된 성경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섬길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사고하는 방식은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지난 시대에 인류를 큰 함정에 빠지게 했던 계몽주의 정신을 따르고 있을 때가 많다.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사고를 가두고 더 이상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펼쳐내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막힌 것이 열리는 세계이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케 되는 사고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늘 성경을 가까이하며 읽는 중에 있어야 한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스며들기까지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성경이 담겨 있지 않으면 무너진 성벽을 보아도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해도 엉뚱한 것만 구하게 된다.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술로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첫 번째로 시작해야 할 일은 마음과 몸이 성경을 담는 것이다. 성경을 담았다면 이제, 섬김을 위한 구체적인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로크마커가 말한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우리는 사고를 해야 한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이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계몽주의, 즉 이성의 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을 주관적이며 엄격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가두어 버린 계몽주의 정신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로잡혀 있는지를 바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문제와 위기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한, 하나님은 좋은 분이나 학문, 과학 정치 등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줄곧 그분을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었다...(중략)...또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등 역사상 나타난 해결책을 살살이 검토한 후, 우리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는 단지 몇몇 위대한 철학자의 과업만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관련된 것이다.³³⁰

깊은 사고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아는 바가 없으니 자신의 진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실제적 무신론자’³³¹로 살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어설픈 합리주의와 과학주의를 따르며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계몽주의 정신에 얼마나 깊이 사로잡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계몽주의뿐인가? 포스트모던 시대가 보여 주는 거의 모든 한계들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한다. 한 마디로, 우리는 오랫동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선조들이 이미 오랫동안 고뇌하며 남겨 놓은 신앙적 예술적 자산들에 대한 공부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예술가로서 이 시대를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온전히 사고하며, 자신과 시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힘써 공부해야 한다.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많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공부하며 그 시대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 시대를 앞서가는 창조적인 영감과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³³⁰ Ibid., 35.

³³¹ “철학자이면서 기독교인인 강영안은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교회 현실에서 중요하고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이 현실적, 실제적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교회 바깥에 있지만 현실적 무신론자들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는 무신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현실 속에서 무신론자들입니다.” 박성관, “새로운 무신론’에 대한 한 그리스도인의 변증-기독교와 무신론,” (문화선교연구원, 2014). <https://www.cricum.org/711>.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이러한 공부를 할 기회가 매우 적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려주는 곳도 거의 없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교회음악과가 있어서 말 그대로 ‘교회를 위한 음악’ 과 ‘교회 안에서 섬기기 위한 방법과 자세’ 등에 대해 가르치긴 하지만, 그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교회 밖에서 세상을 섬겨야 할지 가르쳐 주는 곳은 거의 없다. 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너무 적다 보니 공부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다 보니, 이에 관한 고민과 준비도 알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며 더욱 창조적으로 상상하며 연구하는데,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여전히 ‘낡은 크리스텐덤 교회’ 라는 우물 안에서 갇혀, 이도 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담아 주신 예술적 전통은 세상을 섬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다. 주님께서 이미 담아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땅에 묻어둔 채로 있다면 그것은 게으르고 악한 일이다.³³² 계발하고 발전시켜 끊임없이 시도하며 섬김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뭇가 길을 열어 주시길 기다리고 있어서는 세상을 섬길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문제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어려워도 시작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예술 영역에서의 준비와 함께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공부에도 힘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로크마커가 다시 말한다.

³³²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마25:25-26).

현대인들은, 인간성과 사랑, 자유, 진리를 갈구하느라 절규하지만 찾지 못한 채 날로 노예화되어간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니므로 우리로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라고 이룬대로 그들의 방식과 관습을 혈똥는 대신 수용하면, 그들을 편견 없이 만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일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당면과제, 그들의 사상을 연구하고 소통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익혀야 한다.³³³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 그러나 그냥 쓰지 않으시고, 섬길만한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은 결코 단기 코스가 아니다. 우리에게 창조성을 부여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지만, 공부하고 깊이 사고하며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공부는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공부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쟁이다.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사고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서 있는 좌표가 어디쯤인지, 자신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인식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처지가 그렇다 보니 당연히 세상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지금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다.

자신의 처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는 세상을 바르게 도울 수 없고, 섬길 수 없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노예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³³⁴ 먼저 자신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진정한 통곡이 시작될 것이며,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는 진정으로 가난한 기도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사고가 깊어지고 넓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신학 실천은 결코 교만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³³³ 로크마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312.

³³⁴ 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135

이루겠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맛을 내고 부패를 늦추는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돌보라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운다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진짜 실력은 이 겸손에서 시작된다. 이제 그는 일하러 갈 준비가 되었다.

그럼 우리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우리의 일도 예수님의 일이어야 한다. 그 일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담아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일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사역이 성육신적 사역이 된다. 그 일은 크고 대단해 보이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작더라도 생명의 일이다.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이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일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새롭게 하신 회복된 상상력과 창조성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성령의 열매여야 한다.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온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윗의 물맷돌 준비하기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엄청난 자본으로 중무장한 소비주의, 탈육신적이고 파편화된 포스트모던의 거대한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밀어닥치는 이 시대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이것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심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면 그 모습이 초라함을

넘어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믿으며, 우리가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의 한 부분임을 아는 사람들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 속의 동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의 실재이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말콤 글래드웰도 이러한 승리를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맞서는 행동이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³³⁵고 표현한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세상 속으로 찾아 들어가 예술로 섬기고자 할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섬김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통해 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를 살펴보자.

먼저 다윗이 골리앗을 없애기 위해 일어난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던 반응이었다.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는 골리앗과도 같은 거대한 세력을 상대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 혹은 이미지에 관심을 두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는 세상으로 들어가 섬길 수 없다. 나간다고 해도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전쟁에 나갈 때 마음만 가지고 나가선 백전백패다. 잠언의 충고대로 먼저는 전략이 있어야 하고³³⁶, 그 전략을 실행할 ‘몸에 밴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이

³³⁵ 말콤 글래드웰, *다윗과 골리앗*, 선대인 역 (서울: 21세기북스, 2014), 20.

³³⁶ 잠20:18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실력은 한 두 번의 연습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몸에 익어 있는 실력이어야 한다. 다윗은 물매를 잘 골라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물매를 잘 던지는 실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나 그에게 준비된 실력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쓰러뜨리신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렇게 훈련받고 준비된 뒤에 쓰임 받았다. 섬김에는 실력이 필요하다.

음악가는 말이 아니라, 음악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일단 음악이 탁월해야 한다. 음악교사라면 음악 뿐 아니라, 탁월한 교수법도 익혀야 한다. 예술가의 수업은 수업도 예술적이어야 한다. 지휘자라면 지휘 실력 뿐 아니라,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성품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탁월함은 재능만 가지고는 나타낼 수 없다. 그 재능에 합당한 꾸준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 브랜드와 채플린이 말한대로 “설익은 예술은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으로 굶주렸다 해도 그런 세상을 먹이기 위한 좋은 수단은 아니다.”³³⁷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다룰 매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말할 수 있는 권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다.”³³⁸ 누구나 처음은 있다. 그러나 계속 처음 상태로 있다면 세상을 섬길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습하며 훈련해야 한다. 그래서 로크마커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예술가의 마지막 자질은 근면이다. 영원한 예술품이란 95%의 땀과 5%의 영감에 의해 창조된다는 속담이 있다. 혹자는 근면을 장인 정신의 자질에 포함시키기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우수한 예술품이 우연의 산물로서 저절로 생겨나는 법은

³³⁷ 브랜드, *예술과 영혼*, 110.

³³⁸ Ibid., 111.

없다. 즉석 예술(Instant art)이란 존재하지 않는다.”³³⁹ 저절로 얻어지는 실력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만든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3:23)하신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는 작은 일에 매 순간 충성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맡겨 주신 사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나 상황이 사람을 탓하지 말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한다. 로크마커는 예술가의 ‘근면’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1800년경의 화가와 목판화로 활동했던 일본인 호쿠사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한번은 수탉 그림을 부탁 받자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라고 답했었다.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 주일 연기해 줄 것을 청했다. 다음번에 찾아왔을 때에는 두 달을, 그리고 그 다음 번에는 반년을 연기해왔다. 약속 후 삼 년이 지나자, 그 사람은 매우 화를 내며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호쿠사이는 그 자리에서 즉시 그려 주겠다고 말하고선 붓과 종이를 꺼내 순식간에 수탉을 훌륭하게 그려냈다 그 사람은 노가 치밀었다. “그렇게 순식간에 그릴 수 있었으면서 왜 몇 년씩 기다리게 했소?” 그러자 그는 “무엇인가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며 “저를 따라 오십시오.” 라고 말했다. 호쿠사이는 그를 작업장에 데리고 들어가 지난 삼 년 간의 수탉 습작으로 가득 찬 사방 벽을 보여 주었다. 대작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오는 법이다.³⁴⁰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섬기기 위해서는 다윗의 물땀돌을 준비해야 한다. 아니, 물매에 익숙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부지런히 갈고닦아야 한다. 악하고

³³⁹ 로크마커, *예술과 그리스도인*, 84.

³⁴⁰ Ibid., 85.

게으른 종이 세상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을 믿고, 부지런히 노력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이제 세상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실력을 갈고닦으며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임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담아 주신 그 생명의 진실은 결코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나타내고자 해야 하며, 끊임없이 시도하며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직립보행의 진실이 있지만, 실제로 걷게 되는 것은 수도 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연습한 이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 주신 예술적 재능과 성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대신해 주시지는 않으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벧후1:10)

하나님의 형상 회복: 사람이란 무엇인가?

예술로 세상을 섬기고자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 이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서 누군가를 도울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온전히 섬길 수 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하고도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가 아무리 악독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우리와 우리가 자신 예술은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할 하나님의 창조적이고도 아름다운 도구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적 소양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세상으로 들어가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은 주로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이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들어보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2:9)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왕’은 다스리는 자이다. 우리의 다스림의 방법은 힘이 아니라 십자가이며, 겸손과 섬김이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책임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이 나라³⁴¹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이며, 이웃과 평화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나라³⁴²이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삶과 예술은 이를 위해 주신 놀라운 도구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의 가치와 자신을 비교하며 절망에 빠져 있지 않으며,

³⁴¹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4), 254.

³⁴² Ibid., 236.

하늘에서 임한 넉넉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긴 창조적 상상력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은 세상을 섬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마음이다. 그리고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주어진다. 로크마커가 말한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이 세상이라는 구조 내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인 만큼, 그 구조와 거리낌 없고 적극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사랑과 자유 안에서 그리고 구주 되신 그리스라는 기초 위에서 행하여야 한다.”³⁴³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최고의 준비는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세상의 비교와 가치가 넘어뜨릴 수 없고, 세상의 악한 구조로 인한 오해와 고난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든든한 자존감과 당당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세상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때, 참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교회로 함께 서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창조되어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되게 하는 창조적인 존재이다. 우리에게 상상한 것을 실제로 존재하게 하는 힘이 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성이며 창의성이다. 프란시스 웨퍼는 ‘창의성은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인간의

³⁴³ 로크마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303.

창조는 그 자체로 선하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창조’는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창조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나쁜 것들이 가득한 것이 그 증거이다.

타락한 인간은 좋은 것도 나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또한 창조성과 관련이 있다. 그 창조성의 엄청난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살피,

그 능력을 잘 사용해야 한다. 세상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의 생명과 연결되고, 그분의

성품과 연결되어 그분이 성령을 통해 맺으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어떻게 이

연결이 가능한가? 그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단지 지역교회만을 뜻하지 않는다. 서로의 약함과 악함을 이해하고 서로

기다려 주며 증보해 줄 작은 공동체를 말한다. 이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던

로크마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자칫 우리가 내놓은 처녀작들은 보잘것없는 이류에 속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옆에 서서 우리의 노고를 지켜봐 주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갓 터진 망울이 냉대와 이해, 또는 관심 부족으로 얼어 죽지 않도록 힘과 격려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의 노정은 길고도 험할 것이다. 예술가 개인의 힘으로 성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를 후원해 줄 공동체가 필요하다.³⁴⁴

우린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혼자서 꿈은 꿀 수 있지만, 혼자 이룰 수 있는 꿈은 없다. 특히 그 꿈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이’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꿈을 꾸며 함께 상상하고 기도하고 사고하며

³⁴⁴ Ibid., 306.

실천해 나갈 그리스도의 지체가 필요하다.

예술교육현장으로 찾아간 교회

본 연구자는 지역의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소년오케스트라에 교사 및 지휘자로 들어가 사역을 했다. 연주자로서 공연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으며, 지휘자 및 예술총감독으로서 섬기기도 했다. 교회는 목회자인 본 연구자를 세상으로 파송해 주었고, 주일 이외에 많은 시간들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만났다. 매년 1학기 때는 초등 중등학교의 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오케스트라 등으로 찾아가서 매주 300백명 이상의 학생들을 교회 밖에서 만나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다.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일정하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본 연구자는 음악 교육과 여러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역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이 모든 걸음은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성육신적 교회를 지향하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임을 미리 밝힌다. 여전히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길 기도하며 내딛는 작은 걸음들에 불과하다. 이 과정을 통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창조적 예술 교육을 위한 첫 걸음

에릭 부스는 <음악을 가르치는 예술가>라는 책을 통해 예술교육과 ‘교육 참여 예술가’³⁴⁵들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국내에도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³⁴⁵ 에릭 부스, *음악을 가르치는 예술가*, 오수원 역 (서울: 열린책들, 2017), 27.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성인들을 위한 예술교육의 영역도 빠르게 넓여지고 있다. 또한 ‘통합교육’ 과 ‘전인교육’ 의 일환으로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어령은 ‘20세기가 전문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통합의 시대이다.’³⁴⁶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로버트 루트번스타인과 미셸 루트 번스타인은 그들의 책 <생각의 탄생>을 통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의 목표는 이해에 있지, 단순한 지식의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님’³⁴⁷을 강조하면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또한 그들은 ‘모든 분야에서의 창조적 사고는 논리나 언어가 아닌 형태로 출발한다’³⁴⁸고 말하면서 교육에서 있어서 예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교양과목 중에서 예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상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다양한 생각 도구들을 연마하는 최선의, 때로는 유일한 연습법이기 때문이다.”³⁴⁹

교육에 있어서 예술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교육의 본질 때문이다.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하다’ 에 해당하는 단어 ‘에듀케이트(educate)’ 라는 말은 ‘밖으로(e-) 끌어낸다(duc-)’ 는 뜻이다.³⁵⁰ 즉 교육은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계속 집어넣기만 하는 주입식 교육을 받은 이 나라의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끌어내야 할지 배운 적이 없다. 아니,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른다. 그런 학생들에게서 무엇을 어떻게 끄집어 낼

³⁴⁶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 *생각의 탄생*, 박종성 역 (서울: 예코의서재, 2007), 9.

³⁴⁷ Ibid., 416.

³⁴⁸ Ibid., 417.

³⁴⁹ Ibid.

³⁵⁰ 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120.

것인가? 그래서 먼저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한다. 누가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가? 예술교육가가 바로 그들이다. 예술교육가는 학생들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알려 주는 사람이다. 나아가 그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예술적으로 돕는 사람이다.

그러나 본인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타인이 볼 수 있는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인다.³⁵¹ 사랑하면 다른 눈을 갖게 된다. 자세히 보고, 깊게 보고, 넓게 본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생명의 진실을 본다. 그 본 것을 말해주고,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술교육가들의 첫 번째 할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학생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진실을 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은 다름 아닌 믿음이다. 믿음으로 보고 사랑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제야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자존감이 일어나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인간을 향한 진짜 존중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던 ‘또 다른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다.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존엄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다. 이 믿음에서 그리스도인의 예술교육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학생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교육은 필연적으로 예술적이다. 아니, 모든 교육이 예술적이어야 한다. 수업 자체가 예술이어야 하고, 내용도 방법도 예술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신선하다. 재미있다. 지루하지 않고,

³⁵¹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3), 6.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다음에 계속 궁금하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생명이 깨어나고, 그걸 보는 사람도 살아난다. 그래서 교육은 늘 상호적이다. 이제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감탄하게 된다. 그래서 진짜 예술교육은 ‘경탄’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존재인지 보기 때문이다. 사실 경탄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하실 만큼 완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다. 다만 그 형상이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우리 눈이 죄로 인해 가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보인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더 선명하게 보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니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조성이 나타난다. 우리의 창조성을 깨어나게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히11:1)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다. 금방 나타나지 않기에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신나고 즐거운 일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반복할 수 있다.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나타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것과 다르다. 우주의 기운을 받는 것도 아니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안되는 것을 된다고 우기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은 바대로 행하는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믿음으로 그 인격과 관계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이긴다.³⁵² 모든 인간은 원래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닮아 창조적이며 예술적인 존재이다. 믿음이 없으면 못 한다. 그러나 믿으면 할 수 있다. 한 번에 하지 못해도 된다.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다. 모든 생명의 일이 그러하다. 사랑을 가지고 계속하면 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것을 세상은 ‘상상력’이라 부른다. 사람은 마음으로 그린 것, 즉 상상한 것을 실제로 존재하게 하는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께 받은 창조적 능력이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은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만 열린 선물이다. 양쪽 다 믿지 않아도 된다. 한쪽만 믿어도 된다. 믿음은 ‘관계적’ 이어서 전염된다. 한쪽에서 믿고 계속 나아가면 결국은 된다. 그 믿음의 근거가 ‘나’ 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에게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아무리 못 믿어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예술가요, 예술 교육가이다. 하나님께 연결된 예술교육가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능력이 있다. 그들이 가면 된다.

예술교육은 사람 안에 있는 창의성을 계발하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돕는데 유익할 뿐 아니라, 인격성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전인적 성장’ 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기계에게 대체 당하지 않는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능력을 회복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임을 예술교육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예술교육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본 연구자에게 최고의 교사가 되어 주었고, 예술 교육을

³⁵²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5:4).

통해 만나는 그 자리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그 시작은 빈민층이 많이 살던 지역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참사랑지역아동센터’의 요청이었다.

맨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했었다. 그러나 기우였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집어넣으려 하지 않고, 먼저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을 받아 주었다. 그리고 내가 관찰하고 발견한 아이들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해주고 그것을 끄집어내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은 다 사용해야 했다.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악기 연주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심지어 못 추는 춤도 추었다. 부족한 체력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들과 뛰어놀기도 했다. 말 그대로 온몸과 마음을 다 쏟아부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응답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기 시작했다. 서로가 서로를 교육한 것이다. 그곳에서 본 연구자는 ‘함께 노래 부르기’를 중심으로 한 예술 수업과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인성이 회복되며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때, 그 센터를 운영했던 교회(부평 임마누엘 교회, 담임 장대훈)와 박미애센터장은 본 연구자의 음악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본 연구자는 지역교회의 지원과 지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힘겨운 아이들을 마음껏 섬길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기간 중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좋은 노래들을 발굴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은 직접 작곡을 해서 함께 부르기도 하였다. 앞에서 소개했던 ‘함께 노래해요’라는 곡은 이 과정을 통해 나온 곡이었다. ‘함께 노래 부르기’ 노래 수업을 시작한 이 수업은 지방에 있는 한 동요제에 참가하면서 ‘합창단’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함께 노래하고 연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시작을 함께했던 박미애센터장이 이런 글을 보내왔다.

<함께 노래 부르며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

- 참사랑지역아동센터장 박미애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에 눌러 묻혀버린 아이들의 따뜻한 가슴과 꿈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사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 나와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고 돕고 수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아이들도 울동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하나됨에 기뻐했고 행복해 하였습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를 통해 정서적으로 순화된 아이들은 센터에서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시간, 학습, 공동체 활동시간에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표현할 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며 집중하는 모습은 교사로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자칫 센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지루할 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아이가 “함께 노래하는 이 시간 정말 즐거워요-” 하고 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모두가 함께 따라 부르며 합창시간이 되는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은 이 시대 이 때에 모든 아이들이 노래 부르기를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작된 음악사역은 다음 사역지인 일산은행초등학교 합창단 지휘자로 이어지게 되었다. 새로운 교장이 일산은행초등학교에 부임하면서 합창단을 창단하게 되었고, 그 학교의 연구주임이자 임마누엘교회의 집사였던 교사를 통해서 그 합창단에 연결되었다. 3-6학년까지로 구성된 일산은행초등학교 무지개합창단은 이후의 음악교육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가장 큰 선물은 이 시대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며 뛰어놀며 춤추며 보낸 그 시간은 이후의 사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먼저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아이들과 아주 가까워서 함께 지내며 아이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오늘날 초등학교의 현실과 교사들의 어려움, 나아가 학부모들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일산은행초등학교에 있는 동안, ‘창의 체험 학습’이라는 수업 시간을 통해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학교의 수업 시간에 들어갈 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사들의 요청으로 3학년의 1학기 음악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때 맨 처음 수업을 열어 주었던 교사의 글이다.

2014년 학년 초 3월 무렵 어느 목요일 오후수업이 시작될 즈음, 당시 합창부 지도로 출강하시던 선생님께서 빗자루 빌리러 들리셨다가 저희반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리코더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던 일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가오네요^^ School of Rock이나 뭐 학교를 배경으로 참신한 외부선생님의 출현으로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들이요.

우연인지 그 어느 분의 뜻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제도권 아래에서와 달리 경직 되지 않은 수업방식으로 리코더라는 악기를 접하고 자연스럽게 음악의 아름다움에 빠져들 수 있었던건 분명 우리 은행초 아이들에게는 행운이자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 음악수업을 듣고 눈이 반짝반짝해져서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았고 음악실에서 살짝살짝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연주소리에 감성이 정화되는 행복했던 시간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후 이때 함께 수업을 했던 교사들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 뒤에도 자신이 있는 학교를 본 연구자를 초청해서 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본 연구자는 이 학교 합창단의 이름을 ‘무지개합창단’ 이라고 짓고, 합창단의 이름을 딴 ‘무지개합창단’ 이라는 곡을 만들어 아이들과 즐겁게 부르기도 했고, ‘참사랑지역아동센터’ 에서 편곡하여 부르던 자작곡 ‘함께 노래해요’ 를 다시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무지개합창단과 부르기도 했다.

<그림7 > 일산은행초등학교 무지개합창단 연습시간



그런데 즐겁게 합창단 수업에 참여하던 학생들이 6학년이 되면서 대거 합창단을 그만두었다. 알고 보니 학원을 가기 위해서였다. 본 연구자는 이것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장선생님께 요청을 하여 ‘어머니합창단’을 만들어 부모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강의가 없는 시간에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인문학을 강의했다. 이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의 진리들을 일반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말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합창단에서의 시간은 노래 뿐 아니라, 노래에 담겨진 이야기와 의미들을 고전 소설이나 철학, 역사 이야기와 함께 나누며 진행했고, 영상이나 PPT, 동화책 읽어 주기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의 이야기에 의미를 담아 전달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의 어려움에 대해 나누며 부모로서 합당한 태도와 삶에 대해서도 나누고, 그 이야기를 다시 노래에 담아 불렀다. 2년 동안 진행 되었던 부모들과의 ‘함께 노래 부르기’ 시간을 통해 ‘음악과 함께 하는 힐링 인문학’이라는 이름의 통합수업을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어린이 합창단 수업 이후에는 교사 동아리를 진행하며 교사들에게 합창과 기타, 우크렐레 등 악기를 가르쳤다. 교사들과의 관계는 수업 이후에까지 이어져서 함께 책을 읽으며 공부도 하고, 식사를 하며 더 깊은 삶의 고민들을 나누기도 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한국의 초등교사들의 상황과 어려움들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연말에는 콘서트를 했는데, 이때는 어머니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을 다같이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든 걸음은 학교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역을 돕는 교사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당시 함께 하셨던 선생님의 글을 받아 소개한다. 당시 은행초등학교의 연구주임으로서 본 연구자를 학교에 연결시켜 주고, 학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교사가 보내준 글이다.

< ‘함께 노래부르기’ 를 통한 내면의 회복 및 따뜻한 소통하기 >

- 박순희 -

지금도 그 시간을 생각하면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느껴진다. 19학급에 한 반에 20명이 조금 넘는 작은 학교에서 봄바람같이 새로운 생동감과 활기와 온기를 불어넣어준 일들이었다. 단연 그 시간들의 결실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 생각한다.

나는 그 해 학교의 연구부장으로 ‘새로운 학교’,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학교’ 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주도했다. ‘함께하는 학교’ 를 만들기 위한 활동 중 학생, 학부모 교사합창동아리를 조직하고 운영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학생합창동아리 조직을 위해 4,5,6학년층을 대상으로 함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모았다. 특별한 오디션도 없었다. 함께 노래 부르고 싶은 아이들이 모였던 것이다. 새롭게 생긴 합창부라는 동아리에 호기심이 있어서인지 아님 정말 함께 노래 부르기를 원했던 것인지 아님 나름대로 노래에 자신 있는 아이들이었는지는 몰라도 60여 명의 적지 않은 아이들이 모였다. 일주일에 한 번 방과 후에 모여서 말 그대로 함께 노래 부르는 합창부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방과 후 다른 일정으로 빠지는 아이들이 있긴 하였지만 정규 수업 시간도 아니고 돈을 내고 하는 방과 후 활동도 아닌, 어떻게 보면 빠져도 괜찮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은 꾸준히 모였다. 그렇게 시작된 합창동아리가 4년으로 이어졌다. 학원 가기 바쁘고 숙제하기도 바쁜 요즘 같은 때 어떻게 까다로운 규율이나 규제 없이 그 동아리 모임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졌을까? 함께 모여서 마음을 맞추고 화음을 맞추는 희열을 한 번 경험해본 아이들은 그 시간의 소중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본 음악실에 모여 있는 합창동아리 아이들은 그때 거친 바다 속 싱싱하게 살아있는 물고기 떼들 같았다. 교실 수업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 생기 있었고 활기차으며 그리고 자기를 맘껏 드러내기에 거침없었다. 합창동아리 담당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따뜻한 관계 형성이 우선이었겠지만 그것은 합창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열정 같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교실에서 숨죽여 있던 아이들이 그 공간, 그 시간에는 자유로움을 보았다. 굳은 표정의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다. 또 3회의 정기연주회와 2번의 교내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소리의 어울림을 위해 마음의 어울림을 생각하는 아이들로 변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발표회를 통해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성취의 기쁨을 누렸다. ‘개인’ 이 ‘우리’ 라는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었다.

다음으로 조직한 것은 학부모 합창동아리 모임이다. 학부모님들은 함께 노래하는 시간 들을 통해서 집안 일로 아이들로 인한 고민과 힘듦이 위로받고 해소되었던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하였다.

그 다음은 교사합창동아리 모임을 조직하였다. 여러 교사동아리 부서 중

노래를 좋아하는 교사들 모임이었다. 업무에, 아이들에, 까다로운 학부모에 지친 선생님들에게 그 시간은 뭐랄까? 달콤한 케익 한 조각 같은 위로와 회복의 시간들이었다. 함께 노래 부르면서 서로의 힘듦을 위로하고 다독거리는 시간이 되었다. 20여 년의 교직 생활에서 이전에도 앞으로도 갖기 힘든 선물 같은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 들을 통해 단단하고 굳은 마음들, 단단하고 굳은 표정들, 단단하고 굳은 생각들이 부드러워졌고 유연해졌다. 각자가 각자에게 그랬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그랬다. 학생들이 변했고 학부모들이 변했고 교사들이 변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봄바람이 되어준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회상한다.

그리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하는 발표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함께 하는 경험은 또 다른 ‘함께’를 만들어 낼 것임을 믿는다.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한 여러 활동 중 최고의 활동은 진정 우리 모두가 함께했던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합창동아리 활동이었다.

그리스도인 예술 강사와 그리스도인 교사가 함께 기도하며 학교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겼던 이 사례는 그리스도인 교사가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준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훈련된 그리스도인 예술가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고통 받고 있는 이 시대의 어린이들과 부모, 교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다는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실제로 한국에는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굳어진 학교 시스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량을 나타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뜻을 같이한 사람들과 역할을 나누어 함께 한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을 교회에 데려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들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약함을 보완하고, 함께 행복하도록 돕는 걸음이기에 세상 앞에서도 얼마든지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역이다.

은행초등학교 무지개합창단 지휘자로서의 시작한 ‘함께 노래 부르기’는 교장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소개로 근처의 다른 초등학교로 연결되었고, 본

연구자는 은행초등학교에서 익힌 실전 경험들을 녹여내어 수업을 진행했다.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학교합창단도 마쳤고, 이후에는 본 연구자가 살고 있던 강북 지역의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등지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을 진행했다.

<그림8 > 일산은행초등학교 고양시 합창제 참가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간 교회: ‘소.나.무합창단’ 이야기

강북구 송천동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다. 송천동에 위치한 송천동지역아동센터는 독실한 크리스천인 센터장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이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갖고 싶어 했는데, 본 연구자가 이전에 강의했던 ‘참사랑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을 통해 연결되었다. 당시 본 연구자는 센터에서 합창 지도를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센터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함께 하게 되었다. 합창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많았다. 결손가정, 한 부모 가정,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정서적으로 힘겨운 일들을 많이 겪은 아이들이었다. 가만히 앉아서 뭔가에 오래 집중하기 힘든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자라온 환경 자체가 인격적인 돌봄을 받지 못한 터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함께 노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여러 가지 놀이를 동원해서 함께 뛰어놀며 친밀감을 높였고, 노래들도 쉬우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들로 선곡을 해서 할 수 있는 데로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수업 후에는 센터장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들었고, 단지 노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함께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은 안정되어 갔고,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하는 발표회를 넘어, 지역에서 하는 문화제 등에도 참석하여 노래하면서 점차 자존감도 높아져 갔다.

<그림9> 마을축제에서 노래하는 소.나.무합창단



그렇게 2년을 보내던 중 ‘지역아동센터’ 라는 이름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고자 ‘합창단’ 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로 하고 아이들에게 이름을 공모하여 ‘소중한 나의 꿈나무’ 라는 뜻의 ‘소.나.무합창단’ 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소.나.무합창단’ 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공연장에 찾아가서 노래하며 함께 성장해 가고 있었다. 이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씨앗의 꿈’ 이었다. 아이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꿈을 꾸었고, 노래 가사처럼 성장해 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즐거움을 위해 함께 노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노래는 자리로까지 성장해 간 것이다.

이런 작은 공연들을 이어가다가, 강북지역에 새롭게 생긴 강북문화재단의 초청으로 규모가 큰 음악회였던 ‘가을음악회’ 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때 본 연구자는 음악감독으로 공연의 전반을 이끌기도 했다. 이날 공연은 성황리에 마쳤고, 이날 공연에 참석했던 도봉문화재단의 상임이사(김용현)가 공연에 감동을 받고, 본 연구자를 도봉문화재단의 여러 콘서트에 총감독으로 초청하게 되었다. 이후에 ‘소.나.무 합창단’ 은 지역의 좋은 공연장에서 ‘씨앗의 꿈’ 이라는 제목으로 소.나.무합창단의 정기연주회를 했다. 이 연주회를 위해 해금, 첼로, 기타, 베이스, 퍼커션, 건반으로 구성된 전문 밴드가 함께 해 주었고, 아이들은 격이 있는 이 공연의 과정을 통해 진짜 합창단이 되어갔다.

이후부터는 큰 규모의 콘서트에 어린이합창단으로 참여하고, 지역 사회의 축제에 초대받아서 합창으로 참여하고, 합창대회에 나가기도 하도, 동요음반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과 인성이 함께 성장하였고, 동시에 센터와 학교생활에도 좋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림10> 소.나.무합창단의 신나는 점프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송천동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과 교사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도, 그리고 긴밀한 협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센터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했고, 아이가 가정과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도록 도왔다. 특히 센터장은 합창단을 통해서 세워지는 아이들을 본인이 출석하는 지역교회의 주일학교로 인도하여 신앙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센터가 아니었으면 복음을 듣기 힘든 아이들에게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들려주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과 본 연구자의 협력사역으로 아이들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합창단은 함께 음악캠프를 가서 공동체성을 키우며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지역의 큰 콘서트와 여러 음악회에도 출연하며 성장해갔다. 이 합창단은 7년 동안 계속되었고, 처음 시작할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어린 동생들을 케어하며 함께 하고 있다. 거라사의 광인을 그 무서운 풍랑을 뚫고 찾아가셔서 그가 그 묶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고자 했던 걸음이었다. 이 사역의 걸음을 함께 해 온 송천동지역아동센터장이 센터의 합창활동이 가져온 변화에 대한 리포트를 보내왔다.

<그림11> 소.나.무합창단 화음캠프



<센터의 합창 활동이 가져온 변화>

- 송천동지역아동센터장 오세옥 -

아이들은 항상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분별한 핸드폰 사용과 유해한 문화콘텐츠들이 분명히 안 좋은 것인 줄 알면서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우리 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편향적인 생활과 행동에 익숙해져 습관이 되어 버린 아이들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합창’이라는 낯설고 불편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고 적지 않은 저항이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 안하면 안 되나요?” “오늘만 설게요!” “일찍 집에 가야 해요.”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시려고 하는 합창선생님과 반대로 아이들의 반응은 좋지 않아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합창을 통해 마음을 열고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 본인을 표현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고자 아이들도 지도하는 선생님도 합창선생님도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버티고 변화를 기다렸다.

그런 상황으로 1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앉아 있기조차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신기하게 끝까지 앉아 있는 모습이 달라졌다, 책상 밑에 숨어 있던 아이, 책상위에 누워서 수업에 집중해주지 않는 다양한 모습들이 서서히 줄어들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바르게 앉아서 앞에 선생님 말에 귀기울여주고 노래를 따라하는 것까지 아이들의 눈빛이 장난에서 호기심으로 바뀌고 점점 노래하는 즐거움을 깨닫고 즐기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 다음의 변화는 놀이하는 모습이다. 합창 전에는 센터 안에서 자유놀이 시간에는 대화보다는 행동이 앞서 금방 싸움과 갈등으로 치닫고 전쟁터 같은 센터 분위기가 합창을 하면서 또래간의 서로 유대감이 생기고 친해지면서 싸우는 모습이 줄어들고 이해하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평화로운 분위기의 센터가 되어갔다. 놀이 할 때도 수업 때 했던 노래들을 서로 부르며 저희들끼리 맞지도 않는 화음도 넣어가며 노래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또한 합창시간 애써서 연습할 때를 기억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음을 맞춰보지만 생각대로 안 되니 민망해하며 한바탕 웃음꽃이 핀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는 의욕이 넘쳐 합창단을 만들자는 의견이 생기고 각자 파트를 나누고 합창단 이름까지 지어 어엿한 소나무합창단이 탄생되었다. 알토, 메조, 소프라노 파트로 나누어지고 어느 정도 합창단 면모를 갖춰지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한 번 두 번 공연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자존감과 자신감도 상승 되어 갔다.

한 가지 예로 무대 위에서 아이들의 표정에서 평안함과 행복감을 엿볼 수 있었다.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공연 전에는 비장한 표정으로 서로 서로 옆 친구의 행동을 자제시키고 고쳐주고 도와주려고 한다. 박수 받고 인정 받으면서 공연이 끝나면 매우 뿌듯해 한다. 그리고 “우리 공연이 어땠어요?”라며 다시 인정받고 싶어 하며 자신들의 실수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내’가 아닌 ‘우리’를 강조한다.

특정한 사람만 인정받는 그런 문화 속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조화가 어땠는지 궁금해 하며 무대 위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에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변해가는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공연을 기대한다. “애들아! 우리 소나무합창단이 초청받아서 공연해야 해!!” 하면 누구나 “와!!--” 하며 함성을 쏟아낸다. 어느덧 합창은 아이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간다. “우리센터는 너무 좋아요! 다른 곳은 합창을 안 하는데 우리는 하잖아요” 성적을 올려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하는 현실 속에서 합창은 다른 친구들과 조화를 이뤄야 기쁨을 성취할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는 합창을 아이들은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합창은 우리 센터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 주었고, 앞으로도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즐거움을 표현하고 더불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줄 최고의 활동이 될 것이다.

<그림12> 소나무합창단 정기연주회



송천동지역아동센터 안에서 합창단이 생겨나고 아이들의 좋은 활동이 소문이 나자, 지역에 있던 다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과 센터 종사자들도 노래를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났고, ‘강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센터장들과 생활복지사들의 합창동아리를 결성하고 본 연구자를 강사로 초대했다. 그렇게 약 6개월 동안 격주로 만나 삶을 나누고, 그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함께 부르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매일 상처 많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끝도 없는 서류와 씨름을 해야 하는 고된 수고에 비해 매우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섬기면서, 본 연구자가 더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을 보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강북구의 지역아동센터들의 잔치인 강지협 문화제를 할 때, 참석한 모든 센터의 아이들이 다 같이 ‘씨앗의 꿈’을 부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본 연구자가 모든 센터를 방문할

수가 없어서, ‘씨앗의 꿈’의 악보와 영상을 보내고 각 센터에서 따로 연습을 한 뒤, 당일엔 다같이 부르는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었다. 강북지역전체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500여 명의 아이들과 종사자들은 함께 목청 높여 ‘씨앗의 꿈’을 부르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

<그림13> 강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문화제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학교로 찾아간 교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학장을 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육을 사실상 이끌어왔던 정병모는 <다시 생각해야 할 한국교육의 신화>라는 한국교육 비판서를 썼다. 그는 ‘한국교육에는 긴 세월을 두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다’³⁵³고 말하면서 한국 교육의 오래된 문제점들을 차근 차근 비판했다. 그의 비판을 옮겨 놓으려면 말 그대로 책을 한 권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아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 중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을 비롯해서 학생을 학교에

³⁵³ 정병모, *다시 생각해야 할 한국교육의 신화* (서울: 학지사, 2012), 6.

보내는 학부모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학교 행정을 맡은 행정실 직원들과 교장 교감, 그리고 그 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쪽도 행복한 쪽이 없다. 열심이 부족한 게 아니다. 아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아이들보다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인 피사(PISA)테스트에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매년 높은 순위를 받는다. 반면에 행복도 조사를 하면 거의 최하위를 기록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학생들은 공부할수록 점점 더 사고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공립학교 현장에서 26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존 테일러 게토는 <바보 만들기>라는 책을 통해서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³⁵⁴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들이 “아이들의 시간을 메우고 선택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그들의 정신과 인격을 파괴해왔다.”³⁵⁵고 고백한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로 인해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엄청난 형벌’³⁵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가 미국 공립교육을 향해 던진 이 질문은 미국 한국의 교육에도 적용 가능하다. 주입식 교육과 경쟁, 그리고 점점 더 파편화되어가는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말을 잃어가고, 행복을 잃어가고, 무기력에 빠져 간다. 결국 어린이이면서도 입을 열어 노래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간다. 이 모든 문제는 교회가 겪고 있는

³⁵⁴ 존 테일러 게토, *바보 만들기*, 김기협 역 (서울: 도서출판 민들레, 2005), 3.

³⁵⁵ Ibid., 148.

³⁵⁶ Ibid.

문제와 비슷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는 점점 비어가지만, 학교는 의무교육이기에 여전히 학생들이 있다는 정도 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모여 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많이 모여 있기에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아이들’ 이 잔뜩 모여 있는 학교는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울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 어쩌다가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할 교회와 학교가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며 ‘경험과 참여, 이미지와 관계’ 를 중시하는 에픽(EPIC)적 존재가 되었는데, 교회와 학교는 여전히 근대적인 사고방식과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학생들이나 부모들뿐 아니라, 심지어 선생님들까지도 심각하게 인격성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기계적 시스템이 돌아가는 곳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그 생명의 진실을 잃어가며 서로에게 고통을 주며 지내고 있다. 먼저는 어려서부터 기계와 함께 지내면서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인격성을 상실해가는 학생들이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기분만 중요하고 다른 모든 것은 ‘그것’ 으로 대하는 아이들과 부모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학교 안에 가득하다. 교사들이 교대에서 배운 여러 가지 학생들에 관한 공부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전혀 다른 학생들과 부모들을 만나면서 무용지물이 되었고, 거의 모든 것을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배워야하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다.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과 만나 인격적인 교감을 하기에 시간도 부족한데, 여전히 근대적 권위주의가 살아 움직이는 학교 환경 속에서 교사들은 위로 올려야 할 보고서를 끊임없이 요구받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들도 많이 있지만,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도움이 절실하다. 누가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본 연구자는 이 위기야말로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 섬길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거라사의 광인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들고, 주님께서 담아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을 들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긴다면, 분명히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께 하듯 준비하고 있다면,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도울 수 있다. 누군가에겐 무덤 느껴질 그 학교 현장이,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축제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자의 경우는 ‘함께 노래 부르기’ 를 중심으로 한 음악사역을 통해서 작으나마 그 결실들을 맺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한다.

<그림14 > 일산호수초등학교 방문 수업



2016년도부터 강북구 강북혁신교육지구에서 주관하는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이 강북구 내의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실시되었다. 마을에 있는 중 마을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강북구에서 ‘마을교사’ 를 뽑았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마을교사’로 참여하였다. 강북혁신교육지구에서 마련하는 마을교사 강의를 1년에 5번 듣고, 간단한 면접시험을 통해 마을 교사가 될 수 있다. 마을교사가 되면 강사가 작성한 수업안을 모아 책으로 묶고 각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등 교육기관에 보내지고, 그 프로그램 북을 학교에서 보고, 강사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재정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강북구가 진행하고, 초창기에 ‘소.나.무합창단’의 합창 수업도 이 예산을 받아서 진행되었다. 약간씩 내용은 다르지만 이러한 종류의 교육프로그램들이 서울시의 각 구마다 있다. 강사료는 1교시에 3-4만원 수준이다. 예술교사로 잘 준비되어 이러한 통로들을 잘 활용하면 교실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던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2016년 봄, 본 연구자는 강북구에 소재한 ‘서울 삼각산초등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5학년 8개 학급의 음악 수업을 맡았다. 3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약 4개월 동안 17차시의 수업을 하는 동안 위에서 언급한 수업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을 했다. 먼저는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면서 마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아이들에게 ‘이 수업 시간은 함께 노는 시간이구나!’ 하는 인식이 들어간 뒤에는 무엇을 해도 즐겁게 따라 온다. 이때 중요한 것은 ‘놀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노는 것’이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오히려 그리스도인 예술 교사에게 큰 기회가 된다. 담임교사들도 어려워하고, 다른 강사들도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해낼 수만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주신 탁월함을 나타내며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섬길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된다. 학교는 종교 활동에 민감하여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방식으로, 즉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는 믿음과 앞에 있는 아이들이 ‘천하 보다 귀한 한 영혼’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대하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노래하기 시작한다. 한번 마음을 열었다고 해도 매 수업마다 창조적이고 신선한 시도가 계속 있어야 한다. 이 시대의 아이들은 지루한 것을 참지 못한다.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 자체를 즐기기까지 끊임없이 연구하며 준비해야 한다. 아이들의 비인격적인 반응은 교사를 쉽게 지치게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다. 또한 아무나 하기 힘든 일이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소명이 있고 준비된 그리스도인 예술가에게는 너무나 적격인 일이다.

수업마다 짧게라도 게임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영상과 ppt, 각종 악기들과 동화책 등 아이들의 상상력과 즐거움을 위한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 에픽(EPIC)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진짜 경험(Experience)’ 과 ‘수평적 참여(Participation)’ 는 필수 요소이다. 어떤 때는 교실의 책상을 다 치우고 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교실 밖으로 나가서 놀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담임교사와 미리 조율된 뒤에 가능하다.

본 연구자의 경우 수업은 보조 교사 없이 혼자 진행한다. 주로 건반과 기타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곡에 따라서 다른 악기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함께 춤을 추기도 한다. 모든 곡들은 완전히 외우고 몸에 익혀서 진행한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눈을 떼는 순간 아이들도 눈을 딴 데로 돌린다. 피아노 친다고 악보 볼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이다. 피아노든 기타든 몸에 완전히 익힌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악기와 완전히 한 몸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노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은 입을 열어 노래하기 시작하고, 어느새 노래하는 것을 즐기는 아이들로 변해 있다. 수업이 시작하면 박수와 환호로 강사를 맞이하고, 신나고 즐겁게 수업에 임한다. 한 학기 수업을 마칠 즈음엔 ‘함께 노래하는 기쁨’을 만끽하며 온 힘을 다해 학교가 떠나가도록 노래를 부르곤 한다. 그 시간을 함께 보냈던 한 학생이, 본 연구자의 모습과 수업 시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 주었다.

<그림15> 학생들이 그려준 본 연구자의 수업 모습



수업을 하다 보면 각 반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반의 분위기나 특징에 따라 적절히 곡을 선곡하고 수업을 진행한다. 전체 수업계획안은 있지만, 수업 당일 여건이나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 중반 이후에 아이들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형성된 뒤에는 노래나 영상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람다운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눈다. 때로는 호되게 야단을 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된 뒤라, 아이들은 진지하게 교사의 말을 듣는다.

한 학기의 마지막에는 반별로 2곡 정도의 곡을 골라서 다 같이 모여 공연을 한다. 첫해에 공연을 계획했을 때에는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 담임교사들이 공연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업무를 하는 담임교사들에게 이러한 음악회는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음악과 공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교사들에겐 실제로 이 일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초등학교를 담임하고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상상할 수 없으니’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술교사는 그런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인내심을 가진 설득의 작업이 필요하다. 설득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아이들의 변화이다. 아이들의 즐거운 변화는 담임교사의 ‘참여(Participation)’로 이어지고, 그 시간을 통해 교사들에겐 ‘아, 음악회가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열리게 된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합창발표회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발표회가 아이들에게나 교사들에게나 참석한 부모들에게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그다음 해부터는 첫해에 발표회를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셨던 학년 부장선생님이 적극 도와주셔서 훨씬 수월하게 공연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은 5학년의 합창 발표회가 학교의 연중행사처럼 되어 있다.

마지막 합창 공연에는 부모들을 초청해서 함께 모인다. 먼저 그동안 수업

중에 배운 곡 중 일부를 다 같이 함께 부르고, 그 과정에 부모들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을 짚어넣는다. 각 반별 발표 중간에 학교 합창단의 특송을 넣기도 하고, 교사들의 특송을 넣을 수도 있다. 삼각산초등학교의 첫해 공연 때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기타를 치며 축하공연을 하고 큰 박수를 받으셨다. 공연 말미에는 부모와 교사, 아이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짧은 강의도 하고, 그 내용을 다시 노래로 담아 같이 부르는 시간을 갖는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함께 참석하여 아이들을 위한 마음을 나눌 시간도 드린다. 마지막에 담임선생님들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인사를 할 때면 눈물이 글썽 거리는 교사들도 눈에 보인다. 이렇게 학생과 교사, 부모와 교장 교감선생님까지 다 같이 함께 노래 부르며 즐기는 이 시간은 잊지 못할 잔치가 되어 마음에 담긴다.

<그림 16 > 서울삼각산초등학교 합창발표회 연합합창



지금까지 콘서트의 마지막에 나누는 주된 메시지는 ‘씨앗의 꿈’이란 노래에 담긴 메시지다.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얼마나 존엄하고 귀한 존재인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섬겨야 할지 나눌

수 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이름들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진리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 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이곳은 또 하나의 성육신적 교회의 현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다가서는 수업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일반 수업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시대적인 어려움과 학교라는 특별한 시스템이 가진 한계는 오히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에겐 하나님께서 담아 주신 창조적 상상력과 섬김의 마음을 표현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서울삼각산초등학교의 연구 주임으로서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했고, 후에 본 연구자에게 교사 연수의 길도 열어 주었던 담당교사의 글을 소개한다.

< ‘함께 노래 부르기’ 가 학생들의 인격성 회복과 학교에 미친 영향 >

-삼각산초등학교 교사 신효선-

처음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오셨을 때, 저희는 그저 ‘구청에서 뽑은 강사님이 오셔서 악기 조금 두드리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한 학기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하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학교 곳곳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흥겨운 기타소리에 맞춰 아이들의 힘찬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야?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주 신이 났는데?”, “합창 선생님 수업 시간인데,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해요.”, “그래요?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아이들이 큰 소리로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드신 거지?”

그렇게 한 학기 수업이 다 끝나기도 전에 민경찬 선생님의 ‘합창 수업’ 은 전 학교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합창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학기 말에 열린 ‘합창제’ 였습니다. 5학년 각 반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무대에 올라 선보이는데, 선생님께서는 선곡부터 무대 운영까지 각 반의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셨습니다. 학부모님과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정말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실력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실에서 존재감 없던

○○가 무대 중간에서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반 친구들이 하나가 되어 하모니를 만들어갈 때, 아이들의 밝은 표정과 뭔가 해냈다는 자신감 어린 당당한 어깨에서 감동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찼하게 전해져왔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대단했습니다. ‘5학년뿐만 아니라 전 학년에게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동안 합창 수업이 진행된다면 좋겠다’ 등등 합창 수업 확대에 대한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민경찬 선생님의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 만이 아닌 ‘나와 너’ 가 함께하는 ‘우리’ 가 있었고, ‘혼자’ 가 아닌 ‘함께’ 가 있었으며,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는 ‘공감’ 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을 통해 존중받고, 위로받고, 공감 받았었던 것입니다. 노래는 다만 수단이고 도구였습니다. 그 속엔 소중한 ‘사람’ 이 있었습니다.

민경찬 선생님과 만남은 저희 학교와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필연적인 만남이 되어 좋은 인연이 계속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의 정신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 삼각산초등학교와 함께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림17> 서울삼각산초등학교 합창발표회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학교에서 하는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평가자는 함께 수업을 한 학생들일

것이다. 이미 졸업을 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어서 학생들이 학기가 끝날 때 본 연구자에게 보내 준 많은 편지들 중 몇 개를 소개한다. 아무런 제약이나 요청 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써서 보내 준 편지들이다.

민경찬 선생님께! 존경하는 합창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 00 에요. 어느덧 합창시간이 끝나가네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저 원래 소극적이었는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올라가지 않던 고음도 쪽쪽 올라가고 목소리도 커졌어요. 4학년 땐 음악시간이 싫고 일어나서 부르게 할까봐 겁났었는데 이제는 음악시간, 특히 합창시간이 가장 좋고 재밌어요. 처음 뵈었던 날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쉽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슬퍼요. 예전에 우리 반이 예의없게 굴었을 때도 있었죠? 그 때 너그럽게 인정해 주시고 웃어 넘겨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선생님은 음악을 싫어하는 저에게 음악과 친해지게 만들어 준 천사같아요. 노래 부르실 때 목소리도 너무 좋고 감동받아서 눈물 날 뻔 했어요. 정말 너무 멋있고 잘생기셨고 진짜 성악가 같고 가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만약 가수였다면 저는 매일 그 노래 들을 거예요.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과 함께 있는 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한 꿈같은 시간을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이랑 헤어지기가 너무 싫어요 선생님이 한명 한명 눈 마주치면서 노래 가르쳐 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선생님 정말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 선생님 덕분에 음악을 사랑하고 재미있어하는, 또 선생님을 너무 너무 사랑하는 학생 00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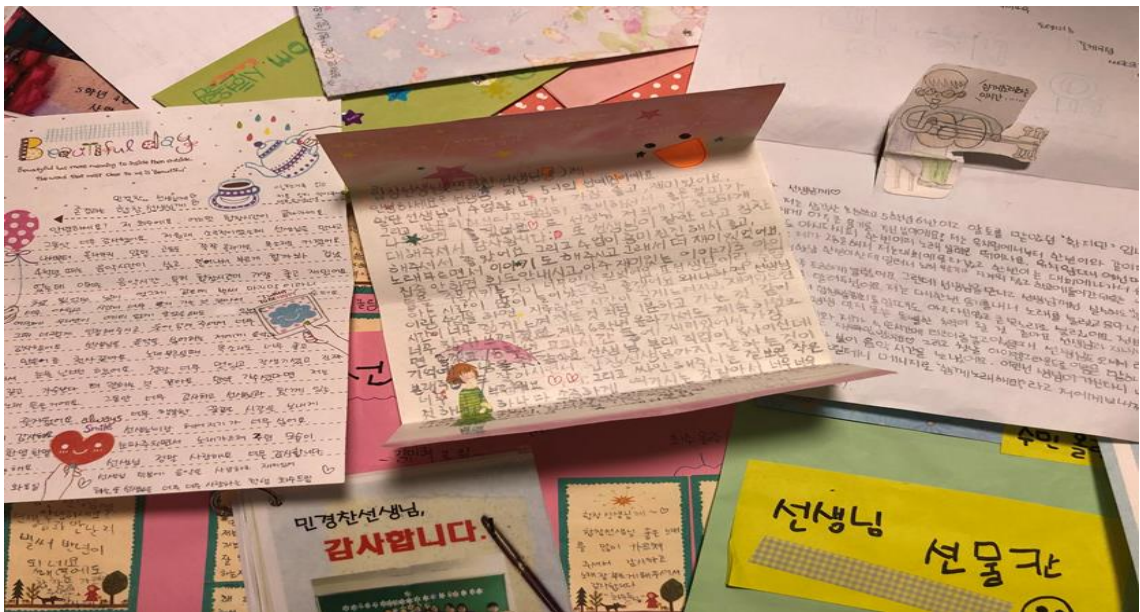
합창선생님(민경찬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5-1 선00이에요. 일단 선생님이 수업할 때가 가장 좋고, 재미있어요..(중략).. 선생님 저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좋았어요. 그리고 수업이 흥미진진해서 좋고, 노래 부르면서 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래서 더 재미있었어요. 집중 안하면 화도 안내시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이들을 주목시키시는 것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또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 지루하면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재미있으면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것처럼 1분하고 가는 것 같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6학년 올라가서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5학년 교과 시간 중에 재미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본래 직업이 목사이신데 본래 직업도 잘하시면서 합창 선생님까지 잘하는 것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싸인해 주시는 것을 보면 작은 것 하나 하나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존경합니다. 저희들의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가장 감동받은 것! 싸인 할 때 다 다 다르게 쓰셔서 감동했어요!) - 00 올림

합창선생님 민경찬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알토를 맡았던 ‘황00’입니다. 일단 선생님께선 저에게 아주 큰 용기를 주신 분이예요! 저는 유치원에서부터 HB이와 같이 다닌 8년지기 친구예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한빈이의 노래 실력은 뛰어나요. 유치원 때 예선대회에서 한빈이가 1등을 하고 제가 2등을 해서 저는 대회에 못 나갔고 한빈이는 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탔어요. 저는 유치원때 부터 항상 한빈이한테 밀려서 노래 부르기가 지겨워졌고 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4학년까지 음악시간에도 거의 아주 조그맣게 불렀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께선 실수해도 “괜찮다” 라고 계속 격려해 주시고 노래를 알려 주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노래를 불렀고 음악시간이 매우 재미있고 기다려졌어요. 그래서 합창발표회를 할 때도 아주 자신있고 큰 목소리로 불렀어요. 전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고 합창발표회는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과 지내면서 재미있는 일도 아주 많았어요. HB와 제가 쉬는 시간에 리코더를 불고 있을 때 선생님도 오셔서 리코더를 부셨을 때 뭔가 화음이 맞으니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첫날 아이엠그라운드로 이름 말하기 할 때도 매우 매우 신이 나서 즐기면서 음악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선생님이 가시다니 너무 속상해요. TT 제 전화 번호를 알려드릴테니 메시지로 ‘함께 노래해요’ 라고 저에게 보내 주세요. 이쁜 00이의 전번: -

<그림18> 삼각산초 학생들이 보내 준 편지들



이런 수업은 서울 삼각산초등학교 뿐 아니라, 도봉구의 도봉초등학교, 노원구의 중현초등학교 등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때마다 마지막에 공연을 했고,

학부모와 함께 잔치 같은 시간을 가졌다. 수업을 다 마친 뒤에는 아이들에게 사인을 하느라 자리에서 오랫동안 못 일어났던 경우도 있었다. 학부모들 중 몇몇은 따로 학교장을 찾아가 고마움을 표현했고, 담당할 담임교사들과 연구주임을 또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왔다. 학교에는 아이들의 전인적인 교육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학교의 경험 많은 교사들도 어찌할 수 없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 때부터 인격성을 상실해가는 이 어려운 환경은 생명을 지닌 교회에게는 생명을 흘러가게 하며 섬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다. 학교 안에는 이러한 마음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돕는 교사들이 종종 있다. 이들은 이 사역의 보이지 않는 협력자가 되어, 학교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그중의 한 사람이었던 중현초등학교 연구 주임 교사가 본 연구자의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을 보고 그 느낌을 편지형식으로 보내 준 글이다. 이전엔 일면식도 없던 교사가 한 학기를 함께 한 뒤에 보내 준 글이기에 본 연구자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던 글이다.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방향>

-서울중현초등학교 정문화-

민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참관 당시를 떠올리며 편하게 씁니다. 학급의 담임을 맡아 1년을 가르치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나를 얼마나 기억해줄까?’ , ‘나쁘게 기억하지만 않으면 좋겠어.’

‘아니, 헤어지는 순간 싹 잊어주면 좋겠네.’ 2월이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년 맞이 준비를 하고 이 학생들을 잘 키워보리라 생각을 하지만 학생들에게 평생토록 보이지 않는 교육의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했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선생님의 합창 수업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수업은 한 학기 동안 진행하신 17차시 수업의 마지막 차시인 합창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들이라면 대부분 싫어하는 공개수업에 학부모와 교사들, 특히 교장, 교감선생님까지 참관을 하셨고, 학생들은 두 개 학년을 합쳐서 다섯 반이 함께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런 공개수업이라면 대한민국에 하겠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수업 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민선생님의 얼굴에는 긴장이나 동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PPT준비, 컴퓨터 연결이나 공연 리허설 등 모든 준비도 혼자서 다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공개수업 합창 발표회의 초청장도 직접 써주시고, 배부용 소책자도 직접 만들어주셨습니다. 디자인 감각과 글솜씨에 놀랐었지요. 모든 것을 직접 하시는 모습은 다른 강사들과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평소 수업을 지켜보던 교사들의 입에서 정말 좋다, 애들이 참 좋아한다, 재미있다는 말이 솔솔 들려 나오는 이유는 수업이 시작되면서 곧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랬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시를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사과 속의 씨앗은 썬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썬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갈 때 모두가 보게 될 거야.

이 가사를 보는 순간 얼마나 심오한 내용인지 전율이 일었습니다. 알게 보면 ‘진로교육도 함께 하는군.’ 하며 지나칠 수 있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진리의 문장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수없이 외치는 only one 교육이니 인성교육, 성장과 발달 등의 구호들이 필요 없는 심오한 교육철학을 사과 씨앗 한 개에 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우렁찬 선창에는 마법의 가루가 뿌려진 것인지 그 자리에 함께 한 사람들의 귀가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된 음악교육을 하시는 교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컴퓨터에 연결된 TV에서 나오는 반주로 따라 부르게 하는 것과는 너무도 많이 달랐습니다. 아, 음악 수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안 돼. 저 기술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방향을 이런 쪽으로 바꿔야겠구나.’ ‘이래서 예술교육이 필요해.’ ‘이분 진짜 교육자시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직접 연주하시는 엄청난 반주와 선창, 추임새(?) 등으로 평소 입을 떼지 않던 학생들도 입을 열고 눈을 맞추며 호응하고 있었습니다. 공부 시간이면 몸을 비틀고 졸린 눈으로 하품을 하거나 집중하지 않던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행가를 좋아하고 음악 교과서를 멀리하던 학생들이 들려주는 순수한 노랫소리가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세탁을 하신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실에서 많이 보던 나쁜 학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파스하게 눈을 맞추시고, 조금 틀리거나 조금 흐트러져도 품어주시며, 커다란 화음으로 끌어 당겨주고 계셨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존중해주시는 기본적 마음가짐이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러하시니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선생님께 인사하는 학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합창 수업에서는 머리 나빠 부진한 학생도, 가정환경이 어려워 힘든 학생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존재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곱게 내며 화음을 이루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정신없이 듣다가 수업 한 시간을 놓치고 못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보강 시간 잡느라 아주 고생했습니다) 합창 수업에서 학생들이 부른 노래의 노랫말을 살펴보니 모두가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희망, 의지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합창곡들은 장르가 다양하여 치우침이 없었고, 아리랑 등의 우리 노래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것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선곡에는 철학적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17차시의 수업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진, 인문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콜라보레이션 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입을 통해, 또, 수업을 지켜본 학부모들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설문조사에는 합창 수업에 대한 많은 칭찬이 올라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내년도의 교육과정에 합창을 꼭 넣기로 하였고 교육청 공모에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 별도의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2학기에만 하기에는 넘 아쉬운 수업이니 예산 한도 내에서 1년 내내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일 년 내내 학생을 교육하며 보람도 종종 있지만 뭘 했는지 알 수 없고 도망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단 17차시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존재의 수준의 끌어 올려준 합창 수업,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하여 황무지를 가꾸며 튼실한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그림19> 중현초등학교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





중학교로 찾아간 교회

강북구에 위치한 강북중학교는 매 연말에 교내 합창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격성장을 돕고 감추어진 끼를 발산하도록 돕고 있다. 본 연구자는 그 중학교에 연
 결이 되어 합창강사로 함께 하게 되었다. 추운 겨울 쌀렁한 음악실에서 홀로 한국의
 중학생들 30여명을 만나는 경험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지나치게 경
 쟁적이고 파편화되고 비인격적인 문화 속에서 길들여진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다른 중학교에서 3년간 중학생들과 함께 ‘함께 노래 부
 르기’ 수업을 진행해온 터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강북중학교로 찾아갔다. 예상대
 로 처음 만남은 거칠었다. 학생들 중에는 강사인 본 연구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
 는 학생도 있었고, 고개를 푹숙이고 자는 학생도 있었고, 아무런 반응없이 무력한
 모습으로 있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거칠게 대드는 학생들도 있었다. 어떤 여학생들
 은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와서는 거울을 들고 화장을 하기도 했었다. 담임교사나 보
 조교사가 따로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다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
 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는 도움이 필요했고, 합창강사를

부른 것이다.

합창강사로서 본 연구자의 역할은 각 반의 학생들이 연말에 있을 합창제 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먼저는 학생들이 즐겁게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학생 중에 세워진 지휘자와 반주자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 합창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본 연구자는 학교의 음악교사가 부탁한 곡 이외에 함께 부르기 좋은 노래 몇 곡을 함께 부르며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아이들 안에 있는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감사하게도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기에 아이들과 연결이 더 수월했다. 노래로 시작한 강의는 자연스럽게 진로교육과 인격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몇 주 동안의 수업을 마치고, 전체 합창제를 하는 날, 전교생과 함께 ‘씨앗의 꿈’ 을 불렀다. 학생들은 온 힘을 다해서 강당이 떠나가도록 노래를 따라 불렀고, 그 자리에 함께 한 사람들은 함께 노래 부르는 즐거움을 한껏 누리며 행복해 했다.

현재 중학교에서는 한학기 동안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 를 시행하면서 그 기간에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합창, 연극, 뮤지컬 등은 여러 예술 분야의 예술강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이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한국의 교육상황에서 힘들어가는 청소년들을 번역된 복음으로 섬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한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그래서 늘 교회에겐 기회가 열려 있었지만, 교회는 그들에게로 찾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이제는 그들을 찾아가서 만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세상의 위기는 교회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진실을 나타낼 좋은 기회이다.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찾아간 교회

도봉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관장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합창수업 요청이 왔다. 장애인들을 가르친 경험은 없기에 망설여졌지만, 우리를 위해 섬기러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갔다. 본 연구자의 걱정은 기우였다. 함께한 사람들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노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더니, 참여한 사람들 모두 너무나 행복해 하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에 가능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합창 수업은 약 두 달 동안 계속 되었다.

<그림20>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함께 노래 부르기 시간



이후에 다른 프로젝트가 이어졌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마지막 행사로 모두가 같이 합창을 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시간을 정해서 두 곡의 노래를 준비해서 함께 불렀다. 장애인, 장애인을 돌보는 비장애인 짝꿍,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직원들도 함께 한 합창이었다. 함께 노래하는 과정을 통해 모두가 함께 웃고 즐겼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함께 노래 부르며 보낸 그 시간들에 대해 그 시설의 관장 이상록목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장애를 넘어서 하나 되는 함께 노래 부르기 >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상록 -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문화와 예술은 아직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우선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기본적인 일상을 위한 돌봄과 지원이 우선시 되다 보니 문화나 예술은 심리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장벽 없는, Barrier Free) 문화 공간 등의 부족은 물리적 장벽이 되고 있다. 아울러 문화와 예술에 대한 경험의 부재는 참여의 기회와 동기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문화적·물리적 장벽 때문에 장애인의 삶에서 문화와 예술은 하고는 싶으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누리기 어려운 영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삶에 찾아와 노래와 함께함의 문화를 삶으로 경험하게 해준 것이 바로 “찾아오는 음악수업” 이었고, 또 “함께 만드는 공연” 이었다.

1. 만남의 장(場, 마당)

우선 이 수업과 프로젝트는 많은 물리적 장벽들(barrier)과 접근성의 제한, 그리고 경험의 부재 등으로 문화와 예술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만나는 장(場, 마당)이 되었으며, 능력과 수준이 다른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만남의 장이 되었다. 또한 “함께 만드는 공연”은 장애인·비장애인이 노래를 통해 하나가 되는 만남의 장이 되었다. 이러한 만남의 장(場, 마당)이 열린 것은 장애인들과 지역주민 가운데로 찾아왔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을 속에서, 장애인 각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열린 공간이었기에 다양한 능력과 수준을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모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민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장애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면,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 노래로 하나 되는 경험

노래는 장애를 넘어서는 또 다른 언어가 되었다. 노래라는 언어, 리듬이라는 언어, 모임이라는 언어는 장애로 인해 말로 소통하기 어려운 우리의 언어 장벽을 넘어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특별히 하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들에게,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으로 각인되었다.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또 이 노래를 아느냐고 물어보고, 발음을 제대로 못해도 노래가 나올 때 몸을 흔들며 반응하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하나 되는 힘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 언어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서로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연결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다. 특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합창 공연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불렀던 “씨앗의 꿈”이라는 노래의 마지막 소절들을 아직도 외우고 흥얼거리며 부르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날의 하나됨의 감동이 아직도 전해져 온다.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 /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 우리가 힘써 가꾸어갈 때 모두가 보게 될거야”

음악과 함께 하는 힐링 인문학

초등학교에서의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은 담임교사들 뿐 아니라, 교장과 교감, 그리고 학교 전체의 수업을 기획하는 연구주임교사나 행정을 주관하는 교무주임교사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는 자리로 연결되었다. 현직교사들과의 깊이 있는 나눔과 ‘교사동아리’와 ‘어머니합창단’의 경험을 통해 교사들과 부모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어려움을 함께 품고 서로 보완하며 풀어갈 방법들을 학교의 리더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는 자연스럽게 교사들을 위한 연수나, 부모교육특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은 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다.

‘교육기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자체가 근대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에픽(EPIC)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본 연구인은 유치원교사나 부모를 위한 특강도 연결하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연구자가 활용한 방식이 바로 ‘함께 노래 부르기’였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언어로 복음의 내용을 이 시대에 맞게 강의를 했고, 강의하는 중간 중간에 그 복음 담은 노래를 함께 불렀다. 그러면 그들은 함께 노래하는 그 시간을 통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고, 회복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학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육아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교사동아리 모임 등에 ‘찾아가서’ 함께 노래하며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도울 수 있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원장과 교사

들이 모인 동아리의 경우는 6개월간 지속적으로 ‘합창수업’을 하면서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고, 교사들은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산은행초등학교의 어머니 합창단 역시 장기적으로 모여 함께 노래하며 세상의 언어로 번역된 복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다시 노래에 담아 부르며 함께 울고 웃으며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일산은행초 어머니 합창단의 경우는 단원들이 학교 전체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학교 전체 분위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고, 아이들의 정기 공연 때에는 자녀들과 함께 무대에서 노래하며 어린 시절 아주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도 하였다.

본 연구인은 그동안 해왔던 부모교육, 교사연수, 합창동아리, 그리고 일산은행초 어머니합창단과 함께 보낸 예술교육의 경험을 정리하여 ‘음악이 있는 힐링 인문학’이라는 ‘성인들을 위한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후에 지역 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는데, 그 두 프로그램이 문화소외계층 여성들을 위한 ‘도봉시스터즈’와 중년남성들을 위한 합창프로젝트 ‘브라보 마이 라이프’이다. 지면 관계상 그 교육내용을 다 소개 할 수는 없어서 여기서는 그 진행 과정과 결과등만 간략히 소개하겠다.

도봉시스터즈

도봉시스터즈는 도봉문화재단에서 서울시의 ‘무지개다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함께 노래 부르기’와 ‘인문학’을 엮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자는 문화재단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뿐 아니라, 직접 강의하고 진행하는 기회를 얻었다. 프로그램의 모티브와 내용은 일산은행초등학교 어머니 합창단에서 가

져왔다. 문화 소외계층으로 있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던 이 프로그램은 국내 뿐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 있던 일본인 여성 그룹이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에 대한 인문학강의와 함께 노래 부르기를 접목시킨 형태로 진행했다. 영상과 노래, 노래와 춤, 그리고 수화 등을 배우면서 자신의 돌아온 삶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매 모임 시간은 몽클한 감동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문학작품, 영화, 시, 그림, 춤, 동화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문화 예술의 요소를 다 사용했고, 마지막에는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와 같은 지역의 큰 무대에 함께 참여하며, 다른 세대와도 함께 노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무교를 비롯하여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섞여 있었는데, ‘함께 노래 부르기’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참여자들은 매주 교회에 오듯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울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물론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복음에 담긴 은혜의 이야기들을 강의와 노래 곳곳에 담아서 전할 수 있었고, 많은 참여자들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인 뒤에는 본 연구가자 목회자임을 알릴 기회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모든 걸음이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교회의 걸음임을 알릴 수 있었다.

또한 도봉시스터즈는 자체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구청에서 진행한 ‘구민청 개관식’에 초대되어 축하공연을 하기도 하고, ‘푸르게 더 푸르게’라는 큰 공연과 공연자로 함께 참여해서 어린이 합창단, 청소년 댄스팀, 청년콰이어, 목사로 구성된 남성합창단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참여한 또 다른 회중들에게 그동안의 행복했던 시간을 나누는 경험도 하게 된다.

<그림21> 도봉시스터즈 모임 및 공연



브라보 마이 라이프

최근 서울시에서는 구마다 문화재단들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에 도봉문화재단과 비슷한 시기에 ‘강북문화재단’이 생겼는데, 이러한 신생 문화재단들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협업을 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진행하곤 한다. 그동안의 예술 활동은 전문가들의 활동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문화 동아리와 같은 형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들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게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019년에는 ‘도봉시스터즈’와 비슷한 방식으로 ‘강북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50플러스 남성 합창 프로젝트 <브라보 마이라이프>가 있었다. 한국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소외된 계층은 다름 아닌 5-60대 남성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단에서 본 연구인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부탁이 왔을 때, 가장 모이기 어렵다고 하는 5-6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합창단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재단에서 그 제안을 받아 들여 실행했다.

처음에는 사람을 모을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5명으로 그냥 시작했는데, 그 다섯 명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곧 10명이 되고, 12명이 되었다. 그 12명의 5-60대 남성들은 매주 한 번씩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도봉시스터즈 때처럼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인문학강의를 듣고, 영상도 보고, 시를 낭송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악기 연주를 하며 본인의 장기를 뽐내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강북문화재단의 직원들이 계속 참여하였고, 지역의 성악가와 작곡가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반주를 맡았던 연주자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아버지뻘 되는 어르신들을 피아노 반주와 적극적인 참여로 섬겨주었다. 최근 청년 실업의 문제가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런 식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노래하는 자리에 참여 함께 하는 자리도 계속 만들고 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도 ‘도봉시스터즈’ 때 처럼, 노래 모임으로만 마치지 않고, 강북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제 공연의 한 팀으로 참여하여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고, 공연 이후, 프로그램이 다 마친 뒤에도 여전히 매달 한 번씩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교제를 나누고 있다. 중년 남성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다시 모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일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 주신 그 노래하는 사람의 진실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 단원들 중에는 본 연구인 외에도 목사가 두 명이 더 있었고, 두 분의 목사와 함께 지역의 남성들을 섬기면서 천천히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있다.

<그림22> 브라보 마이 라이프모임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프로그램 끝난 후에 재단의 요청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 후기를 남겼는데, 본 연구자가 후기로 남긴 글을 첨부한다. 이 글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마음을 담았다. 참가자들이 남긴 후기는 <부록>에 첨부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후기; 지휘자 민경찬>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처음부터 모험이었다. 그 모험은 참가 대상자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5-60대 남성으로 잡으면서 시작되었다. 대상자를 중년 여성이나 실버세대로 잡으면 일단 사람을 모으는데 훨씬 수월했다. 하지만 이번엔 이분들을 만나고 싶었다. 전쟁이후 정치적 혼란기와 경제적 어려움, 게다가 IMF까지 고스란히 지내며 한국의 기적을 일구어낸 기적의 세대이지만, 지금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서도 그 수고한 인생에 대한 예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끈대 취급을 받으며 외면 받는 상황에 있다. 이런 저런

취미 생활이라도 해보고 싶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은 세대다. 온 삶을 일만하고, 자식 교육 시키는데 다 쏟아 붓느라 무엇을 어떻게 즐겨야 할 줄도 모르고, 인터넷도 익숙하지 않아 좋은 정보를 얻는데도 느리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더 적은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그 중간에 해당하는 5-60세 때에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활력을 얻지 못하면, 그 폐해는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최근 우리 사회 전체가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두가 너무나 날카로워져 있다. 좌와 우, 동과 서, 진보와 보수, 더 나아가 심각한 세대 간의 갈등까지, 갈등의 양상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5-60대 남성이 있다. 이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인정받고, 그 세월의 깊이를 녹여내어 함께 노래하며 하모니를 이루고, 그로 인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사회는 한층 부드러워 질 것이며, 그 열매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했듯이, 이분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관건이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알렸지만 프로그램 시작 시간이 다 되었어도 참가자가 5명에 불과했다. 합창단을 모집하는데, 5명이 모였다는 것은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미 예상한 상황이기에 작게라도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모여서 노래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문학적 시도를 함께 했다. 학벌이나 나이, 직업 같은 이야기는 좀 뒤로 하고, 앞으로 새롭게 열어갈 인생에 집중하기 위해 이전의 이름이 아니라 불리고 싶은 별명을 지어 나누고 그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 주었다. 또한 간단한 게임을 하며 격 없이 웃어도 보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 낭송하며 자신의 느낌을 나누기도 하고, 좋은 영상도 함께 보며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노래에 담아 부르며 노래에 깊이를 더하고자 했다. 함께 화음으로 노래하는 묘미를 느끼도록 돕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백미였다.

좋은 발성 강사 선생님을 따로 모셔서 본격적으로 노래를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진지하게 그 시간에 임하며 그 배움을 정말 즐거워했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이 분들에게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얼마든지 술 없이도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노래하며 즐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진행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이야기도 나누어 주시고, 유치한 게임도 즐겁게 참여해 주셨다. 서로의 마음과 꿈을 나눌 때는 사뭇 진지해 지기도 하셨고, 그 삶의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을 웃음과 넉넉함으로 풀어낼 여유도 가지고 계셨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과도 따뜻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한 참가자는 시낭송을 마친 뒤에, 이 시대의 청년들을 걱정하시면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 좋은 길을 내 주어야겠다는 취지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도 했는데, 그 때 마음의 뿌듯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참가자들이 지인들을 초대했고, 5명의 중창으로 시작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12명의 힘찬 합창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함께 한 스태프들의 전폭적인 지원이었다. 진행자가 온전히 프로

그럼과 참여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따뜻함과 진심은 고스란히 참가자들에게 전해졌다. 참여자들은 존중 받는 느낌 안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나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안에 이미 있는 ‘희망’을 보았다. 함께 꿈꿀 수 있어 행복했고, 그 행복했던 시간을 공연을 통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과 다음 세대와도 나눌 수 있어 더 행복하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가 사는 동네 마다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를 위해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획을 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림23> 강북문화제에서 공연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섬마을 인생학교로 찾아간 교회

<섬마을 인생학교>는 인터넷 신문사 ‘오마이뉴스’와 ‘사단법인 꿈틀리’가 신안군의 지원으로 신안군의 한 섬에서 2박3일에서 3박4일 동안 진행되는 성인용 인생학교이다. ‘인생학교’는 행복지수 세계 1위의 나라인 덴마크에서 운영하는 인생학교 모델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다시 디자인하여 시도하고 있다. 이곳에 교사, 단체, 청년들, 공무원, 가족단위...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인 섬마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2박3일 동안 머물며 쉬었다 가는 프로그램인데, 본 연구인은 이 학교의 기수별 교장 중 한명으로 함께 섬기고 있다. 보통 한 달

에 한 번 정도 학교에 합류했는데, 합류할 때마다 그 기수의 교장으로서 전체 프로그램 진행과 강의, 함께 노래 부르기 등을 맡고 있다. 이 인생학교에도 ‘함께 노래 부르기’는 학교의 전체 진행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덴마크를 행복사회로 만들었던 덴마크의 자유학교와 인생학교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인터넷신문사의 새 지평을 열었던 오마이뉴스의 오연호는 행복사회라 불리는 덴마크를 찾아가서 덴마크가 행복사회가 된 이유를 추적하며 취재했다. 그 취재기를 다룬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에서 그는 ‘덴마크가 왜 행복지수 세계 1위의 나라가 되었는지 알려면 자유학교를 이해해야 한다’³⁵⁷ 고 말했다. 자유학교는 덴마크의 목사이자 사상가, 시인이자 음악가요 교육가였던 니콜라스 그룬트비의 철학을 크리스텐 미켈센 콜이 현실에서 구현해 낸 학교이다. 이들이 세운 자유학교는 ‘1894년 독일에 패해 국토의 3분의 1, 인구의 5분의 2를 잃었던 나라 덴마크’³⁵⁸ 를 다시 일으켜, 나라 전체를 행복사회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덴마크는 왕정이 무너지고 입헌군주제 시대가 돌입하면서 의무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는데, 이들의 교육은 국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교육’이었다.

오연호는 ‘그룬트비는 이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교육을 주창했다’³⁵⁹ 고 기록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누는데, 그 중심에 ‘함께 노래 부르기’가 있다. 그가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실질적인 삶과 어울리는 ‘노래’와 ‘살아 있는 이야기’를 통한 ‘함께 나누기’를 교육의 주요 방법으로 삼았다.”고 기록하는데, 특히 ‘함께 노래 부르기’에는 그룬트비의 기독교적 사상

³⁵⁷ 오연호,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서울: 오마이북, 2014), 180.

³⁵⁸ *Ibid.*, 182.

³⁵⁹ *Ibid.*

과 삶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다. 그룬트비는 많은 회중찬송을 작곡한 작곡가이기도 했는데, 그 방식을 그대로 학교 안에 적용시킨 것이다. 오연호가 취재했던 한 자유학교의 교장은 함께 노래 부르기에 대한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의 수업을 이렇게 ‘다 함께 노래 부르기’로 시작합니다. 덴마크의 모든 자유학교에서 행하는 오랜 전통이죠.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일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개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잘 어울려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 교장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노래책을 보여주며 이런 말도 덧붙였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편집해 만든 노래책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찬송가는 아닙니다. 옛 덴마크 민요부터 최신 노래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³⁶⁰

그룬트비가 교회 안에서 시작했던 회중찬송은 그의 기독교적 사상을 담아 자유학교의 ‘함께 노래 부르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함께 노래 부르기’의 전통은 ‘자유학교’를 넘어 덴마크의 ‘공립학교’로까지 이어졌고, 더 나아가 나라 전체로 이어졌다. 온 나라의 구성원들이 세대를 넘어 함께 노래하며 자신이 그 사회에 더불어 사는 존재임을 확인했고, 그렇게 개인과 공동체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행복 사회를 만들어 갔다.

오연호는 이러한 그룬트비의 철학이 담겨 있는 덴마크의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꿈틀리 인생학교>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시작하였고, 매년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30여명이 1년씩 강화도의 꿈틀리 인생학교 모여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 학교의 노래만들기 수업에 교사로 참가하여 1회 졸업생들과 함께 그 학교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꿈틀리 인생학교 교가를 만들었다. 학생들이 1년간 지내면서 느낀 점과 배운점들을 먼저 기록하고, 그 내용으로 가사를 만들고, 그 가사에 곡을 붙였다. 그렇게 ‘옆을 볼 자유’라는 노래가 탄생되었다. 앞만 보고 달려갈

³⁶⁰ Ibid., 181.

것을 요구 받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옆을 볼 자유’ 를 노래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옆을 볼 자유> - 꿈틀리인생학교1기 졸업생 & 민경찬
 - 꿈틀리인생학교 교가

답답한 도시를 떠나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
 나의 삶의 참 의미를 찾아

어제의 나를 떠나
 오늘도 새로운 길을 가네
 나의 삶의 참 의미를 찾아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서 있는지
 질문하며 함께 걸어가네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한눈을 팔아도 괜찮아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

옆을 볼 자유를 함께 누리며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되어 함께 걸어가네
 꿈틀 대는 우리의 꿈을 위하여
 더불어 함께 배우네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고 말해 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말해 주며 ‘내 안의 또 다른 나’ 를
 찾으라고 말해 주는 꿈틀리 인생학교의 가치는 <섬마을 인생학교>에도 그대로 이어
 진다. <섬마을 인생학교>는 ‘꿈틀리 인생학교’ 의 성인버전이다. 당연히 역사적으
 로 사회적으로 이미 검증을 통과한 ‘함께 노래 부르기’ 를 학교 안에 그대로 가져

왔다. 그래서 매일 아침 노래로 시작하고, 모일 때마다 노래를 부르며 시작한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 같이 생활하는데, 그 생경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노래하며 깨트린다. 사람들은 함께 노래하며 마음을 열고 점차 식구가 되어간다. 처음 모여 소개하는 시간부터 함께 노래 부르며 시작하는 이 인생학교는 모일 때마다, 또 강의 중간에 함께 노래하며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노래에 담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한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시 노래하며 그 이야기를 마음과 몸에 새긴다. 익숙해진 뒤에는 함께 화음으로 노래하며 자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할 수 있음에 놀라기도 한다.

<그림24> 섬마을 인생학교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이 함께 부르기의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섬마을 인생학교> 학교가 있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시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이 만나 함께 식사하며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이 때도 ‘함께 노래 부르기’는 단연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어루러지고, 오직 ‘사람’ 만이 누릴 수 있는 ‘함께 노래함’의 특별한 즐거움을 만끽한다. 사람들은 이 특별한 ‘경험(Experience)’을 통해 더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Participation)’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그림(Image)’를 그리게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한 사람들과의 깊어진 ‘관계(Connection)’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다시 찾고,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곤 한다.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살아 있는 말’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종교와 관련된 진지한 고민을 나누기도 한다. 교장인 본 연구자가 목사인 줄 알게 된 학생들은 더 깊은 질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본 연구자는 비그리스도인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말로 기독교의 진리를 말해 내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노래’와 ‘이야기’로 마음이 연결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더 깊은 질문들을 꺼내 놓기 시작하고, 이때 나눈 이야기와 질문들은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새 힘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다 끝난 뒤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청년 중의 한 명은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청년 중심의 목회를 하는 한 지역교회와 연결을 시켜 주기도 했고, 지금도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 전도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는데, 찾아와 교회로 연결된 그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의 열심을 넘어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구체적인 예이기도 하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문화예술교육의 여러 지경에서 ‘에픽적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한 선교적 접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교회와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도의 목적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일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의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속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믿고, 그 안에 담아 주신 창조적 상상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힘써 나타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공공 영역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한국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공공의 영역은 사실상 교회가 포기한 영역이다. 재원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형교회는 그 자원들을 모아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는’ 데 적지 않은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을 적극 활용한다. 하지만 교회 밖 문화예술영역의 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작은 교회는 인적자원과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회 안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도 거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섬기고자 한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이미 문화예술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교회를 통해 배출된 사람들인데, 이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안에 문화예술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역량을 이미 충분히 부어주셨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본 연구자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배우고 실행하던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 지역 문화재단이나 구청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은혜와 사랑’이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 없다.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섬길 곳이 보인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이다. 사랑하면 창조적이 되고, 사랑하면 더 치밀하고 풍성하게 준비하며, 받는 사람이 받음직 하게 섬기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라는 놀라운 섬김의 도구를 찾아낸 것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함께 노래 부르기’ 는 ‘회중찬송’ 이라는 교회의 전통에서 가져온 교회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신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는 귀한 선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존재 목적에는 ‘전도’ 만 있지 않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대위임장’ 만 있지 않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문화 명령’ 도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이 일을 위해 특별히 부름 받은 사역자들이다.

우리가 좋은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문화가 계속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악한 문화가 다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형성해 갈 것이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이 나쁜 문화를 만들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마음껏 쥐고 흔들게 된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아직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시작해야 한다. 누구나 처음은 있다. 처음부터 걷지 못하더라도 걷기 시작해야 걸을 수 있듯이, 처음부터 아름다운 예술로 능숙하게 섬기지 못하더라도 그 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함께 노래 부르는 이를 위한 아주 좋은 도구이다.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족해도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된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함께 시작하면 된다. 지금부터는 본 연구인이 서툴고 거칠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노래하며 만난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눌 것이다.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기에, 간략히 중요 내용만 소개할 것이다.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번 장에서 주로 다룰 영역은 ‘문화예술콘서트’이다. 본 연구자는 지역의 규모 있는 콘서트에서 총감독으로서 연출을 맡고, 그곳에서 지역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공공영역에서 복음의 내용을 담아낸 콘서트를 진행해왔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은 ‘함께 노래 부르기’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주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 기획하고 준비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본 연구자도 미처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 유익들을 실제로 경험하였다. 그 경험들 중의 일부를 문화예술콘서트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

먼저 소개할 공연은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다. 이 콘서트는 도봉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문화호우주간’의 메인 콘서트로서 본 연구자가 총감독으로 함께 했던 종합문화예술공연이다. 공연의 내용은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민주화 운동시기를 거쳐 올림픽과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이야기를 노래와 춤, 드라마와 뮤지컬, 영상과 미디어로 엮어 어린이 합창단, 청소년 댄스, 청년보컬, 목사로 구성된 남성합창단, 어린이중창, 국악과 성악의 보컬리스트, 그리고 앞에 언급했던 도봉시스터즈까지 함께 했던 대규모 문화예술콘서트였다. 본 연구자가 대본과 편곡, 지휘와 연출까지 맡아서 진행했다.

이 콘서트를 통해 본 연구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픔으로 가득한 이 나라의 근대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는 사실이었다. 아무리 큰 슬픔과 아픔이라도 그것이 해석될 때 우리는 새로운 걸음을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의 언어로 담아내고자 했고,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음악을 중심으로 한 예술적 표현으로 담아내고자 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 ‘목회자’로 구성된 남성 합창단을 참여시켜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아버지 세대의 마음을 노래하게 했고, 실력 있는 찬양사역자이자 CCM 가수인 남궁송옥을 초청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부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 연주자들과 스태프들이 구석 구석에 배치되어 공연 전체를 위해 중보하면서 함께 했다. 특히 지역의 목회자들로 구성된 목사중창단의 경우는 공연에 담긴 의미를 깊게 나누고 모일 때마다 콘서트와 지역 사회를 위해 중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적으로는 전혀 종교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진행했다. 지역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규모 콘서트를 진행했음에도 아무런 잡음 없이 공연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중보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와 세상의 다리의 역할을 하게 했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결국으로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문화콘서트였지만, 공연의 스토리 속에 우리 민족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아 두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순서에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함께 노래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돌아보며 감격적인 시간을 보냈다. 내용 뿐 아니라, 운영 방식도 복음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참여한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고, 모든 참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참여자들의 이름을 당일 전시하였던

배너에 기록하기도 했다.

<그림25>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 공연 소개



참여 인원이 너무 많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며,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본 연구자가 모든 팀을 일일이 방문해서 공연의 취지를 나누고, 팀별로 따로 합창연습을 하고, 마지막 리허설 때 다 같이 모여서 맞추어 보는 방식으로 연습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를 밀도 있게 만나 이 시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노래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 이런 시간을 보낸 참여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노래할 때, 엄청난 시너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래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 과정을 통해 과편화되고 편리에 익숙해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미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원하고 있으며, 기꺼이 수고하여 참여할 수 있음도 확인했다. 다만 이런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사회 구석 구석에 있던 여러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땀흘리며 함께 만든 이 공연은 그 자체가 감동이었다.

한 관객은 “한 마을이 함께 꿈꾸고 만들 수 있는 지상 최고치의 무대” 였다고 SNS에 공연 평을 올렸는데, 그의 말대로 ‘한 마을이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는’ 무언가를 교회가 계속 공연을 준비하는 마음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세한 ‘연출노트’ 는 <부록>에 남겨 두었고, 여기에는 이 공연의 의미를 담아서 쓴 총감독 인사말만 남긴다.

<총감독 인사말>

여름 숲이 푸르른 것은 숲의 나무들이 겨울의 혹독함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겨울 숲 같이 힘겨운 시기를 견뎌낸 우리 선조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말기, 서구 열강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서로 싸우며 달려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나라를 지키려 했지만, 동시에 그 위기를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라 일본에 빼앗기고 황량한 겨울들관 같은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시기를 지내면서도 우리의 선조들은 다시 일어났고, 이 땅의 젊은이들은 동요를 지어 부르며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다 가시기도 전, 우리는 한국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아픔은 길고도 깊었습니다. 고향을 잃은 실향민과 가족과 헤어진 이산가족의 절규는 온 세계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아픔을 뒤로한 채,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했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도 내일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찾기 위해 삶을 걸고 싸우며 평화의 씨앗을 뿌려야 했습니다. 선조들이 뿌린 이 평화의 씨앗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씨앗을 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찌면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근현대사의 아프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을 다시 기억하고 함께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역사의 아픔이 온 몸과 맘에 아직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어르신들로부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다같이 귀 기울여 우리 겨레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평화를 노래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도봉구를 중심으로 동북4구의 주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기가 속한 이해관계를 뒤로 하고 함께 모여 한바탕 잔치를 벌입니다 문화예술이라는 풍성한 잔치 식탁을 함께 즐기는 동안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의 역사 안에 담겨 있던 깊은 의미도 함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추위를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푸르고 푸르른 여름 숲을 이룬 것처럼, 큰 아픔 이겨낸 우리 겨레의 씨앗이 더

깊이 뿌리내려 깊고 부른 평화의 숲을 이루어 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림26>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 공연 모습



세월호 5주년 기억문화제 <그곳에서 울지마오>

세월호 사건의 아픔과 의미를 새롭게 돌아보며 ‘세월호 5주년 기억문화제’ <그곳에서 울지마오>는 말 그대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 기획한 공연이었다. 공연을 위하여 민간의 후원금을 받아서 공연한 이 지역 최초의 대형 공연이었다. 본 연구자는 이 공연의 예술총감독으로 함께 하며 공연의 시나리오와 연출을 맡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연주와 편곡, 지휘를 함께 하기도 했다. 한국 내에서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세월호라는 사안을 다루었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은혜도 컸고 의미도 깊었다. 이번에도 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년 모든 세대가 여러 가지 예술 형태로 함께 했고, 마지막엔 모두가 함께 노래 부르며 공연을 마쳤다. 이 공연에도 약 200여 명의 스태프와 출연진이 함께 했다. 특별한 재정 없이 연주자들과 스태프들이 자원하여 모인 공연이었고, 실내 공연으로 예정했다가, 일정이 꼬여 공연장소를 급하게 야외로 옮겨서 진행했던 기적 같은 공연이었다.

이 공연에서 가장 의미 깊었던 것은 프로젝트 합창단이었다. 지역에 있는 여러 합창단을 직접 찾아가 공연의 의미와 내용을 전하며 참석을 요청했고, 준비하는 스태프들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 합창단원을 모집했다. 그렇게 모인 120명가량의 합창단이 이곳저곳에서 따로 모여 연습하다가, 마지막 날 다 같이 모여 연합 합창으로 함께 노래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함께 노래하고자 하는 의미에 동의가 되자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일단 모이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했다. 교회에서의 오랜 성가대 지휘의 경험이 매우 유익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프로젝트 합창단에 참여했던 한 참가자의 참여 후기다.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한 사회적 치유>

- 이화숙 -

416 프로젝트합창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① 직장 출퇴근과 육아 등으로 고정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에 다회 정기 출석의 부담으로 선뜻 기존 구립합창단 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으며, ② 긴 호흡의 모임들은 굳은 결심으로 시작했다가도 중도에 빠지게 되면 모임구성원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 같아 시도하기 두려웠으며, ③ 시작하기 전에 중도에 그만둘 것이 무섭고 그로 인해 느껴야 되는 무기력으로부터 제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합창, 합주 등은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소리를 모아야 완성되는 음악장르로, 어렸을 때 경험한 합창단은 제 인생에 굉장히 즐거운 추억입니다. 당시 선생님께서 ‘소리를 모은다는 것은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야' 라는 말씀은 여전히 제게 남은 큰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뛰어난 발성과 기교가 없어도 서로의 목소리가 어울려 큰 울림을 전달할 수 있는 합창은 연습하는 내내 제 옆, 제 앞, 함께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의 해방감도 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잠들기 직전까지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출근준비를 하면서 가족의 식사를 챙기고,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업무를 계획하고, 업무, 회의, 퇴근길 아이 학원 픽업하면서 저녁식사 고민, 숙제 챙기고 씻기고 재우면서 다음날 아침과 할 일들을 계산하는 삶을 반복하는데, 물론 그 일상 하나하나에도 애정과 감사가 있지만, 혼자 감당해야하는 무게가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일탈같이 다른 사람과 떨어져하는 무언가는 제게 특별한 행복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의 교류 또한 새로운 활력이었습니다. 업체 미팅, 업무 연관성 등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교류가 아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 교류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모임으로 사회적인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드러내 보이지 않더라도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에의 존엄성, 내가 가슴 아파 하는 일을 다른 사람도 가슴아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하나임을 느꼈으며, 가족에 대한 소중함, 감사함, 더 넓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소박한 인류애도 느껴졌습니다.

프로젝트 합창단이 끝나고는,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부분의 길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함께 완성했음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했구나 서로 격려하였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과정 중 느꼈던 소중함, 감사함, 나눔, 배려 등은 큰 마음속 자산으로 남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림27> 세월호 5주기 기억문화제 프로젝트합창단 연습장면



이 공연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공연을 위한 모금을 했다는 것이다. 온 나라가 함께 아파했던 세월호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연이었기에 가능했다. 먼저 관내에 있는 단체장들에게 연락했고,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기 원하는 시민들에게도 연락했다. 그리고 후원의 밤을 따로 마련해서 공연의 의미와 내용을 나누고, 이어서 합창연습까지 계속했다. 이때 도봉구청장이 후원의 밤뿐 아니라 합창 연습에도 참여를 함께 했다. 공연 당일에 합창에 참여했음은 물론이다.

이 공연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실내행사로 준비했으나 공연 두 주 전에 공연장이 허락이 안 돼서 야외로 옮겨진 것이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한계가 많은 상황이었지만, 되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함께 했던 자원봉사 스태프들이 열심히 움직여 주어서 관내에 있는 ‘평화문화진지’ 라는 의미 깊은 공간에서 공연했다. 부족한 재정은 도봉문화재단에서 많은 부분을 채워 주었다. 함께 노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을 실제로 경험한 공연이었다. 이때 공연을 준비하는 마음을 담아 본 연구자가 SNS에 올렸던 글을 소개한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 민경찬 -

이번 기억문화제를 준비하며 평화문화진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담장에 걸려 있는 이 꽃들을 보며 한 시인의 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함민복 [꽃] 중에서

경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어찌면 나와 다른 누군가와 만나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모든 경계에는 크고 작은 갈등과 싸움이 있어왔음을 역사가 증언합니다. 어느 한 편에 속해서 그 중심에 거한다면 필요 없는 싸움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마음 맞는 사람과 맘 편히 지내면서 다른 편 사람들을 맘 편히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의 세계를 넓힐 수 없고, 더 큰 세계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나 자신조차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너'를 만날 때 비로소 '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경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쟁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역사의 한편에서는 경계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 경계에서 문화의 꽃을 피워 왔습니다. 서로 다른 그들이 만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자신이 키워왔던 자신의 꽃을 서로 나누며 더욱 아름다운 '문화의 꽃'을 피워왔습니다. 이 평화의 꽃, 문화의 꽃이 우리가 피우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꽃이라 믿습니다.

4월 21일 평화문화진지에서 함께 만나 이 문화의 꽃을 피우기 원합니다. 세월호라는 아픈 역사를 두고 서로 어느 편에 속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며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만들고 이야기하며, 오직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문화의 꽃을 함께 피우고 싶습니다. 그가 그토록 거친 것은 어쩌면 받은 상처가 너무 아파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버거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와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어서 너무나 어렵지만, 동시에 오직 사람이기에 가능한 그 놀라운 일을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4월 21일 오후 5시, 평화문화진지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기억문화제가 열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서로를 안아줍니다. 함께 울어주며,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뿌려야 할 평화의 씨앗을 함께 뿌립시다! 함께 노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p.s 4월18일(목) 저녁 7시! 도봉구청 지하 1층 아뜨리움에서 마지막 합창연습이 있습니다. 이날 오셔서 함께 노래하시면 21일 공연 무대에서 함께 노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시다. 그 경계에 꽃을 피우는 이 놀라운 자리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림28> 기억문화제 <그곳에서 울지마오> 공연





본 논문 II장의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라는 소제목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그 부분은 성경을 읽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글을 썼다면, 지금 소개했던 글은 공공의 영역에서 성경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쓴 글이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시도하며 찾아가야 한다. 실제로 이 공연을 위해 시민들이 기부한 금액이 500만원이 넘어섰고, 단일 콘서트를 위해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일은 도봉구내에서 전무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연주와 노래로, 춤과 합창으로, 홍보와 스태프로, 각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공연에 참여하였고,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던 시간이었다. 그날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은 공연자나 관객이나 그들의 사상이나 종교, 좌우 성향에 상관없이 함께 노래했고,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사람’ 이기게 가능한 놀라운 일을 함께 실천했다. 사람들은 함께 노래 부르는 이 일에 ‘참여’ 하며 사람의 사람됨이 얼마나 존귀한지 실제로 ‘경험’ 했고, 세월호에 대한 자신만의 편향된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이 뭔가 해야겠다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관계를 열어 갈 수 있었다. 에픽적 함께 부르기를 통한 성육신적 교회의 한 예라 볼 수 있는 공연이었다.

역사문화콘서트 <씨알의 소리>

역사문화콘서트 <씨알의 소리>는 도봉구청과 서울시의 공동출자를 받은 ‘문화가 있는 날 도봉’ 에서 주관한 콘서트였고, 도봉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도봉산페스티벌’ 의 마지막 날에 피날레 공연으로 야외에서 올려졌다. 문화재단과 구청, 그리고 민간이 함께 협업을 한 아주 특별한 형태의 콘서트였다. 본 연구자가 총감독으로 함께 한 이 공연도 여러 세대가 춤, 노래, 드라마, 영상, 뮤지컬, 전시 등 여러 가지 예술형태로 함께 한 공연이었는데, 마지막 순서에 무대에서 함께 노래한 합창단 200여명이었던 대형공연이었다. 모두가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연출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푸르게 더 푸르게’ 때처럼, 모든 참여 팀들을 일일이 찾아가 만나서 공연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먼저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미리 함께 노래하며 마음을 공유한 200여명의 참여자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에는 모두가 행복한 ‘잔치’ 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즐거워하는 공연자들의 행복은 무대 아래의 관객들에게까지 전해져서 공연자와 관객이 한 마음으로 박수하고 춤추며 함께 노래를 불렀던 특별한 공연이 될 수 있었다.

이 지역 출신의 사상가 함석헌 선생과 문화재수집가 전형필선생의 일대기를 우리나라의 근대역사와 연결하여 풀어낸 이 콘서트는 군사시설을 민간시설로 바꾼 ‘평화문화진지’ 라는 역사적인 공간에서 올려져서 ‘평화’ 의 의미를 더했다. 공연 참가팀 중에는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의 ‘용천노회장로합창단’ 을 초대해서 교회가 공공의 영역에 함께 어우러지기 위한 시도도 빼 놓지 않았다.

평화와 하나됨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의 내용과 그 깊은 의미를 담은 연출 노트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그 <연출노트> 중에 연합 합창으로 함께 불렀던 ‘손에 손잡고’ 라는 곡을 선택한 이유와 그 의미에 관한 부분을 따로 떼어 먼저 소개한다.

<그림29> 역사문화콘서트 <씨알의 소리> 공연 1.



<연출노트19.>

‘손에 손잡고’ 는 88서울올림픽의 주제가이다.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의 주제와 너무나 잘 맞는 가사와 선율을 가진 곡이다. 이 상징적인 노래를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는 모든 참여자뿐 아니라 관객도 함께 ‘참여’ 하여 함께 부르는 시간을 통해 하나됨의 기쁨을 잠시나마 ‘경험’ 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됨을 향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

‘손에 손잡고’ 의 노래말 대로, 손에 손을 맞잡는 것은 ‘벽’을 넘기 위함이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벽이 놓여 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전체 앞에 놓인 거대한 벽이다. 환경문제,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재난, 인종과 종교의 갈등, 민족과 나라, 그리고 이념과 사상의 갈등 등 인류가 함께 풀어가야 할 거대한 벽이다. 이 벽은 혼자서는 결코 넘을 수 없다. 그래서 함께 손잡아야 한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서로 손을 맞잡는 일, 너무 쉬워 보이는 그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너와 나 사이에도 벽이 있어, 손 한번 잡는 게 이리도 힘든 게다. 성격 탓이든, 환경과 경험 탓이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벽으로 인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노래 가사 속에

나오는 벽은 한 번 부르고 살짝 지나치는 벽이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벽은 결코 가볍지 않다.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벽이다.

누가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원래 하나임을 보지 못하는 '내'가 만든 벽이다.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나'라는 이름의 벽이다. 혼자서는 존재조차 할 수 없으면서, 어찌면 그리 '나'만 생각하는지... 나를 보되, 우리를 함께 보지 못하면 그토록 소중한 여기는 내가 고통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우리'를 보지 못하고 '나'만 생각했던 매국노들이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넘겨버렸던 뼈아픈 기억, 온 나라가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이웃과 가족의 원수가 되었던 비극적인 아픔을 그 몸과 마음에 아직도 고스란히 배어 있는 분들이 아직 살아계실 때 그 벽을 허물어야 한다. 아니, 허물지 못해도 상관없다. 어찌면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벽은 존재할지도 모를 테니 말이다. 다만 우리가 손잡고 마음을 모으면 된다. 그때 비로소 그 벽을 넘을 수 있으니 말이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 서로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 손잡고-”

우리가 비록 어둔 밤과 같은 시절을 지내며 거대한 벽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손을 맞잡고 함께 꿈을 꿀 수 있다. 꿈은 원래 할 수 없을 때 꾸는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넘고자 할 때 돕는 손길을 만나게 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18:29)"

'은혜'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개를 넘을 때마다 사실은 이 은혜가 있었다. 모든 시대마다, 설사 그것이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같은 거대한 비극 속에 있을 때에라도 은혜가 없던 때는 없었다. 아니, 오히려 아픔이 크고, 어려움이 클수록 더 큰 은혜가 부여되고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우리가 모를 뿐이었다. 그 은혜를 알 때, 우리 앞에 있는 벽과 산들은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 그 은혜의 이야기를 노래 안에, 노래와 노래 사이에 담았고, 그 마음을 랩에 담아 새롭게 표현하였다.

사실 이번 공연의 컨셉 자체가 은혜이다.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함께 노래하는 이 공연 자체가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

공연의 총감독인 본인을 비롯하여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은혜의 사건을 ‘경험(Experience)’ 하고, 사람들은 그 은혜의 사건에 직접 ‘참여(Participation)’ 함으로 그 감동의 경험을 ‘이미지(Image)’ 화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새롭게 조성된 이미지는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새롭게 열린 회복된 ‘관계(Connection)’를 통해

자연스럽게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그림30> 역사문화콘서트 <씨알의 소리> 공연2.



강북문화제 <손에 손잡고>

강북구에서 주최한 ‘강북문화제’ <손에 손잡고>는 강북지역의 예술가들이 다 같이 모여 함께 만드는 예술가들의 축제였다. 이전 공연의 연합합창곡이었던 ‘손에 손잡고’를 이 문화제 전체의 주제로 잡고, 같은 맥락에서 이 축제를 구성하였다. ‘씨알의 소리’는 총감독이었던 본 연구자가 시나리오부터 연출까지 다 진행한 하나의 작품이었다면, 이 문화제는 지역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무대를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 위한 공연이었는데, 공연의 특성상 하나의 주제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하나의 이야기로 엮지만, 각 팀이 자신의 색깔을 보여 줄 수 있는 구조로 구성했다.

이 연주회도 본 연구자가 예술총감독으로 함께 하면서,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이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방식으로 하려고 마음과 힘을 많이 쏟은 콘서트였다. 이틀에 걸쳐 40팀

가까운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공연하였고,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공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의 예술가들과 깊이 만나 소통할 수 있었고, 그들의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응원할 수 있었다. 그 많은 팀들을 만나, 예술가들의 요구사항을 귀담아듣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한편, 각 예술가들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형태로 무대와 순서를 짜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또한 함께 하는 관객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문화재단이 가진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조율하는 역할이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에서 잠깐 나누었던 남성중창팀 ‘브라보 마이라이프’ 도 이 공연에 참가하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본 연구자가 지휘하는 소나무합창단도 출연했다. 이 공연도 마지막 피날레는 참여자들이 다 같이 모여 함께 노래 부르는 것으로 했고, 이 공연에 참가를 위해 임시로 모였던 ‘이음줄여성합창단’ 도 공연 이후 다시 모여서 합창단으로 출범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그림31> 강북문화제 <손에 손잡고> 연합합창



에그리나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에그리나 오케스트라는 한 지역교회(강북제자교회, 담임 이동성목사)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모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다. 구성원은

‘씨앗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근처에 있는 도봉초, 북서울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천동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의 소개로 연결이 되었고, 이동성목사의 부탁으로 지휘를 맡게 되어 1년간 지휘를 하며 섬길 수 있었다. 청소년들을 매주 규칙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기회이다. 입시 위주의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매주 일정한 시간에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의 목회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 모임이 구성되었고, 지역 안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이 모임을 지속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진행한 또 다른 프로젝트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부모의 동의와 지지가 없이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인은 센터의 요청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위한 부모 특강도 함께 진행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처한 어려움과 부모들이 취해야 할 마음가짐 등에 대한 것을 나누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복음에 담긴 생명의 이야기를 세상 언어로 다시 풀어서 전하였고,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가지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렇게 강의를 듣기 위해 나온 부모들과 소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단 자녀들을 위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부모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토요일 오전에 연습하러 나온 청소년들과 소통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단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연습에도 참여하고, 크고 작은 공연에도 출연할 수 있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단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역시 음악이다. 좋은 음악을 함께 연주할 때 오는 일치감과 기쁨은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나름의 보람과 의미를 준다. 하지만, 이 진행이 가능하기 위해선 함께 하는 행정스텝의 적절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 있는 단체에서 지휘자나 강사로 섬기려면, 아이들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스텝들과 강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부모와 스텝, 그리고 단원들을 동시에 고려하며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가을부터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굿네이버스의 캠페인 공연과 동축제에 출연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연주하기도 했다. 악기를 연주하고 함께 하모니를 이루기까지 연습의 길고 쉽지 않지만 일단 훈련이 되면 함께 움직이며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어서 좋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케스트라이기에 지역사회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도 좋다.

<그림32> 예그리나 오케스트라의 찾아가는 공연





마지막 정기연주회 때는 지역의 동합창단과 동북사구합창단,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을 함께 초청하여 오케스트라와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만들기도 했다. 이때 참여한 어른 합창단 지휘자와 합창단원들은 이미 다른 공연을 통해서 본 연구자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었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기꺼이 함께해 주었다. 그들이 함께 노래했던 ‘경험(Experience)’은 또 다른 경험을 위한

‘참여(Participation)’로 이어졌고,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은 ‘함께함’에 대한 이미지나 교회에 대한 새로운 좋은 ‘이미지(Image)’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더 깊은 ‘관계(Connection)’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라는 큰 의미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를 위한 모임을 기대하고 지지하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 간다. 또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이런 활동들은 지역 목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의 목회 활동에 큰 힘이 된다. 그리스도인 예술가가 지역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지역으로 들어가 섬길 수 있는 한 작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33> 예그리나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역 합창단들과 연합공연



동네 작은 음악회 찾아가기

함께 노래 부르기는 큰 공연장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역 내의 작은 공연장과 작은 모임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자는 마을의 작은 공연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가들의 공연에 연주자나 편곡자, 때로는 기획자로 함께 참여하여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선 지역 예술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연주자로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다. 누가 대신 할 수 없는 나만의 음악세계와 실력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을 때, 지역의 예술가나 관객들과 더 자주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 음악가들은 실력있는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할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 연구자는 이들과 함께 동네 작은 공간을 찾아가 소규모 공연을 진행하기도 하고, 팀을 만들어 학교로 찾아가 공연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숨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과 좋은 예술 공간들도 만나게 된다. 문화예술공간 ‘나니아의 옷장’ 과 대표 이재운 목사도 그렇게 만난 지역의 그리스도인 예술가 중의 한 명이다. 그 공간은 주일에는 ‘주님의 숲 교회’ 의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평일에는 그리스인 예술가와 의미 있는 공연을 하기 원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공연장으로 사용된다. 작은 교회이지만, 문화예술 지경에서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보석 같은 공간이다. 본 연구자도 이곳에서 ‘씨앗의 꿈’ 의 음반 발매기념 공연을 했고, 다른 예술가의 음반 발매 공연에서 연주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림34> ‘씨앗의 꿈’ 음반 발매 기념 공연



마을을 찾아다니며 한 공연으로 대표적인 공연은 ‘숨은 그린 찾기’ 프로젝트이다. ‘그린트리예술창작센터’ 의 이진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공연 프로젝트는 마을에 숨어 있는 크고 작은 공연장들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것이었다. 소극장, 아파트 사랑방, 장애인복지관, 야외 공원, 구민청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찾아가서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를 열고, 삶과 꿈을

나누었다.

<그림35> 숨은 그린 찾기 크리스마스 공연



‘숨은 그린 찾기’ 이러한 지속적인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만남들은 ‘함께 노래 부르기’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중의 하나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만남이다. ‘숨은 그린 찾기’는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마을 잔치에 초대되어 함께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과 더불어 장애우들의 공연을 도왔다. 장애인 예술가들이 공연을 할 때 반주를 하기도 했고, 장애인들과 복지관의 직원들과 미리 만나 합창 연습을 한 뒤에 마지막 순서에는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합창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과 그들을 섬기는 귀한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린36>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행사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연주자자 기획자로 참여하는 것 말고도 공연에 참여할 방법은 또 있다. 이것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공연자가 아니라, 관객으로 참여해서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지하며 응원하는 것이다. 같이 공연에 참여해서 누군가 준비한 음악을 즐기고 공감하며 함께 하는 것도, ‘함께 노래 부르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부분이다.

관객은 그 존재 자체가 예술가를 위한 격려요 위로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갈고뒸운 숨씨를 가지고 관객을 섬기고, 관객은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알아봐 주고 감동하고 손뼉을 치고 응원함으로 예술가들을 섬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는 없다. 모든 관계는 상호적이다. 그러므로 예술가로서 음악이나 작품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동시에 다른 예술가들의 공연이나

전시 등을 찾아가서 그 작품을 감상하고 경험함으로써 그들을 섬기는 법도 함께 배워야 한다. 그렇게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될 때, ‘함께 노래 부르기’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정신을 따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은 앞에 서서 가르치는 것만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이 주관이 된 모임에 관객이 되어 함께 즐기고, 스탭이나 도우미로 참여해서 그 필요를 채워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작은 활동들 또한 ‘에픽(EPIC)적 함께 노래 부르기’의 중요한 요소이다. 내가 뭔가를 하고,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함께 노래 부르기’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없다.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모임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지지해주고 격려할 때,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서로 섬기고 돕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은혜와 사랑이 세상 곳곳에 조용히 흘러 들어갈 것이다.

문화예술로 담아내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그래서 예술 작품 속에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림에도, 노래에도, 건축물과 문학작품 속에도 이야기가 있어 우리는 예술 작품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다만 ‘커다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작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뿐이다.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는 ‘절대적 진리에 복종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 줄 수 있는 작은 이야기들이다. 자신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아픔을 치유할 이야기, 허무하고 고단한 현실을 잊게 해 줄 꿈과 희망의 이야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의 존재의 근원을 밝혀 주고, 이 땅에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참된 이야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또 질문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정답을 찾지는 못한 채 진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다시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그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다. 존재에 관한 질문도,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슬픔과 아픔에 관한 질문도, 삶의 가치와 의미에 관한 질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안에서 다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세상에 던져 주어야 할 것은 ‘답’ 이 아니라 ‘질문’ 이다.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본질을 만드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 이라고 했다. 인간은 ‘질문’ 할 때, 살아난다. 질문을 잃어버리면, 상상력도 창의성도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본질, 즉 그 생명의 진실에서 떠나, 영땡한 곳에서 발견되기 쉽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위기는 ‘질문’ 을 잃어버린 데 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³⁶¹을 우상처럼 맹목적으로 숭배하면서도, 그 허망함을

³⁶¹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행7:48).

눈치채지 못한다.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묻지 않고, 하던 대로 한다. 또 남이 하는 대로 한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면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모두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답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묻지 않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우리의 삶에 있다. 세상이 정해 놓은 뻔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들에게 궁금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며 듣고자 할 것이다.

포스트모던 세계가 제공하는 문화에 길든 사람들은 질문하는 대신에,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숭배하기에, 이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이야기(meta-narrative)’가 없다고 믿고 있다. 모든 인류를 아우르는 보편적 진리는 없다고 외치면서, 파편화된 상대주의적 진리를 들고, 그것이 참이라 믿고 있다. 사실 ‘보편적 진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인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³⁶².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파편화된 진리의 조각을 들고서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지고 온 장님들처럼 자신의 말을 참이라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그 경험은 참일 수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 파편적인 앎을 진리라 믿으면, 참 진리가 왔을 때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렇게 현대인들은 온갖 종류의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하여 세뇌당한 것을 참이라 믿으며, 우리 곁에 인격으로 오셔서 함께 계신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

뭔가를 굳게 믿는 사람에게 또 다른 답을 알려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³⁶² 브랜드, *예술과 영혼*, 245.

오히려 다툼이 나고 갈등이 생길 뿐이다. 대신 우리는 그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나뵤의 경험과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이야기’, ‘그 거대한 사랑의 이야기’ 를 더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들려주고 보여 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낼 때, 그들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나뵤의 진리’ 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위대한 이야기 없이는 살 수 없다.’³⁶³ 자신의 존재와 삶에 참된 의미를 던져줄 거대한 이야기 말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믿고 있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그는 참 사랑이 필요하며, 그의 심연 깊숙이 그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허무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불의하고 악해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브랜드와 채플린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경이로움의 가능성을 열면서 상상력을 적립하고 있다. 세상에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잊어버린 질문을 일깨우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은 변함없이 기름진 토양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물과 햇빛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씨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³⁶⁴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스도인 예술가인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굴복시킬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가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자리로 깊숙이 찾아 들어가 그들이 알게 모르게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³⁶³ Ibid.

³⁶⁴ Ibid.

이야기를 거듭난 예술의 언어로 들려주는 것이다.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노래해 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도 세상 어디에나 가득한 이 사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함께 노래하며 자신도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부분임을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술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오직 인간만이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고, ‘이건 뭐지?’ 하고 질문하게 하는 것이다. 그 질문이 우리를 진리로 이끈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범 답안이 아니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맞추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물으며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 ‘길(방법)과 진리와 생명’³⁶⁵이 다름 아닌 ‘인격’이기 때문이다. 그 인격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긴 과정 없이는 결코 그 답을 알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분의 인격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이지, 답을 알아맞히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가 함께 노래 부르는 이유 또한 그것이 정답이어서가 아니다. 함께 노래 부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이웃을 알아가고, 그사이에 계신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 노래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래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개종 시켜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노래를 듣고, 아들이 온 삶이 담긴 노래로 응답했듯이,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릴 향해 함께 부르신 그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 노래를 듣고, 우리 또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노래하며

³⁶⁵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사랑할 때 우리의 상상력은 날아오르며, 우리는 가장 창조적인 상태가 된다. 이렇게 온 존재를 기울여 노래하며 ‘사람’이라는 우리의 존재의 진실을 나타낼 때,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형상의 회복되었음을 믿는 자마다, 함께 노래함이 마땅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그분의 몸 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각 사람에 두신 그 생명의 진실을 가장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힘써 나타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때, 순종하며 움직인 당신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중에 만난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의미 없는 작은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아름답고도 숭고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사랑 이야기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어쩌면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처럼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작은 조각은 결코 필요 없는 조각이 아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연결되고 맞춰질 때, 더없이 소중한 그 그림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진리는 ‘인격’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며, 주님을 통해서 회복된 창조적 상상력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예술에 담아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예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예배모임

얼마 전 본 연구자와 여러 차례 함께 공연했던 한 첼로 연주자가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할 공동체가 필요함을 나누었다. 교회 안에서 첼로연주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가족들과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분이다. 그러나 새로 출석하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적절한 소그룹을 찾지 못해 꽤 오랫동안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가 내게 요청을 한 것이다. 그럴 여력이 안 된다고 생각되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그 첼로 연주자가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해금 연주자와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번엔 두 사람이 함께 나를 만나 그 모임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왔다. 두 사람 다 공연 때마다 함께 하며 함께 중보하며 예배드리듯 공연에 참여했던 참으로 귀한 그리스도인 예술가였다. 이들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공연 중에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오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중보하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세상 속에 들어가 힘을 다해 섬기지만, 이를 위한 말씀의 공급과 나눔, 그리고 서로를 위한 중보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 요청이 마치 아시아로 전도여행 계획을 잡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한 마케도냐 사람들의 요청처럼 느껴졌다. 그리고는 그동안 이들 이외에도 ‘함께 노래 부르기’를 하는 과정에 만난 여러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워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을 기억해 냈다. 여러 예술가나 기획자들과 ‘음악감독’으로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의 마지막엔 ‘목사님’로 부르며 헤어졌던 경험들 말이다. 이런

대화들을 통해 이분들에게 정말로 이들의 예술가로서의 사역을 지지해주고 중보해 주며 이들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다려 줄 사랑의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가 논문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그분들의 요청으로 첫 모임을 가졌다. 두 분 외에 알고 있던 드러머 한 명과 베이스스트 한 명, 나를 포함한 다섯이 모였다.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조용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제목도 나누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역 교회의 목사님 한 분이 공간을 내어 주셨고, 우리의 모임을 응원하며 식사도 대접해 주셨다. 이렇게 이 새로운 공동체는 지역교회의 도움을 받아 작은 걸음을 시작하였다. 이 논문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진심으로 지지하며 함께 중보해 주고 있는 소중한 공동체이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스캇 펙의 말처럼 “공동체에는 노력과 희생 뿐 아니라 시간도 필요하다.”³⁶⁶ 이 모임이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는 모른다. 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답게 겸손히 순종하며 그 걸음을 따라갈 뿐이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할 것을 신뢰한다.

예술가들의 새로운 공동체

함께 노래 부르기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더 이상 기존교회에 다니는 것이 어려워진 가나안성도들도 있었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예술가들도 있었다. 모두 음악이라는 공동의 관심사와 음악을 통해 이 사회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싶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모든 공연 때마다 같이 공연을 하지 않지만, 여러 차례 공연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³⁶⁶ M. 스캇 펙,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박운정 역 (서울: 울리시즈, 2012), 115.

쌓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생각을 진지하게 나누며 음악에 대해, 사회에 대해, 심지어 종교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서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이 사람들과는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4-5명씩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서로의 예술 활동과 삶의 자리를 응원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종종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예술가와 문화기획자들의 모임이 몇 그룹이 있는데,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 또한 많은 힘을 누리고 격려를 받곤 한다.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거나 격려해 주고 있다. 이렇게 약간씩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노래 부르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콘서트를 할 때는 또 다 같이 모여서 힘을 모아 공연을 돕는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본 연구자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도 알고 있어서, 총감독으로 세상을 섬기고자 할 때, 본 연구자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며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군가의 도움과 기다림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 이 도움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 모두를 쏟아 부어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셨지만, 동시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셨다. 이런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본 연구자와 가까이서 관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본 연구자가 기독교의 목사인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들은 나와 내 종교를 존중하며, 그래서 내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걸음을 걷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 논문에 나누어진 많은 주장들은 사실 이들과의 대화와 예술 활동, 그리고 그 관계들을 통해서 얻어진 배움과 지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그들은 나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나도

그들의 성장과 삶을 돕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애를 쓰고 있다.

그 애씀은 단지 ‘복음전파’ 만이 아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짐이 있다면 함께 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전파’ 는 결코 성경공부나 지식의 전달로만 될 수 없다. 아무리 강력하게 진리의 말씀을 담은 케리그마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합당한 삶과 그들의 짐을 기꺼이 함께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 길이 없다. 인격적인 진리는 인격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신 이유이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놀라운 진리의 지식을 삶의 자리로 옮겨 내어 실천하는 ‘몸’ 이 없으면 온전한 복음전파도 없다. 복음은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단지 ‘깨달음’ 이 아니라, ‘깨달은 자의 삶’ 이다. ‘사랑’ 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의 섬김’ 이다. 아름다운 예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름답고 조화로운 음악과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삶이다.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르기’ 는 과편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로 초청한다. 사람들은 인격적인 신뢰가 바탕에 깔린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서서히 배워가게 된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노래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관련된 사람에게 흘러가며, 그 자연스러운 열매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이다

제 VI 장

결 론

요약

본 논문은 파편화되고 탈육신적이며 비인격화된 이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아이들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지나치게 경쟁적이며 비인격적인 구조 속에서 어떠한 저항도 못하고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어려움은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여기저기서 탄식과 신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 약한 사람들을 섬겨주셨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대신, 지쳐서 쓰러져 가는 그들에게 교회로 찾아오라고만 외치고 있다.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과, 사라져가는 주일학교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들을 찾아갈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이전부터 해오던 방식, 즉 사람들을 센터로 ‘끌어모아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중세적이고 근대적인 기독교제국(크리스텐덤)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어떤 공간으로 데려오는 것만이 선교요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교회가 ‘세상’ 이라고 규정지어 놓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은 ‘상상’ 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상하지 못하니, 시도하지 못했다. 그 시간은 길어졌고, 그러는 동안 교회가 갈라놓은 세상과 교회의 거리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섬김이 너무나 필요한 세상,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신의 몸을 해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마치 묶여 있던 쇠사슬마저 끊어버린 채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자신의 몸을 해치는 거라사의 광인처럼 말이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미친 사람 한 명을 살리기 위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큰 광풍이 이는 바다를 뚫고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친히 보여 주시며 그 광인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그 먼바다를 건너서 돌아오셨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를 몸소 찾아가신 이 모습이야말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다.

구속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제자를 삼으며,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모든 일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일에 실패했다. 그 결과,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핍박이 아니라),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다음세대는 세상에 빼앗기고 있다. 초등학교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간신히 교회에 나오던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면 교회를 잘 안 나오기 시작해서, 대학생이 되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다. 그렇게 4% 미만의 청년만이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된다.³⁶⁷ 이 수치는 기독교에서 ‘미전도 종족’이라 부르는 수치에 해당한다. 어쩌다가 한국의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는가? 교회가 ‘교회와 세상’을 둘로 나누어 놓고, ‘세상 속에서의 삶’이라는 영역을 포기한 채, ‘영혼 구원’과 이를 위한 ‘교회 생활’만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바울과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³⁶⁷ “청년연합 활성화, 근본대책 필요”, `한국기독교공보사설, 2018년 2월13일.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물로 받은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구속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빌1:27)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진실을 힘써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할 그 생명의 진실은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과 관련이 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맨 처음 사람에게 하셨던 ‘문화명령’, 즉 세상을 다스리라(창1:26-28)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 즉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16:15) 하신 ‘대위임령’이다. 이 두 명령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천국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스며들어 영향을 끼치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그가 살아가는 문화까지 변화시킨다.

사람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다시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문화는 중요하다. 그 문화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날 것이며,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드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화’가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본 연구자는 여러 예술의 영역에서도 음악, 그중에서도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 세상과 접촉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했다. 더 나아가 고통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진실인 인격성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했다.

먼저 성경과 신학, 인류가 남긴 역사와 인문학, 그리고 현대 과학과 의학이 ‘함께 노래 부르기’를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 개인이 어떻게 회복되고,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 더불어 희생과 섬김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야말로 이 사역을 위한 책임자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세상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동시에 ‘함께 노래 부르기’는 레너드 스윗 박사가 포스트모던 세계를 연구하며 찾아낸 네 가지 특징, 즉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 관계(Connection)’를 중시하는 에픽(EPIC) 문화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도구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먼저는 ‘경험(Experience)’를 소중히 여기는 포스트모던 사람들에게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그 변화된 경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또 다른 ‘참여(Participation)’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 나아가 그 참여의 과정을 통해 ‘사람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Image)’를 갖게 된 사람들은 새롭게 된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새로운 삶의 자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Connection)’ 가운데서 꽃 피우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자리임을 논증했다. 또한 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은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며, 그 작은 공동체들은 다시 ‘함께 노래 부르는’ 광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모든 주장의 근거는 이론이나 개념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

탈육신적이고 파편화되고 경쟁으로 가득한 포스트모던과 4차산업혁명의 세계 속에서 인격성을 잃어가며 그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과 사람들은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 인격성을 회복해 가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생의 의미를 회복해 갈 수 있다. 이들을 당장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아도,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맑은 ‘인격성’ 과 ‘인간의 존엄성’ , 그리고 ‘함께함’ 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도록 돕는 이 사역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성육신적 교회’ 의 걸음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는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존재해야 한다. 그다음엔 세상이 거룩한 교회와 접촉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찾아가 만나야 한다. 일단 이 방향이 정해지면,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공홀)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야 할 현장은 무궁무진하다. 본 연구자는 지역아동센터, 공립학교, 대안학교, 마을학교(혁신교육), 장애인센터, 부모교육과 교사교육 현장, 인문학 모임, 각종 문화예술 공연장과 대규모 연합 콘서트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과 교육의 영역을 중심으로 찾아가서 섬긴 실제 모습들을 공개함으로써, 교회 안에 얼마든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섬길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 상상력’ 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전의 가치와 틀에 매여 있으면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상을 할 수 없고, 상상하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한다. 즉 순종할 수 없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일은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 주셨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해 막혀 있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상상력을 열어 주셨다. 하나님 없는 이미지, 즉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회복된 상상력과 창의성,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참 사람’ 의 진실과 공홀의 마음,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진실을 회복하고 나타낼 때, 사도바울이 에베소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보여 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³⁶⁸을 나타내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믿음으로 본 그 비전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세상에 뿌려진 또 하나의 씨앗이 되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눈물과 땀이란 습기를 통해 싹을 틔우고 자라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날 것이다.

교회를 위한 제언

교회의 방향은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성육신적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이 선교의 최전방이다. 말씀이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실재가 되게 해야 한다. 세상을 찾아가 섬기신 예수님의 섬김이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행해져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모습은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겸손한 섬김’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교회의 모습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당연히 예배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배의 현장이 삶의 모든 자리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구속’ 받은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문화’를 다스리고 기경해야 할 소명을 받았다. 몸을 가진 사람이기에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마음을 담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예술가’들이다. 교회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을 지지하고 섬김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다. 그리스도인

³⁶⁸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엡 1:22-23).

예술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문화를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역자로서 예술 활동을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이고 ‘성육신적’ 삶을 살 수 있다.

동시에 교회는 그들의 이 걸음을 위해 말씀을 공급하고 중보하고 지지함으로

‘성육신적 교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구체적인 섬김을 위해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제안해 본다.

첫째, 교회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삶과 사역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예술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을 ‘문화선교사’로 인식하고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듯

파송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 중보하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사역 또한

응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다. 그들의 창작과 연주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들의 교회 밖에서의 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 지지해 줄 수도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가 아예 세상에 주저앉는 경우가

있다. 좋은 예술로 세상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세상 속에서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 보내는 교회의 제사장이다. 그들이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적 사역과 세상의 문화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

창조자’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물질적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회는 세상으로 찾아가는 성육신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둘째, 전도가 아니라 섬김을 목적으로 찾아갈 수 있다. 교회의 세상에서의

거의 모든 사역들은 소위 ‘전도’에 집중되어 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 아니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위임장을 크게 오해한 것이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사람들을 단지 예배당에 오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밖에 길이 없다. 우리가 먼저 성육신 하신 주님을 따라 성육신적 삶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때 우리가 가진 삶의 방식과 소망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생기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리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라는 목적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냥 섬기는 것’ 부터 훈련해야 한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 로 상정하는 순간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상화’ 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특히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성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문화 사역’ 은 말 그대로 받을 ‘기경하는’ 사역이다. 이제 막 땅을 갈아 엮고 있는데 열매를 요구하면, 이 사역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이 인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이다. 모든 생명의 일은 시간이 걸린다.

세제, 교회 건물을 함께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예술가들을 지원했다면 이제 이미 있는 교회의 건물을 세상을 위해 내놓을 수 있다. 이미 많은 교회에서 시도하고 있는 노력이기도 하다. 교회의 건물을 지역이나 마을에서 마을이 원하는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 주는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 마을의 공공 모임이나, 공연과 교육 등,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세상이 자꾸 교회의 문턱을 밟을 수 있도록 문을 낮추고 열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영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야 한다. 세상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된다.

그들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회가 먼저 지역의 필요를 보고, 그들이 편안하게 다가 올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능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다. 우리가 기도하며 이미 주신 것으로 세상을 섬길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지성소와 성소는 작지만, ‘이방인의 뜰’은 아주 넓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넷째, 그리스도인 예술가와 문화예술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예술가들을 지지할 수 있다. 교회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나아갈 예술교사 양성이나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교회 차원에서 하기 힘들다면 총회나 노회, 혹은 신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장을 마련할 수 있다. 그동안 교회 안의 음악사역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었다. 지휘자, 반주자, 예배인도 같은 교회 안의 음악사역을 위한 학교나 프로그램은 많은데, 그리스도인 예술가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총회나 노회, 혹은 신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교회에는 사역자와 재정을 지원함으로 세상을 섬길 훈련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을 배출 할 수 있다. 각 예술영역의 훈련된 사람들을 강사로 모시고, 문화예술과 예술교육의 영역에서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을 모아서 이론과 실제를 가르쳐 주고, 훈련시켜 주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중보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교회에 아직 힘이 남아 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이다.

부록

부록1. 동요앨범 ‘씨앗의 꿈’ 음반 표지	356
부록2. 동요앨범 ‘씨앗의 꿈’ 가사와 해설; 동요에 담은 하나님 나라	360
부록3. 동요앨범 ‘씨앗의 꿈’ 악보	379
부록4.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와의 인터뷰	392
부록5. 창의예술교육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계획서	399
부록6. 초등 예술교육을 위한 제언	402
부록7. 중현초등학교 합창발표회 순서지	404
부록8.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 포스터 및 연출노트	406
부록9. 세월호 5주기 <기억문화제> 포스터 및 연출노트.....	415
부록10. 역사문화콘서트 [씨알의 소리] 포스터 및 연출노트	423
부록11.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연합콘서트 [손에 손잡고]의 포스터와 리플릿....	452
부록12. 브라보마이라이프 공연 포스터 및 참여자 인터뷰.....	454

부록1. 동요앨범 ‘씨앗의 꿈’ 음반 사진 및 악보



함께 한 사람들

프로듀서 _ 민경찬
 작사 작곡
 편곡 노래지도 _ 민경찬

해금 _ 이유라
 첼로 _ 김미성
 기타 _ 안기정
 베이스 _ 나상운
 드럼&퍼커션 _ 윤현상
 건반 리코더 하모니카
 트럼펫 클라리넷 _ 민경찬

노래 _ 민가은, 민지후,
 민서현, 민관홍(홍내놀이)
 _ 황효원, 박려한
 (날마다, 홍내놀이)
 합창 _ 소나무 합창단

작사 _ 임희옥(거저래, 홍내놀이)
 앨범 디자인 _ 김은혜
 녹음 _ 나니아의 옷장, 극동방송, 모리아
 녹음엔지니어 _ 이재윤, 정문수, 윤성효
 믹싱 마스터링 _ 이재윤(나니아의 옷장)

씨앗의 꿈

새로 이사를 온 집 뒷뜰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려고 보니 땅이 딱딱하게 굳어있네요. 아이들과 함께 먼저 오래 묵어 굳어 있는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진짜 힘든 일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 아닙니다.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한창을 갈아엎다 보니 이마에 땀이 송글 송글 맺힙니다. 갈아엎어 부드러워진 땅에 거름도 뿌려주며 땅을 고르고 정성스레 씨를 뿌립니다. 살짝 흙을 덮고 흙벽 물을 주고 나면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싹이 올라왔나 텃밭으로 나가봅니다. 물론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정말이지, 너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기다리다지쳐 기다리는 일을 포기 할 즈음, 마당에서 탄성이 나옵니다. 우와! 새싹이다! 아주 작은 연두빛 새싹들이 줄을 지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닌데, 그저 아주 작고 연약한 싹일 뿐인데, 우리를 경탄하게 하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씨앗은 위로 자라나 싹을 틔우고 싶습니다.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없이 돌아오는 새싹은 없습니다. 기다림 없이 자라나는 나무도, 기다림 없이 얻을 수 있는 열매도 없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씨앗 속에 담겨진 꿈의 열매를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그 꿈을 힘써 가꾸어가는 어느 날,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작고 까만 씨앗 속에 숨어 있던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고마운 사람들

동요를 만들며 아이들과 노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스태프포 아카데미의 최승권대표님과 SA 칠드런의 아이들, 참사랑지역아동센터의 박미애센터장님과 '함께 노래해요'의 주인공인 센터의 친구들, 은행초등학교 김관숙교장선생님과 박순희선생님, 송경원 장윤정선생님, 그리고 '무지개합창단'의 실제 주인공 은행초 무지개합창단의 잊을 수 없는 친구들, '소나.무.합창단'을 열어 주시고 한결같은 신뢰와 믿음을 열어 주신 송천동지역아동센터의 오세옥센터장님과 박안나 사현진선생님, 그리고 소나.무합창단의 소중한 친구들, 부족한 목사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세필교회 성도들, IBL의 강경균대표님과 필리핀의 친구들, 앨범 전체의 녹음과 믹싱 마스터링까지 기쁨으로 해 주신 나리아의 옷장의 이재운목사님,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예쁜 자켓을 만들어 주신 김은혜선생님, 하늘 나라에 계시지만 이 앨범을 가장 기뻐하실 아버지 민정웅목사님, 내게 참 많은 것을 담아 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임수영사모님, 나에게 귀한 딸을 보내 주시고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인장모님(강하성 이현숙), 곁에 계시며 든든한 지지와 기도를 보내 주고 계신 소중한 후원자님들(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노래의 내용이 되어주고 부족한 아빠를 믿고 따라 주는 사랑하는 딸 가은 지후 서현, 그리고 아들 관홍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며 가장 많이 애쓰며 곁에 있어 준 사랑하는 아내 강덕임, 그리고 이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 이 아름답고 소중한 이름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4 씨앗의 꿈 1=81

목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신비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알수 없죠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 갈 때
모두가 보게 될 거야

씨
앗
의
꿈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눈이 열려 우리
아이들 안에 담긴 엄청난 가능성을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 생명의 꿈을 이루기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꿈을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 '사과 속의 씨앗은 셀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 이
문장은 김수경 작가의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중에서 발췌한
문장입니다.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합니다. 소중한 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씨앗의 꿈

작사 작곡 민경찬

씨
앗
의
꿈



목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렸 조
 짝이나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 는



물도주고 거름도주며 열매를 기다려 요
 신비한 생명의비밀을 우리는 알수 없 조



사과속의 씨앗은 셀수있지만



씨앗속의 사과는 셀수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 - 지 - 만



우리가 힘써가꾸어갈 때 모두가 보게 될 야



부록2. 동요앨범 ‘씨앗의 꿈’ 의 가사와 해설: 동요에 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본 연구자는 ‘씨앗의 꿈’ 이라는 동요 앨범을 만들고 이 노래를 들고 지역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 다니며 노래를 가르치고 이야기를 전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들을 만나 다시 노래를 가르치고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노래는 동요였지만, 그 안 담은 내용과 언어에는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상징과 은유로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요들은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좋은 반응을 보였고, 실제로 그 의미를 물으며 음원을 구했고,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해 음반을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음반 안에 기독교적 용어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메시지를 담고자 노력했다. 음반에 기록한 노래 가사 옆에는 음악의 속도를 나타내는 숫자를 기록했는데, 그 숫자는 실제 사용한 메트로놈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편의 장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다. 각 노래의 최종 속도를 정할 때, 시편을 펴서 읽으며 의미가 연결되는 시편의 장을 메트로놈의 속도로 정했다.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감추어 두었다. 이런 감추어둔 이야기들이 음반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특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이와 같다.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의 세계이다. 이 논문에서는 동요 음반에는 담지 못했던 기독교적 의미를 간략하게나마 기록하였다. 먼저 동요 가사를 적고, 이어서 음반에 실은 동요에 대한 설명을 쓰고, 그다음에 그 곡에 담긴 기독교적 의미를 담은 해설과 관련한 성경 구절을 기록했다.

1. 봄비

소리 없이 봄비가
 밤새 땅을 적셨네요
 산과 들이 반가워
 활짝 웃네요

추운 겨울 메마른 땅
 긴긴 시간을
 하늘 향해 팔 벌려
 애타게 기다리던

나무들도 신이 나서
 봄비를 맞이하니
 봄의 생명 움트고 나와
 연듯빛 세상으로

하루 종일 토닥토닥
 봄비가 땅을 적시네요
 온 세상이 반가워
 활짝 웃네요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대지 위에 봄비가 찾아옵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오랜 추위를 견뎌낸 생명들을 깨우고 다시 살게 합니다. 산과 들도 반가워 연듯빛 웃음꽃을 피워냅니다. 추운 겨울, 메마른 땅, 그 긴긴 시간을 하늘 향해 팔 벌려 봄비를 기다리던 산과 들의 나무들도 신이 나서 봄비를 맞이합니다. 깊은 곳을 숨어 흐르던 봄의 생명이 두꺼운 껍질을 뚫고 나오니, 온 세상도 함께 깨어납니다. 봄비도 뿌듯합니다. 하루 종일 토닥토닥 메마른 대지를 적시니 온 세상이 반가워 활짝 웃습니다.

[해설] 대지는 흙으로 지어진 우리네 몸이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의 비유를 하실 때 말씀하신 그 밭입니다. 메마르고 얼어붙은 그 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의 단비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땅은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단비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 향해 뻗은 나뭇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그 땅을 촉촉이 적실 때, 그 땅이 다시 숨 쉬고, 다시 일어나 생명의 싹을 틔워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요엘2:23).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시84:6).

2. 봄바람

퐁퐁 얼어붙은 겨울 들판에
솔솔 봄바람이 불어오며는
꼭꼭 숨어있던 봄의 생명이
살며시 살아나지요

톡톡 봄비 내려 땅을 적시면
연두빛깔 새싹들이 고개디밀고
예쁜 꽃봉오리 활짝
미소지며 피어 나듯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어붙은 마음 있다면
마음 가득 봄바람이 불어와
다시 살아나기를

봄바람아 불어 오너라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게
온 세상의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 나도록

겨울바람이 매섭습니다. 살을 에는 차가운 바람이 마음마저 얼려버리는
듯합니다. 봄이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도무지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봄이 올까요. 봄이 오긴 하는 걸까요? 바람이 차가울수록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깊어갈수록 간절함도 커져갑니다. 간절함이 닿았을까요? 언제부터인가, 어디서부터인가 봄바람이 살며시 불어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그 무섭던 바람도 힘을 잃습니다. 무서웠던 겨울도 봄바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바리케이트를 쳐 놓고 막으려 해도 봄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언 땅이 녹고, 땅속 깊이 숨어 있던 연둣빛 생명들이 피어나입니다. 그 생명들은 도대체 어디 숨어 있었을까요?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숨죽이고 기다리던 봄의 생명이 피어나니 봄바람이 연둣빛 미소를 짓습니다. 온 세상을 피어나게 하는 아름다운 봄바람이 우리네 마음에도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곳곳에 숨어 있는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 불어와 그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없는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겔37:6) 생기의 히브리어 [루아흐]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생명의 호흡입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퐁퐁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고, 차갑게 얼어붙은 우리네 마음을 녹이는 봄바람이 바로 이 ‘루아흐’ 입니다. 사망을 당한 마른 뼈에 불어온 생기요, 얼어붙은 우리네 마음에 불어온 생명의 호흡이요, 온 세상을 살아나게 할 성령의 바람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네 삶의 자리, 미움과 시기 질투로 인해 얼어붙은 우리네 마음, 탐욕으로 인한 분열과 전쟁의 소문과 절망 가득한 이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생기야 사망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봄바람아 불어오너라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게 온 세상의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가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에스겔36:26).

3. 거저래 - 작사 임희옥, 작곡 민경찬

추운 겨울이 아직도
안 떠났는데
따뜻한 햇볕은 거저래
그냥 주신대

목말라 시들어가는
잔디밭에
촉촉히 내리는
비도 거저래

너도 내게도 필요한
싱그러운 공기도
세상의 소중한 모든 것은
모두 거저래

세상의 소중한 모든 것은 거저랍니다. 가치가 없어서 거저가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어서 거저랍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스한 햇살도, 생명을 살어나게 하는 촉촉한 봄비도, 우리를 숨 쉬게 하는 싱그러운 공기도 모두 거저랍니다. 알든 모르든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은 빛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큰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도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귀한 것을 나누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우리는 다 타죽을 것입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 죽겠지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행17:25)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 (행17:28)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릴 살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 중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시편104:2).

4. 씨앗의꿈

목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신비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알수 없죠

사과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 갈때
모두가 보게 될거야

새로 이사를 온 집 뒤 뜰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려고 보니 땅이 딱딱하게 굳어있네요. 아이들과 함께 먼저 오래 묵어 굳어 있는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진짜 힘든 일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 아닙니다.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한참을 갈아엎다 보니 이마에 땀이 송글 송글 맺힙니다. 갈아엎어 부드러워진 땅에 거름도 뿌려주며 땅을 고르고 정성스레 씨를 뿌립니다. 살짝 흙을 덮어 주고 나면 이제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다음날아침, 아이들은 싹이 올라왔나 텃밭으로 나가봅니다. 물론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기다리는 일은 정말이지, 너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기다리다 지쳐 기다리는 일을 포기 할 즈음, 마당에서 탄성이 나옵니다. 우와! 새싹이다!! 아주 작은 연두빛 새싹들이 줄을 지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닌데, 그저 아주

작고 연약한 싹일 뿐인데, 우리를 경탄하게 하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싹앗은 위로 자라나 싹을 틔우고 싶습니다.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기다림 없이 돌아나는 새싹은 없습니다. 기다림 없이 자라나는 나무도, 기다림 없이 얻을 수 있는 열매도 없습니다. 싹을 뿌렸으면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싹앗 속에 담겨진 꿈의 열매를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기다림이 이어지던 어느 날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작고 까만 싹앗 속에 숨어 있던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해설] 이 노래에서 말하는 싹앗은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한 그 싹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싹)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족속)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싹)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3:16) 또한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말한 바로 그 싹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싹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싹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벧전1:23) 그 싹앗은 말씀이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싹앗의 꿈’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꿈이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발인 우리 안에 두신 생명의 꿈이며, 썩지 않을 영원한 꿈입니다. 사실 그 꿈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셨기에 우리도 소망하며, 힘써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소중한 일은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 편에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실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시간이며, 우리로 그 생명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경이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더욱 힘써 우리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 아버지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시고, 소원을 품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꿈을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5. 날마다

매일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새싹처럼
 우리들도 조금씩
 자라나지요

나무가 자라나는 걸
 눈으로 볼 순 없어도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듯
 우리들도 나무처럼
 아무도 모르게
 날마다 자라나지요

날마다 날마다
 하루에 하루만큼씩
 참 사랑과 격려의 말
 마음에 품고

오늘도 우린 자라나지요
 내일도 우린 자라나지요
 날마다 우린 자라나지요

아이들은 날마다 자라납니다.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자라나고 있듯이,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인식과 상관없이 날마다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러나 마냥 자라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라날 수 없는 추운 겨울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우리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자라기 전에 땅 아래로 자라나고, 안으로 깊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그 자라남을 보고, 이 긴 시간을 기다려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해설] 생명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다고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밀스럽게 그 나라가 자라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생명도 그러합니다. 나무가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라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용납해 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안에 ‘하나님의 형상’ 을 두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말로 아이들을 격려하며 기다려 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막4:26-17).

6. 굴렁쇠

동글동글 굴렁쇠야 어디가니
 돌돌 굴렁쇠야 어디가니
 들판을 지나 언덕을 넘어
 동글동글 굴렁쇠야 어디가니

멈추면 넘어진다 힘을내거라
 얼씨구나 신나게 달려가보자

떼구르르 뿔떼구르 잘도굴러간다
 햇살 가득 품에 안고
 떼구르르 뿔떼구르 멀리굴러간다
 온 세상 끝까지

온 세상 아이들아 모두모여라
 다 함께 굴러보자 돌돌굴렁쇠

떼구르르 뿔떼구르 잘도굴러간다
 햇살 가득 품에 안고
 떼구르르 뿔떼구르 멀리굴러간다
 온 세상 끝까지

룰루룰루 룰루룰루 룰루룰루
 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

들판을 지나 언덕을 넘어
 둥글둥글 굴렁쇠야 어디가니

굴렁쇠는 혼자 굴러갈 수 없습니다. 굴러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굴렁쇠가 기다리는 친구는 억지로 굴러줄 친구가 아닙니다. 굴렁쇠를 굴리며 함께 놀 친구입니다. 함께 놀 때 힘이 납니다. 신나게 놀다보면 혼자서는 갈 생각도 못하던 너른 들판도 건널 수 있고, 혼자서는 넘을 수 없던 언덕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 언덕 너머에 살던 또 다른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놀 수 있습니다. 함께 놀며 신나게 굴렁쇠를 굴러 봅시다. 온 세상의 아이들을 다 만나 함께 웃으며, 둥글 둥글 이 지구를 즐거운 소리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12:3)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All Nations)’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은 것,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위한 일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그 다양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놀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웃음 지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시105: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시100:1-2).

7. 함께 노래해요

함께 노래하는 이 시간
 정말 즐거워요
 모두 마음을 열고 즐겁게
 노래 불러봐요

세상 모든 만물들도
함께 어우러져 노래하듯
우리들도 하나 되어 함께 노래해요

모두 함께
랄라랄라 랄라랄라
손에 손을 잡고
랄라랄라 랄라랄라
함께 노래해요

나만 생각하면 안되죠
함께 있잖아요
나만 힘이 든 게 아네요
서로 돌아봐요

때론 지쳐 힘이 들고
때론 실수하여 넘어지지만
서로서로 잡아주며 함께 일어나요

모두 함께
랄라랄라 랄라랄라
손에 손을 잡고
랄라랄라 랄라랄라
함께 노래해요

귓가에 스치는 바람 소리, 줄줄줄 흐르는 시냇물 소리, 멀리서 들리는
뼈꾸기 소리, 나뭇가지를 흔들며 뛰어다니는 청설모 소리,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연주합니다. 그 많은 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들도 하나 되어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면 어우러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곁에 있는
친구들도, 늘 도와주시던 엄마 아빠도 선생님도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때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함께 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로 손 내밀어 잡아주고 일으켜
주면 풀렸던 다리에도 다시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노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설]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노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습3:17) 하나님의 이 노래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노래합니다. 혼자 노래하지 않고, 함께 자녀 삼으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노래합니다. 자신의 힘겨움과 아픔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며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일어섭니다. 함께 노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함께 노래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릴 향한 하나님의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에 화답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엡5:18-19).

8. 무지개합창단

빨주노초파남보가모여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이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모여
멋진 세상 만들어 갈 우리되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졌지만
마음 모아 목소리도 모아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해요

기뻐뛰며 함께 노래해

서로를 향하여 맘 열고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하나의 노래를 부르자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아름답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만의 색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빛깔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빨 주노 초 파 남 보... 너무도 다른 일곱 색깔이 모여서 아름다운무지개를 이룹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은 비교하고 경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데 어우러져 더 큰 아름다움을 빚어내기 위함입니다. 소프라노가 베이스와 어우러지기 위해 베이스처럼 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음성으로 베이스는 베이스의 음성으로 노래하면 됩니다. 하지만 함께 하려면 서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 소리를 조율하고, 화음을 맞추기 위해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지개는 그냥 두어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는 저절로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내 소리를 줄이며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소리가 어우러지기 시작하면,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화음이 터져 나옵니다. ‘나와 다른 너’ 를 나처럼 만들려 하지 말고, 반대로 ‘너와 다른 나’ 를 너에게만 맞추려고도 말고, 내게 주어진 나의 선율을 화음을 맞추어 불러봅시다. 때로는 유니즌으로, 때로는 화음으로 노래하며 함께 하는 기쁨을 만끽합시다. ‘너와 나’ 는 다르지만 ‘우리’ 가 되어 하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해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133:1) ‘너’ 없이 ‘나’ 를 온전히 인식할 길이 없습니다. ‘나’ 는 ‘너’ 를 통해 ‘나’ 를 보고, ‘너’ 또한 ‘나’ 를 통해 자신을 알아갑니다. 너와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나와 너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된 ‘우리’ 인 것을 볼 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인 것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

9. 매미 합창단

멤 멤 멤 멤
매미 한 마리가
노래 부르니

멤 멤 멤 멤
매미 두 마리가
따라 부르네

멤 멤 멤 멤
매미 세 마리가
노래 부르니

멤 멤 멤 멤
매미들이 모두
합창을 하네

멤 멤 멤 멤 멤 멤 멤
멤 멤 멤 멤 멤 멤

어느 초여름 아침, 갑자기 창문 밖에 있던 숲에서 매미 한마리가 울어댁니다. 멤멤멤- 웬지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매미가 마치 화답을 하듯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얼마 안 되서 또 다른 매미가 합세를 합니다. 다음순간, 순식간에 수많은 매미들이 합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아침, 매미들의 합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노래하기위해 혼자 노래 불러야할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뻔쫂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에 화답할 친구가 생길 때까지 더 노래할 수 있다면, 이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던 그 매미의 노래를 기억하며 나도 노래합니다. 함께 노래할 친구를 기다리며..

[해설] 우리들이 부르는 이 생명의 노래는 먼저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첫 열매 되시고, 만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먼저 노래하십니다. 함께 부를 친구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노래(부르심)에 응답하는 친구가 생기면, 또 다른 친구가 응답합니다.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노래하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명을 다해 노래하며 우리 존재의 진실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10. 흥내놀이 - 작사 임희옥, 작곡 민경찬

나는 나비처럼 날 순 없지만
 훨훨 아름답게 춤을 출 거야

고양이처럼 담 위로 오를 순 없지만
 살금살금 살그머니 걸어갈 거야

나는 곰처럼 크지 않지만
 포근하게 친구들을 안아줄 거야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 수 없지만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어 볼 거야

캥거루처럼 멀리 뿔 순 없지만
 뿔 거야 높이 높이 더 높이

나는 할 수 있어 흥내 놀이
 뭐든지 똑같이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더 많습니다. 계속하다보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집니다. 더 잘하게 되고, 더 근사하게 됩니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너무 잘하려 하다 보면 긴장됩니다. 몸과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면, 함께 놀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교와 경쟁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시도하며 함께 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Image)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동시에 회복된 ‘상상력(Imagination)’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창조해 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안에 담아 두신 우리 생명의 진실입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잘 못 해도 괜찮습니다. 멋드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날마다 넘어져도 날마다 일어서서, 날마다 걷기를 시도할 때 어느 날 걷게 되듯이, 우리도 계속 시도할 때,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진실에 순종하여 그냥 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11. 옆을 볼 자유(꿈틀리 인생학교 교가)

답답한 도시를 떠나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
나의 삶의 참 의미를 찾아

어제의 나를 떠나
오늘도 새로운 길을 가네
나의 삶의 참 의미를 찾아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서 있는지
질문하며 함께 걸어가네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한눈을 팔아도 괜찮아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면 돼

옆을 볼 자유를 함께 누리며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되어 함께 걸어가네
 꿈틀대는 우리의 꿈을 위하여
 더불어 함께 배우네

모든 것이 ‘입시’로 귀결되는 학창 시절, 그 걸음을 멈추고 쉬는 건,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멈추고 쉬기로 결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기 전, 1년 동안 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방향을 점검하며 참된 인생의 걸음을 걷고자 하는 ‘꿈틀리 인생학교’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과 만나 함께 ‘씨앗의 꿈’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이 인생학교에서 배운 가치들을 모아 함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앞만 보며 달려갈 것을 강요받던 친구들이 이제 ‘옆을 볼 자유’를 누리며 ‘더불어 함께’ 배우는 참 사람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하지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함께 붙들어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이 용기 있는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의 걸음을 지지하며 응원하고 이 노래를 함께 불러봅니다.

[해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생명을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그 삶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넘겨선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의 핑계를 대는 것도 비겁한 일입니다. 혹시 상황 자체를 다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그 상황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진실을 힘써 나타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자기만 위하지 않고, 곁에 두신 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누는 나라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재능은 나누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가진 것이 적다면 ‘궁홀히 여기는 마음’이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내가 더 빨리 가고, 내가 더 잘하려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갈 때 비로소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 겨울 들판에서

1.

겨울바람이 매섭습니다.
서늘한 바람 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죽은 듯 고요합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대지에는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죽은 듯 보이는
메마른 가지, 얼어붙은 땅 아래로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피어날 봄의 시간을 준비하며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춡고 메마른 이 겨울은
모든 생명이 잠시 안식하며
숨을 고르는 쉼의 시간입니다.

2.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과의 경쟁을 넘어
기계와도 경쟁해야 하는
무겁고 서늘한 세상입니다.

굳어 버린 얼굴과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은
차가운 바람이 썩썩 부는
겨울들판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겨울에 봄을 준비합니다.

눈 앞에 펼쳐진 절망의 들판 대신
곧 찾아올 봄을 바라보며
생명의 소망을 싹틔웁니다.

[해설] 이 연주곡은 원래 시편63편의 가사로 만든 예배곡
‘광야에서’ 이었습니다. 그 예배곡에서 가사를 떼어 내고, 같은 기도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마음으로 연주곡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그 예배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메마른 땅 지날 때
내 영혼 온 맘 다해 오직 주만 갈망합니다
주 예수 나의 왕 나의 힘 되신 주 하나님
주 예수 나의 주 주님만 경배합니다

갈 길 몰라 낙망하고 마음 답답할 때에
내 영혼 온 맘 다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 예수 나의 왕 나의 힘 되신 주 하나님
주 예수 나의 주 주님만 경배합니다

이 곡은 춥고 메마른 겨울 들판과도 같은 이 시대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 겨울 들판에도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며,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예배할 자리임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물이 가장 귀한 메마른 광야를 보낼 때 그 귀한 물보다 주님을 더욱
찾았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양모하나이다” (시편63:1)

부록3. 동요앨범 ‘씨앗의 꿈’ 악보

봄비

민경찬

Chord progression: Eb Cm7 Ab Eb/G Ab Eb/G F7 Bb7

소 리 없 이 봄 — 비 가 밤 새 땅 을 적 시 네 요

Chord progression: Eb Cm7 Ab Eb/G Ab Bb Eb

산 라 들 이 반 - 가 워 활 짝 웃 — 네 요 —

Chord progression: Fm Bb Eb Cm Ab6 F7 Bb

추 운 거 을 때 마 른 땅 긴 긴 시 간 을 —

Chord progression: Fm7 Eb/G G/B Cm7 Ab6 F7 Bb

하 늘 향 해 팔 벌 러 어 타 게 기 다 리 던 —

Chord progression: Ab Eb/G Cm7 Ab F Bb

나 무 들 도 신 — 이 나 서 봄 비 를 맞 이 하 니 —

Chord progression: Ab Eb/G Cm7 Ab F7 Bb

봄 의 생 명 뭉 트고 나 와 연 두 빛 세 상 으 로

Chord progression: Eb Cm7 Ab Eb/G Ab Eb/G F7 Bb7

하 루 중 일 툇 닥 툇 닥 봄 비 가 땅 을 적 시 네 요

Chord progression: Eb Cm7 Ab Eb/G Ab Bb Eb

온 세 상 이 반 - 가 워 활 짝 웃 — 네 요 —

봄 바람

민경찬

A^b A^b/C D^b B^bm7 E^b7 A^b
 $A^b(Add2)$ B^bm E^b7 A^b E^b7
 $A^b(Add2)$ B^bm E^b7 A^b
 D^b A^b B^bm E^b7 A^b A^b/C
 D^b A^b/C F B^bm B^b E^b7
 A^b C/G Fm Fm/E^b B^bm/D^b B^b7/D E^b7
 A^b C/G Fm F/E^b B^bm/D^b E^b7 1. A^b E^b7
 2. A^b B^bm Fm E^b7 A^b E D^bm7 D^bm/E^b E^b7 A^b

팡 팡 얼어붙은 겨울들 판에 술술 봄바람이 불어오며는
 꼭꼭 숨어있던 봄의생명이 살-며시 살-아나지요
 툭툭 봄비내려 땅을적시면 연두빛갈새씩들이고개디밀고
 예쁜꽃봉오리 활-짝 미소지며피어나듯이우리
 들의마음가운데 얼어붙은마음있-다면마음
 람아불어오너라 얼어붙은모든마음에게온세
 가득봄바람이불어와 다시살아나기를- 봄바
 상의굳은마음녹이고 다시살아나도록
 록 다시살아나도록

거저래

임희옥작사
민경찬작곡

C G/B Am⁷ Am⁷/G F D⁷ G

추운 겨울이 아직도 안 떠났는데 - 따

C G/B Am⁷ -/G Fm⁶ C/G G⁷ C

스한 햇별은 거 - 저 래 그 냥 주 신 데 -

Dm⁷ G C Am⁷ F D⁷/F# G(sus⁴) G⁷

목 말라 시 들어가는 잔 디 발 - 에

Dm⁷ G Em⁷ Am⁷ Dm⁷ D⁷ G(sus⁴) G⁷

촉 촉 히 내 리 는 비 도 거 저 래 -

F G Em⁷ Am⁷ F D⁷ G(sus⁴) G

너 도 내 게 도 필 요 한 싱 그 러 운 공 기 도 세

C G/B Am⁷ -/G Fm⁶ C/G G C

상 의 소 중 한 모 든 것 은 모 두 거 저 래

씨앗의 꿈

작사 작곡 민경찬

A^b E^b/G Fm Fm^7/E^b D^b B^b/D $E^b(sus^4)$ E^b
 목은 땅 을 갈 아엮 고서 씨를 뿌 렸 죠
 싹이 나 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 는

A^b E^b/G Fm Fm^7/E^b D^b E^b7 A^b
 물도 주 고 거름도 주 며 열매를 기다려 요
 신비한 생 명의비밀을 우리는 알수 없 죠

D^b A^b/C Fm^7 B^bm^7 E^b A^b D^b
 사과속 의 씨앗 은 셀수있 지 만 씨앗속 의

A^b/C Fm^7 D^b B^b7/D $E^b(sus^4)$ E^b A^b E^b/G Fm Fm^7/E^b
 사과는 셀수없 듯 이 지금은 비록 우 리의꿈 을

D^b B^b7/D E^b7 A^b E^b/G
 모두 볼 수 없 - 지 - 만 우리 가 힘 써

Fm Fm^7/E^b D^b B^bm^7 E^b A^b
 가 꾸 어 갈 때 모두가 보게 될 거 야

날마다

민경찬

B \flat Cm 7 F B \flat F 7 B \flat Dm 7 /A

매 일 매 일 조 금 씩 자 라 나 는 새 삭 처 - 럼 우 리 들 도

Gm Gm 7 /F Cm/E \flat C F(sus4) F E \flat F F 9 /E \flat

조 금 씩 자 라 나 지 요 나 무 가 자 라 나 는 - 걸

Dm 7 G Am 7 G 7 /B Cm 7 C/E F(sus4)

눈 으 로 볼 순 없 어 - 도 날 마 다 날 마 다 조 금 씩 자 라 나

F 7 E \flat F F(add9)/E \flat Dm 7 Gm 7 Gm 7 /F

듯 우 리 들 도 나 무 처 - 럼 아 무 도 모 - 르 게

E \flat E \flat /D C Cm 7 /F F(sus4) F 7 B \flat

날 마 다 자 라 나 - 지 - 요 (자 라 나 지 - 요) 날 마

Dm 7 Gm Gm 7 /F E \flat F

다 날 마 다 (날 마 - 다) 하 루 - 에 하 루 만 - 큼 - 씩

Dm 7 Gm 7 E \flat F Dm 7

(하 루 만 큼 씩) 참 사 랑 - 과 격 려 의 말 마 음 에 품 고

Gm 7 E \flat F 7 E \flat B \flat

오늘 도 우 린 자 라 나 - 지 - 요 (자 라 나 지 요)

굴렁쇠

자진모리

민경찬



함께 노래해요

민경찬

G D/F# Em Cm/Eb G/D C/D D G C/D D

G Bm7 C D G C/D

1.함께 노래하는 이 시간 정말 즐거워요
2.나만 생각하면 안돼요 함께 있잖아요

G Bm7 C D G B

모두 맘을 열고 즐겁게 노래 불러봐요 세상 모든
나만 힘이든게 아네요 서로 돌아봐요 때론 지쳐

Em Em7/D C D G C

만물들도 함께 어울어져 - 노래하듯 우 - 리들도
힘이 들고 때론 실수 하여 넘어 가지만 서 - 로서로

B Em7 Em7/D C A/C# D(sus4) D

하 나 되 어 함 - 께노래해요 모 - 두함께
잡 아 주 며 함 - 께일어나요

G B/F# Em Em7/D C A7 D

랄 - 라랄 라 랄라랄라 손에 손을잡고 -

G B/F# Em Em7/D C D G D

랄 - 라랄 라랄라랄라 - 함께 노래해요 - *D.S*

무지개 합창단

작사 작곡 민경찬

♩=133

B♭ Dm E♭ F B♭ Dm

빨 주 노 초 파 - 남 보 가 모 여 - 아 름 다운 무-
 소 프 라 노 엘 - 토 테 너 베 이스 - 서 로 다 른 목-

E♭ F B♭ Dm E♭ F

- 지 개 를 이 루 듯 이 서 로 다 른 너 - 와 내 가 모 여 -
 - 소 리 를 가 졌 지 만 마 음 모 아 목 - 소 리 도 모 아 -

B♭ Dm E♭ F(sus4) F B♭ Dm E♭ F

멋 진 세 상 만 - 들 어 갈 우 리 되 죠 예
 아 름 다운 화 - 음 으 로 노 래 해 요

B♭ Dm E♭ F(sus4) F B♭ Dm E♭ F(sus4) F

기 빠 뛰 며 - 함 께 노 래 해 서 로 를 향 - 하 여 맘 열 고

B♭ Dm E♭ F(sus4) F B♭ Dm E♭ F(sus4) F

너 와 내 가 - 우 리 가 되 어 하 나 의 노 - 래 를 부 르 자-

B♭ Dm E♭ F B♭ Dm7 E♭ F

- 예 예 - - 올 레!

매미 합창단

작사 작곡 민경찬

C(add2) G7
 맴 맴 맴 맴 매미한마리가노래부르니 맴 맴 맴 맴
 C C
 매미두마리가따라부르네 맴 맴 맴 맴 매미세마리가노래
 F G G7 C G C
 부르니 맴 맴 맴 맴 매미들이모두합창을하네
 C F(add2) G7 C
 맴 맴 맴 맴 맴 맴 맴 맴 맴 맴 맴

흥내놀이

임희옥작사 민경찬작곡

나는 나비처럼 날 순 없지만 훨훨 아름답게 춤을 출 거야
 나는 꿈처럼 크진 않지만 포근하게 친구들을 안아 줄 거야
 고양이처럼 담위로 오를 수 없지만 살금살금 살그머니 걸어 갈 거야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 수 없지만 엉덩이를 썰룩썰룩 흔들어 볼 거야
 캥거루처럼 멀리 뛸 순 없지만 뛸 거야 높 이 높 이 더 높 이 - (예!)
 나는 할 수 있어 흥내놀이 - 뭐든지 똑같이 할 수 있어

옆을 볼 자유

- 꿈틀리인생학교교가 -

사,곡 / 1기졸업생&민경찬

C(add2) C7/Bb Am7 Fm6/Ab Bb
 답답한 도시를 떠 - 나 - 익숙한 삶의 자리 - 를 - 떠 - 나
 어제 의 나 - 를 떠 - 나 - 오늘 도 새 로 운 길 - 을 - 가 - 네

C Bb Am7 Fm6/Ab Bb C
 나의 삶의 참 의 미 를 - 찾 - 아 나는 누구 인 지

C7/Bb Am7 Fm6/Ab Bb C Dm7
 나는 어디 에 서 있 는 - 지 질문 하며 함 께 걸 어 - 가 - 네

G(sus4) G7 Fmaj7 C/E Dm7
 잘 하지 않 아 도 괜 - 찜 아 한 눈 을 팔 아 도 괜

C/E Fmaj7 C/E D7 G
 - 찜 아 넘 어 질 때 도 있 겠 - 지 만 다시 일 어 나 - 면 되

F/G G C Cmaj7/E F C/E F G C G/B
 옆 을 - 볼 - 자 - 유 를 함 께 누 - 리 - 며 스 스 로

Am7 C/G F G(sus4) G7
 (Hu) 내 삶 - 의 주 인 되 - 어 날 가 꾸 어 - 가 - 네

C Cmaj7/E F C/E F G G#07 Am7 G F
 꿈 틀 대 - 는 우 - 리 의 꿈 을 위 - 하 - 여 더 불 어

G G7 C Cmaj7/E F C F G C
 함 께 배 우 네 (더 불 어 - 함 께!!)

광야에서

민경찬

Gmaj7 F#(sus4) F#7 Bm7 Bm7/A G(add2)

1. 물 이 없 어 목 이 마 르 고 메 마 른 땅 지 날 때
2. 갈 길 몰 라 낙 - 망 하 고 마 음 답 답 할 때

Em7 A A7/G D(add2)/F# Em7 A(sus4) A

내 영 혼 온 맘 다 해 오 직 주 만 갈 망 합 니 다 주 예
내 영 혼 온 맘 다 해 오 직 주 만 바 라 뵈 니 다

G(add2) D(add2)/F# Em7 A D(add2)

수 나 의 왕 나 의 힘 되 신 주 하 나 님 주 예

G(add2) D(add2)/F# Em7 A7 D(sus4) D

수 나 의 주 주 님 만 경 배 합 니 다

Copyright(c)20050318 민경찬
stairs71@naver.com

동요음반 씨앗의 꿈의 마지막 곡 '겨울 들판에서'의 원곡인 '광야에서'. 원래 예배곡으로 만들어진 곡인데, 가사를 빼고 '겨울 들판에서'라는 연주곡으로 편곡하여 공연 시작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했다.

예수님 저는

민경찬

G G/B C(add2) D(sus4) G G/B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님- 니다 오직주님 만- 이

1. C(add2) D(sus4) 2. C(add2) D(sus4) G G/B C D

나의 모든것 입- 니다 나의 모든것 입- 니다

G G/B C(add2) G/B C G/B

1. 자기를 비어 - 이 땅에 오신 주 사- 람이 되신 만
2. 자기를 낮추 - 고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 들 주

1. Am7 D(sus4) 2. Am7 D G G/B C(add2) D

물의 창조주 예수나 - 의주

G G/B C D G G/B

들어 오소서 나의 맘 가득히 주의 마음으로
들어 오소서 나의 삶 가득히 주의 생명으로

C D G G/B C D

나를 채우소서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G G/B 1. C D 2. C(add2) D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본체 나의 하나님 나의
오직 주 예수만 경배합니다

G G/B C(add2) D G G/B C(add2) D

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부록4.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인터뷰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의 김태은 교수가 송천동지역아동센터에 지역아동센터 교육에 관한 인터뷰를 위해 방문했고, 그때, 합창교사로 그 인터뷰에 응한 내용이다.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예술교사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2016년 당시 작성했던 원고를 공유한다. 앞에 다룬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중간중간 포함되어 있다. 인터뷰 중에 잠깐씩 나오는 SA 칠드런센터는 본 연구자가 교원으로 함께 하던 ‘보완교육기관’이다. 모든 교사가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교육 내용 중에는 직접적인 신앙교육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한 예가 될 수 있다. 인터뷰 중에 나온 철학과 가치들은 사실 다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내용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과 교사들이다. 이 내용들은 자신의 걸음에 대한 소명 의식이 없으면 사실상 따르기 어렵다.

[질문1.] ‘학교’ 방과후 아동지도경력, 대상 아동의 특성(연령, 가정환경 등 특이점) 담당과목은 무엇입니까?

- 1) 보완교육기관 SA 칠드런 합창 및 합주 (만4세부터 12세),
- 2) 지역아동센터
- 3) 학교 - 합창단, 창의체험수업(합창, 리코더, 하모니카를 포함한 음악수업) 놀이를 통한 음악 수업.

[질문2.] 아이들 방과 후 수업을 계획할 때 비중을 두는 가치나 철학과 그 철학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다. 아이들도 그렇다. 아이들은 사물이 아니라, 인격이다. 그런데 이 시대가 아이들을 기계 취급을 한다. 인격이나 존재가 중심이 아니라, 기능과 유용성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어려서부터 기계와 함께 자라나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기보다 ‘사물’로 인식하는데 익숙해진 아이들이 주는 공격성은 어른인 나로서도 상당히 힘들다. 쉽게 말하면 나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쓰다가 용도가 다 하면 버리면 그만인

기계로 대우할 때가 많다. 애나 어른이나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희귀한 시대이다. 그래서 더 이 철학이 중요하다. 그가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는 존엄하다! 이 인간존중의 철학이 내 교육 철학의 핵심이다.

- 교육의 본질은 성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아이들이 1)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고 2)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람은 혼자서 행복할 수 없다. 누군가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 아무리 기쁜 일이라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더 슬픈 경험이 되고 만다. 우린 함께 일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함께 노는 것’이다. 믿어주고 기다려주어야 한다. 일일이 교정하고 가르치려들수록 아이들은 스스로를 가치 없다 여기고,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행복한 꼴을 못 본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거칠지만 진정으로 신뢰해 줄 때 오히려 마음을 여는 포인트가 있다. 오히려 부모의 지나친 관심 속에서 시달리는 일반 아이들이 더 어려울 때가 많다. 부족함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 권위를 전혀 모르는 요즘 아이들에게 ‘듣기’를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듣는 훈련’을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을 통해 할 수 있다. 노래는 들어야 따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따라 부르는 이 시간은 아이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는 훈련을 위해 좋은 방법이다.

[질문3.] 학교 방과후 아동지도 교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는 무엇입니까?

1) 참사랑지역아동센터 동요대회 /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운 친구들로 구성된 센터에서 음악 수업을 했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메이저급 동요대회에 출연을 하였다. 이를 위해 담당자에게 몇 차례나 간곡한 편지를 써서, 아이들의 수준이 대회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는 어렵게 출전권을 따냈다.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 대회를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다. 이 일은 그 지역의 신문에도 나왔다.

2) 송천동지역아동센터 정기연주회, 그리고 큰 규모의 콘서트에 출연

- 3) 은행초등학교 합창단 - 함께 놀기! 졸업식 연주. 함께 놀아주기가 아니라, 함께 놀기!
- 4) 6학년 하모니카 수업 때, 폭력사건 - 한 초등학교 음악수업 때였다. 학생들이 음악실로 찾아와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시작하려고 내가 앞에 섰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한 학생이 뒤에 있는 학생에게 달려가서 마구 쳤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일단 맞은 친구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에 때린 학생을 데리고 음악실 밖으로 나갔다. 잔뜩 겁먹은 학생을 음악실 밖에 세워두었는데, 손목을 만지고 있었다. 때리다가 손을 다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손목 괜찮아?” 라고 물었다. 그러자 잠시 눈을 뚱그랗게 뜨더니, 눈물을 왈칵 쏟았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평소에도 거의 수업에 참여하지 않던 그 학생은 집에서 매일 아버지와 형에게 맞는 학생이었다. 폭력은 그 학생 집의 언어였던 것이다.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그 학생은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그렇게 폭력적으로 반응하곤 했었다. 학생의 눈물이 좀 그친 뒤에, 그날 한 행동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무시한 행동인지 잘 이야기 해 주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었다. 다시 음악실로 들어간 뒤에 두 학생은 화해를 했고, 그 후로 그 학생은 수업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큰 위기였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그 반 수업시간이 더욱 좋아지게 되었다.

[질문4.] 가르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지도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이 개선된 사례는?

- 행정적인 어려움 : 센터보다는 학교에서 많았다. 아이들은 인격으로 대우하기보다 학교 행사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
- 비협조적인 부모의 변화를 이끈 경험 등 아동이나 부모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사례 : 대부분의 수업 시작 단계에서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냉담할 때가 많다. 아이들이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담임선생님들은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수업을 해 가는 과정을 통해 선생님들은 점점 더 마음을 열고, 신뢰가 쌓인 후에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가 이어진다. - 내가 준비되면 돕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 은행초 무지개어머니합창단. - 없다면 만들면 된다. 사람들을 설득해 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 아이의 노래를 통한 가정의 회복. / 아이들이 집에 가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부모들과 통화를 했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노래를 한다며 신기해한다. 아빠들도 좋아한다. 내 노래 수업은 노래를 잘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노래를 부르지 않는 아이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다. 예술적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다.

- 변화를 위해 내가 사용한 방법 : 음악(합창과 악기연주) 아이마다 다른 접근. 노래가 힘든 아이들, 리코더 같은 악기를 통해 음악을 느끼도록 도와 줌, 신뢰, 기다림, 놀이와 게임(같이놀기)

-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그게 교육이다. 꼭 음악이 아니라도 아이 안에 있는 장점을 찾아서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지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준다. 형식적인 칭찬으로는 안 된다. 진짜여야 한다.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인지 느낄 때 아이는 행복해진다. 그러면서 변화되어간다.

- **무대**에서 연주하고 박수를 받을 때, 아이들의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본다.

- 아이들은 끊임없이 교사를 시험한다. 저 사람이 진짜로 날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기술 쓰는지. 아이들의 기술은 교사의 기술보다 늘 앞선다. 그래서 아이를 상대하려면 진짜여야 한다.

- 일단 진짜임을 알게 되면, 아이들은 반드시 보답한다. 평소에 계속 떠들고 까불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다가 무대에서 보답한다.

[질문5.] 학교 방과 후 교사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은?

비정규직이다.^ 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일종의 섬김의 시간이다. 동시에 배움의 시간이기도 하다. 가치 있는 일이기에 하고 있으며, 기쁨과 보람이 상당하다. 그러나 힘들기도 하다.^; 세상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 중에 쉬운 일은 없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일도 없다.

단점은 아이들과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지속적인 연결 교육이 어렵다.

특히 학교에서는 더 심하다. 학원과의 전쟁이다. 합창부의 경우는 부모의 인식이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다. 안 와 버리면 그만이다. 합창단의 경우는 치명적이다. 그러나 그래서 더 노력해야 한다. 수업이 재미없으면 안 와 버린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단점과 어려움은 내가 성장할 기회로 삼으면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이들을 계속 만나는 것 자체가 고문이 될 것이다. -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질문6.] 학교 방과후교사에게 더 강조되는 역량,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더 강조되는 역량은?

- 특별히 다른 것이 요구된다기 보다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향한 생명 존중의 마음이 필요하며 그것을 아이들의 언어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실력(자기 분야)이 준비되어야 한다.
- SA칠드런센터는 이것을 위한 보완교육기관이다. 학교 교육의 한계가 많지만, 그것을 틀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안교육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보완하고 더불어 함께 갈 마음이 필요하다.
- 보완교육은 뭐가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센터의 교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돕고 보완하는 역할이다. 그러므로 여러 면에서 준비가 더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기능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 준비도 필요하다.
- 학교는 일종의 공무원사회이다. 굉장히 딱딱하다. 정해진 틀이 많은 편이다. 그런 제도적 한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
- 지역아동센터에는 일반 학교보다 거친 아이들이 많이 있는 편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과 오히려 깊이 연결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질문7.] ‘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주의할 점, 당부하고 싶은 것, 응원 한 마디)부탁합니다.

1) 사람다운 사람으로 준비되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다운 사람이란 것은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자존감이 있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품격을 갖추는 것이 먼저다. 그 대상이 어린아이일지라 말이다.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즐기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행복하도록 도울 수 없다.

2) 철학과 기능의 조화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사연 없는 아이는 없다. 그것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철학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 시대를 읽고, 아이들의 트렌드와 문화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은 똑같다. 아이들은 사랑받고 진정으로 존중받길 원한다. 어른과 똑같다. 성경의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된다.

3) 어려도 아픈 건 똑같아!

아이들도 아프고 서럽고 행복하다. 그들이 느끼는 느낌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게다가 더 예민하고 민감하다. 그러므로 더더욱 존중하며 소중히 대해야 한다.

4) 아이들도 더 놀고 싶다. 당신처럼!

누군가 자기 마음을 알아줄 때 좋아한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랑할 때만 보인다. 아이들은 생명이다. 난 가르치는 일은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공간과 시간을 열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예, 서머힐) 사람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어른들은 많이 굳어졌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유연하다. 어른들이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훨씬 더 수월할 텐데, 상처가 너무 많다. 그 상처들로 인한 벽들을 치우고 이미 있는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도록 돕는다면,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 과정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 치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일은 없다.

5) 공부는 사명이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아무리 철학이 잘 준비되어도 기능(기술)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이들과 함께하기 쉽지 않다. 돕고 싶어도 돕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인간이다. 인간은 탁월함에 반응한다. 아름답고 멋진 것에 마음이 끌린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그 탁월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한다. 음악의 경우라면 적정 수준의 연주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프로급의 실력은 없어도 된다. 함께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하다.

6) 교사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행복하도록 돕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방과 후 수업이 앞으로 계속 확산되는 중에 있다. 학교 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보완교육을 위한 준비되기만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분 보완이 될 것이다.

부록5. 창의예술교육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 계획서

차시	주제	수업내용	비고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이름대기(게임)/ 리듬연습병행 / 틀려도 괜찮아! - 각 사람의 이름의 소중함을 나누기 - 도레미.. 각 음이름에 담긴 의미 (귀도 다렛쵸) - ‘도레미송’ 의 가사를 함께 만들어보기	게임을 하면서 친해지기 우리만의 도레미송만들기
2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습니다.	- ‘씨앗의 꿈 (자작곡) / 지금은 꿈을 가꿀 시간입니다. -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사과는 셀 수 없습니다. - 발성연습 및 호흡연습 / 하하하송, 에에이오우	나무를 심은 사람(장지오노) -영상
3	사람에게는 사람의 품격이 있습니다.	- 리코더이야기 : 누가, 왜, 언제 리코더를 만들었을까? - 여러 종류의 리코더 소개 및 연주, 각각의 특색을 알아보기. - 소리의 배음 원리와 고음과 저음이 만들어지는 원리 알아보기 - 사람만 심심할 때 이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만든다. - 코다이 손기호를 이용한 악기연주 / ‘술,라,시’ 로 연주(비행기)	리코더 리코더연주 시연
4	당신은 이름답습니다	- ‘똥보새’ 를 즐겁게 부르며 시인의 마음을 알아보고,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생각해 본다. - ‘외모지상주의’ 에 대한 나눔 / 진짜 얼짱의 의미 - [리코더] 비행기 이야기 / 비행기를 화음으로 연주	얼 : 마음, 정신 얼짱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리코더 합주(3중주)
5	마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 똥보새 울동 :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인다. - 똥보새의 느낌을 온 몸으로 표현한다. - [리코더] 나비야 / 자벌레 이야기	신체울동
6	당신은 나의 햇살입니다.	- 박수게임(호랑이박수, 찌개박수 등) 리듬연습(신체타악기) - ‘웃으면 복이 와요’ (자작곡) / 리듬에 맞춰 노래부르기 - ‘얼굴’ 에 담긴 이야기. 웃으며 노래하는 비밀, 배꼽 잡고 함께 웃기 - ‘You are my sunshine’ / ‘So let the sunshine in’	신체타악기 영어로 노래하기 진정한 Winner!
7	조화를 이루면 더 아름답습니다.	- 아이리쉬 휘슬, 단소, 플룻, 리코더 : 악기의 특성 - [리코더] 오른손 운지 연습 / 환희의 송가 - 베토벤이야기/ 합창교향곡(사람의 목소리를 포함시킨 최초의 교향곡 사람의 소리와 악기의 차이	플룻계열의 목관악기소개 영화 카핑베토벤 영상
8	어떤 순간이든 노래할 수 있습니다.	- 재즈이야기 / 흑인들의 애환이야기 / 이품을 노래로 승화! - [리코더] 모베터블루스 [2중주] / 씨명배우기 - 즉흥연주이야기와 그 실제	즉흥연주
9	표현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 모베터블루스 모듬별 발표회 - 금관악기 소개 / 트럼펫, 색소폰을 직접 보여 주며 소개 - 영상 반주에 맞추어 동시에 연주하기 - 씨앗의 꿈	모베터블루스 영상 트럼펫, 색소폰 소개
10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 봄비아라(돌림노래) / 생활 속 이야기로 노래 만들기 - 마음의 감정을 선율로 표현해 보기 - [리코더] 아리랑 / 레카토 연습	노래만들기 아리랑 오케스트라 영상

11	아리랑고개를 넘어 가 보셨나요?	- 아리랑 / 홀로 아리랑 / 독도의 슬픔 / 아리랑 리코더 2중주 - 합창파트와 악기파트 나누어 부르기 - 간도 아리랑 / 일제강점기 때 간도지역에서 만들어 불렀던 아리랑.	홀로 아리랑 영상 일제 강점기를 이겨낸 선조들의 노래!
12	어려움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	- ‘연어야 연어야’ /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의 일생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본다. - 안도현의 연어이야기	연어 영상
14	콧노래를 불러보세요	- ‘빨분음표로 걸어요’ - 학교 가는 길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 긍정적인 마음 가짐의 놀라운 힘 - 휘파람불어보기	긍정의 힘 / 뇌 이야기
15	그리움은 시인을 만듭니다.	- ‘봄날의 꽃잎과 하늘의 구름처럼’ - 이별은 우릴 아프게 하지만, 그리움은 우리를 시인이 되게 한다. 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노래와 시로 극복하는 법을 배운다.	꽃잎의 노래 들어보기
16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 ‘무지개합창단’ (자작곡) / 빨주노초파남보가 모여 무지개를 이루듯이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희음으로 노래하는 기쁨
17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 ‘바람이 불어오는 곳’ - 여행의 즐거움 / 사람을 알아가는 기쁨	제이레빗 영상
18	니뭇잎의 손짓을 본적 있나요	- 바람이 불어오는 곳 기악합주 - 리듬악기 직접 만들어 보기 - 각 리듬악기들의 느낌을 나누기	기악합주(리코더, 멜로디온, 트라이앵들, 리듬악기들)
19	쓰레기마을에서 울려 퍼진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 ‘잠보’ (케냐노래) / 케냐 지라니 합창단 이야기 - 리듬에 맞추어 노래하기 - [리코더] 젓가락행진곡 1.	지라니합창단 영상 신체리듬
20	우리 것이 좋습니다!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아리랑 / 도라지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밖에 나가 놀면서 노래하기 - 고사리 대사리 꺾자(돌림노래) - 리코더로 연주해 보기	우리 민요 부르기 리코더 즉흥연주
21	함께 노래하면 더욱 즐겁습니다.	- ‘함께 노래해요’ (자작곡) / 옆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 - 혼자 노래해도 즐겁지만,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함께하기 위해 친구들을 기다려 주어야 할 때도 있지요. 그 모든 과정이 우릴 자라게 합니다. -[리코더] 젓가락행진곡 2.	노래는 즐겁다 한적한 산길 따라서
22	당신이 날 일으켜 줍니다.	- ‘You raise me up’ / ‘You are my sunshine’ - 아일랜드의 역사가 담겨 있는 이 노래를 통해 혼자서는 못하지만, 함께 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노래를 통해 배운다. - 오딧세이아 이야기 -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국/아일랜드 지도 Danny Boy 독도는 우리 땅

23	생명은 위대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델바이스' / 역경을 이기고 피어나는 생명 / 락버전 - '외로운 양치기' / 요들송 이야기 - [리코더] 에델바이스 2중주 	사운드오브뮤직 영상 2차세계대전 이야기
24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꽃의 노래' /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풀꽃도 꽃이다. 작은 꽃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향기롭다. 작은 것도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 모두 다 꽃이야 - [리코더] 짓가락행진곡 3중주 	풀꽃 이름 대기
25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의 봄' 의 작곡가 이원수 선생의 삶과 노래를 통해, 우리의 오늘을 돌아본다. (근현대사산책) - [리코더] 고향의 봄 2중주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산책 공연준비
26	어깨동무를 해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게우정 - 꽃게를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 함께 하는 어려움, 함께 하는 기쁨에 대해 나누어 본다 	공연준비
27	즐거움은 나눌 때 배가 됩니다	공연 준비 / 무대 매너 / 함께 놀기(Play) / 무대 즐기기	공연
비고	<p>수업 내용은 아이들의 반응과 수준에 따라 적절히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 마다 '놀이' 의 과정을 포함시켜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래동요와 전래놀이를 지속적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자긍심도 높여줍니다. 수업은 음악만 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중심으로 미술, 동화, 영상, 춤, 게임 등 다른 예술교육을 동시에 진행하고, 더 나아가 다른 교과와의 통합교육을 기본으로 합니다. 역사와 철학, 문학과 사회학을 포함한 인문학 교육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을 담아낸 '전인교육' 지향합니다.</p> <p>공연은 각 반의 특성을 살린 곡을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가능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공연을 통해서 재능있는 아이들이 자신 안에 있는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공연 때는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부모들도 함께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p>		

부록6. 초등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제언

#1-2학년

- 1학년은 아직 유치원생에 더 가까운 상태이기에 유치원에서 배웠던 노래, 아는 노래,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중심으로 노래를 부른다. 특히 이야기가 있는 재미있는 노래들을 많이 배운다.
- 수업 때마가 노래 이야기가 마치 연속 드라마처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게 한다. - 예) 뽀로로
- 어린이용 만화영화에 나오는 좋은 노래를 선별해서 함께 불러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돕는다.
- 노래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전래동요를 전래놀이를 하면서 부른다.
- 하루를 함께 합창을 부르면서 시작한다. 노래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느끼도록 한다.
- 학기 말에 그동안 배운 것들을 담아 학부모를 초청하여 콘서트를 한다.

#3-4학년

- 리코더나 오카리나 같은 선율악기를 배우기 시작한다.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파트를 나누어서 합주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게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가기 힘든 친구들도 쉬운 파트를 연주함으로써 ‘합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배우는 노래에 얽힌 배경이나, 담긴 의미 등을 함께 나누며 노래를 한다.
- 수업 중간에 노래와 관계된 이야기, 영상, 시, 그림 등을 통해 노래에 의미와 마음을 담아 부를 수 있도록 돕는다.
- 동요 뿐 아니라, 기존의 가요나 팝송, 뮤지컬 곡 중에 아이들이 함께 불러도 좋을 만한 노래들을 선별해서 함께 부른다.
- 우리나라의 민요를 우리나라 리듬악기와 함께 배운다.
- 여러 가지 박수를 비롯한 몸타, 킷타 등을 배우고, 리듬과 함께 노래한다.
- 전래동요를 전래놀이와 함께 배운다.

- 고무줄놀이를 하며 노래를 부른다. 고무줄놀이는 ‘노래, 규칙, 사회성, 신체 운동’ 등이 잘 조합된 놀라운 놀이이다. 때때로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부모님께 고무줄을 배울 수도 있다.
- 연말에는 그동안 배웠던 곡들을 중심으로 음악회를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하는 노래들은 가능한 아이들이 직접 고르도록 하여, 자발성을 높이고, 재능 있는 친구들을 발굴하여 그 재능을 표현할 기회를 준다.

#5-6학년

- 3-4학년 때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노래의 수준과 이야기의 수준을 높인다. 노래 안에 담겨 있는 ‘시, 소설, 문학, 역사, 철학’ 등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풀어서 이야기, 영상, 그림, 놀이 등을 통해 나누고, 다시 노래를 부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생생하게 살아 있는 노래들을 부르게 된다.

그 밖의 제언

-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국악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음악가들을 초청하여 악기들도 소개하고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
- [클래스 콘서트] 학년 전체가 모이는 콘서트 형식도 좋지만, 연주자들이 교실로 찾아가 가까워서 악기를 소개하고 연주도 하며 아이들의 음악적 감성을 북돋아 주는 것도 좋다. 아이들이 현장에서 질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학교 합창단]을 운영하여 더 노래하기 원하는 학생들의 갈망을 풀어주고, 지역사회와도 소통한다.
- [교사연수] 음악전담교사가 아니더라도 이 철학과 교육방법을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도 병행한다. (교사가 먼저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 [부모를 위한 힐링 콘서트] 아이들이 참여하는 콘서트.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노래가 있는 부모연수

부록 7. 중현초등학교 합창발표회 순서지

2019 중현초등학교 더불어교실 작은음악회

씨앗의 꿈

민경찬

목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렸죠
물도 주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씨앗이 나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신비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사과 속의 씨앗은 쉼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쉼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 갈 때
모두가 보게 될 거야

우리들의 노래 이야기

우리들의 노래 이야기

지난 10월, 아름다운 가을 날 우리는 만났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웃고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행복했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어 여기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빛깔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이 너무도 다른 빛깔의 친구들이 함께 어우러져 작은 음악회를 엮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열어 함께 노래하신다면 모두에게 더욱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노래에 담긴 이야기와 그 마음을 함께 배우며 '지성·감성·의지'가 조화를 이룬 전인적인(Whole-person) 성장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과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노래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비밀도 함께 배웠습니다. 때로는 놀이도 하고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때로는 함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집중하며 '꿈'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쉽지않은 않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얻은 아름다운 하모니와 즐거움의 에너지를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소중한 분들과, 그리고 그 동안 함께 했던 친구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합창편곡 및 음악지도 : 민경찬

서울시 평화문화재단 개관식 예술총감독 / 2018, 2019 강북문화재단
감독 / 도봉문화재단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 예술총감독 /
2019 문화7있는날(도봉) 역사문화콘서트 '씨앗의 소리' 예술총감독 /
더드림밴드 음악감독 /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이사 / 그린트리에
창작센터 예술교육강사 / 예그라나오케스트라, 소나.무함양단 지휘자
/ 삼미유안생활교 교장



일시 : 2019년 12월13일(금) 오전9:30

장소 : 중현초등학교 다목적실

주관/주최 : 중현초등학교

1부 함께 노래해요!

1. 하하하 / 웃으면 복이 와요 작사 작곡 민경찬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기 위해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얼굴은 마음이 깃드는 집이래요. 우리의 얼굴을 활짝 펴고 웃을 때, 상대를 위해 마음을 여는 거래요. 우리 함께 활짝 웃으며 친구를 향해 마음을 열어요!

2. 교과서 노래 메들리

새싹들이다 / 숲속을 걸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보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안에 있는 소중한 노래들을 마음을 담아 불러 봅니다. 노래 안에 담겨진 꿈과 희망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목청을 높여 봅니다.

3. 아에이오우 / 함께 노래해요 작사 작곡 민경찬

함께 노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함께 화음을 이루어 하나의 노래를 부르는 이 특별한 즐거움을 아시나요?

4. 고사리대사리격자 / 간도 아리랑

일제강점기,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시대에 하늘의 별을 보며 꿈을 키우고,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했던 우리 조상들이 가사를 바꾸어 불렀던 아리랑입니다. "청정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별도 많다"

2부 우리들의 노래 이야기

[3학년] 1반 김지운선생님 / 2반 김옥주선생님

5. You are my sunshine 외국곡

당신은 나의 햇살입니다. 먹구름 가득한 인생 길이라도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내 얼굴에 미소를 담아 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6. 연어야 연어야 작사/작곡 주유미

모든 생명에는 생명의 진실이 있습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알을 낳고자 하는 생명의 진실이 있지요! 이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역경을 헤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나타내야 할 생명의 진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7. 똥보새 작사 신천희 작곡 정재원

오늘도 똥보새는 걱정이 많습니다. 남들이 똥똥하다고 놀릴까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그대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 자신을 조금만 더 사랑해 주세요!

[5학년1반] 이하은선생님

8. 바람의 멜로디 작사 김이나 작곡 이지수

애니메이션 '파당을 나온 암탉' OST / 꿈을 향해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소중한 꿈이니까요. 때로 어두운 밤이 온다 해도 꿈 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겁내다간 놓칠 수 있습니다. 생명 있는 모두에게 주어진 이 하루, 지금이 바로 다시 꿈꾸며 날아오를 때입니다.

9. 씨앗의 꿈 작사/작곡 민경찬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담겨진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 갈 때 우리 안에 담겨진 그 꿈의 열매를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10. [영상]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작

도토리 한 알은 정말 보잘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도토리가 잘 심겨져 싹을 틔우고 자라나면 많은 새들이 깃들어 살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한 그루라면 여전히 황량할 수 있지만, 더 많은 도토리가 싹을 틔워 자라나면 수많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숲이 됩니다.

[6학년1반] 임채영선생님

11.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작사/작곡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가보셨나요? 푸른 꿈을 품고 우리 맘을 설레이게 하는 그 걸음을 걸어 보셨나요? 온 세상에 가득한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떤가요?

12. 옆을 볼 자유 작사/작곡 민경찬

-꿈틀리 인생학교 교가

너무나 앞만 보고 달려가라 말하지 말아 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도 살피고, 가끔은 내가 걸어온 걸음도 돌아보며 가고 싶어요. 무조건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질문하며, 곁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혼자 서도 꿈을 꿀 수 있어도 꿈을 이루려면 함께 할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3부 꿈의 씨앗을 심으며

13. 무지개합창단 작사/작곡 민경찬

빨주노초파남보가 모여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모여 멋진 세상 만들어갈 우리가 됩니다. 너무나 다르지만,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달라서 더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우리도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삶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부록8.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 시나리오 및 연출노트

2018 도봉문화재단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

8월 18일(토) 19:00
도봉구민회관 대강당

큰 추위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연두빛 생명 가득한 봄을 부르고
뜨거운 태양 거친 폭풍 이겨낸 봄의 생명이
푸르고 푸르른 여름 숲을 이루듯

평화를 사랑했던 우리 민족이
온 힘 다해 견뎌낸 수많은 아픔이
깊이 내린 뿌리되어 평화의 싹을 틔우고
생명다해 지켜낸 거룩한 삶이 모여
깊고 푸르른 평화의 숲을 이루네
다함께 목청높여 여름을 노래하네

신청 및 문의 : 도봉문화재단 (02-908-2900)

주최 도봉문화재단

후원 Variety도봉

도봉시민회관

AACS
서울문화예술의관연합회

함다각



8. 18 (토) 19:00 도봉구민회관 대강당

총감독/ 민경찬

주제 및 작품 내용

여름 숲이 푸르른 것은 숲의 나무들이 겨울의 혹독함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겨울숲 같이 메마른 시기를 견뎌낸 우리 선조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으면, 그 아픔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던 근현대사의 아프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을 다시 기억하고 함께 노래하려합니다. 이를 위해 도봉구와 동북4구의 문화예술을 아끼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마음을 모아 평화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큰 추위를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푸르고 푸르른 여름 숲을 이룬 것처럼, 큰 아픔 이겨낸 우리 겨레의 씨앗이 더 깊이 뿌리내려 깊고 푸른 평화의 숲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연진

더드림밴드 / 이유라, 김미성, 민경찬, 안기정, 나상윤, 양은총, 박은규

무지개빛아이들 / 지도 : 김량, 정다현

윤지용

장청스 / 구본규, 박창일, 이상군

청소년댄스팀 '어울'

조미선

남궁송옥

극단진동 / 김설빈, 김학수, 이나영, 이아라, 최병운

최예림

살롱목사중창단

김여산

도봉시스터즈

민가은, 민지후, 민서현

도봉브라더스 / 구본규, 김민우, 김상싱, 박창일, 이상군

전통연희단에도통천

도봉구립어린이합창단 / 지휘 : 율리아신

이진희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 공연당일 배너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

일시 : 2018. 8.18 (토) 19:00
장소 : 도봉구민회관 대강당

여름 숲이 푸르른 것은 숲의 나무들이 겨울의 혹독함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겨울을 같이 헤아린 시기를 견뎌낸 우리 선조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으면, 그 여름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던 근현대사의 아프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을 다시 기억하고 함께 노래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도봉구와 동북4구의 문화예술을 이끄는 주인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마음을 모아 평화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큰 추위를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푸르고 푸르른 여름 숲을 이룬 것처럼, 큰 아픔 이겨낸 우리 겨레의 씨앗이 더 깊이 뿌리내려 깊고 푸른 평화의 숲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연진

이 유 선	강 영 주	이 나 알	손 문 정	고 해 범	조 인 훈
김 의 성	김 희 지	박 태 용	최 석 배	공 달 혁	조 현 혁
김 영 창	김 인 아	최 병 용	최 영 목	김 나 연	조 영 소
안 기 영	김 영 철	서 건 제	신 이 환	김 열 병	김 옥 희
나 성 동	김 준 번	박 은 찬	부 소 복	김 여 용	김 옥 영
박 준 용	김 지 수	김 영 숙	이 영 환	김 여 용	김 재 성
박 준 다	박 용 재	김 영 선	이 옥 순	김 연 지	김 재 성
박 기 용	박 은 채	고 선 주	이 창 철	박 이 복	김 철 호
구 현 구	박 해 형	최 수 지	임 수 영	박 부 인	송 정 인
계 형 빛	김 인 영	최 선 복	황 경 숙	박 채 연	송 정 인
채 영 구	오 대 온	김 동 진	황 보 숙	박 나 연	홍 복 희
홍 피 연	이 승 온	김 정 숙	강 예 철	박 사 현	홍 복 희
남 규 용	김 정 보	김 지 한	조 희 영	홍 사 연	홍 대 인
김 여 선	김 인 부	전 동 재	홍 정 희	홍 단 영	최 기 영
이 인 제	김 정 번	전 순 재	홍 지 희	이 지 순	이 승 현
최 예 영	김 학 수	박 영 숙	김 한 재	정 지 우	이 승 현
	민 가 선	전 지 후	한 사 현		

주최 서울특별시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신청 및 문의 : 도봉문화재단 (02-908-2900)

<푸르게 더 푸르게-연출노트>

1. 겨울 들판에서

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아이들 놀이와 노래)/무궁화/배경 무궁화 사진 3' 20

- 아이들 놀이 / 우리 집에 왜 왔니? /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 무궁화(노래)
- 아이들이 놀다가 ‘무궁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 노래를 함께 부르다가 한 친구가 질문한다. “야, 근데 무궁화 꽃이 왜 우리 나라 꽃이야? 언제 부터 우리나라 꽃인데?” 그 때,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말해 준다.
- “내가 말해 줄까?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피기 시작한 것은 2천 년이 훨씬 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이다. 고대로부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를 '군자의 품격을 갖춘 나라, 무궁화가 아름답게 피는 나라'라 예찬하였지. 또 신라시대에 이미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일컫는 꽃으로 사용되고 있었단다. 그런데 말이다.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선정한 것은 1896년 독립문 주춧돌을 놓는 의식 때 애국가 후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라는 구절을 넣으면서란다. 여기 잘 봐라. 무궁화 꽃잎이 몇개냐?” 다섯 개지? 그런데 말이다. 자세히 보면 말이다. 꽃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꽃잎의 근원은 하나인 통꽃으로 되어 있단다. 그래서 무궁화는 우리 겨레의 단결과 협동심을 상징하지. 또한, 여름철 100여 일간 한 그루에서 약 3천 송이 이상의 꽃을 피우는 이 꽃은 우리 겨레의 인내와 끈기, 그리고 진취성을 상징한단다. 가히 우리 나라 꽃이라 부를 만 하지.. 암..
- 우와, 아저씨 되게 똑똑하네요. 진짜 신기하다... 꽃이 통으로 연결되어 있네... 애들아, 우리 그냥 노래나 계속 부르자... ‘무궁화 무궁화 우리 나라꽃-2절 피었네 피었네... 단조로 끝난다.

2. 겨울 들판에서 / 더드림밴드 3' 40

[영상 1.]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겨울들판 영상. 이어서 춥고 메마른 겨울 같은 당시의 시대상을 담아낸다. 조선 말기의 춥고 메마르고 어둡고 암울한 이 나라의 분위기를 담아낸 영상을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만든다.

- 영상이 끝나면, 아까 그 노신사가 독백처럼 말한다. “그때는 우리나라는 참 추웠어. 추위도 너무 추웠지. 나라는 힘이 없는데, 온갖 열강에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었으니 말이야.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절이었지. 정말 춥고 메마른 시기였어... 그때, 바로 내가 나서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었어. 난 말야, 젊은 나이에 미국도 다녀왔고, 영어, 경제학, 근대 신문물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였지.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속 승진을 했고, 고종황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 모든 사람이 날 부러워했어.. 암, 그럴만 했지. 아, 내가 누구냐고? 난 이완용이라고 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키기 위해 일본과 협약을 맺었지... .

사람들은 그것을 을사늑약이라고 불렀지 아마... 그런데, 그런 나를 죽이려고 안달이 난 놈들이 있었지..

-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데!!” “아니, 이놈이 팔 게 없어서 나라를 팔아? 나라의 소중한 권리를 다 팔아넘기더니, 결국 나라까지 통째로 팔아넘겼구먼!

[영상 2.]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 과정 - 2분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와 조선을 팔아넘긴 이완용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손가락까지 끊으며 맹세한 11명의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이 바로 ‘단지회’이다. 그리고 이 중심에 ‘안중근’이 있었다. 1926년 10월 26일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가 쏜 총알 세 발이 이토 히로부미를 정확히 관통했다. ‘코리아 우라! 한국 만세’라고 외친 그는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잡혔다.(영상) 재판정에 선 그가 당당히 외친다.

3. 누가 죄인인가?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 장청스 &청소년댄스팀/ 4’ 00

1926년 10월 26일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가 쏜 총알 세 발이 이토 히로부미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코리아 우라! (한국 만세)’라고 외친 그는 일본군들에게 순순히 잡혔습니다. 재판정에 선 그는 오히려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를 말하며 당당히 외칩니다. 누가 진짜 죄인인가!

4. 울드랭사인(애국가) / 편지낭송 / 희망가 영상 및 연주 /편지 낭송 5’ 00

- 어머니의 편지 “살아남으려 하지 말고, 거기서 명예롭게 죽으라!”
- 동양평화론 (영상) / 안중근은 추운 뤼순 감옥에서 책을 집필한다. 그 책에서 안중근은 일본의 멸망이나 복수를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 중국, 한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서구열강을 이겨내야 한다는 놀라운 제안을 한다.- 감옥에서 쓴 미완의 책 [동양평화론] 1910년 추운 뤼순 감옥에서 쓴 글

5. 희망가 / 작자미상, 편곡 민경찬 / 노래 남궁송옥

안중근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라는 일본에게 강제로 빼앗기게 되고, 온 나라는 더욱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 나라에 빛은 없는가? 모든 것이 절망뿐인 그 시절, 일어나 독립 만세를 외쳤고, 청년들이 일어나 시와 문학작품으로 일어났고, 동요를 만들어 부르며 다음 세대와 함께 희망을 노래했다.

2. 셋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6. 기차길 / 나란히 / 반달 (윤극영동요)/ 편곡: 배이화 / 노래&퍼포먼스 극단진동 / 저고리를 입은 배우들이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춤과 연극을 곁들여서 세 곡을 부른다.

이완용은 일본에게 우리 민족을 다스리려면 나랏말을 없애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그 일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젊은이들은 오히려 동시를 짓고 동요를 만들어 부르며 어둠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중에는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윤극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동요를 함께 부르며, 함께 희망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 우리 민족은 그 어둠의 시대를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이겨냈다. “셋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7. 새로운 길(윤동주시)/ 석예리 작곡, / 원곡 국악그룹 동화 / 조선시대 영상으로 시작해서 평화로운 우리 나라의 영상과 윤동주의 시 / 5' 40

윤동주 시인은 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던 1945년 2월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어둠의 시대에 노래한 소망의 노래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선 넘어야 할 고개도 있고, 건너야 할 시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 그 어두운 시절을 살았던 청년 윤동주의 마음속에 있던
희망의 노래, 새로운 길! 내를 건너고 / 고개를 넘어서 가야 할 / 평화의 길!
오늘을 살아가는 / 우리도 노래하고 / 우리도 걸어야 할 / 그 새로운 길!

새로운 길 - 윤동주

내를 건너서 숲으로 /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 오늘도…… 내일도 …… /
내를 건너서 숲으로 /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3. 전쟁의 아픔을 딛고

8. 사나이 한목숨 / 샬롬 목사중창단 5' 00

- 영상(대포 소리로 시작, 한국전쟁의 시작과 끝, 그리고 폐허가 된 조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입니다. 그 아픔을 알기에 더욱 간절한 목사님들이 모여 한국전쟁 시대를 노래합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불과 5년 만에 온 나라가 무서운 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참혹했던 3년간의 전쟁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과 한숨들이 쌓였습니다. 소망을 말하기엔 너무나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9. 어느 늙은 군인의 노래 - 김여산 목사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당신의 청춘을 바치셔야 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낸 세월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10. 잃어버린 30년 남궁송옥

- 영상 / 분단의 아픔 / 이산가족 / 사무치는 그리움 / 4' 00
1983년 이산가족찾기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리운 가족들의 얼굴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서 가슴에 묻어 두었던 그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온 민족이 함께 울었습니다.

원래는 트로트 곡이지만, 첼로와 여성 CCM 보컬이 애잔하면서도 간절하게 노래를 부른다. 어른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한국전쟁의 아픔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뒤에서는 ‘이산가족 찾기’ 영상이 흐른다.

11. 고향의 봄 / 이원수 작사, 홍난파 작곡 / 편곡 민경찬 / 합창 도봉시스터즈 연주로 시작, 중간에 도봉시스터즈 등단 / 다 함께 부르기

일제 강점기, 16세의 나이에 이 시를 발표했던 이원수 선생님은 한국전쟁 때 2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이 사무치는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이 아픔을 온몸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고향을 노래합니다.

12. You raise me up 작곡 시크릿가든 / 편곡 민경찬 노래:민가은, 민지후, 민서현 & 도봉시스터즈

혼자 힘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날 위해 땀 흘렸고, 눈물 흘렸으며,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수많은 아픔과 눈물을 온 삶으로 지켜내신 분들, 그리고 우리 곁에서 당신의 삶을 드려 우릴 붙들어 주신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 소중한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4. 평화의 인사

13. 조율 / 한들작곡, 안기정편곡, 합창편곡 민경찬 / 도봉브라더스(청년) / 청소년프로젝트댄스팀(안무 김순선)

- 문제는 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뭐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막힌 것이 문제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전에, 마음을 열고 서로 ‘조율’을 한번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모두 함께 손을 잡는다면...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 빛 처럼 조율 한번 해 주세요-”

5. 온 세상 아이들아 모두 모여라

13. 굴렁쇠 작사 작곡 민경찬 / 도봉구립어린합창단

- 굴렁쇠는 혼자 굴러갈 수 없습니다. 굴려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함께 놀며 평화의 굴렁쇠를 굴려봅시다. 혼자 이룰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함께 둥그런 마음을 굴리며 평화를 만들어 가요.
- 온 세상 아이들아 모두 모여라! 우리 함께 어우러져 놀아보자!

14. 내가 바라는 세상

- 어른들이 거짓말 안 하는 세상, 싸우지 않고 평화로 가득한 세상! 아이들이 바라는 이 꿈같은 세상은 아이들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하듯,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어른들이 거짓말 안 하는 세상 / 시작 전 영상 Children see, Children do!

6. 함께 부르는 평화의 노래

15. 씨앗의 꿈 (연합합창단 / 어린이, 어른, 배우, 전체 출연진)

누군가 뿌린 평화의 씨앗이 자라 오늘의 평화를 일구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일어나 평화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씨앗을 뿌리기 위해 묵은 땅도 갈아엎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래 참으며 기다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뿌려야 할 평화의 씨앗을 가꾸며, 그렇지 않아도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16. 아름다운 나라 / 채정은 작곡, 민경찬 편곡 / 연합합창단 / 소프라노 이진희 / 태평소 / 풍물 / 지휘 민경찬

한 여름에 누리는 푸르름은 한 겨울을 견뎌낸 뿌리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평화의 씨앗이 우리 앞에 놓여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푸르게 더 푸르게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록 9. 세월호 5주기 기억문화제 <그곳에서 울지마오> 포스터 및 연출노트



슬프지만 슬프게 부르지 않는 노래

기억문화제 맹연습 중 '그곳에서 울지 마오'

오는 4월 21일(일) 오후 5시, 평화문화단지 야외무대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문화제 '그곳에서 울지 마오'가 공연된다. 무대에 오르는 공연지만 무려 200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공연이다. 합창만 100명이나 된다. 공연의 시작은 전문 연주자, 연극인, 예술인들이 무대를 감동적으로 열고 마지막 장식은 순수하게 모인 지역주민들로 꾸러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공연에 앞서 참여자들을 위해 총 네 번의 연습시간이 마련되었는데, 지난 4월 4일(목) 저녁 7시에 두 번째 연습이 도봉구민청 3층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연습에 참여한 사람들은 약 40여명으로 전문 음악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녀를 동반한 지역주민들이었다. 비록 전문 음악인은 아니었지만 전문가로부터 기초적인 발성법부터 지도받은 연습생들은 평소 음악을 즐겨듣는 덕분인지 금세 안정적으로 자신만의 음색을 찾아서 불렀다.

참여자들은 노래의 어려운 부분을 코치 받으면서 점차 합창을 완성해나갔다. 그들은 한 걸 값이 왜 이런 노래를 부르는지, 왜 이런 공연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마음 아팠을 그때 그분들의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마냥 슬퍼하기보다는 그저 노래로 위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려는 의지로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연습에 참여한 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힘든 줄 모르고 즐겁게 무대를 만들어갔다. 이곳에 오지 못한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모이고, 보태어 하나의 커다란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이날 두 번째 연습에서 지휘를 맡은 이진희(그린트리예술창작센터) 대표는 "기억문화제는 딱히 기획과 주제가 명확한 공연이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번 공연은 온전히 도봉구민들과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이다. 나 역시 스태프로, 지휘로, 어머니로, 출연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슬프지만 노래를 슬프게 부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희 대표는 "100명의 합창단을 모으려 했는데 출연진들과 스태프 등 합창으로



▲ 오는 21일 평화문화단지에서 공연될 '기억문화제' 참여자들이 합창연습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함께하는 분들이 416명이 넘는 듯하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기억문화제는 그 어떤 외부 개입도, 연관도 없이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연이다. '416와속지킴이 도봉모임'은 하루도 빠지고 않고 지난 5년을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서명운동, 리본만들기, 합창 등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마음으로 응원하던 많은 주민들이 이번 기억문화제에서 기획, 합창, 연기, 스텝, 관객, 후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아른 4월을 위로와 따뜻함으로 승화시켜나가고 있다. 공연 연습이 일소문을 타면서 이날 연습실에는 도봉구 외에도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에서도 찾아왔다.

이번 공연에서 총연출을 맡은 민경현(스텝스아카데미 대표) 감독은 "세월호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공연은 순수하게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는 가족 이야기이다. 자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아이의 꿈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모든 꿈도 잃는다. 기억문화제는 과거로 돌아가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안전한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만들어가자

는 의미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공연의 의미를 설명해주었다.

네 아이의 아빠로서 참여했다는 민경현 감독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열매는 진심을 담고 있다. 작은 노력으로 진리의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대규모의 공연이다 보니 어떻게 공연이 완성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따뜻한 마음으로 즐겁게 만들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누가 잊을 수 있을까? 이제는 잊고 싶지는 않을 들어도 쉬이 잊을 수 없는 그들의 상처를 주민들은 무대에서 노래로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다.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노래여서일까?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덕분일까? 연습 2시간 만에 모두가 전문 음악인처럼 노래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었다. 공연 일정이 다가올수록 실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습장에 모인 열정이 공연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두 번째 연습모임이었지만 처음 참여한 사람들도 적지 않아서 서로 통성명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색함은 잠시, 연습이 시작되자 노래로, 마음으로, 기

억으로 하나 되어 합창을 완성해나갔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5년 전 너무나 아파 세월호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외면했고 기억하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해가 갈수록 선택선택 기억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 용기를 내고 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대장에 '잊지 않겠노라, 기억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다섯 번째 봄을 맞이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주세요"라고 적혀있었다. 5년이나 지난 지금도 기억을 찾아서 외 공연으로 무대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아름다운 선율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기억문화제는 오는 21일(일) 오후 5시 '평화문화단지 야외무대'에서 공개된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합창, 영상 상영, 캘리그라피, 그림, 시, 청소년 댄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하나의 스토리로 엮여져 선보일 계획이라고 한다. (청년기자 dobongnews@naver.com)

지역 신문에 보도된 기억문화제 기사

<그곳에서 울지마오-연출노트>

#1. 꿈꾸는 사람들

일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 그 길에서 만나는 갈등과 아픔!
부모님들과의 사소한 싸움들! 그런 일상 속에서 가꾸어 가는 아이들의 꿈,
부모들의 꿈 이야기. 그 꿈이야기를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그려낸다.

1. A Million Dreams / 영화 [위대한 쇼맨]OST

2. 넌 할 수 있어 / 무지개빛아이들 / 어린이 중창단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짜증하고 힘든 일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꿈이 크고 고운 마음이 자라는 따뜻한 말
넌 할 수 있어 큰 꿈이 열리는 나무가 될래요
더없이 소중한 꿈을 이룰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3. 무지개합창단(민경찬) / 무지개빛아이들 / 어린이 중창

빨주노초과남보가 모여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이 서로다른 너와 내가 모여 멋진
세상 만들어갈 우리 되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졌지만
마음 모아 목소리도 모아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해요 기뻐뛰며 함께 노래해
서로를 향하여 맘 열고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하나의 노래를 부르자

4. 청소년댄스 / 문화고 청소년 댄스팀 임팩트

5. 꿈이 있어 / 애니메이션 [라퐁젤] OST / 뮤지컬 배우들

#2. 무너진 꿈

[스킷드라마] 갑작스러운 사고들을 통해 한순간에 무너져내린 꿈들! 그 깊은
절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지하철... 끊이지 않는 대형사고들.

[뉴스실황영상]에 이어 스킷드라마. “한국은 60년대 이래 30년 동안 서구의
300년을 압축해 따라갔다” (김진경) 삼십 년에 삼백 년을 살았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압축성장’ 뒤에 감추어져 있던 그늘! 안전불감증,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을 중시하는 성과 중심 사회의 허술한 사회안전망, 책임 전가하는
어른들! 사람보다 대학이 중요한 입시 중심의 학교. ‘가만히 있어라’ 로
대표되는 교육시스템의 한계! 인격성을 거세 시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어른들이
만들어낸 불안하고 위험한 사회.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5. 내 영혼 바람되어 (연주곡) / 현악사중주 / 클래식기타

[영상2.]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가 침몰했다. 마음이 무너졌고, 삶이 무너졌다. 그렇게 수많은 꿈들도 함께 바닷속에 수장되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아들, 딸, 삼촌, 이모가 죽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죽어갔는데,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 그토록 많은 말로 거짓을 둘러대던 사람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다.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한두 사람 감옥에 가둔다고 해결될까? 누구의 책임인가? 과연 그 잃어버린 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누가 이 무너진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6. 엄마의 바다(유희열) / 해금연주(박지선) &시낭송 “화인” (도종환)

[영상3.] 침몰하는 세월호, 팽목항 앞바다, 가족들의 아픔과 눈물….

비 올 바람이 숲을 훑고 지나가자 / 마른 아카시아 꽃잎이 하얗게 떨어져 내렸다 /
 오후에는 먼저 온 빗줄기가 / 노랑붓꽃 꽃잎 위에 후드득 떨어지고 /
 검은등뼈구기는 진종일 울었다 / 사월에서 오월로 건너오는 동안 내내 아팠다 /
 자식 잃은 많은 이들이 바닷가로 몰려가 쓰러지고 / 그것을 지켜보던 등대도 /
 그들을 부축하던 이들도 슬피 울었다 / 슬픔에서 벗어나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
 섬 사이를 건너다니던 새들의 울음소리에 / 찔레꽃도 멍이 들어 하나씩 고개를
 떨구고 / 파도는 손바닥으로 바위를 때리며 슬퍼하였다 / 잊어야 한다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 이제 사월은 내게 옛날의 사월이 아니다 /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 남쪽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지켜본 바닷바람이 / 세상의
 모든 숲과 나무와 강물에게 알려준 슬픔이었다 / 화인처럼 짙혀 평생 남아 있을
 아픔이었다 / 죽어서도 가지고 갈 이별이었다

7. 인연(이선희)남성듀오, 박지선(해금) /

[그림컷] 먼저 간 친구들을 그리는 따뜻한 그림 컷들, 별, 고래, 꽃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 [후렴] 내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 취한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열어 자리했죠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것 없으니까 / 후렴 / 하고픈 말 많지만

당신은 아실테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신 놓지 말아요

8. 한숨(김종현) / 민경찬 편곡 / 남궁송옥 노래 [영상5.]

[영상 4.] 세월호 이후 유가족들의 아픔과 절망, 한숨! 그리고 이후 그들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걸음들, 아픈당한 사람들을 안아 주고 함께 울어준 사람들. 함께 행동한 사람들의 이야기.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약쪽이 저리게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
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벽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단 말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일 이해할 순 없겠지만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눈엔 힘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단 걸 이제
다른 생각은마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 뱉어요 내가 안아 줄게요

[라디오 부스] 유가족 엄마 혹은 416 단체 사람 / 세월호가 바다에 잠기고, 우리의
가족들과 갑작스레 헤어진지 벌써 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힘든 일도 많았고, 감사한 일도 많았어요.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힘겹지만, 언제까지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몸으로는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모습으로 함께 하고 있는 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사고로 인해 이토록 큰
슬픔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3. 다시 꾸는 꿈

9. 네버엔딩스토리(부활) / 416합창단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위엔
같은 모습의 바람이 지나네 /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꺼라고 /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뤄져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10. 내 영혼 바람되어 / 프로젝트합창단 / 416프로젝트밴드 / 현악사중주

그곳에서 울지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않았다고 /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게 아니라오 /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

빛 되어 / 곡식 영그는 햇 빛되어 하늘 안 가을비 되어 / 그대 하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되어 날아올라 밤이되면 저 하늘 별 빛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 그 곳에서
 울지마오 나 거기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없소
 이 세상을 떠난게 아니라오 / 나 여기있소 이 자리에 당신과 함께라오!

#4. 내가 바라는 세상

11. 뭉게구름 / 어린이합창 / 아이들이 무대 뒤에서 뛰어 들어오며 노래 부른다.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 구름이 되어 저 푸른하늘을 벗 삼아 훨훨 날아
 다니니라 /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 구름 되리라

[인터뷰 영상] -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각계각층의 인사들...

12. 내가 바라는 세상(윤일상) / 어린이 합창 / 소나무합창단

어린이의 맑은 목소리로 거짓말하고 무책임한 어른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렇게 이 나라가 더 안전한 나라가 되길 바라며..

우리 늘 바라던 그런 세상 있어요 모두들 여기모여여 함께 노래불러요 / 어른들이
 거짓말 안하는 세상 주차선을 바르게 지키는 세상 사람많이 모여도 안전한 세상
 하고픈 일 다 되는 마법같은 세상 / (중략) / 아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슬픔도)
 모두 사라지기를 우리들 이제 여기서 함께 노래할래요 / 내가 바라는 세상 네가
 꿈꾸던 세상 누구라도 한번쯤 생각하던 파라다이스 싸우지 않는 세상 평화로가득한
 곳 웃음만이 넘치는 행복가득한 세상 내가 바라던 세상

[라디오부스]어른와 아이가 모두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은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 힘을 합친다고 해도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함께 한걸음씩 나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음 세대인 우리를 위해 온 삶을 바치셨던 우리의 선조들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서는 지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마음을 모아 서로의 손을 잡아 준다면, 이 아름다운
 걸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5.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

13. 촛불 하나(박진영) / 민경찬 편곡 / 청년중창 / 노래지도 남궁송옥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니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 줄게 / 너무 어두워 길이 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하나와
 촛불하나 이 작은 촛불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하나 킨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 저
 멀리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이 몸짓 불 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짓 /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개가 되고 네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니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 줄게

14.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 편곡 민경찬 / 프로젝트연합합창 / 회중과 함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15.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 편곡 민경찬 / 프로젝트연합합창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 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16. [앵콜] 걱정말아요 그대 / 편곡 민경찬 / 프로젝트연합합창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함께 노래합시다
 후회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참여단체>

더드림밴드

백합합창단 / 무지개빛아이들

민가은 민지후 민서현

소.나.무 합창단

문화고댄스팀 임팩트

바리칸토 / 너른마루

남궁송옥 / 박지선 / 민우킴

극단진동(탁성준) / 소풍가는길(정희영)

도봉416약속지킴이 / 416합창단

도봉예술인연대

그린트리예술창작센터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도봉시민회너른마루

선공방 / 지평선 / 협동조합 숲속에

도봉구시설관리공단

평화문화진지

도봉구공원녹지과

도봉문화재단

기억문화제추진단

기획 : 김용현

디자인 : 양지순

홍보 : 윤은자

행정 : 이왕일

캘리그래피 : 조진경

프로젝트합창단 악보 : 이화숙

영상제작 : 그림쟁이들(이강철)

연극 시나리오 : 정희영, 탁성준

영상 시나리오, 작곡 편곡, 합창&밴드 디렉팅 : 민경찬

중창디렉팅 : 남궁송옥

영상중계 : 양지숙

당일영상감독 : 김용현

음향 및 무대 : 문성호

무대감독 : 김순선 조명아

조연출 : 김순선, 이진희

총감독 : 민경찬

부록 10. 역사문화콘서트 [씨알의 소리] 포스터 및 연출노트



도봉 역사문화인물 함석헌과 간송 전형필의 만남

씨알의 소리

생각하는 백성이란이 산다

2019년 9월 29일 (일) 저녁 7시 평화문화진지

씨알은 나입니다.
다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옷을 벗은 사람, 곧 알사람입니다.
알은 열매이며 참이며 실제입니다.
그 사람 고유의 열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나를 회복하고 제 소리를 내자는 것입니다.
제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함석헌

주최 | 서울을 양안 도시 더큰도봉

주관 | IAN STRATEGY CONSULTING

협력 | 동문산페스티벌

2019년 9월 29일 (일) 저녁 7시 평화문화진지



초대의 글

‘2019 문화가 있는 날’의 4번째 프로젝트인 평화콘서트 ‘씨움의 소리’는, 도봉구의 역사 인물인 함석헌 선생님과 간송 전형필 선생님의 삶을 통해 다시 바라본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이야기를 음악, 드라마, 뮤지컬, 춤, 글씨, 영상, 전시를 포함한 종합 예술의 형태로 만든 창작공연입니다.

말과 글뿐 아니라, 온 삶으로 보여 주신 함석헌 선생님의 씨움 사상을 통해 우리가 왜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 돼야 하는지 깊이 돌아보고, 인생 전체를 쏟아 부어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귀중한 문화재를 지켜내신 간송 전형필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북4구를 포함한 도봉구의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합창단, 청소년댄스팀, 청년예술가, 그리고 각 동의 주민합창단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힘을 합쳐, 남과 북, 동과 서,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세대와 세대가 갈등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하나됨을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우리 역사의 삶의 자취를 돌아보며, 다음세대에게 물려 주어야 할 소중한 가치를 함께 세워가는 이 신나는 축제의 자리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에는 있어도 그것이 내 생각, 내 믿음, 내 인생철학, 내 국가관, 내 사회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지요. 기억이 사람입니다.”

- 함석헌 -

출연자

더드림밴드(THE DREAM BAND) / 권혁풍 / 지음트리오 / 극단진동 / 예그리나합창단 / 조태진 / 박정은 / 김수민 / 광개토사물놀이 / 창도초등학교합창단 / 국악인 최예림 / 용천엘터찬양단 / 프로젝트주민합창단(방학3동, 쌍문1동, 도봉1동, 동북사구합창단) / 무대 김순선 / 영상 이강철 / 음악 엄미라 / 조연출 김신 / 총감독 민경찬

<씨알의 소리 연출노트>

#1. 봄을 그리는 마음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p.134)

<연출노트1.> 연주곡 봄을 그리는 마음은 ‘씨알의 꿈’의 연주곡 버전이다. 함석헌 선생이 쓴 ‘봄을 그리는 마음’이라는 글의 느낌을 씨알의 꿈의 선율에 담아내고자 했다. 이 곡 속에는 죽은 땅이 살아나 다시 생명이 움트는 생명의 신비를 담아내고자 했다. ‘봄’을 단지 ‘계절’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다시 풀어내고 생명이 응축된 ‘눈’이란 단어를 우리 몸의 시각 기관인 ‘눈’으로 다시 바라본 함석헌 선생의 시선을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가져오고자 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어둠과 메마르고 추운 겨울 같던 이 땅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하신 것과 같다. 성경 내내 예언했던 ‘씨’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를 통해 나타난 생명과 그 은혜의 역사를 새롭게 보는 데서 우리의 봄이 다시 시작된다. 그 봄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 마음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고, 굳은 땅과도 같던 그 마음이 녹아지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된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움틀 때, 우리는 다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게 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씨)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3: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벧전1:3-4)

1. Opening ; 봄을 그리는 마음(씨알의 꿈 연주곡)

‘봄’이란 말의 안에는 /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죽음)에서 깨어날 때 /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눈을 뜨는 일이지요.

눈을 뜨고 볼 때 / 거기 새 하늘과 땅이 있고 / 그것을 보는 내가 있습니다.

겨우내 속에 생명을 지켜 / 봄을 기다리고 있는 움을 / 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싹이 트는것을 / 눈이 튼다고 합니다. / 봄은 터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동안에 할 일은 / 장차 올 봄을 / 속에서 미리 보는 일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 속에서 미리 보는 것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을 그리는 마음>은 봄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려보는 것이고, 그렸기 때문에 그리운 것이라고 합니다.

- 함석헌 “봄을 그리는 마음” 중에서

<연출노트2.> 함석헌 선생의 육성 강의는 1963년 7월 22일에 있었던 사상계 시민 강연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때, 그 생명은 꿈틀대기 시작한다. 사람의 경우 마음에서 시작된 그 꿈틀대는 ‘말’로 표현되고 나타나기 시작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다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씨가 되어 심기고, 그 씨가 흙으로 구성된 또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에 심어져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진리는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전해지고 흘러간다. 하나님 나라도 그러하다. 특별히 그의 예화 중에 등장하는 ‘안창호 선생’은 성경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인생을 얻게 되었고, 일제강점기의 그 어두운 시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들려주었던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삶에 들어가 그의 온 생을 변화시켰고, 말씀이 삶에 배인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이것은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회복되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생명은 생명이 아니고서는 전해질 수 없다. 씨는 열매이다. 말씀이 씨앗이 들어가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 맺지 않고서는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낼 수 없다.

2. 함석헌 육성강의 / 징소리와 함께 공연 시작을 알리고 함석헌 사진과 함께 육성녹음이 나간다.

<영상1.> 함석헌 사진

여러분! 동포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 섭니다. 여기 지금 제 눈앞에 앉으신 것은 여러분뿐이지만, 여러분의 뒤에는 3천만 민중이 있는 줄 압니다.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나를 믿어 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을 여기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이 오시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민중의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릴만 한 새 지식도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 들으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러 오는데, 처음부터 불쾌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제 의견을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참을 말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 보자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사장을 통해서 중앙정보부에서 주의하자는 말이 왔습니다. “너무 자극되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지 않아요? 또 자극이 된다면 자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에 느끼는 신경에 여기 있지, 밖에서 자극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경이 죽으면 칼로 찔러도 아픈 줄 모르는 것이고, 신경이 예민하면 털이 와서 스쳐도 불쾌한 것입니다. 자극이 되고 안되는 것은 내가 알 것이 있어요?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과 내가 느낀 것을 말할 뿐입니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때 일본군이 잡아 둔 독립 운동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또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다고 하면 죄가 더 중해 질 것이고, 안 한다고 하면 내 보내 줄 것이겠지만 그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이 차례가 왔을 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아 독립운동 내가 한 줄 아는가? 독립운동을 해도 우리 3천만 민중이 한 것이지 내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인 줄 아는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거 옳은 말씀 아닙니까? 자극이 되어도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것이고 자극이 못 돼도 여러분, 민중의 가슴에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내가 찌른다면 자극이 될 거예요? 산 사람을 내가 싸맨들 그가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도무지 민중하고 정치하는 사람하고 그 두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그 어찌 그렇게 모르세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어느 정당, 교파, 학파에 속한 것도 아니예요… 나는 아무 지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농사꾼일 따름입니다. 지극히 적은 민중의 한 사람으로, 민중의 한 사람으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 1963년.7.22 사상계 시민회관 강연 중에서

<연출노트3.> 모든 생명은 갈망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2:13)- 흠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은 그 긴긴 겨울을 인내하며 봄을 기다린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마치 죽은 듯 보이는 그 시간은 오히려 생명이 견고해지는 시간이다. 숨어 있던 그 생명은 축축한 봄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그 봄비는 물론 ‘성령의 단비’이다. 하늘 향해 가지를 뻗은 그 나무의 모습을 성령의 단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의인화하여 담아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욥2:23)”

조선 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참으로 참혹하다. 서구열강과 일본의 침략으로 온 나라의 모든 이권을 빼앗기다가 결국은 나라마저 통째로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어둡던 그 시기에 복음이 들어와 움트게 되고, 정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기도가 되어 하늘에 닿고, 결국은 그 안에 있던 생명의 진실이 터져 나오게 된다. 바로 3.1운동이 그것이다. 오랜 세월을 기다려 터져 나온 그 생명의 외침은 이후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버터내는 이 민족의 근원이 된다.

3. [노래1.] 봄비 / 어린이 3중창 / 함석헌 육성 중간에 장구 전주가 시작된다.

소리 없이 봄비가 밤새 땅을 적셨네요 산과들이 반가워 활짝 웃네요
 추운 겨울 매마른 땅 긴긴 시간을 하늘 향해 팔 벌려 애타게 기다리던
 나무들도 신이 나서 봄비를 맞이하니 봄의 생명 움트고 나와 연듯빛 세상으로
 하루 종일 토닥토닥 봄비가 땅을 적시네요 온 세상이 반가워 활짝 웃네요

<영상2.> 1901-2.8독립선언 까지의 쓰라린 근대사 / ‘추운겨울 매마른 땅-’
 부분에서 영상시작

안창호 선생이 활동하시던 조선말기, 그리고 대한제국 시대!
 우리 민족은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긴 겨울이었습니다.

1876 일본과 강화도 조약 체결, 일본의 치외법권, 관세면제
 1894 동학농민운동, 조선 땅에서 벌어진 <청일전쟁>, 일본과의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
 1895 을미사변
 1896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한 고종
 1897 대한제국 출범
 1904 러일전쟁, 일본의 승리로 끝남
 1905 을사늑약,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1907 <헤이그특사사건>를 빌미로 고종 폐위, 군대해산
 1910.8.16 경술국치. 총리대신 이완용에 의해 한일병합조약 체결

아이들이 퇴장하는 동안 반대편으로 함석헌과 간송이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온다. (핀조명)

<연출노트4.> 간송 전형필은 을사조약이 일어난 다음 해인 1906년에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일제강점기의 한복판에서 살았다. 수많은 지식인들과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부를 이용하여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 할 때,
 그는 자신의 있는 것을 다 쏟아 부어 이 민족의 소중한 예술품들을 지켜내고자
 했던 사람이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교육에도 온 힘을
 쏟아부었다. 함석헌 선생과 깊은 인연은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도봉구에 집이
 있다. 같은 지역에 살았던 두 사람이 조우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상상하며 이 부분을 만들었다. 대화의 내용은 6살 형님이었던 함석헌 선생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대부분의 대사는 함석헌 선생의 글 ‘봄을 그리는
 마음’ 에서 발췌하여 다시 정리하였다.

4. [스킷드라마1.] 함석헌과 간송의 대화

전형필 : 함 선생님! 올해가 벌써 3.1운동 백 주년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함석헌 : 그러게요, 간송 선생님! 저는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의 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01년에 태어났으니 3.1운동 때는 제 나이 스물이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3.1운동은 마치 긴긴 겨울을 몰아내는 봄바람 같았습니다.

전형필 : 암요! 봄바람도 그런 봄바람이 없었지요! 저는 을사늑약이 있던 1906년에 태어났으니, 사실상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3.1운동은 막혔던 숨통이 확 트이는 것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은 더 매서운 겨울 속으로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함석헌 : 맞습니다. 참으로 극심한 겨울이었지요! 그러니 이 겨울이 왜 이리 기냐고 울부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울고 부르짖는 것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죽으면서도 왜 죽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야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각하여 깨달아 아는 일’입니다.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살아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봄을 그리는 마음’이지요.

전형필 :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올 봄을 속에서 미리 볼 때 겨울은 무서워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다구요! 한겨울의 깊은 시련이 없이는 <봄을 그리는 마음>도 알 길이 없을 겁니다.

함석헌 : “겨울이 깊으면 어찌 봄이 멀었으리오” 제가 좋아하는 ‘서풍의 노래’ 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깊고, 겨울바람이 아무리 매서워도 봄바람이 불어오면 겨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말지요. 아무리 센 겨울도 봄바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1919년 봄에 불어왔던 그 봄바람이, 그 생명의 바람이 오늘 우리 후손들이 사는 2019년에도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퐁퐁 열어붙은 모든 마음마다 봄바람이 불어와서, 그 굳은 마음을 녹이고 다시 살아나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꼭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연출노트5.> 대한제국 말기에서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시대의 이 나라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다. 썩어빠진 관료들과 기득권 세력들의 파렴치한 행동들은 그나마 남아 있는 소망마저 내던져 버리는 듯 했다. 이 모습은 마치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았을 때의 이스라엘과 비슷했다.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데려가셨고,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그 엄청난 환상은 에스겔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겔37:9) 여기서 ‘생기’의 히브리어 ‘루아흐’는 ‘호흡, 바람’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 말씀에서 ‘생기’를 겨우내 얼어붙은 세상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봄바람’으로 번역했고, 이 성경 구절을 오늘날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그대로 옮겨 ‘봄바람’이라는 곡의 후렴구를 만들었다. “봄바람아 불어오너라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게 온 세상의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나도록” 이 구절에 나오는 ‘굳은 마음’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겔36:26)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에스겔을 통해 대언하게 하신 그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라고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교회라고 개념화시켜 놓은 좁은 ‘게토’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온 세계, 온 우주의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상이며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도 그러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마른 뼈와 같던 그 민족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또한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5. [노래2.] 봄바람 / 초등학교합창단

꿈꿈 얼어붙은 겨울 들판에 솔솔 봄바람이 불어오며는
 꼭꼭 숨어있던 봄의 생명이 살며시 살아나지요
 툭툭 봄비내려 땅을 적시면 연두빛갈 새싹들이 고개디밀고
 예쁜 꽃봉오리 활짝 미소지며 피어 나듯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어붙은 마음 있다면
 마음 가득 봄바람이 불어와 다시 살아나기를
 봄바람아 불어 오너라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게
 온 세상의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 나도록

<영상3.>1절 마치고 간주할 때 영상이 나옴

1906 양반 의병장 최익현, “내 목은 자를지언정 내 머리칼은 자를 수 없다!”

평민 의병장 신돌석, 태백산을 중심으로 의병활동, 태백산 호랑이

1907 고종폐위와 군대해산이후 의병활동이 더욱 활발해짐(의병사건)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무명 독립군)

<13도 창의군> 이인영, 이강년, 허위 등 이름있는 양반 의병장들이 모여 만든 연합부대

<안사람 의병단> 의병장 유홍석의 며느리 윤희순이 창단

아무리 왜놈들이 강성한들 우리들도 뭉쳐지면 외늬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소나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없이 소용있나
우리도 의병하러 나가보세 의병대를 도와주세
-여성의병장 윤희순의 ‘안사람 의병가’ 중에서-

1907 국채보상운동 “이천만 동포여, 나라 빛을 갚자”

애국계몽운동 “실력을 키워 나라를 되찾자”

신민회 창단 : 애국계몽, 국권회복, 실력 양성을 위한 비밀 단체

남강 이승훈, 정주에 <오산학교> 설립(1907),

후에 함석헌선생 오산학교에서수학하고 가르침

도산 안창호, 평양에 <대성학교> 설립(1908)

규암 김약연, 간도 땅에 <명동서숙> 설립(1908), 윤동주, 문익환등 배출
지석영1907주시경 선생 <국어문전음학> 발간(1908)

1909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사살

1910 한일병합조약 체결

1918 <무오독립선언> 만주의 독립운동가 39명의 <대한독립선언서>발표

1919 도쿄 유학생들의<2.8독립선언>

1919 그리고 드디어, 3.1운동

#2. 씨알의 함성!(3.1운동)

<연출노트6.> 겨우내 숨겨져 있던 생명이 터져 나와 3.1운동이 되었다. 그 역동적인 순간을 배우들이 스킷드라마와 청소년들의 춤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음악은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곡 아리랑을 역동적으로 편곡한 곡을 사용했다. 3.1 운동 과정에 있었던 압제와 핍박, 그리고 그 압제에 항거하며 일어섰던 젊은이들과 민중의 저항을 음악과 춤과 영상에 담았다.

6. [스킷드라마2.] 아이들이 퇴장하는 동안 한쪽 구석에서 태극기만드는 학생들이
핀조명

배우들 태극기에 수결하는동작을 보여진다. 그 때 댄스팀도 같이 서 있다.

배우1 : 우리들은 이에 우리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배우2 :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밝히며,
 배우3 : 이로써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원히 갖게 하노라”
 다같이 :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배우들은 퇴장하고댄스팀은 음악의 시작과 함께 춤을 춘다.

7. [노래3.] 아리랑랩소디(연주곡) 3.1운동퍼포먼스 [프로젝트 댄스팀]

<영상3.> 3.1운동의 과정 영상 / 사진들

1918 제1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승리 이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민족자결의 원칙’ 주장

1919.1.21 고종승하

1919.2.8 도쿄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1919.3.1 민족대표 33인 중 29명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탑골공원에서 한 학생이 단상 위로 올라가 <독립선언서> 낭독
 이후, 1년 동안 전국에서 만세운동, 만주와 연해주에서도 만세운동
 황해도 해주, 기생이 앞장선 독립 만세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열린 만세운동 횟수는 약 1500회
 참가자는 약 200만 명, 그중 7500명이 죽고 15000여 명이 다쳤으며
 49000여명이 체포됨

 진압도중 불탄 가옥 724호, 교회 59동, 학교 3동(일제의 기록)

8. [스킷드라마3.] 3.1운동이후 문화통치에 이은 무단 통치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일본군위안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의 한 단면을
 드라마로 꾸며본다. 드라마와 연결하여 배우들 중 한 명이 술아술아-를 부르고,
 후렴부는 다른 배우들이 함께 노래한다.

(댄스팀이 퇴장하면 반대편에서 핀조명과 함께 함석헌이 서 있다.)

함석헌 : 서울에서 일어났던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 갈 때만 해도 곧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일본 놈들도 사람일 거라는 생각으로
 비폭력으로 독립운동을 했지요. 그러나 놈들은 그런 우릴 총칼로 마구 죽이고,
 사정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만행은 우리나라를 넘어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안가 일본은 중일 전쟁을 일으켰고, 심지어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스러운 전쟁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어갔습니다.

주민 1 : 얘기들었어? 온 동네가 야단이야… 일본 놈들이 동네 청년들을 다

끌어가고 있다네..

주민 2 : 강제로 끌어가 일 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군대로 보낸다는구먼.. 다 총알받이지..

주민3 : 이러다가 동네 젊은이들이 씨가 다 마르겠구먼..

주민1 : 아랫마을 김씨 딸 예순이도 간다는데... 담배공장에서 일을 한다나 어쩐다나..

주민2 : 그놈들을 말을 어떻게 믿어? 우리 새끼들... 어떻게 하면 좋아....

주민3 : 저기 가는구만.

김씨와 딸이 들어온다.

딸 : 엄마,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 수 있게 해 준 데.. 잘 다녀 올께. 걱정하지 마.

김씨 : 아이고 우리 딸, 몸조심 하고 잘 지내야되! 꼭 편지하고.

함석헌 과 배우들 떠나는 딸을 바라보다 사라진다.

<연출노트7.> 3.1운동 이후, 일본은 통치방식을 바꾸었다. 처음엔 회유책을 써서 문화예술인과 지식인들을 끌어들이고, 그 후에는 오히려 그들까지 이용해 온 나라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 말살하고자 했다. 그리고 일제 말기에는 강제징용과 징병, 그리고 정신대와 군위안부 등을 통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그 아픈 역사를 노래와 영상으로 담는다. 그 참혹한 시절, 우리 민족은 참 자유를 향한 더욱 깊은 갈망을 품게 되었고, 그 생명의 물줄기는 우리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게 했다. 우리 민족의 설움을 표현하기 위해 피리와 해금과 같은 우리 선율 악기들을 함께 사용했다.

9. [노래4.]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 여성 솔로

<영상4.> 3.1운동이후 일제 말기의 압제 / 강제징용, 강제징병, 근로정신대, 일본군위안부

1937 중일전쟁, 난징대학살, 연해주에서 약18만명의 조선인 시베리아로 강제이주

1941태평양전쟁시작, 강제징용, 미림비행장사건(비밀누설방지를 이유로 강제노동자800사살)

쿠릴열도에서 5000명, 류큐섬에서 1700명이 비밀누설방지를 이유로 학살 강제징병 / 여자 정신대 근무령 / 근로정신대 / 일본군 위안부

조선 내에서 동원된 사람 450만-480만명, 일본에 끌려간 사람 120만명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끌려간 사람30-40만명, 종군위안부10-13만명, 이 시기 약 700만명 가량, 당시 전체인구의 약3분의 1이 이런 저런 모습으로 강제동원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 오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참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쭉물 들어도 강물 저어 가리라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셋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연출노트8.>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른 생명을 상징한다. 그 촘촘하고 메마른 시간을 인내하며, 그 안에 생명을 흐르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게 한다. 그 푸르른 생명의 움직임은 상징하는 인물 중의 한 명이 바로 간송 전형필이다.

10.<영상5.> 간송 전형필 뉴스 (1' 55)

3.1운동 이후 일본은 더욱 잔고하고 무자비하게 우리 민족을 압박했습니다. 그 시절 독립운동의 핵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의 밀정이 되어 피를 나눈 동지들과 그 가족을 일본에 팔아 넘겼습니다.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이 나라의 귀한 것들을 팔아먹으며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그 때, 분연히 일어서서 우리 것을 지켜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깊은 산 속에서도 얼지 않고 흐르는 물, 그곳에 제자리를 지키고 푸르게 선 소나무와 같은 사람, 간송 전형필!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부은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전부를 쏟아 부어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연출노트9.> 간송이 문화와 교육의 영역에서 일제에 대항하며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한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생명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 것을 지키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자 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말과 글을 회복함으로 우리 얼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임시정부를 수립함으로 정치적 회복을 꿈꾸며 싸웠던 사람도 있었다. 군대를 일으켜 군사적인 독립을 추진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거침으로 가득한 제국의 세력에 대항했던 생명의 씨알들의 노력을 이 노래와 영상에 담으려 했다. 이것은 ‘나라의 회복’을 위한 우리 편의 생명의 응답이다.

11.[노래5.] 상록수 [남성듀엣(조태진, 김민우)]

<영상5-1> 간송뉴스를 마치면 상록수 전주시작. 전주하는 동안에 뉴스에 이어 간송 사진들과 함께 자막

1. 저들의 푸르른 술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2. 서럽고 쓰리던 지난날들도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3.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영상6.> 임시정부, 교육운동, 독립운동, 무장투쟁, 그리고 해방
 1915 박은식, 상해에서 대한제국시대의 아픈 역사를 담은 <한국통사> 출판
 1919.4.11 상해 임시정부 수립
 1920.6.7 봉오동전투 승리, 홍범도와 대한독립군, 최진동과 군무도독부군, 안무와
 국민회군 연합군
 1920.10.21-26 청산리전투 승리,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다른 독립군의 연합군
 1923 방정환, 색동회 창단, 어린이날 제정
 1923 관동대지진, 관동대학살
 1932 신채호 조선일보에<조선상고사>연재시작
 1932 이봉창의사 의거, 일본천황에게 폭탄던짐

“조선인은 조선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거짓 삶이 된다”
 -이봉창의사-

1932 윤봉길의사, 상하이 홍커우 의거, 많은 일본 전범 살해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백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들 계십시오.

1940 한국광복군 창설, 김구의 주도로 만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군

<연출노트10.> 해방은 갑자기 찾아왔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다. 그
 기쁨은 온 나라를 들뜨게 했다. 그 감격과 환희를 우리 전통음악과 현대의 춤
 비보잉에 담아 풀어내고자 한다.

12. 해방의 기쁨 [광개토사물놀이] 사물+비보잉

<영상7.> 해방당시기록영상-원자폭탄, 일왕의 항복선언, 조선총독부 항복조인식,
 만세영상및 사진들 / 영상 중간에 광개토사물놀이 등장/ 만세 사진을 배경으로
 한바탕 축제

“해방 때의 씨알의 감격은 3.1운동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가졌으면 참 혁명을 할 수 있었습시다. 그 감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씨알은 누구나 나라를 위해서라면 제 눈알이라도 뽑아 내놓을 의협심, 봉사심에 떨고 있었습시다. 그것을 저는 해방 날 메투리를 신은 채 끌려 나가 한달 동안을 읍 자치 위원장, 군 자치위원장의 완장을 두르고 다니며 그들과 서로 어깨를 비비대 보아서 압니다.”

<연출노트11.> 해방의 기쁨은 온 나라를 들뜨게 했지만, 마냥 기뻐하기엔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체계적으로 빼앗아 간 것이 너무나 많았다. 일본의 마지막 총독이 한 말이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잊이 말아야 할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새겨주고 있다. 우리가 잊으면 원수가 마음대로 조작한 거짓 이야기에 속아서 오늘 나의 삶 뿐 아니라, 이어질 다음 세대의 삶 까지 망가지게 할 수 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신9:7)

일본이 일제강점기 중에 우리 민족에게 행한 일은 지금도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행하는 일과 아주 비슷하다. 온갖 거짓말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부심과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조작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일본제국, 즉 사탄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려 한다. 때로는 힘으로 눌러서, 때로는 회유책을 써서 그리한다. 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소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실행해야 한다

3. 갈라진 꿈

13. <스킷드라마4.> / 조선의 마지막 일본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망언

배경화면에는 독립당시 만세를 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올라와있다. 다른 쪽에서 편조명이 비추고 일본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를 비춘다.

아베 : 나는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다! 내 비록 지금은 이렇게 한국을 떠나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우리가 그동안 해 놓은 일이 좀 있거든! 지난 16년 동안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 35권의 새로운 조선사를 만들었지! 이것이 조선에게 주는우리의 마지막 선물이야!

“그들이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 조상의 무위, 무능, 악행을 들추어 과장해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고, 단결보다 분열을, 독립보다 지배받는 것을 좋아하는 열등한 민족! 이와같이 못난 조선인들이 제국의 신민이 되고

천황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로부터 세상은 평온하게되었으며 산업은 개발되고 무역은 발전하고 있었던 말이다. 예를 들어 볼까? 조선의 철도를 누가 놓아 주었는가? 바로 우리 일본 대 제국이지!”

다른 쪽에 핀 조명이 들어오고 조선인 민초 한 사람이 나와 번갈아 가며 대사한다.

민초 : 철도? 빼앗은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만든 철도말야?

아베 : 공장을 세워줬어!!

민초 : 공장?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세운 공장이었지.

아베 : 학교도 세워줬거든!

민초 : 학교? 제2의 일본인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였어! 우리의 민족의 얼을 빼앗고,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 만든 가장 악랄한 공간이었지!

아베 : 우리 대 일본제국은 엄청난 자본을 들여 조선이 근대화되는 것을 도왔다!

조선에 투입한 자금이 70억 엔은 될걸?

민초 : 이 악랄한 놈들아! 너희가 빼앗아 간 자금과 물자 440억 엔이 넘는다고!
그리고 우리의 빼앗긴 삶은 어찌고!!!!

아베 : 하하하...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어. 한국이 일제 강점기를 겪은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고!! 비록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야. 장담하건데 한국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 훨씬 더 걸릴 걸? 우리 일본은 한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거든. 으하하하!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고 싸우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편조명 아웃과 함께 아베, 민초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전주가 나온다.(드럼으로 시작하여 일렉기타의 연주로 힘차게 시작된다.)배경 화면에는 소련과 미국의 신탁통치를 알리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이 잠시 지나간다.

<연출노트12.> 대한제국 “1945년 11.23. 해방을 맞이한 지 100일째 되던 날! 신의주에서는 반공산주의, 반소련을 외치는 학생들의 의거가 있었다. 청년 함석헌은 이 운동의 주동자로 몰려 붙잡혔다가 극적으로 풀려나와 가족을 뒤로 한 채 남쪽으로 내려온다. 그때 이 시를 지어 자신의 마음을 남겼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러나 함석헌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갈라졌고, 일본이 가장 바라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것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 몸 둘로 갈라지는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될 때, 우리는 이

일을 예견하고 미리 말씀하셨던 선각자들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된다.

14. [노래6.] 그 사람을 가졌는가? / 남성솔로 &뮤지컬팀 코러스 / 드림으로
힘차게 시작, 일렉기타솔로전주 / 전주하는 동안<영상9.>시작

“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며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땀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말할 그 사람 가졌는가?
[후렴]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릴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영상9.> 소련과 미국의 신탁통치/신의주학생사건과 함석헌의 월남/함석헌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로 나라가 둘로 나뉠 위기를 맞이한다. “1945년 11.23. 해방을 맞이한 지 100일째 되던 날! 신의주에서는 반공산주의, 반소련을 외치는 학생들의 의거가 있었다.

[신의주학생사건]

청년 함석헌은 이 운동의 주동자로 몰려 공산당에게 붙잡힌다. 후에 극적으로 풀려나와 가족을 뒤로 한 채 남쪽으로 내려온다. 그때 이 시를 지어 자신의 마음을 남겼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오산학교의 스승 다석 유영모, 그리고 도산 안창호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남강 이승훈 : “우리가 할 일은 민족의 역량을 기르는 일이지 남과 연결하여 남의 힘을 불러들이는 일이 아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고당 조만식 :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 피차 고향을 묻지 말고 일하자. 인화와 단결이야말로 국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독립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연출노트13.>함석헌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유영모,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다.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고, 그 성경에 담긴 진리의 말씀들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온 민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다시 말해내신 귀한 선각자들이었다. 말로만 할 뿐 아니라, 삶의 열매를 더해 그 말에 힘이 있게 했던 분들이었다.

함석헌

“우리는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돼야 합니다. 하나 돼야 삽니다. 갈라진 이대로는 살 수도 없고 산다 해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이 싸움을 즉시 그만두고 하나 돼야 합니다.

-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편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p.143)

<연출노트14.>함석헌 선생의 이 말씀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겔37:17, 22) 우리는 다른 둘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인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우리가 원래 하나인 것을 ‘보아야’ 한다. 그 ‘봄’ 에서 새로운 갈망이 시작되고, 그 깊은 곳의 갈망으로부터 생명의 일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뜻은 갈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 나라를 세우는 일ियो,
 둘째는 민족 통일을 이루는 일ियो,
 셋째는 세계 평화의 길을 닦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그 세계평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이 그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연출노트15.> 함석헌 선생은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성경으로 관점으로 다시 보고 풀어 쓰면서, 그 고난의 역사를 오히려 역사적 사명으로 다시 풀어낸다. 그리고 6.25라는 현대사 중 가장 끔찍한 전쟁 중의 하나를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받은 사명으로 풀어낸다. 이렇게 사명을 받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에는 있어도 그것이 내 생각, 내 믿음, 내 인생 철학, 내 국가관, 내 사회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지요. 기억이 사람입니다. 기억 못 하는 것은 짐승과 다름없지요.”

우리 민족을 위해 ‘그 사람’ 이 되셨던 민족의 스승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담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들. 그러나...

<연출노트16.>사람들은 민족의 선각자들의 온 삶을 담아낸 말씀들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분들이 보시던 것을 보지 못했고, 안일하게 응답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를 잊었고, 삶으로 응답해야 할 것들을 뒤로 미루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했다. 한국 전쟁이 터진 것이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싸울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결코 안 된다.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부르고, 전쟁은 어느 한 편이 아니라, 양편 모두를 죽게 한다. 그것은 전쟁에서 이겨도 마찬가지이다. 상대가 죽으면 결국 나도 죽게 된다. 함께 죽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15. [노래7.] 작은 연못 / 어린이& Bariton & 리코더연주

<영상10.> 해방 이후 분열의 역사/ 6.25 영상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 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들어 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자막] 민족의 스승들의 온 삶을 건 권면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우리는 민족 분열이라는 또 한 번의 커다란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1946.5.23 38선 통행금지
 1947.7.19 여운형암살
 1948.2.7 남한 단독정부수립반대운동 점화
 1948.4.3 제주 4.3항쟁 발발
 1948.5.10 남한 단독 총선거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대 대통령 이승만)
 1948.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초대 수상 김일성)
 1948.10 여순순천 사건 발발
 1949.6.26 김구 암살

-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두마리-

1950.6.25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 발발!
 1950.6.28 조선인민군 서울점령. 한강 인도교 폭파로 800명 사망
 1950.6.29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인사에 대한 무차별 체포, 학살
 1950.10.25 중국인민해방군 참전
 1951.1.4 1.4후퇴
 1951.3.14 서울 재수복
 1952.5.7 거제도 포로수용소 폭동사건
 1953.7.27 휴전협정체결

“남한은 북산을 소련, 중공의 꼭두각시라 하고,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꼭두각시라
 하니 남이 볼 때 있는 것은 꼭두각시뿐이지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다. 6.25는 꼭두각시놀음이었다. 민중의 시대에 민중이 살았어야 할 터인데
 민중이 죽었으니 남의 꼭두각시 밖에 될 것 없지 않은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중에서

16. [노래8.] 비목 / [남성합창단]

<영상11.>/6.25 전쟁(대포소리와 함께 시작),전쟁후 폐허가 된 산하, 부모 잃은 아이들, 자식 잃은 부모의 통곡..

1.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 녘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이끼 되어 맺혔네

2. 궁노루 산울림 달빛 타고 달빛 타고 흐르는 밤
홀로 선 적막감에 울어 지친 울어 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퍼 / 서러움 알알이 돌이 되어 쌓였네

전쟁이 지나간 후 서로 이겼노라 했다. 형제 싸움에 서로 이겼노라니 정말은 진 것 아닌가? 어찌 승전 축하를 할까 슬피 울어도 부족할 일인데...

나라를 온통 잿더미, 시체 더미로 만들었던 6.25 싸움이 일어난 지 여덟 돌이 되도록 우리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역사의 뜻을 깨달은 국민이라면 이려고 있을 리가 없다 ... 6.25의 중심되는 뜻은 하나 되는 세계로 달리는 한 걸음이란 데 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4.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연출노트16.> 누군가에게 ‘그리운 내님’은 어머니이요 아버지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요, 친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즉 온 인류가 그 중심으로부터 그리워하는 그 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신 근원의 아버지 하나님이며 또한 그분이 보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사람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고, 또한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우리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사건은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늘 아버지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에게 보여 주셨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형상과 그 진실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셨다. 성령은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고, 주님 보내신 구원자를 그리워하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게 한다. 그렇게 서로 소통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 성령의 바람이 바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봄바람이며, 생명의

바람이다.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17.[노래9.] 눈물젖은 두만강 / 여성 Solo(국악인)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신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강물도 달밤이면 목메어 우는데
 님 잃은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떠나간 그 내 님이 보고 싶구려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마음이여

18.[노래10.] 고향의 봄 [프로젝트연합합창단]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 동네 새 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 때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연출노트17.> 일제강점기에 이어 한국전쟁, 그리고 이어진 민주화의 과정까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정말 너무나 참혹하다. 그러나 그 참혹한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사실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아프고 힘겨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임하고 있다. 절망과 실패의 역사 뒤에 감추어진 그 은혜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다음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진실로 보게 될 때, 이 갈라짐이 괜찮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그때 비로소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줄 이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다른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이기에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원래 하나인 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 평화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평화의 씨앗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심어줄 그 씨앗은 다름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9: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씨)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갈3:16)”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벧전1:23)

이 공연의 주제곡으로 삼은 ‘씨앗의 꿈’ 은 함석헌의 ‘씨알’ 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베드로전서 1:23의 ‘썩지 아니할 씨’ 를 의미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신 그분, 그 생명의 씨앗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인 우리의 삶의 밭에 떨어지고, 그 씨가 뿌리내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이 개인의 역사이고, 동시에 인류의 역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씨를 뿌려야 할 구체적인 이유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126:6)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13:8-9)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그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의 흔적이 없는 순간은 없다.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은혜의 역사를 보고, 그 고귀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다시 말해내고, 삶으로 보여 주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를 통으로 깊이 읽으며 답아야 할 이유이다.

19. <스킷드라마5.>

함석헌 : “제 고향은 머나먼 북쪽 신의주 땅입니다. 내가 살던 그 아름다운 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내 나라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돼야 합니다. 하나 돼야 삽니다. 갈라진 이대로는 살 수도 없고, 산다 해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이 싸움을 즉시 그만두고 하나 돼야 합니다.”

[string 전주시작]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동과 서,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세대와 세대 간의 싸움을 멈추고, 함께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열, 하나의 생명을 가진 한민족이기 때문입니다.

[add Piano] 이것이 바로 ‘씨알’ 입니다. 알은 열매이고 참이며 실제입니다. 그 사람 고유의 ‘열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둘을

합치자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의 나를 회복하고, 내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 하나 된 생명의 씨, 그 하나됨의 씨알을 심기 원합니다.

20.[노래11.] 씨알의 꿈 [프로젝트 주민합창단] 1절 어린이 중창 / 2절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신비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사과 속의 씨알은 셀 수 있지만
 씨알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갈 때 모두가 보게 될거야

<영상12.> 간주부터 전쟁이후 회복 과정의 영상 (씨알들의 얼굴 클로즈업!)

[자막]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갈라진 땅, 우리 선조들이 다시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모, 삼촌, 선생님, 형님, 누나...
 거기 그렇게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들이뿌린 피와 땀, 그리고 그 눈물이 있어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손과 발에 새기고,
 질척한 우리네 삶에 새겨 오늘 우리가 뿌려야 할 생명의 씨, 평화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섞여 있던 못된 가라지는 걸러내고, 좋은 씨알들을 골라내어 뿌리겠습니다.
 너와 내가 우리 되어 하나의 작은 씨를 뿌리겠습니다. 울더라도 뿌리겠습니다.
 그 열매를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어도,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 흘려야 할 땀을 흘리겠습니다.

<참고> 함석헌 어록

“민중이 뭐냐? 씨알이 뭐냐? 곧 나다. 나대로 있는 사람이다. 모든 옷을 벗은 사람, 곧 알 사람이다. 또한 알은 실, 참, 리얼이다. 그 사람 고유의 ‘얼’ 이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토록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에는 있어도 그것이 내 생각, 내 믿음, 내 인생 철학, 내 국가관, 내 사회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지요. 기억이 사람입니다. 기억 못 하는 것은 짐승과 다름없지요.” (p.45)[해방의 날에 새 세대에게 주는 말] (제5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삽니다])

-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우리 선조들이 다시 일으켜왔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깊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을 지켜온 민초들이 뿌려온 그 씨앗을 받아 다시 뿌리면 됩니다. 섞여 있던 못된 가라지는 걸러내고, 좋은 씨앗들을 우리 같이 뿌려봅시다. 그 열매를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어도,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 민경찬

5. 씨알의 노래

<연출노트18.>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렸던 88 서울 올림픽은 호평과 악평이 동시에 존재하는 올림픽이다.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가난하고 약한 많은 사람들이 외면되는 일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함석헌 선생은 이 서울올림픽의 평화위원장을 맡는다. 북한이 참여하여 남과 북이 함께 한 이 올림픽이 갖는 평화적 상징성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갖는 이 하나됨을 위한 축제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의미 때문이었다. 이 서울 올림픽 개막식 때 있었던 어린 소년의 굴렁쇠 퍼포먼스는 우리가 하나인 지구의 일원임을 잘 나타내 주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평가받고 있다. 그 굴렁쇠 퍼포먼스와 함께 어린이 아이들이 춤추며 등장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 함께 한 관객들이 모두가 함께 느끼도록 한다.

21.[노래12.] 굴렁쇠 [어린이 합창단]

<영상13.> 88올림픽 굴렁쇠소년 영상 / 이후에 어린이 합창단이 춤추면서 무대 뒤에서 등장

둥글둥글 굴렁쇠야 어디가니 돌돌 굴렁쇠야 어디 가니
 돌판을 지나 언덕을 넘어 둥글둥글 굴렁쇠야 어디 가니
 멈추면 넘어진다 힘을 내거라 얼씨구나 신나게 달려가 보자
 떼구르르 뼉떼구르 잘도 굴러간다 햇살 가득 품에 안고
 떼구르르 뼉떼구르 멀리 굴러간다 온 세상 끝까지
 온세상 아이들아 모두 모여라 다 함께 굴러보자 돌돌 굴렁쇠
 떼구르르 뼉떼구르 잘도 굴러간다 햇살 가득 품에 안고

때구르르 땡때구르 멀리 굴러간다 온 세상 끝까지
 룰루룰루 룰루룰루 룰루룰루 탈라 탈라탈라 탈라탈라
 들관을 지나 언덕을 넘어 둥글둥글 굴렁쇠야 어디 가니

<연출노트19.> ‘손에 손잡고’ 는 88서울올림픽의 주제가이다.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의 주제와 너무나 잘 맞는 가사와 선율을 가진 곡이다. 이상적인 노래를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는 모든 참여자뿐 아니라 관객도 함께 ‘참여’ 하여 함께 부르는 시간을 통해 하나됨의 기쁨을 잠시나마 ‘경험’ 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됨을 향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

‘손에 손잡고’ 의 노래말 대로, 손에 손을 맞잡는 것은 '벽'을 넘기 위함이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벽이 놓여 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전체 앞에 놓인 거대한 벽이다. 환경문제,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재난, 인종과 종교의 갈등, 민족과 나라, 그리고 이념과 사상의 갈등 등 인류가 함께 풀어가야 할 거대한 벽이다. 이 벽은 혼자서는 결코 넘을 수 없다. 그래서 함께 손잡아야 한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서로 손을 맞잡는 일, 너무 쉬워 보이는 그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너와 나 사이에도 벽이 있어, 손 한번 잡는 게 이리도 힘든 게다. 성격 탓이든, 환경과 경험 탓이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벽으로 인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노래 가사 속에 나오는 벽은 한 번 부르고 살짝 지나치는 벽이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벽은 결코 가볍지 않다.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벽이다.

누가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원래 하나임을 보지 못하는 '내'가 만든 벽이다.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나'라는 이름의 벽이다. 혼자서는 존재조차 할 수 없으면서, 어찌면 그리 '나'만 생각하는지.. 나를 보되, 우리를 함께 보지 못하면 그토록 소중한 여기는 내가 고통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우리'를 보지 못하고 '나'만 생각했던 매국노들이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넘겨버렸던 뼈아픈 기억, 온 나라가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이해 이웃과 가족의 원수가 되었던 비극적인 아픔을 그 몸과 마음에 아직도 고스란히 배어 있는 분들이 아직 살아계실 때 그 벽을 허물어야 한다. 아니, 허물지 못해도 상관없다. 어찌면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벽은 존재할지도 모를테니 말이다. 다만 우리가 손잡고 마음을 모으면 된다. 그때 비로소 그 벽을 넘을 수 있으니 말이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 손잡고

우리가 비록 어둔 밤과 같은 시절을 지내며 거대한 벽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손을 맞잡고 함께 꿈을 꿀 수 있다. 꿈은 원래 할 수 없을 때

꾸는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넘고자 할 때 돕는 손길을 만나게 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18:29)"

'은혜'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개를 넘을 때마다 사실은 이 은혜가 있었다. 모든 시대마다, 설사 그것이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같은 거대한 비극 속에 있을 때에라도 은혜가 없던 때는 없었다. 아니, 오히려 아픔이 크고, 어려움이 클수록 더 큰 은혜가 부여되고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우리가 모를 뿐이었다. 그 은혜를 알 때, 우리 앞에 있는 벽과 산들은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 그 은혜의 이야기를 노래 안에, 노래와 노래 사이에 담았고, 그 마음을 랩에 담아 새롭게 표현하였다.

사실 이번 공연의 컨셉 자체가 은혜이다.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함께 노래하는 이 공연 자체가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 공연의 총감독인 본인을 비롯하여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은혜의 사건을 '경험(Experience)' 하고, 사람들은 그 은혜의 사건에 직접 '참여(Participation)' 함으로 그 감동의 경험을 '이미지(Image)' 화 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회복된 '관계(Connection)' 를 통해 자연스럽게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22. [노래13.] 손에 손잡고

[뮤지컬팀]랩퍼/댄스팀/마지막에 모든 출연진 '손에 손잡고-' 를 부르며 입장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들 가슴 고통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손잡고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의 가슴 불타게 하자
 하늘 향해 팔 벌려 고요한 아침 밝혀주는 평화 누리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 손잡고

[Rap]전쟁으로 폐허 된 우리들이 사는 땅을 | 선조들이 다시 일으켰어

너무나 많은 어려움 너무나 많은 아픔 있었지 |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선조들이 지켜온 아름답고 평화로운 땅 | 이젠 우리들이 힘써 지켜가야지
 혼자서는 못해도 함께 면 할 수 있어 | 우리가 쌓은 두터운 벽 허물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심 버리고 | 갈라져버린 땅 하나로 만들어가야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새로운 세상 |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
 더욱 아름답도록 | 더욱 빛나도록 손에 손을 맞잡고 | 함께 노래부르며 |
 이 벽을 넘어서자 모두 한마음 되어 | 노래부르자

<연출노트20.> 신중현이 만들고 이선희가 부른 ‘아름다운 강산’은 대한민국 광복70주년 행사 때 불렀던 노래다. 이미 사람들에게 익숙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그 안에 담긴 은혜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행복감을 준다.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되어 같은 노래를 목이 터져라 함께 부르는 행복한 경험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훌륭한 시작이 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함께 노래를 부른 사람’ 하고는 쉽게 싸울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함께 노래하는 일들이 많아질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리라.

이 아름다운 강산을 계속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땅, 좋은 환경을 물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땅을 위해 아름다운 사람을 선물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 ‘나’가 온전한 ‘나’가 되기 위해 ‘너’가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로를 향하여 움직여 ‘만나야’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불통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어렵더라도 소통을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함께 부르는 이 노래는 정말 중요하다.

23. [노래14.] 아름다운 강산 / 연합합창, Solist 4, 사물놀이팀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풀은 내마음
 나뭇잎 푸르게 강물도 푸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네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희망을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풀은 내마음

우리는 이 땅위에 우리는 태어나고 아름다운 이곳에 자랑스런 이곳에 살리라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 태양이 비추고 파란물결 넘치는 저바다와 함께 있네
 그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노래하리
 오늘도 너를 만나러 가야지 말해야지 먼 훗날에 너와나 살고지고
 영원한 이곳에 우리의 새꿈을 만들어 보고과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온다네 아름다운 강산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너의 마음 너와 나는 한마음 너와 나
 우리 영원히 영원히 사랑 영원히 영원히 우리 모두다 모두다 끝없이 다정해--

<연출노트21.> 엔딩 크레딧은 중요하다. 이 공연이 어느 한 개인의 준비로 된 것이 아님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고, 이 과정 자체가 큰 은혜의 사건임을 보여 준다. 또한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하나 하나 기록하여 남김으로서, 우리를 ‘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한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또한 참여한 단체들 또한 의미 있는 일에 참여했다는 자부심과 즐거움을 갖게 하여, 이후에도 더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 이 공연이 만들어 졌는지 보여 줌을 통해 ‘공연’ 자체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지는 과정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고, 그 소중한 기억들을 되살리며 기뻐하도록 돕는다.

24. 씨앗의 꿈(음원)

<영상 14 : Ending Credit> 공연 준비과정을 담은 영상, 참여한 사람들, 도와주신 분들과 단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갈라진 이 땅, 우리선조들이 다시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모, 삼촌, 선생님, 형님, 누나...
 거기 그렇게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있고, 내가있어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뿌린 피와 땀, 그리고그 눈물이 있어 오늘우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기억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손과 발에 새기고, 질척한
 우리네 삶에 새겨 오늘 우리가 뿌려야 할 생명의 씨, 평화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 열매를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어도,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뿌려야 할 씨를 뿌리겠습니다.

부록11.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강북문화제 [손에 손잡고] 포스터 및 리플릿



부록12.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연 포스터 및 참여자 인터뷰


2019 성별평등 실천사업


PRE-CONCERT PROGRAM 14:00~

- 이음종합창단
 1. 사노라연
 2. 혼자가 아나나
- 브라보마이라이프
 1. 행복의나리로
 2. 브라보 마이 라이프
- 소나무합창단
 1. 엽을 블 자유
 2. 행복을 주는 사람(연합)

수고한 당신을 위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시: 2019년 11.30(토) 오후 7시
장소: 광무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출연: 브라보마이라이프합창단
이음종합창단, 소나무합창단





참여소감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활동 및 지원에 관 한 진(원혜영)

이번 2019년 성별평등 실천사업 '수고한 당신을 위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특히, '수고한 당신을 위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특히, '수고한 당신을 위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었던 것은, '수고한 당신을 위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특히, '수고한 당신을 위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었던 것은, '수고한 당신을 위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특히, '수고한 당신을 위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참여진

이음종합창단

이음종합창단은 이번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특히, '수고한 당신을 위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었던 것은, '수고한 당신을 위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특히, '수고한 당신을 위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참여 후기>

도화지 (김광태)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북문화재단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합창을 하였습니다. 생초보 때문에 합창에 누가 된 부분이 있으면 지휘자님과 우리 팀원 모두 너그러이 용서해주세요... 함께 합창을 하면서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많은 가르침을 배웠고 큰 힘이 되어 주신 지휘자님, 소프지니님, 진행에 도움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이번 팀원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노아 (이창일)

지치고 메마른 내 마음에 음악의 씨앗을 받아갑니다. 매번 연습실에 가면 반겨 주시고 맛난 것도 많이 먹어서 넘 행복했어요 혹시나 하고 갔더니 기대이상으로 너무 좋았어요. 특히 클래식 발성법과 실용음악의 기법 접목은 환상입니다. 이론을 넘어 뚝뚝한 배를 직접 누르며 개인발성법을 직접해주시어 영광입니다 또 실용음악의 창법과 기법은 나도 노래방에 갈 수 있는 자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곡해 주신 노래를 계속 감상하며 연습하다 보니 가사 들리고 의미까지 깨닫게 되어 내 자신의 감정을 넘어 영혼까지 치유 되었습니다 음악의 소통과 치유가 이런 건가하고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먼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서 있구나 나도 실생활에서 이용 할 수 있다는 자심감을 가져갑니다. 오늘은 노래방 같까 7080라이브로 같까 고민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꿈돌이 (안주덕)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노래로 같이한 많은 분들과의 시간은, 저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한 즐거웠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추억의 한장을 마련해 주신 재단에 감사드리며, 지휘자님과 진행요원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무 (최재호)

살아가면서 하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하지 못하고 머리 속에서만 가지고 있었던게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 몇몇은 나이가 들면서 여건도 어느 정도 허락하고 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아직 배우는 단계지만 기타와 합창이 그렇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관계로 기타치며 노래하는 것이 정말 좋아서 시작을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럿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는 남성중창이 웅장함에 한몫을 합니다만 남성중창에 비길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남성합창은 제게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로망을 충족시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참여기간도 다른 분들에 비해 짧고 능력도 부족했지만 그나마 잠깐이라도 제가 하고싶은 일을 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특히 지휘자님의 밝은 긍정 에너지도 함께 받아서 더욱 좋았습니다

김진태 선생님

나이들어가면서 좋아하면서 즐길 것을 찾는중 우연히 알게되어 민지휘자님의 열정적인 가르침으로 2달간 재미있고 잘 배웠습니다 좋은 단원들 만난것도 저에게 행운이구요 이런 기관에서 주관 하는 것은 저하고 거리가 먼지 알았는데 가까이 있고 내용 또한 매우 충실하였습니다 다음에도 기회되는데로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지휘자님 반주자님 유진씨 소프지니님 등등 모두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철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해줘요

가고파 (최승철 선생님)

저는 강북구립 시니어합창단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최승철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남성합창단에서 노래한 경험이 있는데 시니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면서도 남성들만의 하모니를 그리워 하기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브라보 마이 라이프” 단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어 몹시 반갑고 좋아서 마침 같은 마음의 두 단원과 같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가대, 합창단에서 지내며 느껴왔던 같은 방법의 합창이면서 남성중창단의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습 첫날부터 완전히 다른 새로운 느낌의 연습을 경험하였고, 연습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마냥 즐겁고 행복하였으며, 그러면서도 한곡씩 같이 화음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참 좋았습니다.

그냥 기다려지는 화요일...지휘자님은 단순한 노래만이 아닌 부모세대의 보기 좋은 문화를 젊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는 목적까지 더하여 연습 자체의 의미를 더욱 멋지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 짧은 시간에 큰 합창단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발성법 지도, 전문 성악가의 강의까지도 받게 되는 기회도 마련하여 주셨구요. 저도 첫 연습을 오고 나서 이런 기회는 나와 친하게 노래를 부르던 친구들에게 꼭 경험케 하고 싶어 두 명이나 초대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공식 연습은 끝나고 리허설과 연주회만 남았는데 참 아쉽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시스템을 꾸준히 지속시켜 주셔서 정기적으로 연주도 하고 음악으로 치유를 돕는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창단이 유지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팀을 잘 이끌어주신 지휘자님과 잘 진행되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담당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미 (박성권 선생님)

짧은시간 지하쪽방 깜짝 song 들----

부담없는 민쌤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지휘와 창법 잠시 예전 학교시절 노래 동아리 반 생각이 떠 오르는 시간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노래로 한마음을 만든다는것은 서로가 존중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의 행복이라 생각 합니다. 짝꿍 친해보려하니 떨어져 가네요 ^^ 아무쪼록 모든분들 건강 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주자님 유진씨 애쓰셨습니다 ^^

월(류중혁 선생님)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이어서 처음에 약간은 어색했지만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구성원의 연령대에 맞고 관객들 호응에 맞을만한 대중적인 곡선정과 방식은 아직 공연을 앞두고 있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곡들을 짧은 연습시간임에도 열정과 기술로 쉽고 재밌게 해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즐겁게 연습할 수 있었고 연습 준비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 기간 내내 좋았습니다. 수고해주신 지휘자, 반주자,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다면 다시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운(차정호 선생님)

남자의 자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거든요. 이번에 미니 남자의 자격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즐겁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준비해주시는 음료와 간식도 넘 좋구요.. 마지막 순간에 역류성식도염 때문에 노래가 제대로 안되어 걱정됩니다. 그래도

즐겁게 하겠습니다-

최 석 중 선생님

집이 멀어서 오가는데 힘이들었지만 좋은 인상의 여러분들과 만나 함께 노래하여 한편으로는 좋은 쉼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공연 의도가 아름다워 능력은 부족하지만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지도해주신 지휘자님과 열정어린 스탭분들, 발성 문의한을 일깨워주신 지니 선생님, 반주자님 모두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참 좋은 가을을 보내게 되어 신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중가요를 잘 모르는데, 휴대폰에 이어폰 꽂는 부분이 공교롭게도 고장이 나서 평소 연습을 충분히 못해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짧은 만남에 이어지는 헤어짐이 아쉽지만 치매 전까지는 간혹 이 만남을 떠올리고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늘 즐거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명(홍 찬 혁 선생님)

1. 합창단에서 만났지만 이제 합창단을 그만두신 바람에 자주 만나지 못하던 최승철 님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강북구에 살고 있으니, 강북구에서 하는 중창단 연습을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담 없이 음악을 즐기는 모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제 일정을 살펴보니 몇 번 모이는 것 정도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별 기대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첫 번째 참여하며 영접결에 무명이라는 아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다는 無名(무명)으로 시작했지만, 할 일 없다는 無命(무명)으로 제 아호 하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소개 시간에 제가 읽은 시도 마음에 듭니다. 노래 연습하면서 연습 장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그마한 문화공간들이 곳곳에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운영이나 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러한 공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두 번째 참여 시간에는 갑자기 송도와 영종도에서의 회의 일정이 잡혀서 겹친 일정으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늦게라도 참석하려는 마음으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소프지니 선생님의 발성법 특강과 함께 개인 교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에서 문화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토요일 공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억지로 시간을 냈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이러한 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나라에 비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범이 꿈꾸었던 경제 강국이 아닌 문화 강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세 번째 참여 시간에는 겹친 일정을 서둘러 마치고 연습 시간에는 늦지 않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참여 시간에는 조금씩 늦었습니다. 총 5번 참석한 연습 중에서 두 번을 늦었으니, 성실한 참여는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참석하여 결석은 하지 않은 것에 만족합니다.
5.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그리고 여러 스탭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휘자님이 생각을 공유하자면서 들려주시던 여러 말씀들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음악에 대한 열정에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사 후에 시간과 일정 조정해서 꼭 한 번 식사로 모시겠습니다.
6. 함께 모임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나타나는 혼탁하고 불안정한 사회의 단면들은 그저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 서울시인지 강북구인지 이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작고도 적지만 이러한 모임들이 모이고 모여 문화 강국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경험과 추억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활찬(김 여 산 선생님)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나게 하는 브라보마이라이프 중창단과의 만남이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되었고 짧은시간에 재미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지도하시는 민감독님과 천사 같은 직원들 그리고 최고의 실력과 센스를 가지신 반주자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오랫동안 잊지못할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브라보마이라이프 담당자 이 유 진

함께한 우리 브라보마이라이프 선생님들, 2달이라는 꿈 같았던 짧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몇분이 참여하실지 몰라 발동동 구르던 시간이 생각나네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출석률도 열정도 최고인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뵈 때마다 저희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몽클한 순간들 잊지 못할거예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힘내어 열심히 살아오신 선생님들이야 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이십니다. 늘 온화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어주시어 감사합니다. ♥

브라보마이라이프 프로젝트매니저 이 동 신

중년남성을 위한 생활합창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중년 남성은 잘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아래 소외가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브라보마이라이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동기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 뿐 우리 아버지들도 이러한 즐거운 경험을 원하시는구나 새롭게 시야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합창힐링프로젝트 브라보마이라이프는 이분들에게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온 인생을 나누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함께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참여하는 동안 정말 즐거웠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앞으로 장기적지속이 되어 우리의 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이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브라보마이라이프 프로젝트 반주자 양 은 총

브라보마이라이프 합창단원분들을 도와드리러왔다가 오히려 그분들의 열정과 다함께 마음을 모아 노래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받았습니다. 익숙한 가사들도 브라보마이라이프 단원분들이 부를 때에는 특별한 힘이 실려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노래하고 표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합창단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번역서적

-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장경철 외 1인 역. 서울: 홍성사, 2001.
- C.S 루이스. *인간폐지*. 이종태역. 서울: 홍성사, 2006.
- M. 스캇 펙,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박윤정 역. 서울: 율리시즈, 2012
- 공자. *논어*. 김형찬 옮김. 서울: 홍익출판사, 1999.
- 니콜라스 윌터스코프.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 니콜라스 윌터스코프. *행동하는 예술*. 신국원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0.
- 니콜라스 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최지향 역. 서울: 청림출판. 2011.
- 낸시 피어시. *완전한 진리*. 홍병룡 역. 복있는사람, 2006.
- 데이비드 웰스. *신학실증*. 김재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 로버트 C 캐슬린, M. 하긴스. *세상의 모든 철학*. 박창호 역. 서울: 이론과실천, 2007.
- 로버트 H. 미첼, 목회와 교회음악, 지형범 역, 서울: 도서출판 가이드포스트, 1995
- 로버트 루트벤스타인, 미셸 루트벤트다인. *생각의 탄생*. 박종성 역. 서울: 에코의 서재, 2007.
- 로완 윌리엄스, *인간이 된다는 것*. 이철민 역. 서울: 도서출판 복 있는 사람, 2019
- 리처드 니버. *그리스도와 문화*. 홍병룡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8.
-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레오 니오니. *프레드릭*. 최순희 역. 서울: 시공사, 1999.

마셜 맥루언. *미디어의 이해*. 김성기 역. 서울: 민음사, 2002.

마르틴 부버. *나와 너*. 김천배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77.

마이클 고힌,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세계관은 이야기다*. 윤종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
학생회출판부 2011.

마이클 카드. *땅에 쓰신 글씨*. 황병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3.

마이클 프로스트. *성육신적 교회*. 최형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마이클 프로스트·앨런 허쉬. *새로운 교회가 온다*. 지성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마이클 호튼.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말콤 글래드웰. *다윗과 골리앗*. 선대인 역. 서울: 21세기북스, 2014.

브라이언 왈쉬, 실피바 키이즈마트. *제국과 천국*.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11.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시형 역. 서울: 청아출판사, 2005.

요한 하위징아. *호모 루덴스*. 이종인 역. 서울: 연암서가, 2010.

유진 피더슨. *그 길을 걸으라*. 양혜원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07.

유진 피더슨. *현실, 하나님의 세계*. 이종태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6.

야로슬라프 펠리칸. *성서, 역사와 만나다*. 김정민, 양세규 역. 서울: 타임교육,
2017.

에리히 프롬.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장혜경 역. 서울: 나무생각, 2016.

에릭 부스. *음악을 가르치는 예술가*. 오수원 역. 서울: 열린책들, 2017.

- 앤디 크라우치. *컬처 메이킹*. 박지은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 알랭 드 보통 · 존 암스트롱. *영혼의 미술관*. 감한영 역. 서울: 문학동네, 2013.
- 알버트 윌터스.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2.
- 오스 기니스, *소명*,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0.
- 올리버 섹스. *뮤지코필리아*. 장호연 역. 서울: 알마, 2008.
- 조너선 섹스. *차이의 존중-문명의 충돌을 넘어서*. 임재서 역. 서울: 말글빛냄, 2007.
- 조던 B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강주현 역. 서울: 메이븐, 2018.
- 제레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서울: 민음사, 2010.
- 제임스 K.A 스미스. *누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박삼중 역. 서울: 살림, 2009.
- 제임스 K.A 스미스. *습관이 영성이다*. 박세혁 역, 서울: 비아토르, 2018
- 체피 보르사치니. *엘 시스템아, 꿈을 연주하다*. 김희경 역. 서울: 푸른숲, 2010.
- 크로스웨이 ESV 스테지 바이블 편찬팀. *ESV 스테지 바이블*.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 마이클 고힌. *성경은 드라마다*. 김명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 팀 켈러. *설교*. 채경락 역. 두란노, 2016.
- 파커 팔머.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0.
- 프란시스 웨퍼. *예술과 기독교*. 김진선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 프란시스 웨퍼. *프란시스 웨퍼전집1. 기독교 철학 및 문화관*. 문석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폴 마샬.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김재영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0.

폴 트루니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강주현 역. 서울: 포이에마, 2014.

폴 트루니에. *폴 트루니에의 치유*. 정동섭 외 1인 역. 서울: CUP, 2007.

헤럴드 베스트. *신앙의 눈으로 본 음악*. 하재은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5.

한스 로크마커. *예술과 그리스도인*. 김진선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한스 로크마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김유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3.

힐러리 브랜드 · 아드리엔느 채플린. *예술과 영혼*. 오윤성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04.

한국어서적

권정생. *강아지 똥*. 서울: 길벗어린이, 1996.

김기석. *삶이 메시지다*. 서울: 포이에마, 2010.

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서울: 해냄출판사, 2020.

김수경.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서울: 두란노, 1993.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서울: 다산글방, 2002.

김요한. *예술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서울: Korea.com, 2011.

김진영. *김진영동요집*. 서울: 교문사, 2009.

문성모. *민족음악과 예배*. 서울: 도서출판 한들, 1995.

민정웅. *농촌목회란 공허한 마을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1995.

- 박성현.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서울: 심블리쿠스, 2011.
- 선소리산타령보존회. *한국고전음악선집*. 선소리산타령보존회, 1981.
- 선한용. *시간과 영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손석춘.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쓸까*. 서울: 도서출판 낮은산, 2015.
- 신광은. *메가처지를 넘어서*. 서울: 포이에마, 2015.
- 오연호.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서울: 오마이북, 2014.
- 오종우. *예술수업*. 서울: 어크로스, 2015.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3.
- 이지성. *에이트*. 서울: 차이정원, 2019.
- 엄성은. *애들이 전래 동요 부르자*. 서울: 플라잉피그코리아, 2009.
- 장기범 외 9인. *초등학교 음악 5-6*. 서울: 미래엔, 2015.
- 정성모. *다시 생각해야 할 한국교육의 신화*. 서울: 학지사, 2012.
- 정현주 외 공저.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2006.
- 조경진. *예술은 어떻게 거짓이자 진실인가?*. 서울: 사람의무늬, 2016.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04.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08.
- 조병호. *통바이블*. 서울: 도서출판통독원, 2017.
-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07.
-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최혁. *나의 찬송을 부르라*. 서울: 규장문화사, 1994.

한명희. *영성과 교육; 21세기 대안교육을 위하여*. 서울: 학지사, 2007.

한병철.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함민복.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서울: 창비, 1996.

함석헌.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산다*. 서울: 한길사, 1976.

함석헌.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서울: 한길사, 1976.

사전

구약원어대조성경

문학비평용어사전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한국민속문화사전(민요편).

논문, 잡지, 기타간행물

김명실, “기독교 성찬성례의 사회윤리적 책임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1집, 2014

민경찬. “현대교회에 나타난 새로운 예배 음악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장로
회신학대학교, 2001.

최성진. “기독교 유아교사를 위한 영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이화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박은혜. “이미지 사용에 대한 기독교교육 방법에 적용 논의.” 기독교교육정보,
111-30.

최성진. “기독교 유아교사를 위한 영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이화
여자대학교대학원, 2018.

- 유은숙. “누리과정과 연계한 리듬중심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가능성 탐색 - 만5세 유아를 중심으로.” 아동학박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 2016.
- 박성관. “새로운 무신론'에 대한 한 그리스도인의 변증-기독교와 무신론.” 문화선교연구원, 2014.
- 최철호. “더불어 사는 삶 마을 밝은 누리.” 제90호. 2018년8월9일.
- 박은주.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하는 유아세계시민교육.”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 2018년 제18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Kyoungchan Min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Aug.11, 1971

Parent`s Names: Jungwoong Min and Sooyoung Yim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College of Education Uijeongbu High School Nokyang-ro, Uijeongbu, Gyeonggi-do 29, South Korea.	Diploma	Feb. 12, 1988
Collegi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in-gu, Gwangjin-gu, Seoul, Korea	B. M.	Feb.12, 1998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in-gu, Gwangjin-gu, Seoul,Korea	M. Div.	Feb. 7, 200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Kyoungchan Min

Name typed

March 12. 2020

Date